

제5장 근대태동기

제1절 행정조직

1. 지방제도의 개편

조선조 15세기 전반에 국경선이 확정됨에 따라 전국이 8도체제로 정비되면서 군현의 하급 행정체제를 전국적으로 통일하려고 하였으나, 단시일 내에 성취하지는 못하였다. 명실상부하게 전국적으로 실시되기는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17세기에 이르러서야 전국적인 범위 내에서 그 시행과 발전을 보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당시 경주의 입내였던 기계현·신광현·죽장현이 기계면·신광면·죽장면으로 행정구역단위가 개편되어 경주부의 직속 행정면이 되었다.

17세기경 면리제가 전국적인 범위에서 시행 발전을 보게 될 때 경상도 지방에서도 1669~1789년 사이에 군현의 직속 하급 행정단위로서 면(面)과 방(坊) 및 동(洞, 里)으로 정리되었다. 결국 1789년(정조 13)에 이르러 《호구총수(戶口總數)》의 작성 시에 일단 면리제가 통일되었다.

원래 면은 조선중엽부터 하나의 지방 자치적인 역할을 한 행정단위로 발전되어 온 것 같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경외(京外)에는 5戶를 統으로 하여 여기에는 ‘통주(統主)’가 있고 매 5통에는 ‘이정(里正)’이 있으며 또한 매 일면(一面)에는 ‘권농관’이 있는데, 땅이 넓고 민호가 많은 곳은 그 양(量)을 더하였다는 구절이 있거니와, 이로 미루어 오늘의 면은 조선시대의 ‘권농관’ 배치지역부터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개항 이후 꾸준히 진전되어 온 근대적 개혁운동은 갑신정변과 동학농민혁명운동이란 역사적 경험을 통해 성숙되던 중 1894년(고종 31) 근대적 내정개혁인 갑오경장이 온건개화 세력의 주도과 일본측의 개혁권고에 의해 추진됨으로써 제도적으로 정착되었다. 제1차 개혁에 뒤이어 1895년에는 제2차 개혁이 단행되었으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5월 지방제도의 개혁이었다.

그동안의 전국 팔도제를 폐지하고 이를 23부로 크게 개편하였다. 부 밑에는 종래 목·부·군·현 등 병렬적으로 복잡하게 다기화 되어 있던 행정단위를 폐합, 336군으

로 일원화하여 간소화하였으며, 각 부에는 관찰사를 두고 각 군에는 군수를 두어 다스리게 하였다.

당시 영일만 포함지역의 흥해군·영일현·장기현은 모두 흥해군·영일군·장기군의 군명으로 통합되어 경주군과 함께 동래부(東萊府)에 속하였으며, 청하현은 청하군이 되어 안동부에 소속되었다.

이 지방제도는 1896년 8월 다시 개정 공포되어 23부제가 폐지되고 도제가 부활되어 한성부를 제외한 전국 지방행정구역이 13도 7부 1목 331군으로 바뀌었다.

종래의 8도에서 더 늘어난 당시의 13도는 제주도를 제외한 해방 후의 행정구역과 꼭 같은 것이었다. 이 때 포함지역의 4개 군은 경상북도의 관할구역(41군)이 되었다. 그리고 영일군은 연일군으로 개칭되었다.

이후 경주군에 속해 있던 기계면, 신광면, 북안(北安)면 일부가 1906년 9월 24일 반포된 칙령에 의해 흥해군으로 속하게 되어 흥해군은 8면에서 11면으로, 경주군의 죽장면이 죽남면(竹南面)과 죽북면(竹北面)으로 분면되어 청하군에 편입되어 6면에서 8면으로 증면되었다. 그리고 경주군의 北道면(陽北면, 장기군에서 內南면으로 개칭)과 南道면(陽南면)이 장기군에 흡수 편입되고, 북면이 내북면(內北面)과 외북면(外北面)으로 분면되어 4면에서 6면으로 개편되었다. 이후 청하군은 1909년 10월 25일에 남면을 폐하고 동면에 합하여 7면이 되었다.

2. 행정구역의 변천

1900년 이전의 이 고장 행정체제 중 면리구역의 변화를 《구읍지》의 기록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동경잡기》(1669 전후) · 《경주부읍지》(1789~1791)

| | | |
|-----|--------------|--|
| 기계현 | 3방(坊) 21동(洞) | |
| | 坊里 | 縣內, 踏溪, 北館, 禾北, 七星, 華柱, 鶴何洞, 文城, 臥旨, 古尺巖, 祝聖洞, 伐致洞, 之柯谷, 鶯川, 古通谷, 大坪, 貫巖, 太華, 龍田, 勿栗, 吾道旨(古 省法部曲지역으로 현 吾德里 · 塔亭里 · 省法里지역, 필자주) |
| 신광면 | 1방 14동 | |
| | 坊里 | 麻助, 冷水亭, 竹洞, 上邑, 下邑, 新基, 凡村, 加尺, 介旨, 士味, 地德, 馬北, 基谷, 陸驛 |
| 죽장현 | 1방 9동 | |
| | 坊里 | 甘谷, 亭子, 番洞, 縣內, 仍排, 佳士川, 豆麻峴, 上玉溪, 下玉溪 |

후대로 내려올수록 동리수가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볼때 《호구총수》의 동리수가 《경주부읍지》의 동리수보다 많기 때문에 《경주부읍지》의 것이 《호구총수》의 것보다 앞선 시기의 행정 동리명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방(坊)’에 관한 것은 1933년의 《경주읍지》에 기록된 것으로 기계현의 경우 현내(縣內)에서 개동(介洞)까지 일방(一坊, 읍치와 杞東지역), 와읍지(臥邑旨)에서 거곡(擧谷)까지 일방(杞西와 杞南지역), 고통곡(古通谷)에서 대사동(大寺洞)까지 일방(杞北지역)으로 모두 3방임을 지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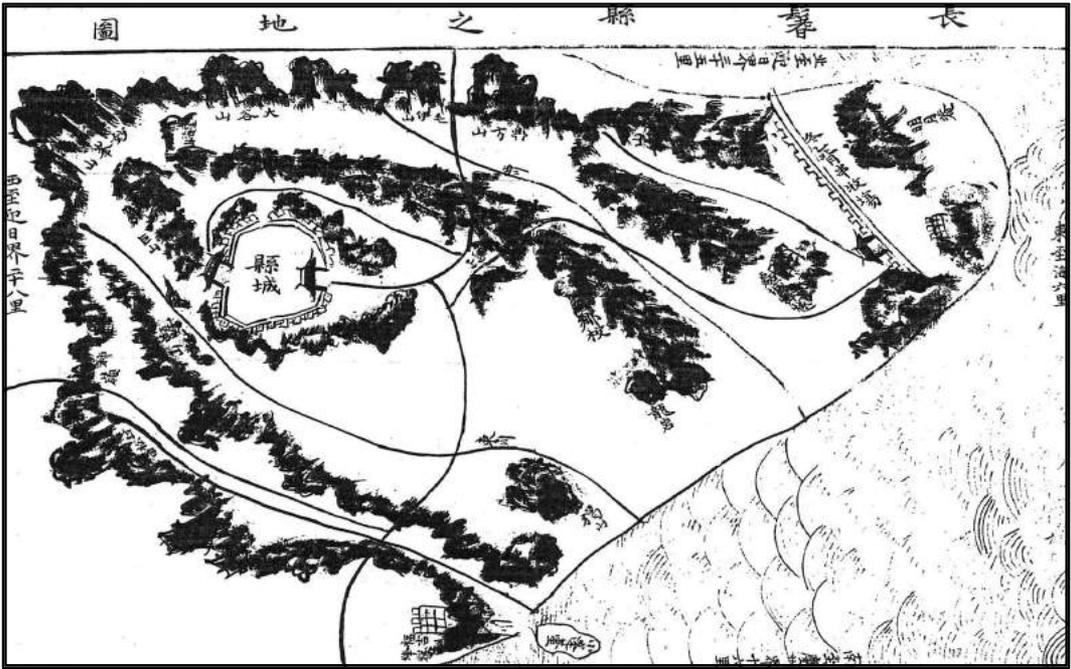
이 읍지는 영조조의 류의건(柳宜健, 1687~1760)이 편찬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주읍지》초본을 바탕으로 편찬하였고, 기계현·신광현·죽장현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읍지의 편찬연대는 면리제 실시로 기계면·신광면·죽장면이 경주부의 직속 행정구역으로 개편되었던 1789년의 《호구총수》의 연대보다 훨씬 앞서는 17세기 1669년 《동경잡기》의 전후시기로 여겨진다.

당시 기계현의 오도지(吾道旨)는 경주 내속의 고성법부곡(古省法部曲)이 동명화 되어 기계현의 직촌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것으로 현 오덕리·탑정리·성법리지역을 범위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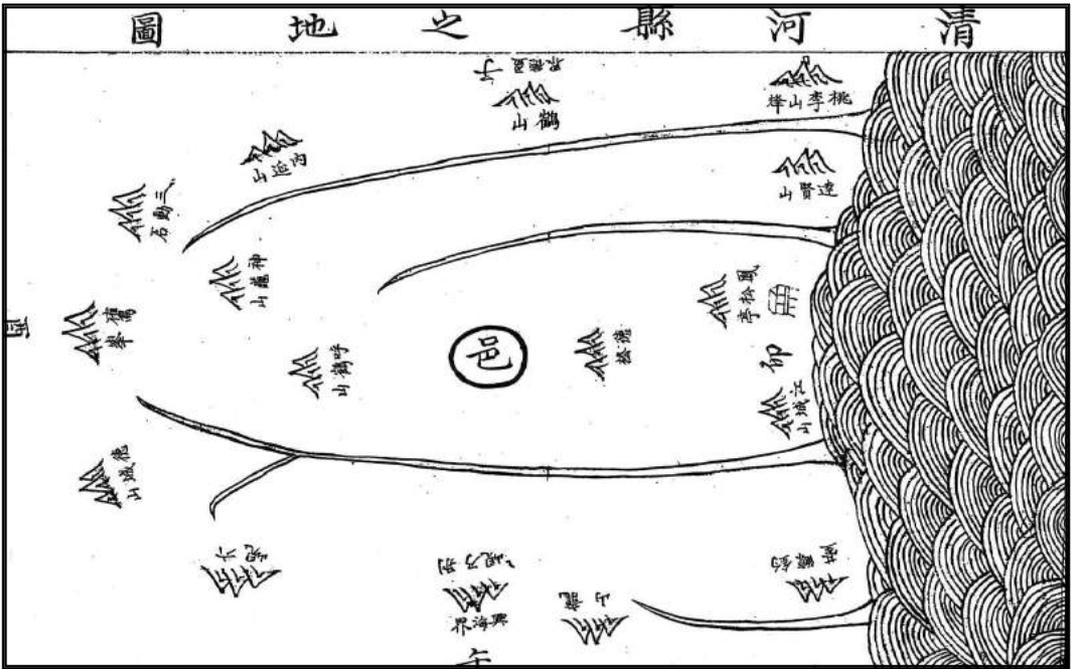
2) 《여지도서》(1765)

| | | |
|-----|----|---------------------------------|
| 홍해군 | 8면 | 東部, 西部, 北上, 北下, 東上, 東下, 南面, 西面 |
| 영일현 | 8면 | 邑內, 夫山, 驛面, 古縣, 南面, 舊邑面, 西面, 北面 |
| 장기현 | 3면 | 邑內面, 西面, 北面 |
| 청하현 | 6면 | 縣內面, 東面, 南面, 西面, 北面, 驛面 |

장기현지도 (1765년)



청하현지도 (1765년)



3) 《호구총수》(1789년)

| | |
|-----|--|
| 홍해군 | 8면 99리 |
| | 방리 東部面 14리(馬場里, 鰲山, 城隍, 梨花, 新城, 官城, 闊泉, 曲城, 北門外, 中, 南門外, 神堂, 城南, 驛里), 西部面 13리(洞北, 松亭, 馬山, 上中, 下中, 藥田, 北門外, 中興, 社, 玉, 南門外, 筏川, 鄉校里), 北上面14리(勝谷, 梅谷, 箕山, 龍淵, 釜谷, 德谷, 內白山, 外白山, 耳谷, 長生, 龍泉, 長者, 德山, 新坪里), 北下面 13리(龍所, 金沙, 新潭, 壯洞, 松亭, 靑津, 包伊津, 魴魚津, 檢丹, 島項, 柒浦, 方近, 龍江里), 東下面 12리(大道, 竹別, 知乙, 牛目丘尾, 小汗, 九德, 汝口, 鳳林, 書院, 松洞, 南休, 忘谷里), 東上面 12리(新興, 余川, 阿伊, 蒼浦, 城谷, 水桶, 豆毛致, 鋤末, 汗者津, 汝音, 牛口末, 針村里), 西面 5리(城下, 冷泉, 川上, 草谷, 七印亭里), 南面16리(初, 於堤, 蓮花, 德城, 大谷, 鑰店, 達田, 廣方, 自方, 新安, 燈明, 江陽, 竹田, 兄江, 扶助, 柳等里) |
| 연일현 | 8면 82리 |
| | 방리 邑內面 11동리(鄉校, 東門內, 西門內, 南門內, 黃龍川, 烏川, 唐士, 反浦, 生旨, 松亭, 松內), 北面 10리(注暫, 大興, 得良, 論谷, 茂所, 堀巖, 臥谷, 柳等, 孝子, 大岑), 西面 6동리(中明, 院洞, 中丹, 宅前, 照朴洞, 沙加谷), 舊邑面 3동리(城外, 城內, 愚伏), 驛面 2리(松下, 上), 南面 11동리(公須, 長, 檢洞, 射亭, 大覺, 山余, 上松, 下松坡, 五政, 德溪, 堤內), 夫山面 17리(世界院, 日光, 藥田, 亭泉, 中, 造士津, 林谷, 白德, 立巖, 馬山, 蓮花, 下坡谷, 稷串, 件山, 大冬背, 浦川, 鼎足), 古縣面 21동리(虎洞, 玉明, 仁德, 書院, 仙原, 竹田, 文德, 新基, 新坪, 古羅, 洞下, 恒沙, 文忠, 葛坪, 陳田, 龍山, 光明, 龍德, 舊政, 日月, 靑林) |
| 장기현 | 3면 86방 |
| | 방리 縣內面 35坊(城內, 上城北, 下城北, 上馬山, 下馬山, 明莊洞, 下綱勿谷, 上綱勿谷, 禾用浦, 笠巖, 竹下, 倉巖, 松魚九末, 梁浦, 黃戒九末, 小蓬堡, 院下, 赤石, 求永, 板孔, 城皇堂, 鳴旨, 德林, 坪里, 林中, 驛里, 新飯(?)淳, 西大谷, 中返, 中山, 麻斤談, 槐木亭, 平等, 八於谷, 巨山坊), 西面 15방(蘆谷, 凡毛, 於津, 大竿田, 包伊浦, 柒田, 淺乙, 朴谷, 鶴三, 返禽, 倉旨, 大谷, 下鼎, 中鼎, 鼎坊), 북면 36방(下城北, 上城北, 達吉, 孔堂, 中陽, 上孔堂, 上陽, 大朴谷, 烽燧洞, 中興, 明月, 甫川, 大川, 沙只, 江琴, 石邊, 豆日, 三政洞, 新綱, 中盡, 滄洲, 下丙洞, 丙浦泛, 訥台谷, 許谷, 上柄洞, 堂士, 免(?)只, 獨大浦, 松亭, 臨勿, 都已井, 松吉, 長立, 丘坪, 烏巖坊) |
| 청하현 | 6면 55리 |
| | 방리 縣內面 15리(校洞, 東門外, 上筆峰, 蓮洞, 觀德, 南川, 下筆峰, 花枝洞, 鰲頭, 外揮羅, 中揮羅, 月牙丘, 介浦, 小斤浦, 方魚津), 東面 6리(白巖, 二加老, 三音津, 番峴, 蘇洞, 虎巖里), 南面2리(古縣, 梨長里), 西面 15리(下大坪, 上大坪, 甘井, 金井, 安心, 新安, 鳥巖, 西溪, 中, 黃巖, 柳川, 火田, 內清溪, 外清溪, 龍田里), 북면 13리(上廣, 下廣, 新原, 廣川, 山嶺田, 斗音谷, 古松羅, 西皮末, 大津, 獨石, 芳華, 祖師津, 地津), 驛面 5리(館洞, 松泉, 上松溪, 中松溪, 下松溪) |
| 기계면 | 22리 |
| | 방리 古通, 上芝柯, 巨山, 吾刀旨, 龍田, 大坪, 貫巖, 太華, 銀川, 駕川, 仁庇, 縣內, 北館, 踏溪, 禾代, 七星, 花溪, 何也, 文星, 臥旨, 高尺, 伐致洞里 |
| 신광면 | 22리 |
| | 방리 冷水亭, 碧巖, 興谷, 堂內, 竹洞, 松洞, 中角, 土城, 中城, 上邑內安地, 洞下, 地德, 基日, 馬北, 立岩, 九萬, 土味, 芽亭, 加尺, 花巖, 元村, 陸驛里 |
| 죽장면 | 15리 |
| | 방리 山峴, 甘谷, 佳士, 巨洞, 吾舍, 上玉溪, 下玉溪, 縣內, 仍排, 小月川, 伏頭巖, 豆腐峴, 上芝坪, 下芝坪, 亭子洞里 |

‘호구총수’란 현대 인구조사에 의한 인구통계와 같은 것으로서 매 3년마다 작성하는 것이 통례였다. 각호 가정의 호구신고에 의한 호구실수를 조사하여 기록한 관찬자료로서 각기 그 행정구역에 속하는 면수, 동명, 이수(里數)를 표시하고, 호구수는 원호수(元戶數)와 인구수 그리고 성별에 따른 남녀의 수도 표시하고 있다.

《호구총수》는 같은 시대의 영일권 전 고을의 호구수, 면리수, 및 마을명을 접하게 하는 최초의 것으로서 영일권의 행정구역 변천사와 마을 유래를 고찰하는 데 있어서 그 사료적 가치는 매우 크다. 특히 흥해군의 면리가 호구총수(1789)에만 조사되어 있고 그 이후부터 1890년대 조선말엽까지 까지 자료가 보이지 않고 있어서 흥해군의 면리 자료로서는 절대적이다. 흥해군의 면리명도 포함지역의 다른 현과 같이 행정구역의 변화에 따라 자주 변경되었다고 본다. 그 실례를 들면 1876년의 호적단자에 보면 병인양요시 사병창의문(士兵創義文)을 작성한 김천익(金天翼, 1796년생)공의 호적단자에서 흥해군 남면에 화평동(禾平洞)이란 마을 명이 발견된다. 1789년의 호구총수에는 강양동(江陽洞)과 형강동(兄江洞)이 나오며, 이들 마을 명이 화평동으로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 이 마을 은 오늘날의 연일읍 유강동과 자명동 입구 마을로 보인다.

한편 영일현에서 포함의 지명이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된 것은 1731년(영조7년) 국 가진흥창, 포함창진(浦項倉鎭)을 설치하면서 창진이 설치된 마을 이름을 기존의 영일현 북면의 대흥리(大興里)를 포함리(浦項里)로 개칭하고, 창진의 이름을 포함창진(浦項倉鎭)으로 등재한데서 비롯되었다. 대흥동명은 1731년 이후 사라졌다가 1945년 광복 후 포함동을 대흥동으로 회복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4) 《경상도읍지》(1832년)

《경상도읍지》는 사료적 가치가 높아 특히 경상도 지방의 행정구역 개편과 마을 유래를 고찰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자료의 사료적 가치가 안타깝게도 포함지역의 가장 큰 고을로 내려온 흥해군의 행정구역의 변천을 면수만 8면 그대로 나타내고, 마을명과 마을수를 누락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구한말까지의 모든 흥해군 읍지가 동일하여 새로운 사료가 나오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흥해군의 행정구역 변천을 밝히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경상도읍지》 영일현읍지에 의해서 오랫동안 궁금하였던 ‘섬안’과 3호(湖) 5도(島)라는 명칭 및 대흥동과 포함동과의 관련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게 되었다. 영일현 북면에 나타나는 ‘도내리(島內里)’가 바로 한글로 ‘섬안마을’인 것이다. ‘섬안’이란 마을명을 한자화 한 것이 ‘도내(島內)’이다. 따라서 포함에서 가장 오래된 섬마을 명칭이 바로 ‘섬안 마을’이다. 이 도내리가 수십 년이 지나면서 확대 발전하여 1871년의 《영남읍지》 영일현읍지에서는 5개의 섬마을로 분동하게 된다.

| | | |
|-----|----------------------------------|---|
| 홍해군 | 면수는 8면 그대로이며, 동리수와 동리명은 나와 있지 않음 | |
| 영일현 | 7면 78리 | |
| | 방리 | 읍내면 16리(西門里, 東門, 南門, 生旨, 北里, 新中, 新興, 永春, 唐仕, 烏川, 黃龍, 長興, 正興, 島內, 松內, 松亭里), 북면 9리(浦項里, 得良, 茂所, 論谷, 大岑, 孝子, 柳等, 臥谷, 屈岩里), 서면 7리(中明里, 扶助, 院洞, 沙加谷里, 中丹, 宅前, 照里), 남면 13리(城內里, 城外, 牛伏, 公須, 長洞, 梅內, 射亭, 大覺, 山余, 上松, 下松, 德溪, 堤內里), 고현면 13리(虎洞里, 玉明, 書院, 仙原, 竹田, 文德, 龍山, 文忠, 葛坪, 光明, 龍德, 日月, 青林里), 부산면 18리(世界院里, 細谷, 井川, 中里, 都丘, 藥田, 林谷, 白德, 立岩, 馬山, 上興, 下興, 皮串, 余士, 爭川, 大冬背, 居士, 甫川里), 역면 2리(上里, 下里) |
| 장기현 | 3면 37리 | |
| | 방리 | 현내면 13리(城北里, 馬山, 明莊洞, 林中, 驛里, 琴谷, 竹下, 倉岩, 板孔, 小峯臺, 院下, 八魚谷, 巨山里), 서면 10리(蘆谷里, 柒田, 包伊浦, 灘里, 朴谷, 鶴三, 返禽, 倉旨, 大谷, 鼎坊里), 북면 14리(下城北里, 孔堂, 大朴谷, 巴谷, 烏岩, 丘坪, 長丘, 柄洞, 後洞, 士羅津, 三政洞, 石邊, 沙只, 甫川里) |
| 청하현 | 6면 59리 | |
| | 방리 | 현내면 14리(東門外里, 校洞, 德城, 下筆峯, 花枝洞, 鰲頭, 月牙丘, 外揮擢, 中揮擢, 介浦, 小斤浦, 方魚津, 觀德, 南川里), 동면 6리(白巖回里, 二加老津, 靑津, 蕃峴, 所洞, 虎岩里), 남면 3리(古縣里, 梨長洞, 梨谷里), 서면 15리(上大坪里, 下大坪, 金井, 安心, 中里, 黃岩, 柳川, 大田, 內清溪, 外清溪, 甘井, 西溪, 新安, 鳴岩, 艾田里), 북면 14리(上廣洞里, 下廣洞, 山令田, 屯谷, 地境, 古松羅, 西皮末, 大津, 祖師, 中里, 書院, 洞口, 僧方洞, 獨石津里), 역면 7리(館洞里, 松泉, 外一洞, 外二洞, 外三洞, 芳華洞, 光川里) |

기계면, 신광면, 죽장면의 방리명은《호구총수》(1789)의 기록을 못보고 《동경잡기》(1669)의 것을 그대로 전제하고 있음. ※《경상도읍지》의 우리고장 지도는 1999년 《포항시사》참조.

영일현 부산면에 처음 나타나는 마을 명으로 주목되는 곳은 세곡(細谷)과 도구(都丘)마을이다. 세곡은(현 오천면 세계리) 연오랑 세오녀 일월신화의 주인공이 실제 거주하였던 곳이며, 도구는 연오랑 세오녀 일월신화에 나오는 제천지 도기야를 지칭하는 마을이기 때문이다. 어떠한 행정구역 개편으로 새 명칭이 이루어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오늘날의 오천읍 세계1리와 동해면 도구리 지역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장기현의 리동수가 크게 줄어든 것이 눈에 띄이는데, 이는 방(坊)을 리동(里洞)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마을들을 통합한 결과로 추정된다.

5) 《영남읍지》(1871년)

《영남읍지》는 《경상도읍지》와 비교해 볼 때 사료로서의 신빙성이 약한 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이 읍지가 대부분 이전의 읍지를 그대로 전사한 데서 연유한다. 한편 《영남읍지》 사료적 가치는 읍지의 뒷부분에 첨부되어 있는 읍사례(邑事例)와

진지(鎭誌)·역지(驛誌)·목장지 등이 있다. 《영남읍지》의 양식은 1832년의 《경상도읍지》와 1895년의 《영남읍지》의 중간적인 위치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 | |
|-----|------------------|--|
| 흥해군 | 면수는 《경상도읍지》와 같음. | |
| 영일현 | 7면 104리 | |
| | 방리 | 읍내면 10리(포항리, 득량, 학잠, 논곡, 이동, 효자, 무소, 굴암, 지곡, 유등리), 고읍면 18리(동문리, 서문, 남문, 북문, 생지, 신흥, 영춘, 당사, 북리, 오천, 장흥, 송내, 송정, 해도, 상도, 하도, 분도, 죽도리), 서면 7리(分明里, 중명, 원동, 중단, 택전, 인주, 沙加里), 남면 18리(聖좌리, 성내, 우복, 공수, 사정, 장동, 관동, 덕동, 흥계, 건덕, 대각, 상송, 산여, 하송, 덕계, 五政, 新川, 제내리), 고현면 22리(호동리, 옥명, 水角, 인덕, 상원, 하원, 죽전, 학산, 신기, 新坪, 新光, 문충, 文成, 광명, 용산, 용덕, 구정, 일월, 청림, 향사, 진전, 갈평리), 부산면 27리(세계리, 신흥, 일광, 도구, 입석, 약전, 중리, 염정, 정천, 금광, 조사, 저동, 입곡, 흥덕, 입암, 마산, 연화, 상흥, 하흥, 직곶, 件山, 여사, 居士, 鼎足, 쟁천, 구만, 보천리), 역면 2리(상리, 하리) |
| 장기현 | 3면 29리 | |
| | 방리 | 현내면 12리(성북리, 마산리, 명장리, 임중리, 역리, 금곡리, 죽하리, 창암리, 판공리, 소봉대리, 원하리, 팔어곡리), 서면 9리(노곡리, 칠전리, 포이포리, 박곡리, 학삼리, 반금리, 창지리, 대곡리, 정방리), 북면 8리(하성북리, 공당리, 대박곡리, 長口目里, 병동리, 후동리, 사라진리, 삼정동리) |
| 청하현 | 6면 56리 | |
| | 방리 | 현내면 14리(동문외리, 교동리, 덕성리, 관덕리, 남천리, 하필봉리, 화지동리, 오두리, 월아구리, 외휘이리, 중휘이리, 개포리, 소근포리, 방어진리), 동면 6리(백암회리, 이가진리, 청진리, 변현리, 소동리, 虎岩回里), 남면 3리(고현리, 이장동리, 이곡리), 서면 12리(감정리, 하대평리, 상대평리, 금정리, 안심리, 서계리, 명암리, 황암리, 유천리, 화전리, 내청계리, 외청계리), 북면 13리(상광동리, 하광동리, 학산리, 北中里, 보경사, 산령전리, 둔곡리, 지경리, 화산리, 대진리, 구진리, 독석리, 조사진리), 역면 8리(관동리, 송천리, 외일동리, 외이동리, 외삼동리, 방화동리, 광천리, 成道菴里) |

기계면, 신광면, 죽장면의 방리는 1832년의 것과 같음.

앞의 《경상도읍지》와 비교하여 《영남읍지》의 방리를 보면, <흥해군>의 면수는 《경상도읍지》와 같고, <영일현>은 7면 78리에서 26마을이 늘어나 7면 104리, 장기현은 3면 37리에서 8마을이 줄어 3면 29리, 청하현은 6면 59리에서 3마을이 줄어 6면 56리가 되었고, 기계·신광·죽장면은 《경상도읍지》의 것과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1832년의 동(리)수와 1871년의 동(리)수를 비교해 볼 때 장기현이 8개가 줄어들고, 영일현이 26개 늘어난 것 이외에는 별 변화가 없이 거의 같거나 유사하다. 특히 영일현의 동리가 늘어난 것은 포항창진 설치 이후 오늘날의 포항중심지인 남부지역 등지에 새로운 마을이 상당수 개척된 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1871년 행정구역 변경에서 가장 주목되는 마을들은 1832년에 형성되어 있던 영일현 북면의 섬안(島內)마을은 명칭이 사라지고 대신 북면에 5개 섬마을이 형성된 것이다. 이는 1731년 국가 진흥창, 포항창진의 설립된 후 많은 사람들이 북면으로 이주해와 기존의 포항지역 주민과 화합하며 섬안지역을 개척하여 도내동(섬안마을)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박차를 가해 넓은 지역을 마을로 개척하여 5개의 섬마을을 이룬 결과이다. 그리하여 포항의 옛 3호(斗湖·環湖·阿湖)와 5도(竹島·海島·上島·下島·分島)가 전설적인 이야기가 아닌 사실로서 오랫동안 호수와 섬의 형태를 이루어오다가 18세기 후반 상공업발달의 시대적 기운과 포항창진 설립에 의한 영일만의 지리적 특성에 의해 마을의 형성과 발전을 보게 되었다.

6) 《경상북도읍지》(1899년경)

조선정부로서 전국적인 읍지 편찬사업을 마지막으로 실시한 것은 광무(光武)3년(1899)이다. 전국의 행정구역 개편(1896) 이후이기 때문에 표제만으로도 시대를 짐작할 수 있다. 광무 연간의 읍지편찬은 30일 이내에 작성해 올리라는 명도 있어서 전시대 읍지를 정서(精書)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읍 사례는 첨부되지 않고 각 군별로 분책되어 전한다.

흥해군의 면수는 1871년의 것과 동일하며, 연일군은 8면 102리가 되어 1면이 늘어났으나 동리는 2개가 줄었으며, 장기군은 면수는 변함이 없으나 마을이 20개 늘어났으며, 청하군은 면은 같고 마을이 4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일군과 장기군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연일군의 경우 새로 생긴 면은 고현면에서 분면한 일월면(日月面)이며, 그밖에도 면명의 변경이 있어 고읍면이 읍내면으로(1886년 대잠동에 있던 읍치를 생지동으로 다시 옮겼기 때문)변경되고, 읍내면을 동면과 북면으로 분면 개칭하며 역면을 동면에 편입하고, 부산면을 동해면(東海面)으로 개칭하였다. 그리고 종전에 영일현과 연일현으로 혼용해오던 명칭을 1895년 5월 지방제도 개혁(8도제 폐지, 23부제 개편) 때 영일군으로 확정하고, 이어 1896년 8월 지방제도 개편(23부제 폐지, 도제 부활) 때 영일군을 다시 연일군으로 개칭한 것이 주목된다. 이 두 명칭은 일제 강점기 1914년 3월 1일 전국적 행정개편시 영일은 오늘날의 포항시 전역의 확대된 군명칭으로, 연일은 영일군에 속한 축소된 면(오늘날의 연일읍)명칭으로 개칭되었다.

장기현의 경우는 북면 마을이 12개동으로 늘어나는 등 각면의 마을수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장기군에서 비교적 미개척지고 낙후되었던 북면지역 등이 근대를 맞아 개척되거나, 크게 된 마을을 분동한 데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규장각과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1899년의 《경상도읍지》의 포항지역 4군 읍지의 행정 면·리 수와 그 명칭을 보면 다음과 같다.

| 흥해군 | 방리 | 면수, 앞의 것과 같음. |
|-----|----|--|
| 연일군 | | 8면 102리 |
| | 방리 | 읍내면 18리(生旨里, 西門리, 槐亭리, 東門리, 新興리, 永春리, 唐士리, 烏川리, 北리, 北城리, 大峇리, 論谷리, 梨洞리, 海坪리, 屈岩리, 芝谷리, 柳等리, 孝子리), 서면 8리(中明리, 院洞리, 中丹리, 宅前리, 沙加리, 紉珠리, 牛伏리, 聖佐리), 남면 18리(南城리, 公須리, 長洞리, 冠洞리, 射亭리, 洪溪리, 德洞리, 大覺리, 建德리, 山余리, 上松리, 下松리, 五政리, 堤內리, 新川리, 虎洞리, 玉明리, 水覺리), 고현면 15리(仁德里, 上院리, 下院리, 竹田리, 文德里, 新基리, 神光리, 新坪리, 恒沙리, 陳田리, 葛坪리, 文成리, 文忠리, 龍山리, 光明리), 일월면 11리(靑林리, 日月리, 舊政리, 新興리, 日光리, 龍德里, 世界리, 亭泉리, 金光리, 新亭리, 中리), 동해면 17리(都邱리, 立石리, 藥田리, 猪洞리, 造士리, 林谷리, 興德里, 立岩리, 馬山리, 上興리, 稷串리, 件山리, 余士리, 大冬背리, 爭川리, 九萬리, 鼎足리), 동면 7리(長興리, 正興리, 上리, 下리, 東村리, 松內리, 松亭리), 북면 8리(上島리, 竹島리, 下島리, 分도리, 海島리, 得良리, 鶴峇리, 浦項리) |
| 장기군 | | 3면 49리 |
| | 방리 | 현내면 15리(龍田리, 上城리, 下城리, 下馬리, 明莊리, 林中리, 冠岩리, 竹下리, 倉岩리, 良浦리, 城隍리, 德城리, 瑞化리, 巨山리, 八魚리), 서면 14리(明村리, 蘆谷리, 金谷리, 倉旨리, 鼎坊리, 朴谷리, 乙溪리, 七田리, 牟浦리, 上鼎리, 中鼎리, 大谷리, 鶴三리, 滄溪리), 북면 20리(下城리, 上城리, 達吉리, 孔堂리, 下水리, 上水리, 中陽리, 大朴리, 上陽리, 中興리, 厚洞리, 訥台리, 上柄리, 下柄리, 臨勿리, 都邱리, 士羅리, 三政리, 沙只리, 大川리) |
| 청하군 | | 6면 60리 |
| | 방리 | 현내면 15리(東門外리, 校洞리, 德城리, 觀德里, 南川리, 下筆峰里, 花枝洞리, 鼈頭리, 月牙丘리, 外揮羅리, 龍山리, 中揮羅리, 介浦리, 小斤리, 方漁津), 동면 6리(白岩回리, 二加老津리, 靑津리, 藩峴리, 所洞리, 虎岩回리), 남면 3리(古縣리, 梨長洞리, 梨谷리), 서면 13리(甘井리, 上大坪리, 下大坪리, 金湖리, 安心리, 西溪리, 西中리, 鳴岩리, 黃岩리, 柳川리, 火田리, 淸溪리, 外淸溪리), 북면 15리(上廣洞리, 下廣洞리, 鶴山리, 北中리, 山嶺田리, 屯谷리, 地境리, 華山리, 大津리, 龜津리, 獨石津리, 祖師津리, 升方洞리, 洞下리, 寶鏡寺), 역면 8리(館洞리, 松泉리, 外一洞리, 外二洞리, 外三洞리, 芳華洞리, 廣川리, 成道菴) |

7) 1906~1909년의 개편

1906년 9월 24일 반포된 칙령에 의한 개편에서 눈에 띄는 것은 경주군에 속해 있던 기계면, 신광면, 北安면 일부가 흥해군으로 속하게 되어 흥해군은 8면에서 11면으로, 경주군의 죽장면이 죽남면(竹南面)과 죽북면(竹北面)으로 분면되어 청하군에 편입되어 6면에서 8면으로 증면된 사실이다.

이는 경주의 내륙 문화권과 포항의 해양문화권이 만나는 역사적 통합으로 훗날 동해안 영일만권의 발전 가능성을 이룰 큰 전환점이 된 것으로 주목된다.

당시 영일현 북면 분도리(分島里)가 연일군 북면의 대도동(大島洞)으로 확대 개칭된 것이 눈에 띈다. 이 대도동은 일제강점기 1914년 3월 1일 전국적 행정구역 개편시 인접한 하도동을 편입하여 확장된다. 그리고 경주군의 북도(北道)면(陽北면, 장기군에서 內南면으로 개칭)과 남도(南道)면(陽南면)이 장기군에 흡수 편입되고, 북면이 내북면(內北面)과 외북면(外北面)으로 분면되어 4면에서 6면으로 개편되었다.

이때 경주의 두입지[斗入地, 또는 견아상입지(犬牙相入地)라 하며, 남의 땅을 넘어간(侵入他境)지역으로 갑군(甲郡)땅이 침입을군(侵入乙郡)한 자, 즉 북두칠성 모양처럼 타읍 영내에 깊숙히 침입한 구역을 말함], 죽장면과 영천 비입지[비입지(飛入地) 또는 월경지(越境地)라 하며, 다른 읍지역으로 넘어가 있는(越在他邑) 지역으로 갑군토(甲郡土)가 을군으로 넘어가 있는(越在乙郡) 자를 말함] 및 임암봉대(立岩烽臺)가 청하군의 행정구역으로 내속되고, 경주두입지 북도면과 남도면이 장기의 행정구역으로 개편 내속된 것이 주목된다.

멀리 떨어져 있는 읍에서 가까이 인접한 읍으로 소속을 변경하는 이러한 행정구역의 개편은 근대적인 합리성을 띠는 것으로, 중세적인 통치관이나 사회적 신분관을 극복해가는 시대적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1909년(융희3년) ‘지방구역과 명칭의 변경에 관한 건’을 공포하여 부, 군, 면, 동리, 촌의 폐치분합(廢置分合)과 명칭 및 경계변경을 정하였다.

당시 청하군은 1909년 10월 25일에 남면을 폐하고 동면에 합하여 7면이 되었다.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흥해군은 유일하게 《호구총수》(1789)에서 면·리수가 밝혀져 있을 뿐, 여러 읍지에서는 마을명과 마을수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1910년 이후의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소급 유추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영일현의 경우 8면에서 7면으로 된 것은 1789년의 구읍면(1011년에서 1747년 사이의 영일현 읍치소였던 南城洞이 속한 면)을 1747년에 읍치소를 다른 지역(古邑, 1832년 《영일현읍지》 지도 참고)으로 이정한 후 남면으로 통폐합 한 때문이다.

1890년대 후반에 1면이 늘어난 것은 기존의 부산면을 일월면과 동해면으로 분면한 까닭이며, 이때 일월면에는 고현면의 구정리·일월리·청림리 등을 편입시키고, 갑오경장 이후 역제 폐지에 따라 역면(驛面)을 동면(東面)으로 개칭하였다. 그리고 장기현의 동리수 변화가 큰 폭으로 증감된 것이 특이하다. 또한 기계·신광·죽장의 1832년과 1871년의 방리는 1789년의 것을 못보고 1669년에서 1789년 사이의 것을 그대로 전재하였기 때문에 잘못 기재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들 세 고을은 1669년(《동경잡기》 작성시기)경까지 현(縣)체제로 경주의 속현으로 있다가 17세기 후반 이후 면리제가 전국적인 범위로 확대 시행을 보게 될 때 1789년(《호구총수》 작성시기) 이전에 경주의 하급 행정단위로서 面과 坊 및 洞(里)으로 정리된 것이 주목되며, 이들

고을도 1890년대 후반에 동명과 동수의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자료의 미발견으로 더 이상 밝히지 못하였다.

갑오경장 이후 1895년과 1896년 1·2차의 지방제도개혁에 의해 포함지역의 4개 군은 경상북도에 편입되고, 2차개혁 때 영일군은 연일군으로 개칭되었다.

3. 인구변화

예로부터 영일만 생활권에서 흥해군과 영일현의 인구가 1·2위로서 중심고을을 이루고 있었다. 흥해군은 조선후기 18세기 중엽까지 영일만 지역의 가장 큰 고을로서 영일현의 인구를 늘 앞지르고 있었다.

조선전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군현별 호구수가 처음 기재된 것은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志)》(1425)이다. 7년 후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의 경상도 호구조에도 《경상도지리지》의 호수와 남구수가 그대로 전제되었다. 《경상도지리지》에 의거한 각 고을의 호와 구수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경상도지리지 호구통계표(1425)

| 군 현 명 | 호 수 | 남 구 | 여 구 | 합 계 | 호당구수 |
|-------|------|--------|--------|--------|------|
| 흥 해 군 | 423호 | 1,885구 | 2,151구 | 4,036구 | 9.5구 |
| 영 일 현 | 417 | 1,742 | 1,886 | 3,628 | 8.7 |
| 장 기 현 | 203 | 813 | 923 | 1,736 | 8.6 |
| 청 하 현 | 235 | 724 | 485 | 1,209 | 5.1 |

조선초기에 나타난 호구통계는 실제 주민의 호구수와는 전혀 성질이 다르나 이것도 실제 가구수나 인구수를 구명하는 자료는 될 수 있다. 여기의 호수는 자연호가 아닌 군역(軍役) 또는 공부(貢賦)의 부과 단위로 책정된 편성호이다. 이로써 보면 당시 영일만권에서는 흥해군과 영일현의 읍세가 중심을 이루었고, 그 가운데서도 흥해군이 가장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조선후기 포함창진 설립(1731) 후부터 처음으로 영일현의 인구가 흥해군의 인구를 능가하는 큰 변화를 보게 된다. 1750년경의 《해동지도》의 호구조사와 1757~1765년의 《여지도서(輿地圖書)》의 기묘식년(己卯式年, 1759) 호구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다. 《해동지도》에서는 영일현의 원호(元戶)가 3,902호(남자 6,495구, 여자 9,751구)로 흥해군의 3,335호(남 5,683, 여 6,203)를 크게 앞서기 시작했다. (다음의 <흥해군지도>와 <영일현지도>참조)

1750년경의 영일만권 4개 군현 읍지의 축소판을 연상케하는 《해동지도》는 비록 행정구역의 마을명과 호구수가 상세히 조사된 것이 아닌 지도의 부차적인 형식을 갖 추고 있으나, 다음 표와 같이 당시 16C 중반의 호수와 구수를 밝혀주는 귀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이후의 호구통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1759년과 이후 집계된 영일만지역 4개 군현의 호구통계의 추이를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호구통계표(1750년경)

| 군 현 명 | 호 수 | 남구(男口) | 여구(女口) | 합 계 |
|-------|-------|--------|--------|--------|
| 흥 해 군 | 3,235 | 5,683 | 6,203 | 11,886 |
| 영 일 현 | 3,902 | 6,495 | 9,751 | 16,246 |
| 장 기 현 | 1,892 | 3,??? | 3,55? | ? |
| 청 하 현 | 1,779 | 3,507 | 3,906 | 5,286 |

4개 군현의 호구통계 추이

| 고을명 \ 연도 | 1759 | 1789 | 1832 | 1871 |
|----------|-----------|----------|----------|----------|
| 흥 해 | 3,555戶 | 3,520 | 3,555 | 3,390 |
| | 男 6,070口 | 남 5,669 | 남 6,070 | 남 5,857 |
| | 女 6,918口 | 여 7,231 | 여 6,918 | 여 5,500 |
| | 計 12,988口 | 계 12,900 | 계 12,988 | 계 11,357 |
| 영 일 | 3,916 | 4,015 | 3,989 | 좌와 등 |
| | 남 7,998 | 남 8,226 | 남 8,989 | |
| | 여 9,314 | 여 10,318 | 여 9,569 | |
| | 계 17,312 | 계 18,544 | 계 18,558 | |
| 장 기 | 1,890 | 2,174 | 2,239 | 2,292 |
| | 남 3,084 | 남 4,270 | 남 4,194 | 남 5,161 |
| | 여 3,589 | 여 3,868 | 여 4,337 | 여 4,399 |
| | 계 6,673 | 계 8,138 | 계 8,531 | 계 9,560 |
| 청 하 | 1,552 | 1,665 | 1,712 | 1,745 |
| | 남 2,552 | 남 3,120 | 남 3,179 | 남 3,422 |
| | 여 3,499 | 여 3,199 | 여 3,494 | 여 3,485 |
| | 계 6,051 | 계 6,319 | 계 6,673 | 계 6,907 |

※ 1871년 영일의 호구는 1831년() 조사된 것을 그대로 전재하고 있음.
위의 자료는 1759년은 《여지도서》기묘식, 1789년은 《호구총수(戶口總數)》, 1831년은 《경상도읍지》, 1871년은 《영남읍지》에서 발췌

위의 표를 보면 1759년에서도 영일현이 3,916호 17,312구(남 7,998 여 9,314)로 흥해군 3,555호 12,988구(남 6079, 여 6,918)보다 무려 361호 4,324구나 앞서게 되었으며, 이후에도 순위가 바뀌지 않고 20세기 초까지 그대로 지속되었다.

1759년은 물론 포항창진의 포항창으로 격하되는 1783년 이후에도 그 순위는 변함이 없었던 것은 포항창진의 설립과 이 고장의 인구 변동이 포항지역사회의 변화뿐만 아니라 당시의 국가 진흥구호정책과 함께 영일만지역이 전국적인 물류 중심지역으로 개척적인 삶의 터전으로서 큰 주목받게 되었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 시기 포항지역(영일현 북면지역)의 인구증가 현상을 밝힐 수 몇 가지 요인으로 첫째,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영일현 북면 갯목 안쪽에 100칸 크기로, 곡물의 평소 보관능력이 3만석, 별장 관리하의 조선(漕船) 14척, 소속된 공무원이 별장(종9품) 이하 51명에 이르는 제민대창(濟民大倉) 포항창진(1731~1784)의 설립을 들 수 있다.

둘째, 전국적인 규모의 곡식창고를 운영함에 따른 포항지역의 농·공·상의 고용인구의 증대와 새로운 생활터전의 개척으로 영일현 북면 지역으로 이주민이 급증하여 북면지역(오늘날의 대흥·용흥동과 포항종합운동장 사이의 시내 중심지역)의 농토와 염전의 개간이 확대되었다. 당시 포항으로 이주한 다수의 입항조 수가 이러한 사정을 잘 반영해주고 있다.

셋째, 18세기 전국적인 장시 발달의 시대적 기운과 포항창진 설립에 따른 형산강 하류의 형산포(兄山浦)와 포항포(浦項浦)에 영일만 상권의 중심 시장인 부조장·포항장·여천장이 전국적인 상품유통의 집산·교역·중계지가 된 데에 있다.

결국 포항창진의 설립은 오늘날 포항 시내지역을 영일만권의 생활중심지로 탈바꿈 하는데 결정적인 배경이 되어 일제강점기로 들어서면서 포항동을 경북의 새로운 도심지로 성장케 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4. 포항의 다섯 섬마을 개척

예로부터 영일만 내의 포항 중심지에는 ‘섬’자와 ‘호수’자가 붙은 마을 명이 많은 것이 특이하다. ‘섬안(島內)’을 비롯하여 죽도(竹島)·해도(海島)·상도(上島)·하도(下島)·분도(分島)의 5도와 아호(阿湖)·두호(斗湖)·환호(環湖)의 3호가 그것이다. 선인(先人)들은 다섯 섬을 ‘모두 연꽃이 물위에 떠있는 모습(皆蓮花浮水形)’으로 묘사하였다.

이 지역은 영일만과 형산강 하구에 연해 있는 지역으로서 오늘날 포항시내의 북구 지역인 아호동·두호동·환호동이 U자 모양의 작은 만 모양으로 형성되고, 남구지역에는 지대가 낮아 강우량이 많을 때나 폭풍과 해일이 일 때는 자주 침수가 되어 여러

섬 형태가 형성됨에 따라 예로부터 3호 5도의 고장으로 불려 왔다.

당시 3호는 흥해군의 영역이고, 5도는 영일현의 영역이었다. 이 가운데 3호 마을은 5도 마을 보다 훨씬 일찍이 서편 산을 배경으로 하여 형성된 것으로 모두 흥해군 동상면(東上面) 소속이었다. 18세기 후반기만 해도 당시 5도가 소속된 영일현 북면에는 효자동·학잠동·득량동·용흥동 등 서편 산쪽 마을과 포항동(전 대흥동)이 형성되어 있었을 뿐 오늘날의 포항 중심지역이 되고 있는 육거리, 오거리, 5호광장 부근지역은 마을이 형성되지 않았던 갯가 황무지였다.

포항창진이 설립된 이후 영일현 북면 포항동 주변으로 입항한 많은 유·이민들은 그들의 거주지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토착민들과 화합을 이루며 섬마을을 개척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피땀어린 노력으로 1800년대에 이르러 비로소 섬마을을 개척하여 정착하였으니 그 첫 마을이 행정구역상의 섬안마을(島內洞)이다.

이후 수십 년 동안 도내동과 사람이 살지 않는 인근 섬지역을 개척하고 농지와 염전을 개간하여 집단 거주지를 조성한 결과 19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5개의 섬마을이 형성되었다.(2절 군제의 《포항진지도》참조) 결국 3호 5도는 모두 개척되어 마을을 이룩하고 마을 명으로까지 불리어지게 되었다.

현재 아호동(현 항구동)의 명칭만 사용되지 않고, 나머지 둘의 호수마을(두호, 환호)은 그대로 사용되고, 다섯의 섬마을도 1906년 분도동(分島洞)이 확장되어 대도동(大島洞)으로 개명된 후 1914년에 하도동을 편입 통합한 한 것 외에는 모두 그대로 사용되고, 일제강점기에 이르러 향도(向島, 광복 이후 松島로 개명)가 추가로 개척되어 새로운 마을명으로 신설되었다. 지난날에 5개의 섬마을은 명칭과 위치만 달라졌을 뿐 오늘날에도 같은 수의 5개 섬마을이 그 명맥을 오롯이 이어오고 있다. 따라서 포항창진의 설립에 의한 수많은 유·이민의 이주와 섬마을의 개척은 오늘날 포항도심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포항정신의 뼈대를 이루는 개척·협동·화합정신의 구축에 큰 역할을 한데에 큰 의미를 가진다.

5. 각 고을의 읍치(邑治)이전

각 군현의 면·리수의 변화, 즉 행정단위의 변모는 18세기 이후 나타난 국내의 사회·경제체제의 변화와 19세기 외세침투의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각 고을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길잡이가 된다. 이 가운데 영일현의 경우는 대표적인 것으로 영일현의 현청이 언제 어디에서 어느 곳으로 왜 옮겼나 하는 문제는 포항시 역사의 흐름을 밝혀주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영일현의 변화를 촉진시킨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흥해·장기·청하 등과는 달리 읍치소를 자주 옮긴데 있다고 본다. 치소가 옮겨가는 곳은 자연 문물이 융성하게 되어 읍내는 물론 그 주위 마을은 발전의 형태를 갖추게 되기 때문이다. 포항 남부 섬안 지역의 발전도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지(地志)》, 각종 《읍지(邑誌)》 및 《조선왕조실록》 등 일차적 사료를 분석 종합하여 4개 고읍의 읍치 이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영일현은 ①원동〔院洞(古縣里) : 신라시대 근오지현(斤烏支縣) 읍기(邑基)〕→ ② 757년(경덕왕16) 근오지현을 임정현(臨汀縣)으로 개칭한 후 장흥동〔長興洞, 당시 대송면 구역〕→ ③1011년(고려 현종2) 남성동(南城洞, 후세에 남 구읍이라 칭)→ ④1747년(정묘, 영조23) 고읍(古邑) 장흥동 → ⑤1806년(병인, 순조6) 생지동(生旨洞) → ⑥1871년(辛未, 고종8) 대잠동(大岑洞) → ⑦1886년(병술, 고종23) 생지동

위와 같이 현청이 이전되었다고 보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현성지(古縣城址)는 신라 근오지현의 읍기였다(1929년의 《영일읍지》 ‘원동서구근오지현읍기 지금유성첩(院東西舊斤烏支縣邑基 支今有城堞)’, 둘째 영일읍성은 고려 현종 2년(1011)에 현기를 이건설 때 토성을 축성하였다(李崇仁, <迎日邑城記>《신증동국여지승람》 권23, <영일현> 성곽조), 셋째 1760년대의 《여지도서》고적조(古蹟條)에서 폐했던 고읍의 읍기를 다시 회복하였다(‘재현북7리…구폐금복읍기(在縣北七里…舊廢今復邑基)’. 넷째 영조조 정묘(영조 23년)에 고읍으로 이읍하고 고읍이 당시의 장흥리이며 영일현감은 신유한(申維翰, 1681~1752)이었다(1832년 《영일현읍지》). 다섯째 병인년(1806)에 생지리로 이건설하였다〔1832년 《영일현읍지》의 ‘병인이건우생지리(丙寅移建于生旨里)’〕는 1805년 《순조실록》 5년 6월 좌의정 서만수(徐萬修)가 경상감사 김의순(金義淳)이 영일현의 이읍하는 일의 장계를 받아 임금에게 주청하여 허락을 받아 그대로 시행토록 한 사실과 부합한다. 여섯째 경상감사 김세호(金世鎬)의 ‘영일현청은 바다에서 가깝고 조금만 큰 비를 당해도 물바다를 지나는 것 같이 되므로 현 북쪽 10리에 조금 높고 전야가 넓은 땅이 있어 지세와 민정을 함께 모아서 이설하고자 하는 청’과 신미년(1871)에 대잠리로 이건설하였다[1971년 《영일현읍지》의 ‘신미이건우대잠리(辛未移建于大岑里)’. 일곱째 1914년의 포항면은 영일현 북면 포항리와 흥해군 동상면의 일부로 이루어진 것인데, 대잠에 현청을 두었을 때는 포항리가 읍내면에, 이후 생지동에 현청이 옮겨졌을 때는 다시 북면이 생겨 여기에 소속된 것이다.

후대의 짧은 기간 동안에 생지동에서 대잠동으로, 대잠에서 생지로 읍치소를 이건설한 것은 19세기 후반 대원군 통치기의 외적의 침입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 같다. 이러한 읍치이전을 이해하는 데는 각 읍지의 영일현의 지도와 1865년 7월에 영일현 임곡진(林谷津)에 남자 16명, 여자 1명을 태운 이양선이 나타난 사실은 큰 참고가 된다.

한편 흥해군의 읍치소는 통일신라말 의창군(義昌郡, 현 흥해군)의 북미질부성(北彌秩夫城, 현 흥해읍 흥안 2동, 釣峯) 성주 환달(萱達)이 남미질부성(南彌秩夫城, 현 흥해읍 남성 3동, 池山) 성주와 같이 고려태조 13년(930) 3월에 내항함으로써 이후 두 성을 합쳐 흥해군으로 개칭하고 읍치를 오늘날의 성내동 자리에 정한 후 1011년(고려 현종 2) 석축으로 읍성을 쌓아 한번도 이기한 일 없이 내려왔다.

장기현의 경우는 현기(縣基)를 한번 옮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자료의 미접으로 확실하게 밝힐 수는 없으나 조선시대 여러 《장기현읍지》〈고적(古蹟)〉과 〈구읍기(舊邑基)〉조의 ‘재남현 2리(在縣南 二里)’란 기록을 근거로 하면, 첫 읍치소는 오늘날의 거산리 지역이었음이 산형지세와 기와파편의 유물로서 추정되며, 이곳의 현기가 현재의 읍내리와 서촌리의 지역으로 옮겨진 것은 현명과 읍치소가 대거 개칭되고 옮겨진 즉 기립(鬚立)현이 장기현으로 바뀐 고려 태조 13년(930)으로 생각된다.

청하현의 읍치소는 금정(金井, 현 西井 1리) → 하방(河芳, 현 고현 1리) → 덕성(德城)으로 2번 옮겨졌다. 첫번째 읍기인 금정은 고구려 영토시 아혜(阿兮)현의 읍치소이며, 두 번째 하방은 삼국통일 후 지방관제를 크게 개편한 경덕왕 16년(757)에 고을명을 해아(海阿)로 고쳤을 때 옮긴 읍치소이며, 세 번째의 덕성은 후삼국통일 후 고려초기에 고을명을 청하로 개칭하여 1011년(현종 2년)에 축성하였던 곳이며, 이후 고려·조선 양 시대에 걸쳐 읍치소가 되어 온 것으로 추정된다.

영일만권 각 고을의 행정중심지였던 읍치소의 이 같은 변천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점은 영일(영일)현의 읍기 이전이 가장 빈번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이는 그동안 이루어진 영일현 행정구역의 변화와 발전은 영일만 내해의 중심지로서의 역사·지리적 배경에 의한 도전과 시련을 효과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 극복해 나간 과정의 결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吏典, 〈반계수록〉 職官之制上, 《목민심서》 吏典.
 金聲重 호적부(1693년 영일현감 발행, 영일현 북면 대흥리 13통 9호), 자료소장자:경남 의창군 대삼면 모산리 김수웅,
 자료제공: 김삼일(현 포항시립극단 상임연출자)
 金天翼,〈士兵創義文〉,1866, 자료제공:김삼일
 《호구총수》해제, 서울대학교고전총서, 서울대학교출판부.
 《지방행정구역발전사》, 내무부, 1979.
 《역주고려사》제1(世家1), 동아대학교 고전연구실, 태학사, 1982.
 《역주 경국대전》戶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고종실록》권2(2년 乙丑, 1685 7월) & (7년 庚午, 1870 10월).
 《고종순조실록》상, 1986.
 《읍지》(한국지리지총서)《경상도》, ①②③④ & 《地方志》(한국지리지총서)《경주지》 ①② 아세아문화사, 1986.
 배용일,〈포항·영일의 행정구역 변천고〉《포항의 역사탐구》, 포항대학, 2006.

제2절 군 제

1. 군제개편과 경상도 및 영일권의 진관속오법 체제(體制)

조선왕조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양 국난을 겪으면서 정치·경제·군사 등 여러 면에 걸쳐 제도상의 커다란 개혁을 이루어갔다.

군제면에 있어서도 숙종(1674~1720)까지 중앙군제인 5위체제가 5영(훈련도감·총융청·수어청·금위영·어영청)체제로, 지방군제인 진관체제가 영장(營將)체제로 바뀌는 본질적인 개혁이 있었다. 임진왜란을 계기로 군사조직의 재정비가 불가피하게 되었고, 이 난국을 수습하기 위해 포(砲)·살(殺)·사수(射手)의 삼수기(三手技)를 중심으로 하는 속오법에 의해 1593년(선조 26) 7월부터 중앙에는 훈련도감의 조직정비가, 지방에는 속오군의 설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임진왜란의 와중에서 포·살·사수의 시급한 양성과 이들의 실전동원을 위해 선조 27년을 전후하여 지방 사정에 따라 속오군이 설치되었다. 속오군은 양인과 공사천민(公私賤民)이 함께 입속 되어 진영수령의 지휘 하에 군사조직과 훈련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초기에는 지방관의 이해부족으로 이렇다 할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고, 선조 29년경에 이르러서야 겨우 진영속오법이 완성을 보게 되었다.

그 편제는 1隊 11人, 3대 1旗, 3기 1哨, 5초 1司, 5사는 1營으로 하였고, 1영의 군액(軍額, 군인수)은 원칙적으로 2,500명으로 하였으나 각 리·촌의 사정에 따라 가감하였다. 대·기·초·사는 대총(大摠)·초관(哨官)·과중(把摠) 등의 지휘관을 두고 예하 군병을 지휘 통솔케 하였고, 습진(習陣)·연병(練兵)의 최고 책임자로 영장을 두었다. 그리하여 속오군의 훈련·명령의 계통을 체찰사(體察使) - 감병사(監兵使, 察使) - 진관절제사(鎭管節制使) - 동첨도위(同僉都尉) - 초관 - 기대총(旗大摠)으로 정비하였다. 이러한 진관속오법 체제하에서 경상도 속오군의 조직과 체제를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육군은 조선전기에 비해 증강되었으나 반면에 수군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위 표의 두모포와 포이포는 흥해와 장기의 수군만호진이 설치되었던 지명이 아니고 오늘날 경남 동래부근 지역을 말한다. 조선전기에 설치되었던 흥해의 칠포만호진과 장기의 포이포만호진은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으로 부산과 동래로 옮겨 설치하였으며, 칠포진은 1751(영조 27)에 혁파되었으며, 경북 동해안 지역에 설치되었던 다른 수군만호진은 부산과 동래로 옮겨다가, 오포는 1746년 이전에, 감포·축산포는 1865년 이전에 폐지되었다.

경상도 육·수군의 진관의 편성

| 관찰사 | (병사·수사겸) 감영 = 대구 | | 비고 |
|---------------------------------|--------------------------------------|-----------------------------------|---|
| 左兵使·虞侯 | 좌병영 = 울산 | | |
| 兪節制使 | 同兪節制使 | 節制都尉 | 增置巡營中軍 (정3품 당상)1인 增置後營將 (정3품) 1인 |
| ○ (경주진관) 경주부윤 (*병마절제사) | 울산·영천·흥해 | 청하·연일·장기·언양 | |
| ○ (안동진관) 안동대도호부사 | 영해·청송·예천 영주·풍기·순흥 | 의성·봉화·진보·군위·비안 예안·영덕·용궁·영양 | 前營將 1인 |
| ○ (동래진관) 동래도호부사 | 양산 | 기장 | |
| ○ (대구진관) | 밀양·청도·인동칠곡 | 대구(判官)·경산·하양·현풍 의흥·신령·영산·창녕·자인 | 中營將 1인 |
| 우병사·우후 | 우병영 = 창원 | | |
| ○ (상주진관) 상주목사 | 금산 | 개령·지례·고령·문경·함창 | 좌영장 1인 |
| ○ (진주진관) 진주목사 | 합천·초계·함양 곤양·거창·하동 | 사천·남해·삼가·의령 산청·안의·단성 | 우영장 1인 |
| ○ (김해진영) 김해도호부사 | 창원·함안·거제 | 칠원·진해·고성·웅천 | 別中영장 1인 |
| ○ (선산진관) 선산도호부사 | | | |
| ○ (성주진관) 성주목사 | | | |
| 統制使·우후 | (우수사겸) 통제영 = 통영 | | |
| 左水使·우후 | 좌수영 = 동래 | | |
| 첨절제사 | 동첨절제사 | 절제만호 | |
| ○ (부산포진관) 부산포(동래) 첨사(京職兼) | 서생포 | 두모포·개운포 포이포·서평포 | |
| ○ (다대포진관) 다대포첨사 | 구산포 | | |
| 우수사·우후 | (우수사 : 統制使兼) (우후 : 統虞侯兼) 우수영 = 통영 | | |
| ○ (가덕진관) 가덕첨사 | | 천성포·안배포·제포·조라포 옥포·지세포·가배량 | |
| ○ (미조항진관) 미조항첨사 | | 평산포·사랑·당포·영등포 | |

영일권의 칠포와 포이포진이 실제 진을 옮긴 연대가 언제인지 명확히 밝힐 수 없으나 <조선전기 군제>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임진왜란 시 동래현으로 옮기기로 결정하여 점차 옮겼으며, (포이포진은 1658년에 옮김, 1832년 장기현읍지) 《속대전》(1746)에 의하면, 칠포와 포이포진에 병선 1척씩, 사후선(伺候船) 2척씩 배치하고, 《여지도서》에 의하면 포이포진에 귀선 1척, 병선 1척, 사후선 2척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각 도의 국방상 긴요한 제진에는 조선전기부터 유방(留防)군을 두어 비상시에 대비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경상도는 국방상 그 중요성이 한층 더 컸으므로 24여(旅)의 유방군이 배치되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조선전기 편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주진에 4여, 동래·웅천에 각 3여, 영해·김해·사천·연일에 각 2여, 남해·거제에 각 1여 모두 3,000여 명의 유방군을 두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연일의 유방군 2여는 후기에 와서 수군이 폐지된 상태에서 연일만 전역을 지켜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된 것이다.

1657년(효종8년) 경주부에 후영(後營)이 세워져 경주·울산·흥해·영일·장기·언양 등의 읍이 소속되었다.

이후 19세기 후반 대원군의 집권 시 고종3년(1866) 병인양요를 계기로 해방의 요충지와 변방의 중요지점에 여러 진을 설치하여 군비를 강화할 때 1870년에 영일현 북면 포항리에 진보(鎭堡)로서 포항진(浦項鎭)이 설치되었다.

이어 1901년(광무5년) 3월 8일에 전국 연해지역의 해구지방에 해구방수(海口防守)를 위하여 전국 각 지방 부군(府郡)의 요새 해안 31개 처에 포대(砲臺)를 설치할 때 경북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연일군(延日郡)에 포대가 설치되었다.

2. 각 고장의 군액과 군기

1) 군액

조선시대 군액(군인수)은 정군과 보인(保人)으로 형성된다. 양민이 지는 군액은 중앙이나 지방의 각 군영에 상번(上番, 留防)하는 정군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군포(軍布, 保布)를 군역세로 납부하는 보인도 매우 중요하였다.

조선후기에는 전기에 비해 군액이 증가하였을 것은 당연하나 후기에는 질병·기근·유망 등으로 인해 지역에 따라 인구가 많이 줄어든 경우도 있어서 군액이 실제 군정수(軍丁數)보다 많이 책정된 때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정에서는 군액의 수를 조정하려고 했으나 지방관의 태만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여 해당 수령과 감사가 문책 파면되기도 하였다.

조선후기 각 군현의 군액은 각 읍지에 비교적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각 시대의 군액수와 각 군현읍지의 마지막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흥해군

1765년 : 총 2,033명, 이 가운데 수군 645명

1832년 : 1765년의 것과 같음

1871년 : 훈련도감 砲手保 120명, 어영청 正軍 44명, 資保軍 44명, 管納保 162인, 금위영 관 남보 49명, 禁保 8명, 忠翊衛 3명, 향교 殿直 50명, 脩灑軍 20명, 향청 유사 50명, 掌樂院 樂生 2명, 보 2명, 工曹 匠人保 29명, 物膳軍 29명, 炭軍 20명, 營庫募軍 107명, 分防水軍并保 575명, 武學 304명, 余射夫 4명, 宣撫 50명, 篁竹軍 169명, 兩 烽燧別將 2인, 烽軍 200명, 講武堂 千總 1인, 把總 1인, 哨官 5인, 旗牌官 11인, 別隊 55명, 보 110명, 步軍隨率并 488명, 별포초관 30인, 파총 1인(총 2,750, 수군 575명)

● 연일현

1765년경 : 총 1,949명, 이 가운데 수군 237명)

1832년 : 총 3,224명, 수군 808명

1871년 : 총 2,768명, 수군 808명

1896~1899년 : 훈련도감 포수보 60명, 어영정군 36명, 資保官納保并 152명, 금위영관남보 37명, 兵曹騎兵 1명, 步兵 25명, 禁軍保 44명, 忠義충익위 67인, 장악원 악공 21명, 公조장인 26명, 監營물선군 20명, 城丁軍 8명, 도군 79명, 座夫軍牢火兵并 5명, 水鐵匠 4명, 旗鼓廳火兵隨率兵 26명, 兵營旅帥隊正 4인, 守城軍 26명, 沙甕匠 44명, 朔鐵匠 2명, 鹽漢海漢并 51명, 各色匠 4명, 별포수 28명, 主鎭軍 79명, 硫黃軍 86명, 양봉수별장 2인, 봉군 200명, 수영수군 808명, 경주진 초관 3인, 기패관 7인, 各廳下典 1명, 束伍별대 50명, 보 94명, 步軍保并 754명, 牧子軍 10명, 藥軍 360명, 今廢(총 3,220명, 수군 808명)

● 장기현

1765년 : 총 2,119명, 이 가운데 수군 512명

1832년 : 총 2,250명, 수군 708명

1871년 : 훈련도감 포수보 74명, 어영정군 26명, 자보 28명, 금위영남보 55명, 장악원 악공보 5명, 校書館 匠人 6명, 軍역청 選武軍官 35명, 有廳余丁 4명,

총익위 13인, 司僕寺(시) 分養馬保 21명, 감영 巫夫軍 6명, 기고청화병수
 술병 7명, 병영주진군 96명, 별포수 14명 보 14명, 健保軍 4명, 親兵 7
 명, 삭철군 8명, 유황군 5명, 경주진 초관 2인, 기패관 4인, 속오별대 38
 명, 보군수술병 233명, 부산진 분방수군 708명, 東背串 목자군 244명, 별
 포수 30명(新增), (총 1,750명, 수군 708명)

● 청하현

1765년 : 총 968명, 이 가운데 수군 235명

1832년 : 총 1,030명, 수군 302명

1871년 : 훈련도감 陞戶포수 1명, 待知委抄上포수보 46명, 어영청정군 19명, 자보
 21명, 관보40명, 교서관 刻手保 8명, 장악원악공보 23명, 금위영관보 18
 명, 병조 內吹保 1명, 監營屬 左別武士 2인 보 4명 祿直 1명, 우별무사
 1명 보 1명 보직 1명, 좌병영속 물선군 16명, 內良 9명, 奴 7명, 旅帥 1
 명, 隊正 1명, 수영속 수군 302명, 봉수별장 1인, 봉수군 100명, 경주진
 속 속오초관 1인, 기패관 3인, 수술 10명, 보군 133명, 卜馬軍 11명 보
 11명, 別隊 29명 보 58명, 吏奴作隊초관 1인, 기패관 2인, 수술 8명, 槍
 軍 111명, 선무군관 15 인(총 1,150명, 수군 302명)

영일현에만 1871년 이후에 군액의 변동이 다소 있는 것으로 나타날 뿐이고, 다른
 고장에는 1896~1899년의 군액조는 없거나 또는 있어도 1871년 것과 같게 기록되었
 고, 그 끝에 영일현의 1896~1899년의 군액조처럼 ‘금폐’라고 표시해 놓은 것으로 보
 아 1895년경 군제개편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대원군 집권 후 1865년 삼군부가 부활되어 병인·신미양요를 치렀고, 문호개방 후
 1880(고종 17년)에는 3군부가 혁파되고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이 설치되어 1881
 년 신식군대인 별기군(別技軍)을 조직하고 종래 5군영을 2군영제로 개편하였다. 그 후
 임오군란(1882)으로 통리기무아문이 폐지되고 일시 삼군부가 복설되었다가 대원군이
 청에 납거된 후 다시 폐지되고, 1883년에는 종래의 군제가 청의 친군영(親軍營)체제
 로 개편되었다가 1894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게 되자 1895년 5월 중앙에 훈
 련대·신설대·친위대가 설치되고 7월 15일에 지방의 각도병영, 각진영, 각진보(各鎭
 保)가 폐지되고 삼도(三道)통제영이 폐지됨으로써 군영체제는 완전히 폐지되기에 이르
 렸다.

그리고 앞에 소개한 각 군현의 군액표에 보이는 여러 종류의 군병 중 어영정군의
 경우를 보면, 전국에 125초(1초 210명) 16,300명의 어영청정군(향군)이 6도에 분할되

어 있다가 1番에 5兩씩 중앙에 번상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번차수는 25번으로서 4년에 한차례씩 번상하여 2개월씩 속위하였다. (《만기요람》 군정편 어영청 번상조)이 6도 향군에는 군보가 17,475명, 관보가 50,175명이 팔려 있었다. 자보는 정군 1인에게 1정씩 분급되었는데 이들 자보는 정군의 번상시 그가 4년간에 쓸 ‘자장지수(資裝之需)’에 해당하는 보포를 정군의 경우 8량(兩), 정군 중의 북마군의 경우 16량을 대전(代錢) 납부하여야 되었다. 관보 중에는 목보(木保)와 포보(布保)가 있는데 이들은 번상군이 상번 중 쓰는 모든 비용(자장지수 제외)을 납부하여야 되었다. 원래 미납하던 것을 영조 때에 목보 혹은 포보를 관납하면 5초의 번상군이 상번시 매 인당 여수전(旅需錢) 1량(북마군 경우는 2량)과 매삭(每朔)의 요미(料米) 9斗를 관납하게 되었던 것이다. 자보는 정군 每 개인에게 직접 분급되는 것이지만, 관보는 그렇지 않았다.

(《앞의 책》 六道 軍保條)

따라서 1765년의 각 읍의 군역수 2,033명, 1,949명, 2,119명, 968명은 일견 많은 군병수로 보이나 사실은 총괄한 숫자로 실제 적과 싸울 수 있는 현역군인(정군)의 수는 일부에 지나지 않고, 보인 등 정군을 보조하는 사람들의 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19세기 중엽 조선왕조의 쇠잔하는 정치·사회·경제적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당시 백성들의 유망으로 군정의 확보난은 매우 심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부상의 군병수 중 상당수가 관에 의해 허수로 채워졌던 것이다.

1846년의 한 고장의 예를 들면 군의 총군역수가 1,906명인데 거기에 응할 수 있는 호(정군으로 번상하는 자)는 단지 200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상태는 일반적인 것으로 철종 말년(1862)의 전국의 병력 상황을 보면 중앙군과 지방군을 합하여 총 군역이 105,836명인데 실존 병력수가 37,809명이어서 허역이 무려 67,577명이나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대원군의 등장은 군제개혁에 큰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병인양요(1866, 고종 3년) 후 지방군비강화를 위한 설진과 더불어 크게 강조된 것은 포군의 양성이었다.

강화전역(江華戰役)을 통해 외적방어에 있어서의 포군의 유용성이 증명되어 프랑스군이 철퇴하자 곧 화포과가 설치되고 포군이 조직되는데, 동년 9월 16일 각 도의 도신(道臣)과 4도(四都) 유수에게 도시(道試)에 화포과를 정식으로 설치토록 명령하면서부터 각 도와 지방에 따라 시기의 차이를 가지고 감영을 비롯하여 병영·수영 및 유영(留營)의 도시에 화포과가 실시되고 아울러 화포군의 조직이 이루어진 것이다.

포군의 명칭에는 총수(銃手)와 포군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조총을 사용하는 경우에 총수라 하고, 기타 화포를 사용하는 자를 포군이라 한 것 같다.

1870년 국령으로 전국의 요해처에 진 또는 중요 읍에 별포수를 신설하였는데, 흥해·영일·장기·청하에 별포청을 설치하여 각각 별포수 30, 30, 30, 20명씩, 그리고 포항진(浦項鎭)에 10명을 배치한 것은 모두 그러한 조치의 결과이다. 이 같은 포군의 설치는 신미양요(1871, 고종 8년)를 계기로 급증하였으며, 이제 그 질이나 수량에 있어서도 조선왕조 군대의 중심적인 병종(兵種)이 되었다.

그리고 장기현에는 영일권의 유일한 동물배목장이 있었던 관계로 국역으로 양마하는 목자군이 많이 배당되었는데, 1765년에는 사복시실목자(司僕寺實牧子) 135명, 가(假)목자 158명, 1832년에는 사복시목자군 215명, 국마보 20명, 1871년에는 목자군 244명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주목된다.

2) 군기

각 군현에는 모두 군기고(軍器庫) 있고 그 안에 활과 화살, 창과 칼, 조총과 화약 및 연환(鉛丸), 군기, 갑주, 장막 등이 간직되어 있게 마련이었고, 수령들은 수시로 파손된 것을 보수하고 없어진 것을 채울 임무가 지워져 있었다. 당시 18~19세기 영일권의 각 군현에 비치되어 있던 각종 무기를 보면 다음과 같다.

● 흥해군

1765년 : 弓 380張, 箭 1,393部 9箇, 旗幟 126面, 鳥銃 436柄 연환 214,307개, 화약 3,339근 9兩 2錢 6分, 長槍 190병, 環刀 102병, 菱鐵 4,730개, 拒馬作 58坐, 三穴銃 3병, 銅爐 口 86坐, 鎗 4面, 掩頭 36부, 掩心 33부, 鼓 3좌, 火箭 17병, 篇擔 36병(총 18종)

1832년 : 앞과 같음

1871년 : 4종(조총 698자루, 연환 263,067개, 화약 3,857근 9량 2전 6분, 장창 690자루)을 제외하고는 앞과 같음

● 영일현

1832년 : 校子弓 143장, 弓家 43條, 弓弦 194조, 長箭 309浮 15개, 片箭 337부 5개, 鐵杖 26개, 火藥入盛木俵 6件, 연환입성목대 11건, 장창 362자루, 거마작 24좌, 桶兒 375개, 勝字銃 1자루, 삼혈총 3자루, 鐵甲衣 1건, 鐵頭口 1건, 능철 2,814개, 釜子 5병, 蒺藜砲 2병, 鐵椎 1병, 화전 30병, 엄심 271부, 엄두 272부, 喇叭 2雙, 鉦 1쌍, ?囉 1쌍, 坐囉 1쌍, 號笛 1쌍, 中鼓 2좌, 소고 7좌, 鑼鑼 1쌍, 巡視令旗各 2쌍, 弓弩 7좌, 水弩1좌, 南飛介 43개, 약통 540개, 耳藥桶 18개, 火鐵 43개, 화승 125沙里, 藥升 78개, 木

橫子 26좌, 爐口 62좌, 장막 33浮, 金鼓旗 1쌍, 淸道旗 1쌍, 五方神旗 5面, 火鐵石 43개, 五方門旗 5면, 把摠手旗 1면, 認旗 1면, 旗摠旗 9면, 哨官旣 3면, 인기 3면, 隊長旗 25면, 黃紬豹尾旗 1면, 瓢子入盛木橫 2좌, 鼓機 2좌, 貫革 2좌, 領鎮代將苧布紅天翼 1건, 孔雀羽 1건, 束伍把摠白紬手巾 1건, 白紬號衣 1건, 左中哨官藍紬手旗 2면, 호의 2건, 馬鐵 40부, 조총 1자루, 화약 12근, 연환 1,420개, 馬芻空石積置倉庭

1871년 : 교자궁 183장, 궁가 83조, 궁현 234조, 장전 312부 15개, 편전 332부, 철장 206개, 화약입성목대 11건, 장창 372병(자루), 거마작 24좌, 통아 375개, 승자총 1병, 삼혈총 3병, 철갑의 1건, 철두구 1건, 稜杖 2,814개, 斧子 7병, 千步銃 2병, 철추 1병, 화전 30병, 엄심 271건, 나팔 3 쌍, 정 1쌍, 鐸 1쌍, (?)라 1쌍, 嗜囉 1쌍, 호적 2쌍, 중고 4좌, 소고 10좌, 삭발 1쌍, 순시령기각 2쌍, 궁노 1좌, 수노 1좌, 남비개 43개, 약통 540개, 이 약통 18개, 화철 143개, 화승 125사리, 약승 78개, 木瓢子 528개, 목계자 26좌, 노구 62좌, 장막 43건, 금고기 1개, 청도기 1쌍, 오방신기 5면, 오색문기 5면, 화철석 83개, 파총수기 1면, 인기 1면, 초관수기 3면, 인기 3면, 기총기 9면, 대장기 25면, 표미기 1면, 표자입성목계 2좌, 고기 5좌, 관혁 4좌, 영진대장저포홍천익 1건, 공작우 1건, 속오파총백주수기 1면, 백주호의 1건, 좌중초관수기 1면, 호의 2건, 마철 7부, 대궁 2장, 화약 3,594근 3량 4전, 조총 597병, 연환 240,550개, 화약 25근, 연환 2,000개, 조총 1병, 화약 25근, 藍門旗 2면, 紅門旗 2면, 黑門기 2면, 白문기 2면, 黃문기 2면, 장교戰笠 14립, 속오군립 355립, 마추공적지창정, 新增군기 : 장창 100자루, 전립 80립, 辛未新備, 조총 100자루 修補

● 장기현

1832년 : 黑角弓 23장, 교자궁 195장, 장전 188부, 편전 254부, 통아 234개, 궁현 186조, 鳥銃鐵釘 100개, 엄두 31부, 엄심 31부, 창 93병, 震天雷外 10塊, 삼혈총 1병, 宙宇銃 2 병, 화전 11병, 소고 2좌, 대철환 4개, 거마작 35개, 능철 2,700개, ahr표자 271개, 남 비개 46부, 이약통 33개, 약승 33개, 화승 64사리, 노구 42좌, 阿里金 6개, 鐵抹 8개, 호의 150건, 장막 12부, 궁가 150조, 수시기 1쌍, 令旗 1쌍, 連弩機 1좌, 釘 1면, 금고기 1쌍, 청도기 1쌍, 나팔 1쌍, 鎗錚 1면, 편담 19병, 旗機 4좌, 鼓機 4좌, 마철 150부, 無羽長箭 1,000개, 창 100병, 具鏃神旗 5면, 射貫革 2좌, 靑木鶴伊 3쌍, 환도 20병, 남주령기 1쌍, 남주순시기 1쌍, 白木紅翼虎旗 2면, 藍木

홍익호기 2면, 黃목홍익호기 2면, 黃紬인기 1면, 황주수기 1면, 旗幟입성
 궤자 1좌, 갑주 1부, 甲衣 1부, 衣甲胄入盛柎籠 1좌, 輜床 1좌, 군막 1건,
 肅靜牌 1쌍, 肅靜機 1쌍, 대고 1좌, 行鼓 1좌, 鳥銃穿釘 1개, 雜鐵物입성
 궤자 1좌, 공작우 1쌍, 鐵馬致 10개, 집거 10개, 大錐 20개, 馬鐵천정 3
 개, 麻布鵲衣 1쌍, 大帳布 1부, 中후포 1부, 黑皮靴 7부, 조총 255병, 화약
 1,944근 15량 3분, 연환 89,940개, 마추공석 300립, 화약 11근, 연환 710
 개, 丁亥月課, 화약 11근, 연환 710개, 戊子월과, 화약 11근, 연환 710개
 己丑월과, 조총 2병, 回軍器寺關受來鳥銃 1병, 화약 11근, 加備화약 7근,
 庚寅월과, 조총 1자루, 화약 11근, 연환 710개 辛卯월과

● 청하현

1832년 : 庫在城內변物修完, 火藥鉛丸別庫備上監官 2인, 읍리 2인, 下典 2명,
 輪回守直

청하현의 군기가 상세히 나타나 있지 않으나 앞의 3군현의 예로 미루어 그 종류와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영일이나 장기의 경우 군기가 약 80여 종이 되었다. 그러나 각종 기종 등이 주종을
 이루고 총기류는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4군현 가운데 가장 군기가 많은 영일현의 경
 우 조총 597자루와 활과 화살 등 1,100여 점이 비치될 정도이다. 영일현에는 1871년
 에 장창 100자루와 전립 80립을 새로 준비하고, 그 해 조총 100자루를 수보하였으며,
 장기현에서는 1827년에서 1831년 사이에 매년 월과(月課, 훈련원에서 매월의 일정한
 과업, 이를테면 조총, 화약, 기타 군기 등을 제조하는 일)로서 조총·화약연환 등이 제
 조되고 있음이 눈에 띈다.

장기현을 제외한 다른 군현의 기록에는 누락된 월과는 임진왜란 중 제도 각읍에 속
 오군 편성을 완료한 광해군대에 이들 속오군 중 포수에게 지급할 조총과 화약 및 연
 환을 조달하기 위하여 각읍 월과총약환법(月課銃藥丸法)이 제정되면서 시행되었으며,
 17세기 이후 운용상의 변화도 수반되었다.

임란 후 각 읍의 형편으로서는 이 새로운 물종을 자체 생산하기란 용이하지 아니하
 였다. 우선 그것의 제품원료를 구하기도 어려웠고 또 그것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자
 를 동원하기가 어려웠다. 이 때문에 각 읍에서는 해당 읍에 부과된 월과총약환을 구
 입하여 충당할 도리밖에 없었다. 정부에서도 결국 총약환의 정가를 공시하여 조총은
 1병(柄:자루)당 米 3石 5斗, 화약은 근당 10두, 연환은 100개당 5두로 법정화하였다.
 제도 각읍 월과 총약환가(銃藥丸價)의 총액은 막대한 액수였다.

17세기 말 18세기 초에 걸쳐 상진청(常賑廳)과 군기시(軍器寺)는 민간 제조업자들과 결탁하여 군문(軍門)의 방납권(防納權)을 배제하고 공인제(貢人制)를 성립시키기에 이르렀고 17세기 말부터 성립하기 시작한 월과총약계인(契人)들은 서울에 대규모의 군기제조장을 설치 운영하였고 이들에 의한 월과총약환의 수가제납업(受價製納業)은 19세기 초에까지 지속되었다.

그리고 당시 군기의 보존 및 유지상태는 일반적으로 불량하였다. 고종 3년(1866)새로 부임한 경상감사 이삼현(李參鉉)이 대구의 군기고에 들러서 고리(庫吏)에게 군기고문을 열어 무기를 점검하고자 하니 그 고리가 “이 창고를 열지 않은 지가 이미 60여년이 된다. 만약 지금 열어서 본다면 반드시 먼지뿐일 것이다. 매년 해읍(該邑)의 인계인수는 단지 문서로 했을 뿐이다”라고 말한 것이나, 프랑스 달레(Dallet)가 “……지방의 병기고에는 품질 좋은 군복이나 군수품이나 병기도 없다. 모든 것은 이서(吏胥)가 팔아먹고 그 대신 얼마의 쓰지 못한 헌 누더기와 헌쇠를 넣어 두었다”라고 한 말들은 그러한 양상의 단면을 잘 지적해 주고 있다.

흥해군의 1765·1832·1871년의 군기조에서도 그러한 점이 발견되고 있는데, 그러한 사실들이 왜·호 양란 후 유비무환의 무비에 소홀하였다가 외세의 침입을 당하게 되는 조선후기의 시대상을 반영해주는 하나의 자료가 되기도 한다.

3. 포항진의 설폐()

대원군은 집권당시 병인양요(고종3년, 1866)를 겪으며 중앙군제 뿐만 아니라 지방군비를 크게 강화하였다. 19세기 서세동점(西勢東漸)에 의한 이양선의 빈번한 출현과 그와 관련된 여러 사건 발생으로 해방(海方)을 위한 연해 각읍에 민보(民堡)를 설치하고 해방의 요충지와 변방의 중요한 곳에 여러 진을 설치하였다.

당시 고종 3년(1866)에서 고종 9년(1872)사이에 증설된 변진은 14개소, 방어영 4개소였는데, 14개소 변진 가운데 영일현의 포항진이 이때 복설된 것이다.

포항진(浦項鎭)은 포항창진(浦項倉鎭)이 1784년 혁파된 후 83년 만에 복설문제가 거론되어 3년 후에 복설이 결정되었다.

1867년(고종 4년)7월 포항진 복설문제가 재거론 되어 왕의 윤허를 얻음으로써 포항창의 진장(鎭將) 혁파 후 오랫동안 움츠렸던 포항은 새로운 모습으로 활기를 회복하게 되었다. 이 문제는 당시 경상도 암행어사 박선수(朴瑄壽)의 “포항·축산은 다 함께 해변의 목구멍과 같은 땅으로서 진을 파한지 이미 오래되어 관방의 리를 잃은 백성들의 폐해가 막심하니 특별히 다시 진을 설치하여 별장을 두는 일에 관한 별단회답”에서

제기된 것이다.(《고종실록》 4월 7월)

복설문제가 제기된 3년 후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던 차에 경상도 감사 김세호(金世鎬)가 다음과 같은 장계를 올리게 되면서 실현되었다.

연일현의 포항진은 강과 바닷가에 있는 도회의 땅으로 별장이 혁파된 후부터는 주민이 이산하여 변경의 사정과 형편이 허술함에 특별히 진장을 설치하여 본영의 한 대오로 삼아야 한다.(《고종실록》 7년 윤10월)

결국 1870년(고종 7년) 윤 10월에 포항진의 설치를 결정하여 첨사를 두게 되었다. 실제 설치는 신미년(1871) 봄으로 보인다. 이 때 갖추어진 포항진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辛未新設 東軒十間 東庫七間 西庫七間 門間七間 供需三間 軍官廳四間 鎮吏廳四間 杖房四間 奴房二間 軍官三人 鎮吏三人 通引二人 官奴二名 房子一名 倉婢一名 司令八名 鎮穀：米，五石一斗九刀二合七勺，租 六百五十九石四斗九刀三合五勺，皮毛 二百四十六石十三斗六合二勺(《영일현읍지》 1871)

이러한 규모는 포항의 수준과 위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위의 포항진의 관직과 영일현의 관직(현감 1인, 좌수 1인, 별감 2인, 군관 38인, 이 40인, 지인 11인, 사령 20명, 관노 12구, 관비 8구)을 비교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

1872년 11월에는 삼군부에서 포항진에 별포수 10명을 배치하여 외적의 침입에 대비토록 하였다. 이때에 영일현에도 별포수 30명이 신설되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대원군의 쇄국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추진된 것으로 이는 1866년 프랑스군과 충돌한 병인양요를 겪은 후 국방력을 강화하고 군제를 개편하는 작업과 관련을 갖고 있다. 1865년(고종 2년) 7월에 영일현 임곡진에 이양선 1척이 표박하여 남자 16명과 여자 1명이 상륙한 사실은 당시의 상황을 잘 반영해주고 있다.

그리고 포항진 복설이 거론된 지 4년 만에 실행에 옮기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영일현청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는 생지리에 있던 현청이 포항동과 가까운 대잠동으로 옮긴 해와 포항진이 설치된 해(1871)가 같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영·정조의 포항창진과 고종조의 포항진의 성격이다. 전자의 포항창은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인근 지역의 환곡조적과 북관의 진흥곡을 수송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나 후자의 포항진은 전자와는 달리 국방을 지키는 지역 방위가 주된 업무였던 것이다.

따라서 영·정조대의 포항창의 진장이 철폐되어 단순히 포항창으로서만 남은 이후 중단되었던 지역방위의 역할이 포항진의 새로운 설치로 부활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때의 포항창과 포항진은 별개의 것으로 종전처럼 포항창과 포항진의 역할이 합쳐진 것은 아니었다.

《영일현읍지》(1871년)의 진보조에서 포항진을 신설했다고 표기한 것이나 포항진이 설치되기 전의 1832년의 《읍지》나 포항진이 설치된 해의 1871년의 《읍지》에도 포항창이 따로 언급되어 있는 것은 이러한 사정을 잘 지적해 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포항진은 그 후 몇 해가 못 되어서 1874년에 다시 혁파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즉 “그동안 포항진장의 급료는 어전세로서 마련하였으나 지금은 그 세가 이미 파해져 급료를 줄 자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온갖 폐단이 거듭하여 일어나서 백성이 지탱하고 보존하기가 어려우니 해당 진을 혁파해야 한다는 논의”다.(《고종실록》11년 11월)

포항진이 단명으로 끝나게 된 것은 물론 포항진장의 급료문제에도 기인하는 바 있으나 무엇보다 유념해야 할 것은 그것이 시대적 상황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그 때가 대원군이 그의 적대 세력인 유학자들과 새로 등장한 민씨세력에 의하여 축출된 후 문호가 개방된 시기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포항진이 비록 혁파되었지만 그동안 1731년 이후 영·정조대의 포항창진과 1871년 이후의 포항진의 존재는 국가 진흥정책과 국방요충지로서의 중심으로서 포항의 성장 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자취는 포항역사의 소중한 유산으로 남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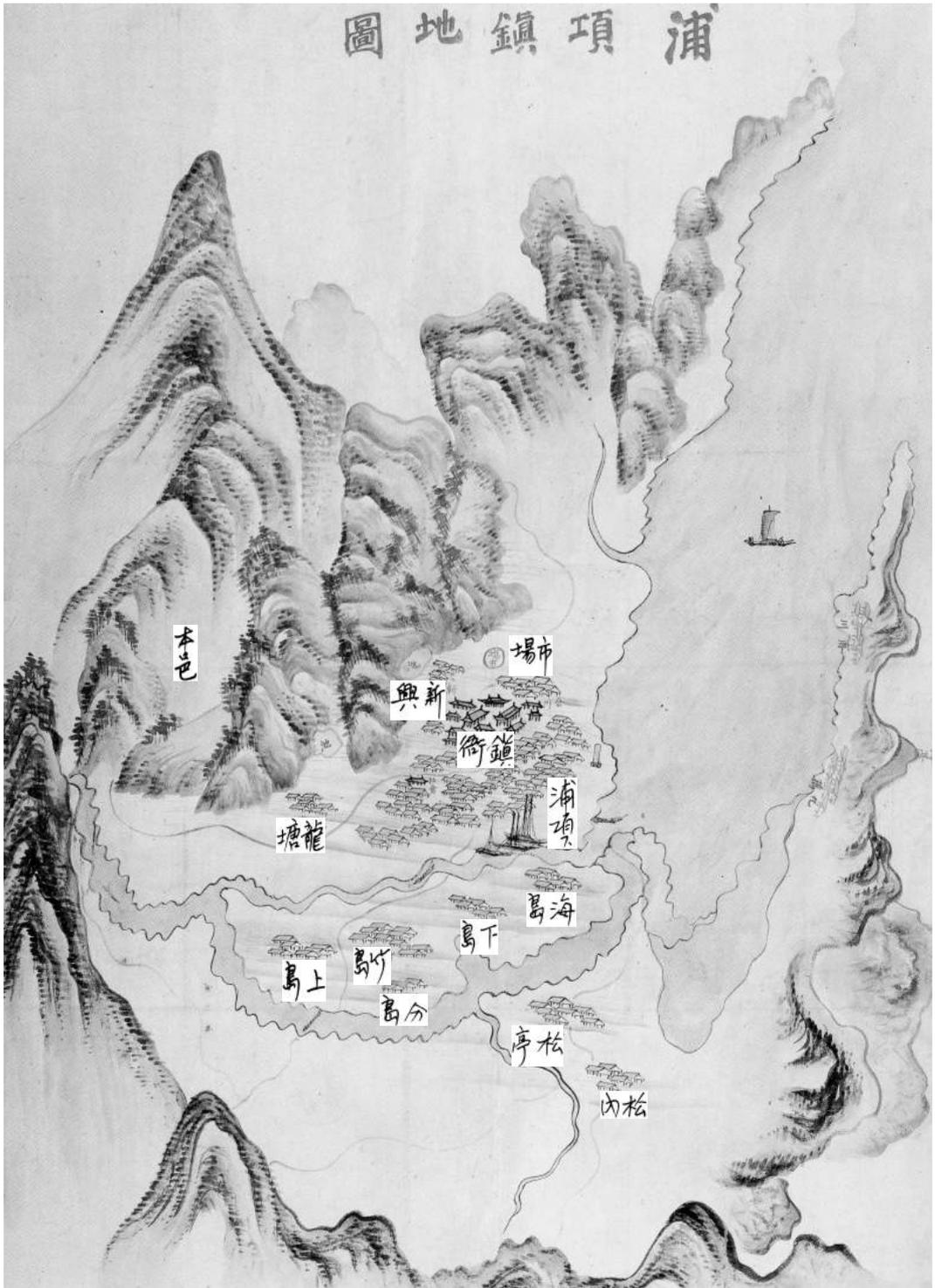
일반적으로 진은 적의 침입이 가능한 곳을 쉽게 통제할 수 있는 위치로서 산을 등지고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영일현 포항동 지역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 곳은 자연 대흥산과 갈산(수도산) 두 군데가 있는데, 적이 침입할 수 있는 최적의 상륙지점을 선박출입이 용이한 현 동빈동과 남빈동 부근의 포항강(칠성강) 연안으로 볼 때, 가장 적합한 곳은 갈산(수도산) 아래가 된다. 현재로서 포항창진의 위치와 포항창의 위치는 동일하나 포항진(浦項鎭)의 위치는 앞의 것과 다르다는 결론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문헌을 가지고도 오랫동안 간과하였다가 2000년대 초에 발견하여 포항진터의 위치(1999년 포항시사에는 포항초등학교)를 아래와 같이 바로 잡게 되었다.

《영일읍지》 권2 (김용제, 1929)의 “...옛날에 첨사진을 설치했는데 고종 신미년(1871)에 폐하고 갑인년(1914)에 군청자리가 되었다.(古置僉使鎭 高宗辛未廢 甲寅爲郡廳位)”는 기록이다. 여기에서 포항진의 폐지 연도는 신미년(1871)이 아닌 갑술년(甲戌年, 1874)으로 정정해야 바르다. 갑인년(1914)에 영일군이 생겨 군청자리가 된 것은 사실이다.

포항진의 이 같은 정확한 위치 지적은 다음의 《포항진지도(浦項鎭地圖)》(1872년)의 포항진아(浦項鎭衙)가 신흥동을 등지고 영일~흥해 간의 간선도로의 바로 서편에 위치하고 있음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1999년의 포항시사에서 포항진의 위치로 비정한 현 포항초등학교 자리를 현 포항시 북구청자리로 바로 잡는다.



4. 교통과 통신

1) 도로

예나 지금이나 국가나 사회의 발전은 도로의 확장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다. 전근대적인 조선시대에서는 비록 행정·군사적인 측면에 더 치중되었지만 중앙과 지방의 신속한 연결을 도모하기 위해 도로망의 확장과 조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실제 제도적 장치를 하였던 것이나 그 실적은 미미하였다.

역사적으로 도로망의 개척과 확장은 상공업발달에 힘입은 바 컸다. 안타깝게도 조선초기부터 억상정책(抑商政策)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조선후기에 와서 특별히 교통이 발달할만한 여건은 마련되지 못했던 것이다. 18세기 이후 상공업의 발달로 인해 상인들의 전국적인 활동이 있었다고 하지만 당시의 정부로서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능력과 안목이 부족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이다.

《속대전(續大典)》 병조 역로조(驛路條)는 전국의 도로를 역시 대·중·소로로 구분하고 있으나, 조선 초기에 비해 변화가 있었다. 그것은 《경국대전》에서처럼 도로의 시발점과 종착점을 명시한 것은 아니고, 다만 각도별(各道別, 여기서 말하는 도는 행정도나 군사도가 아닌 交通道로서 찰방(察訪, 종6품)이 관할하며 몇 개 이상의 역을 포함하는 일정한 지역을 말한다)로 소속역을 대·중·소 3등급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각 역의 위치를 지도상에 확정하는 다음, 같은 등급의 역을 점철하여야 대·중·소의 정확한 윤곽을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그 중 대로는 경기도에만 12개로 한정되어 있고 그 이외의 지역은 대로가 중·소로로 바뀌어졌는데, 경상도의 중로는 요성(聊城)·유곡(幽谷)·덕통(德通)·낙양(洛陽)·낙원(洛源) 등 5역이며, 그 밖의 각 읍로(邑路) 즉 영일권의 읍로는 모두 소로였다.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여지고〉에 나타난 전국적으로 가장 긴요한 9대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경성(京城) - 의주(熙州, 흥제원, 양선평 경유)
- ② 경성(京城) - 경흥(興人門, 수유리 경유)
- ③ 경성(京城) - 평해(興人門, 중량포 경유)
- ④ 경성(京城) - 유곡 - 부산(釜山, 송계문 한강진 경유)
- ⑤ 경성(京城) - 유곡 - 권영(한강 경유)
- ⑥ 경성(京城) - 삼례 - 권영(노량진 경유)
- ⑦ 경성(京城) - 제주(노량진 경유)
- ⑧ 경성(京城) - 충칭수영(노량진 경유)
- ⑨ 경성(京城) - 강화(양화진 경유)

위의 9개 대로는 모두 경성(서울)에서 국경의 주요 관문이나 군사적 요새지와 연결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당시 행정·군사적 측면에서 각지방의 《읍지》에서 빠짐없이 도로조를 두어 이 방면에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1832년의 영일권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흥해군** : 서거경도(西距京都) 826리, 서거순영(巡營) 190리, 서남거통영(統營) 520리, 남거병영(兵營) 160리, 동남거수영(水營) 300리, 동지영일현계(東至迎日縣界) 21리, 남지 경주부계 31리, 서지동부계(同附界) 9리, 청하현계 13리
- **영일현** : 본현동지장기계 30리, 남지경주계 20리, 서지동부계 15리, 북리흥해계 20리, 거경도(距京都) 800리, 서거감영 200리, 남거병영 130리, 남거수영 300리, 남거통영 500리
- **장기현** : 자관문 동거죽하리(自官門東距竹下里) 6리, 남거소봉대리 15리, 자소봉대리지경주계 5리, 서거모이현 15리, 자모이현지영일계 5리, 북거삼정동리 40리, 자삼정동리지동현계 15리, 거경(距京) 864리 9일정, 서거감영 220리 2일반정, 남거통영 440리 5일정, 남거병영 100리 1일정, 남거수영 220리 2일반정
- **청하현** : 자관문 동거 월아구리(月牙丘里) 7리, 자월아구리 지해안(至海岸) 1리, 서거금정리 10리, 자금정리지영덕계 5리, 서거경 841리 9일정, 서거감영 200리 2일정, 남거병영 180리 2일정, 남거수영 310리 3일정, 남거통영 520리 5일정

각 군현이 속한 상급 병·수영과 통영 나아가서 서울까지의 거리를 명시하여 도로망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있다.

이리하여 조선후기에 와서는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도로망 가운데 간선(幹線)도로와 지선(支線)도로가 확실히 구별되게 되었는데, 《증보문헌비고》〈여지도〉에 의하여 이 고장의 도로가 포함 연결되는 ‘서울 - 유곡역 - 동래·부산간 간선도로 및 지선도로’를 보면 다음과 같다.(역로선간의 숫자는 이수(里數)를 표시한 것임)

팔도의 노정에는 거리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척을 표준으로 주척 6척을 1보, 360보를 1리, 30리를 1식으로 정하였으나, 반드시 그렇게 실시된 것은 아니었다. 도로거리의 원표는 경복궁 앞을 기점으로 하여 전국적으로 도로망과 이수가 계산되었다. 그런데 국내 도로의 식수가 일정하지 못하여 중앙에서 파견되는 관원이나 공물납기의 기한 등을 예정하기 어려우므로 옛 제도에 쫓아 도로를 척량하여 10리에 소후를 두고, 30리에 대후를 두어 1식으로 삼게 하였다. 후에는 어수와 지명을 새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도 5리마다 정자를 세우거나 30리마다 유류(버드나무)를 심는 일도 있었다.

영일권의 도로는 동해안 행정 중심지인 경주와 영속 군현의 각 읍치를 잇는 지선, 즉 중소 도로로서 고대국가인 신라 때부터 형성되어 고려·조선을 거치면서 국가차원의 행정·군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 교통수단으로 발전하였으며, 아울러 각 고장의 사회·경제발전에 큰 몫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조선후기에 와서는 이미 형성·발전되었을 영일권의 중심적 교통로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경주읍내 - 사방 - 안강읍내 - 달성 - 냉수 - 신광읍내 - 만석 - 옛재 - 명안 - 서정 - 청하읍내 - 송라 - 지경 - 영덕읍내
- ② 안강 - 유강 - 주진 - 증명동 아랫부조 - 연일읍내 - 대송 - 청림 - 도구 - 상정 - 병포 - 구룡포
- ③ 유강 - 자명 - 학전 - 대련 - 이인 - 성곡 - 흥해읍내 - 별래재 - 까치고개 - 청하읍내
- ④ 유강 - 효자 - 포항용흥·대흥·덕수 - 나루끝 - 우현소티재 - 달전(성곡) - 흥해읍내
- ⑤ 연일읍내 - 대송 - 오천 - 정천 - 대곡 - 마현 - 장기읍내 - 양포
- ⑥ 감포 - 양포 - 영암 - 모포 - 하정 - 병포 - 구룡포 - 석병 - 대보 - 구만 - 대동배 - 발산 - 흥곶 - 마산 - 약전 - 청림 - 대송(현 포항제철) - 포항죽도 - 상원 - 덕산 - 학산 - 두호 - 여남 - 죽천 - 칠포 - 오도 - 이가 - 월포 - 화진 - 지경
- ⑦ 오천 - 용덕 - 용산 - 갈평 - 진전 - 대왕암(운제산) - 지림사
- ⑧ 달성 - 기계읍내 - 인비 - 한티재 - 죽장읍내
- ⑨ 인비 - 용기 - 오덕 - 성법 - 죽장상옥·하옥 - 영덕 달산
- ⑩ 죽장상옥 - 통진령 - 청송 도평
- ⑪ 기계봉계 - 이리재 - 수성 - 입고 - 영천읍내
- ⑫ 신광읍내 - 법광골 - 탑골 - 기북

이 가운데 ①은 신라 때부터 형성된 국도로서 왕까지 행차 내왕했던 경주-영일권-영덕을 잇는 중심도로이다. 이 도로 주변은 평야지대가 많고 산악지대가 적어 일찍이 고대국가시대부터 행정·군사도로로 주목되었던 곳으로 남북을 잇는 거의 일직선의 형태는 오늘날의 확트인 경부고속도로를 연상케 하고 있다.

⑥의 해안도로는 일찍부터 지역별로 연결되었다가 조선후기에 이르러 점차 영일만 동해안을 연결하는 해안도로를 형성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송에서 오늘날 포항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죽도 - 육거리 - 학산 - 두호동도로는 1800년대에 형성되어 흥해와 영일의 해안을 잇게 됨으로써 포항이 영일권의 경제적 중심도시로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 이전에는 주로 ③과 ④도로를 통해 흥해와 영일지역이 연결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⑦의 도로는 재길이며, 이 같은 재길은 이수를 단축하는 지름길로써 포항의 두호나 환호동 지역에서 흥해읍내로 통하는 길들을 비롯하여 곳곳에 많이 있으나 이에 대한 고찰은 생략키로 한다.

2) 역과 파발

조선후기에 이르러 역로(驛路)는 대·중·소로 역의 세 등급으로 구분되었다.

《속대전》에 의하면 대로역은 경기도에만 12개 처였고, 중로역은 전국에 100개 처, 경상도에 5개 처였으며, 여타는 소역로이었다.

영일권의 역상황은 조선전기와 변함이 없다. 청하의 송라역을 위시하여 영일의 대송역, 흥해의 망창역, 장기의 봉산역, 기계의 인비역, 신광의 육역으로서 1871년의 기록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다.

역이 통신과 운수의 기능을 결유한데 대하여 임난 후 1597년(선조 30)부터는 봉수제를 보완하는 통신만을 위주로 하는 ‘파발(擺撥)’의 제도가 생겨 변서의 급속한 전달을 꾀하게 되었으니, 기발(騎撥)은 25리마다, 보발(步撥)은 30리마다 일참(一站)을 두고 해참(海站)에 발장(撥將) 1인, 군정(軍丁)수인(기발 5정, 보발 2정)을, 그리고 기발에는 마(馬) 5필을 두었다. 그러나 참과 참 사이의 거리와 역과 역 사이의 거리가 같았던 것으로 보아 발참이 모두 신설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것 같으며, 그 가운데 기존의 역이 임무를 대행하였으리라고 본다. 지역에 따라서는 역과 참을 혼용하고 있었던 점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로써 파발은 종래의 중요 역참위에 설치된 것으로 서발, 북발, 남발의 3발로로 조직되었던 것이다. 서발은 기발(단, 간로(間路)는 보발)로서 의주(義州)에서 한성까지 모두 41참, 1,050리, 북발은 보발로서 경흥(慶興)에서 한성까지 64참, 2,300리, 남발은 보발로서 동래(東萊)에서 한성까지 31참, 920리에 이르는 길에 발참을 세우고 경급한 변경의 사정이나 공문서를 전송하였다.

당시 보발은 주야를 구분하지 않고 릴레이식으로 교체하여 달리게 한데 비하여(400리), 기발은 특별한 일을 제외하고는 주간만을 이용하였다. 따라서 발군의 각력(脚力 - 走力)에 의존하기는 하였으나 보발이 빨랐다. 그러나 그 범위는 기발보다 좁았다. 그리하여 국가비상의 긴급정보는 기발로서 주야를 500리를 달리게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역이나 참이나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수단은 말(馬)이었다.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역마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증빙으로써 마패(馬牌)를 가져야 하였다.(조선전기 <역제> 참조 바람)

이같은 역과 파발제에 따른 영일권 각역의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지역명 | 역 명 | 연결역간거리 | 역리 및 노비수 | 대가 | 중마 | 복마 |
|-----|-------------|--|---------------------------------|----|----|----|
| 흥 해 | 망창역 (望昌) | 남 : 대송역 40리 북 : 송라역 20리 서 : 육(육)역 30리 | | | | |
| 영 일 | 대송역 (大松) | 동 : 봉산역 30리 서 : 안강역 30리 남 : 경주부조역 60리 북 : 망창역 30리 | 역리 : 31인 노 : 32구 비 : 30구 | 1필 | 2필 | 8필 |
| 장 기 | 봉산역 (蓬山) | 북 : 대소역 40리 남 : 조역 60리 | 역리 : 2인 노 : 298구 비 : 155구 | | 3필 | 5필 |
| 청 하 | 송라역 (松羅) | 남 : 망창역 22리 북 : 영덕남역 40리 서 : 육역 15리 | 이 : 172명 노 : 58명 비 : 43명 | 1필 | 3필 | 8필 |
| 기 계 | 인비역 (仁庇) | 서북 : 청송문거역 60리 | 역리 : 30인 역노 : 22명 비 : 7구 | | 2필 | 5필 |
| 신 광 | 육역 (六) | 북 : 송라역 20리 | 역리 : 110인 역노 : 6명 비 : 8구 | | 2필 | 3필 |

※ 복마 : 짐 싣는 말

《여지도서》(1765)의 기록에는 유일하게 망창역의 역리·노비수 및 마필수가 빠져 있으나 당시 인근 역의 경우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짐작된다. 19세기 말엽 《송라도역지(松羅道驛誌)》 속역조(屬驛條)의 “망창역재흥해군남거(望昌驛在興海郡南距) 23리, 도장(都長) 1인, 병방(兵房) 1인, 이노(吏奴) 161명, 비(婢) 123구, 중마(中馬) 1필, 복마(卜馬) 2필 內一匹己亥回朝令減”이란 기록이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위 표에 나타난 이런 정도의 마필로는 규정대로 급마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며, 규정외에도 역으로서 급마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빈발하여 큰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공적인 이유가 아닌 여행자는 비록 대군·왕자·대신이라 할지라도 말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없을 것 같으면 말 것”이라고 규정하였다.(《대전통편(大典通編)》 병조 역마조) 결국 역마의 절대수 부족으로 역이 지니고 있는 본래의 기능을 충족시킬 수 없는 형편과 과발제(擺撥制)도 역과 같이 관리들의 사목적 추구에 이용되어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동시에 지적해 주고 있다.

조선왕조에서는 원래 국속(國俗)으로 마필의 증산을 금하여 왔으므로 마필의 절대 수는 더욱 부족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정약용(丁若鏞)은 “사경지내(四境之內)에 10필의 말을 가진 자는 볼 수 없으며, 간혹 있다 하여도 모두 과하소종(果下小種, 타고 과목 말을 지나다닐 수 있도록 체구가 작은 종자)이다”라고 말하였다. 원래 각 역은 각 도의 목장으로부터 역마를 공급받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근본적으로 부족하였으므로 때로는 주인 없는 말, 난신(亂臣)으로부터 적물(籍沒)한 말 따위를 가지고 보충하기도 하였고, 수시로 백성들의 말을 징발하기도 하였으며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의 말을 사서 보충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현상은 조선전기보다 후기가 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여지도서》의 각 군현 목장조에 장기현을 제외하고는 “분양마일필을 매년 6~8월 사이에 사복시(司僕寺)로부터 받아와 이틀 매 3~4월에 본시로 올려 보냈는데 지금은 없다”고 기록된 것을 보면 조선전기에는 여러 곳에 소규모의 목장을 설치했다가 후기에 거의 폐쇄한 것 같다.

조선후기의 각 역은 유지비조로 국가로부터 일정한 토지를 지급받고 있었다. 대로역에는 20결, 중로역에는 15결, 소로역에는 5결을 지급하였고, 양계(兩界)에는 그 기능상 각각 10결, 7결, 3결씩을 더 지급하였다 한다.(《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 권 1, 역체조)

3) 송라찰방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전기에서 후기에 이르기까지 영일권 도로의 중요지점으로 참여의 기능과 역할을 해온 데가 6개 처이다. 즉 흥해의 망창역, 영일의 대송역, 장기의 봉산역, 청하의 송라역, 기계의 인비역, 신광의 육역을 말한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역이 송라(일명 만성(蔓城))역이다. 송라역은 영일지역 6역 가운데 유일하게 역승과 찰방이 다스린 도역(道驛)이었다.

일찍이 태조 때 송라역에 역승을 두어 주위의 여러 역을 관장케 하였다. 이후 역제의 개편으로 1457년(세조 3년)부터 역승(驛丞)을 찰방으로 개칭하기 시작할 때 1460년(세조 6) 2월에 관계되는 14역을 합하여 송라도(松羅道)라 칭하고 찰방(察訪)을 설치하여 다스리게 하였다. 송라도는 그 후 1462년(세조 8) 8월에 새로 편성된 13개 역을 다스리는 역승도로 격하된 적이 있다가, 1535년(중종 30년)에 가서 완전히 찰방제로 바뀌게 될 때 다시 송라역 승역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1535년의 가까운 해에 송라찰방도로 개편된 것으로 보인다. 역승이 종9품직이고 찰방이 종6품직임을 상기할 때 역의 중요성이 그만큼 인식된 결과일 뿐만 아니라 송라역이 그만큼 비중이 커지게 된 것을 의미한다.

찰방은 외직의 대표적인 음관초입사직(蔭官初入仕職)으로써 흔히 천전지직(遷轉之職)이라 하였으며, 찰방으로 근무일수를 마치면 경직의 경우는 주부(主簿, 종6품)로 진출하고, 외직의 경우는 수령으로 진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청하현의 현감(종6품)은 송라도의 찰방을 겸임하였던 것이다.

조선전기(1460년)에 송라도는 경상도의 육도(장수도·사근도·소촌도·황산도·안기도)의 하나로 인근 8읍(영해·영덕·청하·흥해·영일·장기·경주·울산)의 14개역을 총괄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영일지역의 지리가 해방(海防)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괄목성이 인정된 결과로서 이 고장 역사의 중요한 한 갈피가 되는 것이다.

그 후 1462년 8월에 경상도에 5개 찰방도와 5개 역승도가 새로이 개편 설치될 때 송라역·남역·주등역·병곡역·영양역·망창역·대송역·화목역·문거역·청운역·봉산역·육역·각산역 등 13역을 송라도라 칭하고 역승을 두게 되었다. 이때부터 송라도는 역승도로 격하되어 그 규모가 축소되었으며, 1530년의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나타난 역제를 보면, 송라도는 역승도로서 다시 관할역이 병곡·대송·망창·주등·봉산·육역·남역 등 7개 역으로 줄어들고 있었다. (조선전기 역제 참조)

그러나 송라도는 이후 언제부터인가 다시 찰방도로 승격하게 되어 옛 지위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 그 시기는 1535년(중종 30)역승제가 찰방제로 바뀌게 되는 때로 보인다. 그 후 19세기 후반의 《송라도역지》의 비판조(碑版條)를 보면 17세기 초에도 찰방도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찰방이공숙선정비(察訪李公瀟善政碑)’가 1629년에 세워졌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찰방선정비(察訪善政碑)’의 건립연도가 1871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후기까지 송라도는 찰방도(察訪道)로서 그 지위를 유지해 온 것이다.

19세기 전반과 후반의 송라도의 중요 역지사례(驛誌事例)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1832년 《청하현읍지》의 기록

- 송라역 : 이(吏) 263명, 노(奴) 104명, 비(婢) 59명, 대마 1필, 중마 3필, 복마 7필, 본역창미(倉米) 243석, 태(太) 69석, 조 406석, 메밀(木麥) 46석, 피모(皮牟) 506석(壬辰條 기준)

(2) 1890년대의 《송라도역지》의 기록

- 관 직 : 찰방(蔭從六品), 이(吏) 15인, 지인(知印) 12인, 마도(馬徒) 10명, 사령(使令) 17명, 관노(官奴) 9명, 비(婢) 7구
- 역면방리(驛面坊里) : 館洞里在南門外, 設社倉, 장시 매월초 8일, 18일, 28일 一開市, 松泉里在館北, 外一洞里北距館門 3리, 外二洞里北距館門 3리, 外三洞里北距館門 3리,

設場市 매월초 3일·13일·23일개시, 光川里북거관문 7리, 芳化洞里북거관문 9리, 이상 7洞 本驛倉 受還

- 창 고 : 軍資倉(皮牟 118石11斗9刀8合3夕), 常賑倉(피모 6석3두2도3합2석), 別倉(피모 2석5두 8도1석), 惠廳(米150석), 政府(피모 1석10두5도9석) 均軍(피모 13석5두5도1합1석), 社倉(戶曹 別備米 100석 丙寅立本, 社還米 165석 丁卯立本)
- 城池, 館垣牆 : 석축주 521척, 고 5척, 東南門안에 하나의 못이 있다.
- 馬 額 : 上等馬 2필, 別中馬 2필, 卜馬 5필내1필 己亥因朝令減(기해년에 조정의 명령으로 줄임)
- 馬位 : 답 750斗落, 전 750두락
- 속역(屬驛)
 - 남 역 : 영덕현 북쪽 40리에 있다. 도장 1인, 병방 1인, 서자(書者) 1명, 이노(吏奴)1천1백명, 비(婢)101구, 별중마 1필, 중마 1필, 移定 中馬1필은 5년 사이에 대송역에 移立, 북마 5필 중 1필은 기해년에 조정의 명으로 줄임. 馬位畚 206두 4刀落只, 田 133두 4도락지, 復戶(충신 효자 등이 난 집으로 戶稅가 면제됨) 120결 63부, 立馬畚 3석13두락지
 - 주등역 : 영덕현 북쪽 65리, 도장 1인, 병방 1인, 이노 329명, 비 51구, 중마 1필, 이정 중마 필간, 5년 이입(移立)육역, 북마5필내일필, 거해인조령감, 위답 121두락지, 전110두락지, 복호 14결 68부, 입마답 2석 11두 9도락지
 - 병곡역 : 영덕현 북쪽 100리에 있다, 도장 1인, 병방 1인, 이노 253명, 비 123구, 상등마 1필, 중등마 1필, 북마 3필 내 1필 기해년 조정명으로 줄임. 마위답131두 2도락지, 전 550두락지, 복호 26결 56부 8속, 입마답(立馬畚) 2석 13두 2도락지
 - 육 역 : 경주부 서쪽 20리에 있다, 도장 1인, 병방 1인, 이노 353명, 비 1구, 중마 1필, 북마 2필1 필 기해년에 조정의 명으로 줄임, 마위답 133두 2도락지, 전 150두락지, 복호 12결 37부 3속, 입마답 1석 14두 3도락지
 - 망창역 : 흥해군 남쪽 23리에 있다, 도장 1인, 병방 1인, 이노 161명, 비 123구, 중마 1필, 북마 2필 내 2필 기해년에 조정의 명으로 줄임, 마위답 111두락지, 전131두락지, 복호 31결 20부 4속, 입마답 1석 13두 1도락지
 - 대송역 : 영일현의 남쪽 60리에 있다, 도장 1인, 병방 1인, 이노 1,255명, 비 110구, 별 중마 1필, 북마 6필 내 1필 기해년에 조정의 명으로 줄임, 마위답 350두락지, 전 120두락지, 복호 69결 31부 8속, 입마답 4석 12두 3도락지
 - 봉산역 : 장기현 남쪽 100리에 있다, 도장 1인, 병방 1인, 이노 506명, 비 129구, 상등마 1필, 별중등마 1필, 북마 3필 내 1필 기해년에 조정의 명으로 줄임, 마위답 352두락지, 전 101두락지, 복호 17결 73부, 입마답 2석 11두 9도락지

위의 내용으로 보아 송라찰방도(松羅察訪道)의 중요성과 함께 그 실세가 자못 컸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게 된다. 우선 영일권의 행정단위로서 역면이 있는 고장은 영일현과 청하현 두 곳인데 그 가운데 청하현의 역면 규모가 더 컸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역의 실세와 인근 마을의 형세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할 때, 영일지역의 여

러 역 가운데서도 송라와 대송역이 다른 역에 비해 규모가 컸던 점을 알 수 있게 되며(대마를 비치한 역은 1765년의《여지도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송라와 대송 두 역 뿐이다)아울러 7개의 동리를 관장하는 송라역면이 두 개의 동리를 관장하는 대송역면보다 훨씬 우세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

다음으로 송라도의 관직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종6품 찰방이 현감을 겸직하고 그 아래 많은 수의 관리(54명)와 이노(1,631명)를 거느리고 있는 점이 다른 역과 커다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찰방역 관아가 있는 관동리와 관아 밖의 외삼동리에 장시가 설치되어 3, 8, 13, 18, 23, 28일 즉 한달에 6일이나 개시되었다는 것은 조선후기 찰방도 주변의 상업활동이 번성하였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외삼동리(오늘날의 하송리는 송라찰방역의 직속역인 오역(일명, 외역)으로서 역리와 역노비 도합 72인 배속되어 있음)이 설치되어 있던 마을로서, 두 장시 모두 송라도찰방역으로 인해 생성된 것이다.

따라서 송라찰방도는 조선시대 청하현을 상징하는 중요한 역사적 실체로서 큰 의미를 지닐 뿐 아니라 영일권과 인근 지역의 교통중심지로서 그 컸던 역할과 기능은 이 고장의 지리적 이점을 구현한 것으로 이 지역의 발전적 미래를 조명하였다는 데 큰 뜻이 있다 하겠다.

옛 관동마을(현 청라현 덕천리)의 고송라도찰방역의 관아인 임영각의 당당한 모습과 그 인근지역(현 하송리) 역촌의 번성했던 정경은 이제 자취를 감추고 다만 그 터에 남아 있는 고목들이 옛날을 회상케 하지만 한편으로 그 언젠가 전날의 명예를 회복할 잠재적 기운을 품고 있는 듯하다.

4) 목장과 마장

(1) 장기목장

삼국·고려시대에는 주로 우마사육을 목적으로 한 우마목장(牛馬牧場)인데 비해 조선시대에는 국·사영(國私營)의 사육목장이 다양하게 존재한 가운데 그 중에서도 말목장(馬牧場)이 가장 중시되어 많이 설치되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53개소, 《동국여지승람》에 87개소, 《반계수록》에 123개소, 《대동여지도》에 114개소, 《목장지도》에 국·사목장 각 200개소(그중 폐목장 63개소), 《증보문헌비고》에 국영목장 157개소(그중 폐목장 54개소)와 사영목장 52개소, 도합 209개소가 있었다고 전한다.

경상도에는 국(공)목장 27개소(그중 폐목장 7개소) 사목장 4개소가 있었으며, 영일권에는 공목장인 장기목장이 유일하게 설치되어 있었다. 장기 목장이 언제부터 설치되었는지 자료의 영성으로 정확히 밝힐 수는 없으나 신라시대에 목장이 174개소나

있었고, 또 조선시대에도 폐목장까지 합쳐 약 160개소의 목장이 있었음을 토대로 고려시대에도 그만큼 수의 목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 보면, 일찍부터 목장이 설치되어 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조선초기부터 마정(馬政)은 국내적으로는 관인(官人)지배계급을 위한 역마(驛馬)·승마(乘馬)·육식(肉食)·제사용(祭祀用)·수렵(狩獵)·격구(擊毬)·예물(禮物)·상사용(賞賜用)과 국방(國防)으로, 대외적으로는 무역 및 조공용(朝貢用)으로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전국의 마정은 병조 및 사복시(司僕寺)에서 관장하고, 제도(諸道)목장의 지방마정조직은 관찰사 밑에 감목관(監牧官, 종6품)이란 실무담당자를 두고 각 목장에서 암말(雌馬) 100필과 숫말(雄馬) 15필로서 1군을 삼아 매군(群)마다 마필외양에 종사하는 군두(郡頭) 1인, 군부(郡副) 2인(목자 중에서 우수한 자를 골라서 정함)과 목자(牧子, 국역으로서 양마하는 의무가 부여된 자) 4인을 배정하였다.(《증보문헌비고》권 125, 兵考 17)

목자의 신분은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어 양민·향리·공천(公賤)·노자(奴子)·사사노비(寺社奴婢) 등으로 이루어졌으나 실제로는 신량역천(身良役賤)의 신분이 되었으며, 그들은 원칙적으로 16세에서 60세까지 국마간양(國馬看養)이란 역(役)에 종사하였다.

동을배곳의 장기목장은 울산목장에 소속되었으며, 그곳에 배치된 감목관의 관할 하에 목자군(牧子軍) 244명이 주위 120리 목장(牧場城, 주위 25리, 높이 10척)에 1,008필의 말을 놓아길렀다 한다. 목자군(牧子軍)은 목장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군역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여지도서>의 기록에는 동배곳목장에 331마리의 말을 키웠다고 나오며, “장기현지도”에 의하면 1872년도 당시에는 말 787필을 사육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리고 조선후기에 편찬된 읍지에 의하면 ‘동을배목장의 둘레가 70리’라는 기록으로 보아 자료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장기목장성은 일명 석병성(石屏城)이라고도 하는데, 구룡포읍 창주리 석문동에서 시축한 성벽은 놀태리 계곡을 거쳐 응암산(鷹岩山)을 서쪽으로 돌아 공개산(孔開山) 서북편 산정을 지나 동해면 흥환동 배일리(背日里)에 이르는 지대에 축성하여 그 동편 전역을 목장으로 사용하는 길이 25리, 높이 10척에 달하는 장성(長城)을 말한다.

장기(長鬐) 동을배곳(冬乙背串)에 대한 세종 14년의 기록에 의하면 “이제 경상도 동을배곳에 이미 목장을 설치하였사오니, 청컨대 영일(迎日), 장기(長鬐)의 두 고을 수령으로 감목관을 겸임하게 하소서”라는 기록으로 보아 장기목장에서 말을 방목하기 시작한 것은 최소 1432년 이후로 보이며, 인근 지역의 영일과 장기의 수령이 함께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蔚山牧場所管長鬐冬背串牧場誌及事例》(1894)에 의하면 효종3년(1651)에 전국적으로 큰 규모로 마성(馬城)을 축조하고 마정(馬政)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2차에 걸친 호란 후 북벌(北伐)을 위한 기마병 양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라 하겠다.

위의 기록에 의하면 장기 동배곶목장의 마성 주위는 4,190발(把)이며, 삼정동에 목아문(牧衙門)을 설치하여 여러 마을(동부(東部)·서부(西部)·사라(土羅)·신흥(新興)·신동(新洞)·범진(凡津)·두일(斗日)·석병(石屏)·강금(江今)·대천(大川)·사지(沙只)·정족(鼎足)·구만(九萬)·장천(長川)·대동배(大冬背)·여사리(余士里)·건산(件山)·직환동(稷串洞)의 양마(養馬)를 관장하였다.

그리고 관계 사례로 진상마(進上馬) 구입은 매년 9월~10월에 거행하며, 울산과 장기목장에서 각각 2필씩 골라 진상하도록 하고, 마단(馬壇)은 두 곳에 설치되어 제향(祭享)과 기도를 매년 3월과 10월에 거행하며, 말 물 먹이는 몫은 50군데로 목장 내 백성이 매년 2월에 보수하며, 말이 비와 눈을 피하는 가가(假家) 19채가 목장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곳에 있어 여기에 청초(靑草)와 곡초(穀草)를 쌓아두며, 국마는 말일과 초하루에 242필을 부치며, 목자는 141명이며, 매일 6명이 말똥(馬糞)을 치우고 말을 돌보았다, 마성수축은 매년 8월에 목민(牧民)이 하며, 국전(國典)에 의해 암말3필과 자식(子息)1필씩 매년 합한 수를 첨록(添錄)하며, 목장 내 주민은 둔목(屯牧)은 물론 목장 내의 사역(使役)일체를 거행하기 때문에 장기와 연일에서 고기잡이하는 일은 일체 거론치 않아야 했다. 별포수 30명으로 국마엽호(國馬獵虎)를 설치운영하며, 창군은 20명이며, 둔답(屯畓)으로 조세를 둔전(屯田)으로 모세(牟稅)를 거두며, 국마에 손실이 있을 때는 춘추로 그 가격을 쳐서 본목(本牧)으로 보내 상납하며, 마성 문지기 2명과 감고 1명이 있음을 울산감목관의 이름으로 남기고 있다. 그리고 《장기군 역둔답집수성책(長鬐郡 驛屯畓執穗成冊)》(1902년 10월)을 보면 답 764두 1도락에 조세가 5,448두, 전 327두 6도락에 모세가 728두 6도 8합으로 나타나며, 《장기군 북목둔전답집수성책(長鬐郡 北牧屯田畓執穗成冊)》(1902년 10월)에는 답 479두 4도락에 조세 2,110 두 5도, 전 2,598두락에 모세 3,177두 1도 5합, 전 156두 5도락(海峯寺 陞摠條)에 모세(牟稅) 156두 5도로 나타나고 있다.

앞의 기록을 고찰하면 조선시대 지방 마정은 목자의 고역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목자의 직책은 가중되어 우마사육 담당량이 28필 내지 29필이 되고 1년간의 책임 자식(息)량은 21필 내지 22필을 생산해야만 되었으며, 한편 직무상의 태만과 실정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막기 위하여 엄격한 법의 제재를 받도록 하였으니, 《대전회통(大典會通)》에 의하면, 목자로서 목마장 낙인(烙印)에 간위(奸僞)를 범하였을 시는 장(杖) 100대와 도(徒) 3년형에 처하고 마적(馬籍)의 점검에서 위반 착오 되면 당해목자 등은 엄중히 타형(打刑)하여 현장에서 심문하되, 사고로 망실한 마가(馬價)는 상등이 면포 16필, 중등이 12필, 하등이 8필로써 배상케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직은 종신·세습으로서 자손에게 전해지고 전직이 불허되고, 마초(馬草)·조세(租稅)·토산물(土產物)을 바쳐야 되고 또한 목자군으로서 복무해야만 했다.

그리고 조정에서는 마정을 엄히 하여 목장 내에 사유의 우마(牛馬)이거나 선척(船隻)이 왕래하는 것을 엄금하였으며, 한편으로 마정을 잘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이나 장기목장 등에 각각 월봉사(月峯寺)와 명월암(明月庵, 관문북(官門北) 10리 거리에 있다)에 국마축원당(國馬祝願堂)까지 설치하여 춘추로 제를 지냈다. 명월암은 신라 선덕왕조에 창건된 것이라 전해와 더 이상 알 길이 없다.

(2) 군소목장()

영일권에는 조선초기부터 장기목장이외에도 각 군현에 군소목장(群小牧場)이 있었다. 《輿地圖書》의 영일권 각 군현 목장조에 장기현을 제외하고는 “분양마 1필을 매년 6~8월 사이에 사복시로부터 분양받아 이듬해 3~4월에 본사로 올려 보냈는데 지금은 없다”라고 한 기록이 그러한 사실을 밝히고 있으며, 이로써 조선전기에는 각 군현의 몇몇 곳에 소규모의 목장이 운영되어 오다가 후기에 와서는 모두 폐지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오늘날 흥해읍 곡강동 일대에 봉림목장지(鳳林牧場址), 동읍의 초곡(草谷), 마장동(馬場洞)에 마장목장이, 죽장 상옥동에 경전목장지(京田牧場址), 오천읍 일월동(현 해병대기지 사령부일대)에 일월목장지(日月牧場址)가 있었다는 전설은 위의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따라서 조선전기의 각 군현에 설치되었던 여러 군소목장은 1651년(효종 2년)마정을 크게 개혁할 때 모두 폐하여 울산목장(南牧)소속의 장기목장(北牧)에 옮긴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여러 목장을 통합한 영일권 유일의 장기목장은 이후 꾸준히 국마생산에 일익을 담당해 왔다.

《輿地圖書》(1765)경주부 목장조의 “목장은 없고 분양마 5필을 매년 8~9월에 장기·울산 양목장에서 가져와서 이듬해 3~4월에 본사로 상납한다”고 한 기록이 오랫동안의 국마생산의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위의 기록들을 뒷받침하는 유적으로는 현재 흥환리 진골에서부터 구룡포 사이에 남아있는 목장성터가 있으며, 1882년에 세워지고 목장주민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감목관 민치억(閔致億)영세불망비’와 흥인군 ‘이최응(李最應)영세불망비’가 있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목장의 입구는 현 구룡포읍 구룡포 3리에 얼마 전까지 있었던 큰 석문(石門, 근래 사라짐)이며, 목장의 끝은 앞의 기념비가 서 있었던 자리였다 한다. 원래 기념비는 바닷가 한적한 곳에 방치되다시피 한 것을 동 주민들이 지금의 장소로 옮겼다고 한다.

이 ‘감목관민공치억영세불망비(監牧官閔公致億永世不忘碑)’와 ‘일제조흥인군이영상국공최응영세불망비(一提調興仁君李領相國公最應永世不忘碑)’는 목장성에 관한 비석으로

서 특히 당시의 세력가인 흥인군 이최응(흥선대원군 친형)의 이 고장 목장성과 주민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중요한 사료로 평가된다.

먼저 감목관 민치역의 비석을 보면 비석의 총길이 114cm, 비신(碑身) 82cm, 비면(碑面)의 넓이 34cm, 비석의 폭은 15.5cm, 덮개돌의 넓이 60cm, 덮개돌의 폭 40cm로 비석 돌은 부스러지기 쉬운 사암(砂巖)종류의 돌로 생각된다. 비석을 옮겨 세우면서 밑 부분의 글자가 많이 훼손되고 받침돌 속에 묻혀 있는 실정이다. 뒷면에 광서(光緒) 8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882년(고종 19년)에 세워진 것이다. 비석의 앞면에 4언 절귀로 그 내용이 나타나 있다. 그러나 아래 부분은 받침돌에 묻혀 그 내용을 알아보기가 어렵다.

다음으로 곁에 있는 흥인군의 비석은 그래도 석질이 나은 돌로 만들어졌으며 비석의 총길이 158cm, 비신은 123cm, 비면의 넓이 43cm 비석의 폭 21cm, 덮개돌의 넓이 76cm, 덮개돌의 폭은 49cm이다. 비석의 연대는 앞의 비석과 같은 연대(1882년)에 세운 것으로 뒷면의 비석 원문을 한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일제조흥인군 이영상 국공 영세불망비

연일현 땅이 장기목장에 속한 것이 일곱 마을로서 마을 백성이 몇 세대가 유착(維錯)의 세금을 내고 있었는데 모리배들이 세금을 지나치게 거둬들이기 일쑤였으므로 천여 백성이 살아갈 수 없었다. 이에 흥인 대감께서 특별히 백성들의 뜻을 살펴서 조그마한 잘못도 밝히고 많이 거둬들인 고질적인 폐단을 없애버리며 그 근원을 뿌리 뽑아 버리니 흠어졌던 백성들이 다시 모이게 되었고 목장 전체가 편안하게 되었다. 아! 우리 큰 어른신의 깊은 은혜와 두터운 덕이 아니면 어찌 능히 오늘과 같이 보전할 수 있었으리요. 이에 돌을 다듬어서 그 공적을 기록해 잊지 않으려 표시하고 이에 명하노니 바닷가 좁은 땅 고질적인 폐단만 있었으나 크신 공께서 그것을 살렸으니 백성들이 모두 돌아왔도다. 깊은 은혜와 큰 덕이 저 바다와 산처럼 우뚝하도다. 옥돌을 다듬어 비를 세우니 억만년동안 없어지지 마소서

광서 8년(고종 19년, 필자 주) 5월 8일 감역 이 계 등

읍리(정족·구만·장천·대동·여사·발산·직환)

본문 아래의 읍리(邑里)의 이름은 고의적인 파손으로 알아보기가 힘들고 칠방(七坊)에 대하여 알아보면, 직환(稷串)은 현재 흥환리로 속명으로는 피고지라 불리고 있다. 발산(鉢山)은 현재 발산 1리이고 언제부터 發(필발)자로 쓰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발산 1리의 마을 형태가 스님 밥그릇 모양으로 오목하게 생긴 형태로 볼 때 수공이 가나, 필발자를 사용하는 현재는 꽃이 만발하여 발산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지명 유

래의 설명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여사(余士)는 발산 2리를 말하고 대동(大冬)은 대동배 1리이다. 장○(長○)은 대동배 2리와 구만 사이에 장천이라는 긴 내(川)가 있고 그 안쪽의 자연 마을을 장내(長川)라고 부르는 것으로 볼 때 마모된 글자는 천(川)자가 아닌가 한다.

구만(九萬)은 현재의 구만리이고, 정○(正○)은 바를 정자가 아닌 솥정(鼎)자를 쓰는 정족(鼎足)이라는 자연 마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쓰기 어려운 정(鼎)자 대신에 같은 음의 쓰기 쉬운 바를 정(正)자로 표기한 것으로 짐작된다.

흥환리에서 음력 9월 9일 마을 동신제를 지낼 때 이 비석에도 제사를 같이 지낸다고 한다(김상수, 76세) 장기목장은 갑오경장(1894) 후 일시 폐하였다가 부활하더니 결국 을사조약(1905)후 일제의 압력으로 폐지되고 말았으며, 폐목 당시 마필 300여 마리는 일제 군용으로 징용 당하였다고 한다.

참고문헌

- 《읍지》, 《비변사등록》, 《증보문헌비고》, 《여지도서》, 《속대전》, 《대전회통》, 《송라도역지》, 《한국사론》9
- 《蔚山牧場牧誌》1871, 《慶尙道驛誌》1894, 《嶺南驛誌》1894
- 許善道 《朝鮮軍制史》 조선전기편, 육군본부 1968
- 南都泳, <韓國牧場制度考>《東國史學》11집 1969, 《韓國馬政史研究》아세아문화사 1976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 후기 국방체제의 제문제>《한국사론》9, 1981
- 배용일, <포항창·포항창진·포항진고>《포대학보》 154호, 포대학보사, 1987
- 배용일, <조선시대 동해안권의 역제연구>《사회경제논총》, 포항1대학, 1991
- 황 인, <장기목장성과 흥인군의 비석에 대하여>《日月》참간호, 포항동해중학교, 1998
- 포항시, 《포항시사》(시승격 50주년 기념)상, 1999
- 이정환, <울산 목장에 대한 연구>《제23회 전국향토문화공모전 수상집》, 한국문화원연합회, 2008.

제3절 근대 태동기의 경제생활

1. 수취제도의 변화와 이 고장의 세제

1) 이 고장의 수취제도

조선왕조의 세제는 삼국시대 이래 당나라의 제도를 답습한 조·용·조의 전통적인 형식에 따라 이루어졌다. 즉,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곡물의 부과(賦課)인 ‘조(租)’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력의 부과인 ‘역(役)’, 그리고 그 대납물 ‘용(庸)’과, 호를 대상으로 하여 토산물을 부가한 ‘조(調)’로 나누었다. 그런데 이 삼종의 부담 가운데 ‘조(租)’는 그 과세의 대상이 일정한 전지(田地)이므로 부과율이 분명하지만 ‘용(庸)’과 ‘조(調)’는 그렇지 못하여 조(租)보다도 그 부담이 실지로 무거웠던 것이다.

왜(倭)·호(胡)양란 후의 조선후기 사회는 안으로 중세적인 사회경제 질서가 동요되고, 밖으로 외세가 침투함으로써 체질개선이 모색되던 시기였다. 그리하여 17·18세기에 이르러 안으로 농촌사회의 변화, 상공업과 화폐경제의 발달, 신분체제의 와해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것이다.

전란 이후 농토가 황폐하여 경작면적이 줄고, 토지대장의 산일(散佚)로 면세지가 늘어나고, 양반의 납세기피 및 이농민(離農民)의 증가 등으로 조세수입이 대폭 감소됨에 따라 국가의 재정적 궁핍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였다. 국가나 민생을 위하여 수취제도를 검토하고 개편하는 일이 시급하고 불가피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대동법(大同法)과 균역법(均役法)이었다.

대동법은 공납을 미곡 또는 포나 전으로 대납케 하는 제도로서 이를 관할하는 선혜청은 징수한 미(米)·포(布)·전(錢)을 물종에 따라 지정된 공인에게 분급하여 그들로 하여금 관수품을 조달토록 하였다. 17세기 초 경상도에서 시행된 후 1세기 후에는 함경·평안도를 제외한 전국에 시행되었다. 공납의 전세화로 세법의 발전적 형태를 띤 대동법은 조세의 수입증대와 농민의 부담 경감에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공인을 중심으로 한 상업자본의 축적과 공인의 주문을 맡아하는 독자적인 사영수공업(私營手工業)의 발달 및 화폐의 유통에 크게 기여하였던 것이다.

균역법은 16세기 이후 모병제(募兵制)의 실시에 따라 일반 정남(丁男)은 현역을 지지 않는 대신에 매년 2필의 군포(軍布)를 세금으로 바쳐야 했던 것을 1750년 군포를 반감하여 1필로 징수토록 한 것이다. 포 한필이 미(米) 6~12두에 해당하여 전세나 공

납보다 훨씬 무거운 부담이어서 균역을 면제받기 위해 양반이 되려고 애쓰기도 하고, 서원에 투탁하거나 이농(離農)을 하기도 하였다.

균액(군인수)에 결원이 생기면 지방관아는 그 부족액을 메우기 위해 이미 죽은 사람(白骨徵布)과 어린아이(黃口簽丁) 또는 친족(親族)과 이웃에게 부담시켰다. 삼정의 하나인 군정(軍政)의 문란을 방지하고 그 개선을 위해 마련한 것이 균역법이었다. 군포 반감으로 인한 부족액은 어세(漁稅)·염세(鹽稅)·선박세(船舶稅) 등과 일종의 부가세로서 1결마다 미(米) 2두를 부과하는 결작(結作)으로 보충하였다.

조선후기 각 고장에 부과된 수취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18·19세기 두 시대에 걸쳐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흥해군(1765년)

- 田 賦 : ○ 田元帳付 938결 67負 8束, 時耕 633결 65부 3속
 - 水田元帳簿 1,699결 40부, 時耕 1,495 결 9속, 合實結 2,128결 66부 2속
 - 上納大同木 58同 46疋內本木 29동 23필, 代錢 29동 23匹并從宣 惠廳區劃增減, 결전 1,108兩 8錢 5分
 - 儲置米 295石 14斗 5升 8合 6勺留置大同庫
 - 公木 29同 2필 33尺 3寸
 - 公作米 272석 1두 6승 5작
 - 倭料太 12석 13두 6승 9합 2작
 - 魚價米 41석 14두 5승 5합, 船稅錢 326량 5전
 - 곽세전 121량 5分
 - 漁稅錢 450량
- 進 貢 : 건광어(乾廣魚), 건대구어(乾大口魚), 분곽(粉藿), 약재인삼 속단(續斷), 방풍(防風), 백작약(白芍藥), 적작약(赤芍藥), 청목향(靑木香), 모려(牡蠣:굴조개), 복신(茯神), 천궁(川芎), 감국(甘菊), 괴실(槐實), 맥문동(麥門冬), 시호(柴胡), 연교(連翹), 모향(茅香)

(2) 흥해군(1871년)

- 賦 稅 : ○ 旱田원장부 882결 5부 4속, 시경 633결 65부 3속
 - 수전원장 1,669결 40부, 시경 1,495결 9속, 합실결 2,218결 66부 2속
 - 상납대동목 58동 30필 내본목 29동 15필 대전목 29동 15필병종 선혜청구획증감
 - 결전 1,103량 3전 從突減 增減
 - 저치미 311석 8두 3도 4합 9작유치대동고
 - 송목 31동 15필
 - 공작미 295석 9두 9도 3합 7작
 - 왜료태 13석 2두 9도 8작
 - 어가미 41석 14두 5도 5합 以上納移 萊府

- 선세전 131량 5전
- 관세전 121량 5분
- 어세전 545량
- 진 공 : 생대구어(今廢), 건광어, 건대구어, 백문어(白文魚, 금폐), 분과, 약재(인삼·속단·방풍·백작약·적작약·청목향·모려·복신·천궁·감국·괴실·맥문동·자호·연교·모향)

(3) 영일현(1765년)

- 旱 田 : 元帳付1,803結 91負內 各樣免稅陳雜頗并 1,006결 25부 9束, 己卯時起 797결 65부 1속
- 水 田 : 원장부 1,306결 10부 2속 내각양면세진잡탈병 327결 38부 1속, 기묘시기 978결 72부 1속
- 進 貢 : 藿耳(미역귀, 귀다리)·분과·大礪石·別여석·인삼·百茯苓·방풍·백작약·시호·귀板·연교·白芽香·麻黃·蓮花藥·건문어·건광어·大全鰻·건대구·生鰻·생대구·貫目(과메기)
- 糶 糶 : 元會米 10석 8두 5승 5합, 잡곡 399석 6승 1합 9勺, 賑色米 190석 1승 3합 5작, 잡곡 1,865석 11두 7승 5합 2작, 常平倉米 267석 2두 7합 9작, 잡곡 3,102석 6두 4승 1합 6작, 私賑穀잡곡 322석 6두 3승 1합 2작, 別會米 1석 3두 6승 1합, 잡곡 341석 9두 8승 1합 8작, 10월開倉 12월封倉 己卯條爲准
- 田 稅 : 作木 24동 39필 9尺 3月收捧 4月以陸路 3日納于東萊府米 197석 14두 9승 7합 1작, 太14석 11두 3승 7합 3월 수봉 4월 해선에 짐을 싸서 실어 본현 임곡포에서 출발하여 장기 포이포(모포), 경주 동해의 울산 수영포와 기장 두모포를 거쳐 동래에 배를 대어 부산항에 납부하였다(裝載海船自本縣林谷浦發船 向長鬐包伊浦慶州東海蔚山水營浦機長豆毛浦 到泊東萊納于釜山倉 기묘조위준)
- 大 同 : 작목 30동 田稅一時수봉 이육로 10리 達于京 納于宣惠 米 153석 4두 6승 9작 儲置本縣 每年一從 惠廳區劃多寡無常 기묘조위준
- 均 稅 : 魚鹽船藿稅錢 1,073량 8전 5분 2월 수봉 3월 상납 選武布 1동 5필 9월 수봉 10월 以陸路 10일 達于京 納于均廳 기묘조위준

(4) 영일현(1871년)

- 田賦旱田 : 원장부 1,794결 44부內 923결 57부 2속, 各樣免稅陳雜頗除, 辛未時起 870결 86부 8속
- 수 전 : 원장부 1,328결 41부 9속내 269결 9부 4속, 각양면세진탈제, 신미시기 1,059결 32부 5속
- 山火田 : 1결 80부 5속 代木 18필 2척
- 結 錢 : 신미조 1,019량 5전 5푼 5月當 輸納戶曹
- 대 동 : 신미조 本木 24동 26필 20척, 錢木24동 26필 20척, 매필2량식 5月納均役廳
- 전 세 : 신미조 本木 25동 3필, 公作米 211석, 位太作米 31석, 倭料米 21석, 태 37석, 4월 수납동래부

- 均 勢 : 신미조 衫船 88척 稅錢 181량 5전, 廣船 22척 세전 37량, 行商船 6척 세전 25량, 鹽釜 63좌 세전 308량 4전 6푼, 鹽盆 2좌 세전 12량, 藿田 11庫 세전 146량 5푼, 漁場揮擢船 4척 세전 60량, 船 6척 세전 30량, 洋中擧揮擢船 15척 세전 150량, 去處船 2척 세전12량, 漁船 2척 세전 4량 5월 납균역청
- 徭 役 : 每夫柴 13단, 炭 2斗, 藁草 2同, 生草2동
- 진 공 : 곽이 · 분곽 · 대여석 · 별여석 · 인삼 · 마황 · 연화예 · 건문어 · 건광어 · 대전복 · 건대구 · 생복 · 생대구 · 관목

(5) 장기현(1765년)

- 한 전 : 원장부 864결 77부 3속內 各樣免稅陳雜頭并 448결 89부 9속, 기묘시기415결 87부 4속
- 수 전 : 원장부652결 51부 2속내 各양면세진잡탈병 200결 97부 4속, 기묘시기 451결 53부 8속
- 전 세 : 太 106석 4두 2승 6합 2작, 米 134석 66합, 位米67 석11두, 位太作米6석 10두, 公作 木11동31필 16尺(자)9寸, 매년 3월 수봉 4월에 배에 짐을 싣고 이틀에 걸쳐 동해를 지나 동래를 거쳐 부산장에 납부(裝載自東海水2日程于東來納于釜山倉), 기묘조위준
- 대 동 : 작목3동 4월수봉 5月以陸路 9日達于京納于惠廳, 미200석 田稅一時收捧納于釜山倉, 미100 석7두 9승 3합 9작儲置本官一從惠廳區劃多寡無常, 기묘조위준
- 균 세 : 船藿漁稅錢 2,585량 8전 4푼 3월 수봉 4월 상납 選武木 35필 9월 수봉 10월 육로 9일 달우경납우 균청, 기묘조위준

(6) 장기현(1871년)

- 한 전 : 원장부 864결 77부 3속 內各樣免稅陳雜 并 538결 91부, 庚牛時起 325결 96부 3속
- 수 전 : 원장부 652결 51부 2속 내각양면세진잡탈병 183결 39부 6속, 경오시기469결 11부 6속
- 전 세 : 木13동 13필, 米91두, 太28석4두, 木則 3월 수납동래, 米太則 4월 수납동래, 米太 年各不同 分參關文收捧수납동래, 自官門東萊至 225리 2일半程, 米木太, 경오위준
- 대 동 : 목 7동 47필, 錢邊木 7동 47필 4월 수봉 民門 5월 상납 該曹京中至 860리, 磊綠 300근 동 시상납
- 조 적 : 邑倉元倉米 1석 3두 9도 5합 6작, 租 1석 5두 7합 1작, 皮毛 3석 5두 8도 4합 3작, 左水營 別餉米 653석 9도 2합 7작, 船價米 55석
- 진 공 : 인삼 · 방풍 · 만형자 · 백작약 · 蟪斯 · 모려 · 石葦 · 白茯神 · 건대구어 · 건광어 · 전복 · 관목청어 · 부藿 · 뇌록
- 균 세 : 包伊浦漁場一庫, 地土衫船 247척, 通船 30척, 漁場稅洋中稅 藿田 109庫 合稅實上 納 1,309량 4월수봉 10월 육로로 9일에 서울 균역청에 납부하였다.(기묘조위준)

(7) 청하현(1765년)

- 한 전 : 원장부 666결 57부 8속內 各樣免稅陳雜頭并 271결 92부 2속, 기묘시기 394결 65부 6속
- 수 전 : 원장부 512결 84부 5속내 各양면세진잡탈병 177결 14부 2속, 기묘시기 335결 70부 1속
- 진 공 : 인삼 · 胎水 · 반(?) · 탕기 · 울늘제(脛膈臍, 해구신) · 복신 · 백작약 · 麥門冬 · 靑木香 · 방풍 · 괴실 · 생문어 · 건문어 · 생대구어 · 板廣魚 · 조곽 · 건대구어

- 조 직 : 元會米 9석 1두 6도 4합 잡곡 775석 12두 6도 2합 6작, 賑色米 828석 7두 3도 5합 6작, 잡곡 226석 11두 4합 7작, 상평창미 199석 4두 3도 5합 7작 잡곡 473석 9두 2도 8합1 작, 私賑雜穀 114석 1두 6도 7합 9작, 別會米 8석 2두 6도 5합 6작 잡곡 891석 14두 7도 5합 매년 10월 開倉 12월封倉, 기묘조위준

(8) 청하현(1871년)

- 전 부 : 원장부 666결 57부 8속內 各樣免稅陳雜頭并 239결 3부 4속 時起 427 54부 4속
- 수 전 : 원장부 512결 84부 5속 내 각면세진잡탈병 127결 81부 7속 시기 385결 2부 8속
- 전 세 : 木 9동 3필, 米 108석 10두 6도 6합 7작, 太 16석 3도 7합 6작
- 대 동 : 本木 5동 17필, 作木 5동 17필
- 결 전 : 459량 9전 4분
- 요 역 : 柴除雜戶 每戶12丹式 捧用, 鷄炭藁除復戶 每結 鷄1脚 炭1斗 藁2斤半式捧用, 교체시 新官刷馬 21駄內 10半出於大同米(今廢), 10태반及 대마 1필價 30량 出於大同 夫瓜遞時 刷馬20 傳出大同米(금폐), 罷歸時 쇠마20태 傳賣大同 夫巡營納年分紙 20속 代錢 50량及 田籙簿大膽書紙 30속 小膽書紙 60속 價以時起結從時價磨鍊收捧 各營呈公 事使南北傳關使路貫除雜頭 戶一從煙家數元戶穀1斗 每斗價 1전 4분식 春秋分捧
- 진 공 : 인삼·반(?)·올늘제·복신·백작약·맥문동·청목향·방풍·괴실·건대구어·건문어·건광어·조곽·분곽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선조의 지방재정도 중앙재정과 같이 주요수입원을 소규모 경영의 자급적 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봉건농민으로부터 획득하는 조세(地代)에 두었다. 재정수입의 원천이 기본적으로 소농경영의 내부에서 실현되는 잉여생산물 또는 잉여노동이라고 하더라도 그 수취양식에는 여러 가지 형식이 있었고 또한 그것이 시대의 추이와 더불어 변화되어 갔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지방재정의 수입을 종목별로 분류하면 ①토지수입, ②공물(貢物), ③역(役), ④잡세, ⑤환곡이자 등으로 나누어진다.

①의 토지수입에는 관둔전(官屯田)과 같은 직영지수입(直營地收入, 임란 후 관둔전의 경영방식이 소작제로 전환함에 따라 둔세(屯稅)라고 일컫는 소작료로 변화함)과 아록(衙祿)·공수전(公須田)과 같은 공전(公田)=민전(民田)에 대한 결세(結稅, 田稅, 大同稅 등)수입이 있고, ②의 공물에 있어서 지방관부의 수입이 되는 부분은 지방공물 또는 향공(鄉貢)이라고 부르는 영읍(營邑)의 수용(需用)을 위한 치(稚)·계(鷄)·시(柴)·탄(炭)·목(木) 등으로 구성되는 본색(本色)공물이다. 이 지방공물은 본색공납제를 철폐한 후기의 재정 개혁(대동법실시)에서도 제외되어 갑오개혁에 이르기까지 존속하였다.

③의 역에는 요역(役 : 賦役)과 신역(身役)이 있으며, 지방관부에 제공하는 요역도 중앙관부에 대한 요역과 더불어 대동에 흡수되어 지세화(地稅化, 結役化)되었고, 지방

관부에 배정된 균역과 직역(職役)의 신역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추세에 따라 의무적 입역제(入役制) 대신에 물납제(物納制, 포(布)·전(錢)·곡납(穀納))로 변천해 갔다. 이 결과 17세기 이후 신역(신포(身布)·곡(穀)·전(錢)) 수입이 지방재정의 세입구조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④의 지방관부가 획득하는 잡세에는 장시세(場市稅)·무세(巫稅)·장세(匠稅)·점세(店稅)·해세십일조(海稅什一條), 사세(寺稅) 등이 있다.

⑤의 환곡이자에는 지방관부에서 설치한 환곡의 이자수입과 경사곡(京司穀)의 이자(耗穀)의 일부를 이급(交付)받음으로써 얻게 되는 수입이 있다.

조선중기 이후 지방재정에도 중앙재정과 같이 큰 변화가 일어났다. 17세기에 대동법을 중심으로 하는 재정개혁으로 지방재정이 대동세(留置米)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균역·직역의 신공(身貢)수입과 환모(還耗)수입이 지방비의 새로운 재원으로 등장하였고 또한 재정위기가 말기적 증상을 띠고 확대 심화된 18세기 이래로 과외 잡세의 수탈이 증대되어 갔다.

각 고장의 전세를 비롯한 각종 세의 수납방법은 각 고을마다 설치되었던 읍창을 비롯한 각종 창고에 세곡을 거두어 보관하였다가 세곡수송규정에 따라 각 고장이 1~2개월가량의 시차로 육로와 해로로 동래부와 부산창 그리고 서울의 해당 청에 수납하였다.

전세는 3~4월에 수봉(收捧)하여 4~5월에 2~3일정(日程)으로 육로로 동래부로, 또는 같은 시기에 해로로, 동래를 지나 부산창에, 대동세는 3~4월에 수봉하여 4~5월에 육로로 9~10일정으로 서울선혜청에, 균역세는 2~4월에 수봉하여 3~5월에 육로로 9일정으로 균역청 또는 호조에, 화세는 4월, 결철(結鐵)은 5월에 서울 호조로 납부토록 하였다.

대부분 양민의 호나 장정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결전, 대동, 전세를 모두 합하면 적은 양이 아닌 것이다. 1871년(고종24년) 2월 경상좌도의 암행어사의 “환곡의 폐단이 가장 심한 데가 용궁(龍宮)과 연일(延日) 등이다” 라는 보고와 1891년(고종 28년) 9월 경상감사의 ‘연일현의 체납에 대한 보고’ (《고종실록》)는 그러한 사실을 단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고종 말년 국내외의 어려운 형세가 겹쳐져서 백성들의 살림이 더욱 어렵게 된 데 기인한 결과로 보인다.

2) 수취제도의 문제점과 소지 사례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17·18세기 농촌사회의 변화, 상공업과 화폐경제의 발달, 신분체제의 와해로 중세적인 사회·경제 질서가 동요되는 가운데 조정에서는 국가의 장래나 민생을 위해 대동법과 균역법 등 수취제도를 개편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도 궁극

적으로 농민의 생활을 향상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고 특히 전근대적인 수취제도의 운영은 조선사회의 신분체제가 완만하게 붕괴되어 가는 과정에서도 신분상승을 바라볼 수 없는, 납세의 능력조차 없는 가난한 양민을 괴롭혔던 것이다. 이러한 조선후기 수취제도의 문제점이 노출되는 사례의 하나가 백성이 지방수령에게 진정하는 ‘소지’였다. 각 고을에서 이루어졌던 몇 가지 사례를 채집 소개하여 당시의 상황을 이해코자 한다.

〈사례 1〉

기계면 답계거리(番溪渠里)에 거주하는 박재운(朴在雲)
(당시 기계창전에 세워진 박만용유공비)

삼가 사유를 들어 진정하는 것은 공이 있으면 반드시 상을 주고 노고가 있으면 반드시 보수를 주는 것이 고금의 이치인데, 지난 무자년(1828)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백성이 …… 미조(米祖)를 돈으로 바꾸어 내게 되어 공문이 오기를 미(米) 한 섬은 3량 4전, 조(祖) 한 섬은 1량 2전씩이란 발령(發令)이 온데, 유독 저 창고의 아전은 급히 공문을 훔쳐 간계를 꾸며 덮어 감추고 전령(傳令)을 사사로이 하여 미(米) 한 섬에 9량 4전, 조(祖) 한 섬에 6량 2전씩을 화급히 거두어들이니, 이에 백성들은 일극지심(一戟之心)을 품었으나 관리들이 총명을 가리울 즈음 이에 저의 아버지(박용만)가 의를 나타내어 앞장서 인도하여 영(營)과 부(府)에 억울함을 호소하여 특별히 세금의 일부를 탕감하는 은혜를 입음으로써 새로이 가격을 상정(詳定)하여 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위의 아전이 저의 아버지를 무고로 얽어 얽히 벌을 주어 멀리 하동지방에 유배토록 하니 이 때 집은 기울어지고 재산은 탕진되었으니 공로가 있으면 상과 보수가 필경 돌아온다는 말을 감히 입을 놀려 말할 수 없습니다만 사람의 자식이 되어 아버지가 공적을 떨친 땅에서 어찌 능히 입을 다물고 말을 못하고 가만히 좌시할 수 있겠습니까? 마침내 사유를 구비하여 면(面)과 향(鄉)에 호소하오니 높으신 뜻을 이어받아 민가에 부과하였던 여러 잡역을 감해 주는 완문(完文)을 이루어 발급해 주시길 바라나이다. 앞드려 듣자옵건데 암행어사가 내도(來到)하옵신다기에 감히 한번 죽음을 무릅쓰고 밝혀 살피주시옵기 호소하오니 이를 특별히 가엽게 여기시고 권장하시어 성전(盛典)으로 다시 완문을 성급(成給)하여 입다물고 말 못하는 원통한 일이 없도록 하시도록 분부하옵실 일. 암행어사 주 처분

무인(1878)정월 일 수결

상세히 조사하여 전감해라

(마패 印, 원문생략)

※ 번역문의……은 9~10자 정도 있었으나 찢겨 없어진 부분이며, ()의 이름과 연대는 필자주이다. 그리고 수결은 오늘날의 사인으로서 그대로 나타낼 수 없어 마패인과 함께 생략하였음.

위의 소지는 암행어사의 결재를 받아 소원이 처리된 것으로 관에 진정할 때 기계 21개동, 신광 20개동, 안강 16개동, 죽장 10개동의 마을 대표자가 연명으로 날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자료는 필자가 소장자(박만용의 6세손 지행면 읍내리 거주 박순복

씨)를 통해 확인하였다. 그리고 위의 소지에 등장하는 부는 장사랑(將仕郎, 종9품) 박만용(朴萬龍, 1782~ 1853)이며, 그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사후 아들 춘(재)복과 재운이 1869년 기계면 현내동 읍창터 앞(현 기계노인정 근처)에 ‘박만용유공비(朴萬龍有功碑)’를 세워 오늘날까지 보존되고 있다.

〈사례 2〉

강원도 원주(原州) 유학 이철모, 이원봉, 이상덕 등이 삼가 목욕재계하고 충훈부당상관 각하에게 글을 올립니다. 엎드려 생각컨대 아름다움을 포상하고 권장하는 것은 조정의 훌륭한 법이고 숨은 미덕을 밝혀주는 것이 우리 백성들의 떳떳한 품성입니다. 그러므로 숙교(叔敎)의 손자에게 호역(戶役)을 회복해 주고 기계(祈奚)의 후에게 조상의 덕으로 식록(食祿)을 주는 것이 그 한 예이옵니다. 본도 원주의 옛날 임진왜란 당시 선무원종 이등공신(宣武原從 二等功臣) 중의 한 사람인 합천 이응표공은 저의 8대 방조(傍祖)입니다. 임진왜란으로 나라가 소란할 때 창의하여 왜적을 무찌르고자 이충무공과 더불어 함께 한산도를 (소지와 이에 대한 충훈부의 결재) 가리키고 지도를 그리면서 시가와 문장을 주고받던 일은 지금에 이르러서도 소상히 밝혀져 있고, 천장(天將)이라 일컫던 이(여송) 제독도 이응표공을 처음 대해보고는 중국낙양에서 사람다운 사람을 본 후로 조선에서 그같은 사람을 다시 한 번 보게 되었다고 하였으니 그 크신 공훈은 저희들의 쓸데없는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조정의 공훈록에 뚜렷하여 가히 살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딱하게도 공의 후손이 약하고 가난하여 지금은 영남의 연일에 이사를 해서 살고 있지만 잡역을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정에서 바르게 잡역을 면제해 주는 뜻을 완문으로 성급하여 영과 읍에 엄히 가르쳐 온바 있으나 뜻밖에도 근래 잡역 등을 하여 하나도 탕감(蕩減)을 해주지 않고 어리석은 백성과 같이 취급하여 잡역을 부과하고 있으니 이것은 옛부터 시행해오던 법이 오래되어 잘 지켜지지 않는 데에서 오는 폐단일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이 약하고 용렬한 탓이옵니다. 이것이 어찌 옛날 열성조계서 수교(受敎)하신 뜻이라 하겠습니까? 저희들은 비록 방손(傍孫)이지만 원통함을 가늘길 없어 이에 우러러 글을 올리오니 엎드려 원컨대 통촉하옵신 후에 특별히 해당 읍에 관문(公門)으로 하명하시어 꼭 시행되도록 하여 주시어 다시는 잡역을 하지 않도록 ‘완의(完議)’로 성급하여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법을 되살려 오래도록 실천케 하여 주신다면 이보다 더 다행한 일이 없사옵니다.

명령(분부)하옵실 일.

후손 : 연일에 사는 유학 이기근·이연근·이보근·이만근·이태근 끝(원문생략)

※ 이보근(1827~1894)은 자료소장자인 대승면 장동거주의 현 영일향교전교 이태돈 씨의 증조부이며, 나머지 사람은 증증조부들임.

위의 소지에 대한 회답으로 ‘원주장(原州狀)’ (충훈부 합하가 1875년 처분한 글로서 소지 앞면에 기록됨)과 ‘일일배관(日日背關)’ (영일관(官)이 충훈부의 공문에 의해 만든 완문으로 소지 뒷면에 기록되어 있음)이 소지 앞뒤에 적혀 있는데, 그 내용은 공훈이 있는 후손에게 잡역을 면제토록 영구히 준행하라는 것이었다.(원문생략)

〈사례 3〉 완문(文)

완문을 성급해 주는 사람은 현재 경주부에 살고 있는 국가에 공훈을 남긴 자의 후에 박기영(朴祺永)으로서 조선 인조조에 진무공신(振武功臣)을 지낸 무영군(務寧君) 박상(朴)의 자손과 그의 선조들이 많은 공을 세워 이름을 떨치고 그 자손들이 대대로 그러한 기록을 이어 왔으므로 조정에서는 지금까지도 혜택을 주어왔다. 역대로 공훈을 남긴 사람들끼리 한데모아 삼혈(血)을 맹세하며 천지산천에 제사를 지내고 돌에 새겨 표창하기도 하였으나, 근래에 와서는 지방읍에서 법제화된 전례가 없지 않지만 매양 올바르게 뜻이 전해지도록 조정에 품계 하여 그대로 실시되도록 말하는 자들이 있다. 국가에 유공자의 자손들이 보답을 바라고 있는 것은 역시 이와 같은 일을 행함이 소홀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필히 실천될 수 있도록 지시하여 공훈자 자손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하고 간혹 지방에 이러한 중대한 법례가 없으면 전례에 따라 시행토록 하여 지방 수령들은 그 자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완문을 만들어 지시하니 해당 수령들은 본관의 명에 따라 시행토록 하라.

공훈자의 후에 박기영

광서(光緒) 12년 5월 10일

충훈부(忠勳府)

수결(手決)

(원문생략)

이 완문은 1886년에 성급된 것이며, 그 이듬해에는 박기영(1827~1911, 기계면 탐정 입향조)의 아들 박명수(기계면 오도리)가 성주(城主)에게 공훈자의 후손으로서 면역(免役)을 바라는 소지(所志, 진정서)를 올린 바도 있었다. (자료소장자, 박기영의 4세손인 거주의 박영락씨)

〈사례 4〉

남관동 화민(化民) 이규선(1856~1928)은 성주 합하게 엮드려 소원하옵니다. 족전(族錢)을 징수하는 법 가운데 한 가지는 가까운 친척을 좇아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한 가지는 잘 사는 친척을 좇아 징수하는 것인데, 이번에 덕동(德洞)에 사는 이지근(李志根)은 저에게는 7촌 내지 8촌이고, 그에게는 친형제와 조카가 있는데도 덕동 동임(洞任)은 이지근의 공전을 저에게 혼자 물게 하니 이것이 어찌된 까닭입니까? 가까운 친척으로 말한다면 친형제와 조카가 있고, 잘 사는 것으로 말한다 해도 그들은 전답이 있어 넉넉한 편인데도 어찌 지극히 딱한 먼 친척에게 멋대로 물게 하는지요. 이에 호소하옵니다. 밝은 법아래서 사실을 참작하옵신 후 이지근의 공전은 자기의 친형제와 조카에게 징수케 하고 저같은 백성에게 멋대로 세금을 물지 않게 해주십사하는 뜻이옵니다. 특히 덕동 동임에게 이 사실을 엄히 밝혀 시끄럽고 억울하게 호소하는 폐단이 없도록 명하시도록 분부하옵실 일.

성주(城主) 처분

갑오(甲午 : 1894) 2월 일(원문생략)

〈사례 5〉

영일현 북면 굴암리(현 포항시 지곡동)의 충신·효자로 전국적으로 이름난 배태봉·백원·득중 3대와 관계된 소지로 배득중(1817~1893 : 통정대부돈녕부도정(通政大夫敦寧府都正))이 조부 배태봉(1757~1810, 가선대부공조참판(嘉善大夫工曹參判))과 부 배백원(1781~1865, 가선대부동지중추부사(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 경희궁위장(慶熙宮衛將))의 탁월하고도 특이한 ‘충(忠)’과 ‘효(孝)’로 조정으로부터 정표(旌表)를 받고 그 자손들이 그 공으로 환상잡역(還上雜役)이 영구히 견감되는 증명서인 완문과 관첩(關帖)을 남기게 되었으나 때에 따라 그 조치가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사실을 1878년(戊寅)정월 관에 진정하여 수령의 잡역견감의 분부를 받아낸 소지도 있다.(자료소장자, 포항시 대잠동 780~177번지 포철주택 다동 2호에 거주하는 배득중의 5세손 배몽학 씨)

이상과 같은 사서(士庶)·하리(下吏)·천민이 관부에 올리는 소장·청원·진정서 등을 모두 소지라고 하나 그 내용은 소송·청원·진정 등 다양하게 나타나며, 발괄(百活)이라고도 한다. 당시의 사서들이 생활하는 중에 일어난 일로서 관부의 결정(판결)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민원에 관한 문서이고, 당시의 사서의 생활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그 시대의 사회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자료로서 사회사연구에 중요한 1차적 자료가 되고 있다. 따라서 그 내용이 인간사의 다양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오래 보관이 잘 되고 있으며, 영일권 지역에도 여러 고문서 중에서도 면역진정에 관계되는 소지가 역시 다소 보존되고 있어 그 일부를 소개할 수 있게 되었다.

2. 농수산업

1) 농업

이상의 수취제 하에 형성된 영일지역의 농업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1765~1871년 사이의 인구, 농토면적, 토산물 및 저수지 상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호구(1789년)

먼저 호구를 보면, 조선전기 15세기의 영일만권 각 고장의 호구수가 흥해·영일·장기·청하·기계·신광의 순위였으나, 조선후기 18세기의 이르러서는 1·2위의 순위가 흥해, 영일에서 영일, 흥해로 바뀐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으나 뒤에서 다룰 포함창진(浦項倉鎭)의 설치(1731~1784)와 상업발전에 주목하면 문제해결에 어느 정도 접

근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우선 관견(管見)으로서 첫째 영일현의 북면(오늘날의 포항시 내 지역)에 농토와 염전이 개간 확대되었던 것, 둘째 영남굴지의 포항창진의 설치로 영일현 북면으로 유동이주민이 크게 늘어나고, 이와 함께 장시가 형성 발전되어 상업 인구가 늘어났던 것, 셋째 당시 농촌사회의 새로운 현상은 구황농작물의 재배와 상업적 농업의 성행이었는데, 밭이 많고 교통이 편리해진 영일현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 군·현·면 | 호구수 (호) | 인 구 | | |
|-------|------------|--------|-------|--------|
| | | 계 | 남 | 여 |
| 흥 해 군 | 3,520 | 12,900 | 5,669 | 7,231 |
| 영 일 현 | 4,015 | 18,544 | 8,226 | 10,318 |
| 장 기 현 | 2,174 | 8,138 | 4,270 | 3,868 |
| 청 하 현 | 1,665 | 6,319 | 3,120 | 3,199 |
| 기 계 면 | 1,225 | 3,519 | 1,516 | 2,003 |
| 신 광 면 | 628 | 2,074 | 775 | 1,299 |
| 죽 장 면 | 803 | 2,108 | 858 | 1,250 |

(2) 한전(밭)

| 연대 군·현명 | 《여지도서》(1765) | | 《읍지》(1832) | 《읍지》(1871) |
|------------|--------------|-----------|----------------|---------------|
| 흥 해 군 | 원장부(元帳付) | 938결67부8속 | 좌 와 동 | 882결 5부4속 |
| | 시 경 (時 耕) | 633결65부3속 | 좌 와 동 | 633결65부3속 |
| 영 일 현 | 원 장 부 | 1,803결 1부 | 1,794결44부 | 1,794결44부 |
| | 기 묘 시 기 | 797결65부1속 | 839결64부1속(신묘년) | 878결86부8속 |
| 장 기 현 | 원 장 부 | 864결77부3속 | 864결77부3속 | 864결87부3속 |
| | 기 묘 시 기 | 415결87부4속 | 339결66부6속(신묘년) | 325결96부3속(경오) |
| 청 하 현 | 원 장 부 | 666결57부8속 | 666결57부8속 | 666결57부8속 |
| | 기 묘 시 기 | 335결70부1속 | 403결97부8속(신묘년) | 427결54부4속 |

(3) 수전(논)

| 연대 군·현명 | 《여지도서》(1765) | | 《읍지》1832 | 《읍지》1871 |
|------------|--------------|-------------|------------------|------------------|
| 흥 해 군 | 원 장 부 | 1,669결45부 | 좌 와 동 | 1,669결40부 |
| | 시 경 | 1,495결 9속 | " | 1,495결 9속 |
| 영 일 현 | 원 장 부 | 1,306결10부2속 | 1,328결41부9속 | 1,328결41부9속 |
| | 1759년 시기 | 978결72부1속 | 935결25부7속(1831년) | 1,059결32부5속 |
| 장 기 현 | 원 장 부 | 652결51부2속 | 652결51부2속 | 652결51부2속 |
| | 1759년 시기 | 451결53부8속 | 462결73부6속(1831년) | 469결11부6속(1870년) |
| 청 하 현 | 원 장 부 | 521결84부5속 | 512결84부5속 | 512결84부5속 |
| | 1759년 시기 | 335결72부1속 | 374결60부1속(1831년) | 385결 2부8속 |

위 표의 ‘원장부’는 양전의 결과를 등재하는 토지대장인 양안(量案, 田案)에 기록된 전결(田結)로서 진결(陳結, 묶은땅), 은결(隱結, 숨은 땅) 등 각종 사유로 면세 조치를 받는 면세전과 원래는 관세전인데도 재변(災變)으로 임시 면세되는 급재전(給災田) 등 각양면세진잡탈(各樣免稅陳雜)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하여 시경(時耕, 時起)의 전결이 실결(實結)로서 실제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지가 되는 것이다.

《여지도서》의 기묘식년(己卯式年)은 1759년, 1832년 《읍지》의 신묘식년(辛卯式年)은 1831년, 1871년 《읍지》의 경오식년(庚午式年)은 1870년으로 보인다.

(4) 저수지

•흥해군

(1765년) : 長生提, 頓角提, 團林提, 白山提, 載內提, 博澁提, 口末提, 針村提, 義興洞提, 城隍提, 南星提, 太平提, 柿木提

(1832년) : 1765년과 같음

(1871년) : 장생提가 없어짐

•영일현

(1765년) : 葦提, 順提, 助伊提, 釜提, 伐提, 沙加谷提, 中丹提, 太岑提, 內隱谷提, 爾谷提, 大興提, 宅前提, 趙朴洞提, 細谷提, 瓦谷提, 馬跡洞提, 臥谷提, 得良提, 金提, 馬城淤, 苕邑浦淤, 獐池淤, 大隱淤

(1832년) : 1765년의 기존 提와 보이외에 신설된 것으로 末應升提, 齋宮提, 牛淤提, 守仕郎提, 高旨提, 井泉提, 猪洞提, 玉明提, 得良心內提, 院洞提, 世谷提

(1871년) : 1832년의 장지보만 빠지고 그 이외는 그대로임

•장기현

(1765년) : 鼎坊提

(1832년) : 기존의 것에 院坪提, 防禦提가 신설추가됨

(1871년) : 정방제만 남음

•청하현

(1765년) : 呼鶴提, 馬死提, 於火提, 巳浦提, 都北提, 乍谷提, 寶鏡寺川防淤, 大坪川防淤, 廣興川防淤

(1832년) : 기존의 提와 보에 업곡提, 수구방提 신설 추가됨

(1871년) : 1832년의 것에 열청방천보신설추가됨

•기계면

(1669년) : 安心新提, 伐致洞提

(1765년) : 安心提, 介洞勿豆只提, 古通谷提, 伐致洞提

(1832년) : 위와 같음

(1871년) : 위와 같음

•신광면

(1669년) : 五也知提, 大提, 竹洞提

(1765년) : 五也提, 提, 魚寧提, 地德提, 下邑內提

(1832년) : 위와 같음

(1871년) : 위와 같음

1779년(정조2)이 되면 제언절목을 반포하고 전국적으로 제언·보 등 대소저수지를 수리, 신축하여 18세기 말에는 전국으로 저수지 총수가 6,000여 개에 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이앙법이 보급되고 이모작이 가능하게 되고, 견종법을 실시하는 등 농경기 술발달과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어 갔다.

영일권의 각 고장 가운데 저수지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이 영일현이다. 15세기 때 9개소였던 것이 1765년이 되면 24개소로, 1832이 되면 11개소가 신축되어 35개소가 되었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영일현 북면 포항동에 포항창진이 설치된 영일현에서 토착민과 각처로부터 유입된 이주민에 의해 농촌개간이 크게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영일권 각 고을의 제와 보 등 대소 저수지를 수리·신축하는 과정이 민·관의 화합에 의한 피와 땀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러한 노력중 대표적인 사례를 오랫동안 보존되고 있는 1786년의 비(현 흥해읍 권무정영내소재)를 통해 소개한다.

興海九提起績碑

생민지본(生民之本)은 농업에 있고 농사의 근본은 관개에 있으므로 백성을 위한 정사(政事)는 농사짓는데 이로운 보를 막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이다. 흥해고을은 바닷가에 있어 읍이 윤택하고 농사는 많이 짓고 있으나 수원(水源)이 팔려 읍민들이 걱정하고 있었다. 영조 임오(1762년)통제사 김영수공(金永綏公)이 흥해군수로 부임한 후 11개의 보를 막으니 태평(太平), (?)동(洞), 시목(柿木), 都, 덕성(德城), (?)현(峴), 자(?)子, 성곡(城谷), 소장생(小長生), 대곡(大谷), 남(?)南 등이다.

군수 김공이 보를 막을 때에 본인이 직접 현장에 나가 일을 시키면서 입을 옷과 신고 다니는 신발까지도 현장 가까운 곳에 가져다 놓고 기숙하면서 새벽 일찍 공사장에 나갔다가 저녁 늦게 돌아오며 일하는 자 가운데 부지런한 사람에게는 현전(縣錢)으로 상을 주며 쇠고기와 술대접을 해가면서 노고를 치하함이 마치 군대를 통솔하는 것 같이 하였고, 때로는 백성들이 여가를 가지도록 해가면서 일년에 보 11개소를 막았다. 농사를 다 지은 후에는 태평들에서 수세 100석을 거두어 살기 어려운 김상철(金尙喆) 등을 도와주고 10석은 민폐를 끼친 자에게 혜택을 주는 등 골고루 백성들에게 은혜를 미치게 하니 그의 공적은 보를 막는 데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지금은 소장생보과 대곡보가 없어졌으나 당시 공적은 백성들이 칭송했었다.

공은 본디 안동사람으로 무과 급제하여 여러 고을 수령으로 다니면서 백성과 나라를 위해 진력한 기록이 뚜렷이 남아있다. 그러다가 죄가 있다고 옥살이를 하게 되었으나 얼마 후 임금께 죄를 용서받아 통제사(統制使)를 제수 받았다고 한다. 그것은 곧 남을 속이지 않았으므로 임금에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으리라. 이런 사실을 들어본 사람은 누구나 죽음으로 나라에 보답하기를 원하지 않으리요. 애석하게도 당시 보를 막은 김공은 벌써 늙어버렸으니 흥해군수로 재직 당시 보를 막은 업적은 거의 기록이 없어졌다.

그로부터 20년 후에 백성들의 간청에 의하면 공적을 특서(特書)하여 성상(聖上)에게도 알리고 흥해 백성들에게도 고하는 도다.

正祖10年(1786) 丙午 5월에
郡守昌寧 成大中 謹記
築堤監官 閑良 金信得
堅石都監 折衷 崔奎炯

※ (원문생략, 괄호안의 연대는 필자주)

(5) 족계()와 동계(洞契)

조선시대 한 지방이나 한 동리의 주민들이 상부상조할 목적으로 자치적 규약을 만들어 실행한 경우는 크게 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1519년(중종14년) 趙光祖가 덕업상권(德業相勸), 과실상규(過失相規), 예속상교(禮俗相交), 환난상휼(患難相恤)의 4강목을 주된 정신으로 지방자치규약의 성격을 띠고 널리 실시하려고 한 향약이다. 이 향약은 그의 실각으로 성공하지는 못하였으나 그 뒤 향약은 개별적으로 각지에서 시행되어 선조 때에는 전국적으로 널리 성행되었다. 이 향약의 간부인 약정(約正) 등에는 대개 지방의 유력한 사림(士林)이 임명되었고, 일반 농민들도 이에 자동적으로 포함되었다. 그 결과 사림들은 농민에 대하여 중앙에서 임명된 지방관들보다도 오히려 강한 지배력을 가지고 그들의 사회적 기반을 굳게 하였다. 이리하여 향약은 갈수록 그 취지와는 달리 서원과 함께 지방에 있어서 사림들의 지위를 굳게 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다른 하나는 조선후기 농촌사회의 변화와 상공업의 발달 시기에 변화하는 농촌생활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계(契)의 발달을 들 수 있다. 계는 양반에 의해 지도되는 유교적 향약과는 다르다. 향약은 위로부터 유교적 도덕규범을 강요하는 것이었다. 유교적인 규범을 강요하는 향약이 양반사회의 동요와 함께 그 기반을 상실해 간 반면, 농촌사회의 현실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계가 농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계의 발달은 조선후기 양반관료들의 압박 속에서 자기들의 사회적 지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농민들이 활로를 개척하려는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향약이 양반사회의 붕괴현상과 함께 그 의의를 잃은데 비해 계는 반대로 성해갔던 것이다.

계는 처음 친목과 공제를 목적으로 한 것이 많았다. 종계(宗契), 동갑계(同甲契), 혼상계(婚喪契), 동계(洞契) 등은 그러한 것이다. 이들 친목과 공제를 위한 것에는 양반이나, 부호들이 많이 관여하고 있는 경향이 엿보이고 있다. 그러나 뒤에는 점차로 경제적인 곤란을 공동의 힘으로 타개하려는 계가 지배적으로 되어가면서 자연히 가난한 농민들이 많이 가담하였다. 그리하여 공동수리의 제언계(堤堰契), 공동납부의 군포계(軍布契), 공동구입의 우계(牛契) 농구계 등이 성행하게 되었다.

① 삼읍동종계(三邑同宗契)

삼읍동종계는 영천 흥해 경주 3읍을 총괄하는 족계로서 그 중요 목적은 묘제(墓祭)와 시제(時祭)등의 선조봉사(先祖奉祀)와 상호부조(相互扶助)에 있었다.

조선전기의 사족층(士族層)은 피란과 통혼권(通婚圈)의 확대 등 각종의 이유로 거주지를 옮기었는데 옮겨가는 곳마다 새로운 족계를 만들기도 하였다. 영일정씨의 삼읍동종계가 이 경우에 해당된다.

영일 정씨는 각 거주지마다 또한 각 거주지를 총괄하여 족규(族規)를 만들었다. 관련 자료를 보면 영천 거주 鄭四震(1567~1616)이 만든 ‘族中立規’, 鄭克後가 살던 흥해의 ‘曲江宗家會語識’ 그리고 정극후가 1647년(인조 25년)에 경주로 옮겨 살게 되어 그 위의 세 곳을 총괄하여 만든 ‘삼읍동종계절목(三邑同宗契節目)’이 있다.

‘족중입규(族中立規)’는 내용 자체가 간략한데 혼상부조(婚喪扶助), 환난상휼(患難相恤), 과실상규(過失相規)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혼상이나 환난의 경우에도 부물(賻物)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유사(有司)가 수시로 정하여 거두도록 되어 있다. 과실의 경우에는 가볍게는 면책(面責) 중하면 한번 절책(切責)하고 끝내 고치지 않으면 축출토록 되어 있다.

곡강종회도 단지 4조목으로 되어 있다. 일년에 한번 종회를 가지며 이를 위해 적자(嫡子) 한명 서얼(庶孽)한명을 상하유사(上下有司)로 정한다. 이 족규 역시 교육을 강조하여 족중 연소자의 학업 정도에 따라 상벌을 베풀도록 규정했다. 상호부조의 구체적인 시행내용은 규정하지 않았으며 단지 구빈(救貧)을 위한 의곡(義穀)을 설치하도록 논의할 것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삼읍동종계절목(三邑同宗契節目)의 내용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三邑同宗契節目

옛적에 우리 5대조께서 영천(永川) 우항리(愚巷里)에 집을 지어 살으셨는데 고조께서 그곳에 계셨으나 증조께서 흥해(興海) 동부(東部)로 취양(就養)하신 후로 조부형제는 영천과 흥해에 서로 갈라서 살게 되었다가 우리 백형께서 다시 영천으로 이사하신지 40년이 되었다. 근래 계해년(癸亥年) 봄에 우리 형제가 의논해서 경주(慶州) 근계봉(昆季峰) 밑에서 백세토록 함께 살아볼 계획을 하였으나 불행하게도 백형이 돌아가시고 나 혼자만이 살아남아 슬픔을 가눌 길 없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고조 이하 자손이 3읍에 분거해서 살고 있는 자가 무려 수십 수백 명이나 되어 적덕(積德)의 유경(流慶)이 아닐 수 없다. 거리로 따진다 해도 불과 하루 아니면 반나절 거리에 있지만 서로 오가지 않으면 길손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5대조의 합장한 묘소는 영천 고천(古川)에 있고 고조의 묘소는 그 밑에 있으나 고조비(高祖)의 묘소는 유독 장동(牆洞)에 있으며 증조고비(曾祖考)의 묘소는 쌍분(雙墳)으로 흥해 방포(防浦)에 있으니 자손들이 그곳에 살면서 제사를 지내고 있으며 영천에서 태어나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은 흥해에 있는 묘소를 모르고 흥해에 살고 있는 사람도 영천에 있는 묘소를 모르니 어찌 자손들의 크나큰 한이 아니겠는가.

그리하여 이번엔 동종계(同宗契)를 만들어 항시 서로 오가며 선조 묘소를 성묘하고 길흉사를 서로 도우고 정을 나누게 되면 아무리 먼 친척이라도 길손과 같은 처지에 이르지 아닐 것이니 어찌 우리 종중의 큰 일이 아니겠나. 이번에 봉선(奉先) 성묘 취족(聚族) 강목(講睦)에 대한 규약과 길흉사 때 서로 도울 수 있는 절목을 만든 이후에 종중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어쩔 것이라.

辛卯年(1651) 봄 雙峰老人 識

- 一. 3읍(영천 흥해 경주) 동종(同宗)이 함께 책을 만들어 3곳에 비치하여 3읍에 각기 유사 1명을 두고 종중 일들을 관장토록 하고 3년마다 유사를 바꾸도록 한다.
- 一. 3년 안에 1년은 영천 묘소에 성묘하고 1년은 흥해 묘소, 1년은 경주에 알묘(謁廟)토록 하며 묘제는 춘추로 지내고 가묘(家廟)는 수시 제향(祭享)하며 유사가 날짜를 통지하여 함께 모여 제사를 지낸 후에 서로 얘기하도록 한다.
- 一. 성묘와 제사를 지낼 때마다 그곳 자손들이 행사를 주관하며 모인 종중에게 토산품이나 과일을 제공토록 한다.
- 一. 종중에서 초상이 나면 각자 쌀 1말 혼사가 있으면 쌀 5되를 내어서 유사가 수합 운송을 하며 초상 시에는 부모부처상(父母夫妻喪)에 한하며 혼사는 자녀에 한하여 부조하고 날짜는 유사가 통지한다.
- 一. 길흉사 외에도 좋은 일이나 환난이 있을 때는 임시 회의를 거쳐 상호 돕기도 한다.
- 一. 매번 모임 때마다 관련 없는 사람들도 일제히 오도록 하여 비록 아이들이라 해도 부형을 따라 예를 익히게 한다.

- 一. 나이가 많고 적던 간에 한집에 살더라도 결혼한 사람은 서원록(書元錄)에 등재해서 예를 행할 수 있도록 한다.
- 一. 모일 때마다 회원 명단을 기록해서 다음에 볼 수 있도록 하며 길흉사시 부조하는 것도 연월 일을 서원록 뒷편에 기록하여 유사가 관장토록 한다.
- 一. 성알(省謁, 祭享, 墓祭)시에 제수(祭需)와 음식은 깨끗하게 하고 모여서 얘기할 때도 모든 것을 간략하고 검소하게 해서 고인들이 말하는 대로 물박정후(物薄情厚)토록하고 자주 모여서 예법을 익히게 하여 오래토록 조상 섬기는 일을 도모하게 한다.

(6) 농촌사회의 변화

조선후기 농촌사회의 변화와 상공업의 발달시기에 변화하는 농촌생활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계(契)의 발달을 들 수 있다. 유교적인 도덕규범을 강요하는 향약이 양반사회의 동요와 함께 그 기반을 상실해 간 반면, 농촌사회의 현실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계가 농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 고장에도 많은 계들이 있었을 것이나 자료들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다행히 포항의 사정을 말해주는 근거문서로 1887년(고종 24) 7월에 작성되고 1900년대에 들어와서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 ‘대흥동농청계안(大興洞農廳稷案)’이 현존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丁亥 七月十六日 大興洞農廳稷案

대체로 농자는 천하의 대본이다. 네 가지 업종(士·農·工·商) 가운데 선비는 비록 높다하지만 본분에 의해서 즐기며, 工人은 비록 천하지만 본분에 힘써서 살아가고, 상인은 비록 직업적으로 맨 끝이지만 본분에 의해서 통하니 이 어찌 힘써 살아가는 것이 크지 않다고 하겠는가.

옛날에는 나무를 엮매어 집을 삼고 나무열매를 따 먹으며 살았다지만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은 나로서는 모를 일이다.

신농씨(神農氏)가 밭가는 쟁기를 만들고 후직씨(后稷氏)는 씨 뿌리고 파종하는 것을 가르쳐서 비로소 농사일이 시작되었다. 그러던 중 상앙(商鞅)이 정전(井田)을 폐지하여 밭둑길을 열었다. 비록 당시에는 부국정책이라 하였지만, 우리 동방의 성국(聖國)에 있어서도 물에 갇히고 산이 막혔어도 이와 같이 농업을 숭상하여 농사일을 방해하지 않았다.

본동(대흥동)은 교남(嶠南, 영남)지에서 세 번째 가는 포구이나 사람들이 생업을 이루지 못하여 말단 직업인 상업을 버리고 근본(농업)에 힘을 쓰는 자가 별써부터 적지 않았으니 이것이 어찌 신농과 후직씨의 교훈이 아니겠는가. 포구에 사는 사람들은 말업(末業)이기는 하나 근본인 농사일에 힘쓰고 있으므로 본동 서산(西山)터에다가 농청을 부칠 때에는 서편 산록에 金光之 鄭允弘의 선영과 금호구역까지 같이 부쳐서 우리 농청이 함께 힘쓰고 협심하여 구덩이를 메우고 소나무 심기를 규약하였으나 지금

우리 마을에 품팔이 하는 사람이 우리 동 출신뿐 아니라 대개가 객지 사람이 많으므로 한번 수계(修稷)한 후부터는 성은 비록 다르다고 할지라도 정은 형제처럼 지내며 혹시 병이 나든지 사망하면 약을 끊여주고 내 일같이 구원해 주어서 아픈 상처를 주지 말자는 뜻을 영구히 준행하기 위해 제반 조항을 열거하여 좌에 기록한다. (원문생략, 원문은 《迎日郡史》 325쪽 참조 바람)

절목(節目)

- 一. 계회(稷會)일자는 4계절 초월(1·4·7·10) 매(每) 16일로 정한다.
- 一. 계원 중 좌상(座上, 稷長), 무상(務上, 총무), 수초(首樵, 상일꾼), 수총각(首總角, 총각대표)이 신변에 유고가 있으면 상포(喪布) 1단, 백주(白酒) 1단지, 백지 1뭉음을 계전(稷錢)으로 위문한다.
- 一. 그 이하 계원들은 신변에 유고가 있으면 백주 1단지, 백지 한 뭉음으로 위문한다.
- 一. 어떤 초배(樵輩)를 막론하고 절목에 따르지 않으면 매(答) 10대, 돈 한 께미를 시행토록 한다.
- 一. 술에 취해 상식 없이 노소를 분간할 줄 모르면 매 10대를 때린다.
- 一. 급히 서로 모일 때 만약 불참할 시는 매 10대, 술 1단지를 시행토록 한다.
- 一. 무단히 소나 말을 방목하여 곡식을 상하게 할 경우 돈 3전, 매 10대
- 一. 금호구역 내에 초목이라 하더라도 범하는 일이 있어서, 소나무 한 그루를 해치면 돈 3량이고, 쏘나무 한 단이면 돈 5전과 매 10대를 함께 시행토록 한다.
- 一. 계회 때 돈만 내고 불참하게 되면 매양 벌금 5푼으로 정한다.
- 一. 계돈은 계원 중에는 이자를 놓지 않는다.
- 一. 풍물(風物 : 징·장구·핑가리·북 등)은 초상시·잔치·줄다리기 외에 상하게 할 경우 큰 징은 20량, 작은 징은 3량씩 징수한다.
- 一. 영이(靈輻, 상여)는 본동 초상 시에는 2량, 장례 때에는 3량, 타동 초상시에는 3량, 장례시에는 4량씩 징수한다.
- 一. 관복단(官服段)은 계원이 빌리면 2량, 계원 외의 사람은 3량씩으로 정한다.
- 一. 영이와 피복을 상하게 하면 변상토록 한다.

이상에서 나타난 바로는 대흥농청계가 대흥동민을 중심으로 결성된 것으로서 그 취지는 토착민은 물론 타향에서 온 많은 사람이 계에 들어와서 근본(농업)에 힘쓰고, 바르게 사는 유래의 규칙을 지켜서 상부상조(相扶相助)하자는 것이었으며, 그리하여 계원이 지켜야 할 절목을 정하여 엄격히 시행하도록 하였다.(일제강점기에도 잘못이 있는 계원에게는 매를 쳤다고 함)

이 대흥농청계가 언제부터 시행되어 왔는지는 그 연대를 밝히기가 현재로서는 어렵

다. 그러나 1887년 계안이 작성된 것으로 보아 그 이전의 계안을 찾지 못했을 뿐이지 계가 이미 결성되었을 개연성은 있는 것이다.

조선시대 한 지방이나 한 동리의 주민들이 상부상조할 목적으로 자치적 규약을 만들어 실행한 경우는 크게 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1519년(중종14) 趙光祖가 덕업상권(德業相勸)·과실상규(過失相規)·예속상교(禮俗相交)·환난상휼(患難相恤)의 4강목을 주된 정신으로 지방자치규약의 성격을 띠고 널리 실시하려고 한 향약이다. 이 향약은 그의 실각으로 성공하지는 못하였으나 그 뒤 향약은 개별적으로 가지에서 시행되어 선조 때에는 전국적으로 널리 성행되었다. 이 향약의 간부인 약정(約正) 등에는 대개 지방의 유력한 사림(士林)이 임명되었고, 일반 농민들도 이에 자동적으로 포함되었다. 그 결과 사림들은 농민에 대하여 중앙에서 임명된 지방관들보다도 오히려 강한 지배력을 가지고 그들의 사회적 기반을 굳게 하였다. 한마디로 향약은 갈수록 그 취지와는 달리 서원과 함께 지방에 있어서 사림들의 지위를 굳게 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다른 하나는 조선후기 양반관료들의 압박 속에서 자기들의 사회적 지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농민들이 활로를 개척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나타난 계를 들 수 있다. 계는 양반에 의해 지도되는 유교적 향약과는 다른 것이다. 향약은 위로부터 유교적 도덕규범을 강요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계는 현실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향약이 양반사회의 붕괴현상과 함께 그 의의를 잃은데 대해서 계는 반대로 성해갔던 것이다.

계는 처음 친목과 공제를 목적으로 한 것이 많았다. 종계(宗契)·동갑계(同甲契)·혼상계(婚喪契)·동계(洞契) 등은 그러한 것이다. 이들 친목과 공제를 위한 것에는 양반이나 부호들이 많이 관여하고 있는 경향이 엿보이고 있다. 그러나 뒤에는 점차로 경찍인 곤란을 공동의 힘으로 타개하려는 계가 지배적으로 되어가면서 자연히 가난한 농민들이 많이 가담하였다. 그리하여 공동수리의 제언계(堤堰契), 공동납부의 군포계(軍布契), 공동구입의 우계(牛契)·농구계 등이 성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때 대흥농청계는 후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그 이유는 첫째 1,500년 대에 두호·학산지역을 제외한 포항지역에 향약을 둘 만큼 고을이 형성되어, 이를 지도할 양반들이 이곳에 거주했으리라는 추정은 무리한 일이다.

둘째, 앞의 조선후기 편에서 포함지명 유래를 살펴보았지만, 포항리의 전신이라고 생각되는 대흥리가 1693년의 영일현감 발행의 호적부에 처음으로(현재로서는) 나타난 점이다. 따라서 대흥농청계의 형성 시기는 빨라도 대흥리가 동명으로 나타나는 1693년 이전으로 넘어가기는 어렵다 하겠다.

결국 그 시기는 당시 포항 농민들의 생활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1731년

포항창진이 설치된 후 18세기 후반 상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기존의 토박이 농민들이 자구책으로 대흥농청계를 결성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추정은 지방신을 봉안하여 춘추로 향제(享祭)를 집사하고 고장의 안녕과 국태민안을 비는 사당의 이름이 포항사당이라는 데에서 크게 힘을 입고 있다. 18세기에 이르러 대흥리가 포항리로 개칭되었지만 계명은 처음 붙였던 대흥농청계로 그대로 두고 사당명칭 포항을 따서 포항사당이라 하여 점차 발전 확대되어 가는 영역을 포용했다고 짐작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포항사당이 일찍 건립되어 포항동민의 제당이 되었을 것이나 현재 남아 있는 대흥농청계의 기록으로는 1914년 3월 포항동동진(浦項洞東鎭), 포항동서진(浦項洞西鎭), 원여천동진(元余川洞鎭), 원신흥동진(元新興洞鎭) 4진을 결합하여 초대 통장(統長)에 대흥농청의 金聖雨를 추대하여 매년 춘추향제를 봉사하였다는 것이다.(포항사당에 대한 것은 일제강점기의 민속조 참조)

2) 수산업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국토의 3면이 바다라는 천혜의 어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중세사회의 어업에 대한 무관심, 어민 신분의 천시 등으로 어업진흥책이나 기술개발은 외면되었을 뿐만 아니라 탐관오리들의 어민수탈로 인해 어민들의 생활은 전반적으로 빈약함을 면치 못하였다. 따라서 이 고장에서도 어민들은 내륙지방의 농민들보다 낮은 사회적 신분의 ‘뱃놈’ 소리를 들으면서 곳곳이 생업에 종사해온 것이다.

백성들은 전세(田稅) 이외에도 요역(徭役)과 진공(進貢)의 부담을 안아야 했다.

영일만권의 흥해·영일·장기·청하 등은 기계·신광·죽장과는 달리 영일만을 둘러싼 해변가 고을로서 반농반어(半農半漁)생활을 해온 터로 각종 읍지(邑誌)에 밝혀둔 진공품은 태반이 수산물이었다.

여러 연대의 진공품 중 1871년의 것과 토산품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해산물을 각 고장 별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진 공 품 | |
|-------|---|
| 흥 해 | 생대구어(生大口魚:今廢), 건광어(乾廣魚), 건대구어(乾大口魚), 백문어(白文魚:금폐) |
| 영 일 | 괭이(藪耳:방언으로 귀달이), 분괭(粉藪), 대전복(大全鰻), 건대구어, 관목(貫目), 구판(龜板) |
| 장 기 | 건대구어, 건광어, 전복, 관목청어(貫目靑魚), 조괭(早藪) |
| 청 하 | 건대구어, 건문어, 조괭, 분괭 |

※ 관목청어 : 과메기청어, 관목 : 과메기

| 토 산 품 | |
|-------|--|
| 흥 해 | 鯪, 대구어, 청어, 紅蛤, 광어, 방어(魴魚), 鯊魚(상어), 古刀魚(고등어), 海衣(김), 해삼(海蔘), 송어(松魚), 흥어(洪魚), 藿(미역) |
| 영 일 | 海獺(물개), 방어, 연어(鱒魚), 북, 광어, 대구어, 흥합, 은구어(銀口魚), 청어, 해의, 곱, 황어(黃魚), 전어(錢魚), 송어, 사어, 흥어, 고도어, 사염(沙鹽) |
| 장 기 | 광어, 해삼, 사어, 대구어, 방어, 송어, 청어, 북, 흥합, 곱, 문어(文魚), 해의 |
| 청 하 | 방어, 북, 대구어, 청어, 흥합, 해의, 곱, 광어, 문어, 삼신어(三申魚), 고도어, 도야미(道也味), 사어, 흥어, 해삼 |

위의 진공품과 1765년, 1832년의 것을 비교해 보면 시대가 지날수록 고을에 따라 생복, 생대구어, 생문어, 건문어, 백문어 등이 진공에서 제외되고, 건대구어·건광어·전복·분과·관목(貫目, 과메기) 등이 주종을 이루어갔다. 이는 당시 생선이 잘 잡히지 않아 조정에서 몇 가지 어종을 진공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조실록》7년 9월조)

균역법 시행(1751년 영조27) 후 작성된 흥계희(洪啓禧, ?~1771)의 《균역사실책자(均役事實冊子)》에 의하면, 어장은 일식(日式)에 따라 매선(每船)으로 세액을 작정한다. 흥해·연일·장기·울산의 청어장(靑魚場)은 지토선(地土船)이나 다른 읍의 배를 물론하고, 또 대·중·소선(小船)을 묻지 않고 휘리(揮羅, 후릿그물, 地引網)선(船)이면 매선 20량으로 세를 정하고, 세망(細網, 刺網)선은 6량으로 하였다.

이후 100여년이 지난 1871년의 《읍지》에 나타난 이 고장의 수산업과 관련된 납세조는 다음 표와 같다.

납세조(納稅條)

| 세종 읍명 | 선세와 어장세 | 곽 세 | 염 세 |
|----------|--|-------------------------|---|
| 흥 해 | 船稅錢 : 13兩 5錢 漁稅田 : 545량 | 藿稅錢 : 121량 5분 | |
| 영 일 | 衫船 88척(稅錢) : 181량 5전, 廣船 22척 : 37량, 行商船 6척 : 25량, 漁場揮羅船 4척 : 60량, 細網船 6척 : 30량, 洋中擧揮羅船 15척 : 150량, 去處船 3척 : 12량, 漁船 2척 : 4량 | 藿田 11庫(세전) : 146량 5분 | 鹽釜 63坐(세전) : 308량 4전 6분 鹽盆 2좌 : 12량 |
| 장 기 | 包伊浦어장 1고, 地土衫船 247척, 桶船 30척, 어장세, 洋中稅 | 곽전 109고 ※總合稅 : 1309량 | |
| 청 하 | 漁箭, 염분, 無漁船, 衫船 121척 : 144량 5전 | 곽전 6고 : 150량 | ※염분 稅錢은 船·漁場 세전에 합쳐짐 |

염전에도 염부(鹽釜) 1좌에 약 5량, 염분(鹽盆) 1좌에 6량의 염세를 받고 있었다. 염세는 1765년과 1832년에도 거둔 것으로 보아서 이 고장에는 일찍부터 염전에서 소금을 만들어 왔다는 것이 재확인 된다.

곽(藿, 미역)은 호남·영남·관동등지에만 산출되나 산출의 많고 적음에 따라 곽세(藿稅)가 달라서 영남은 곽매동(藿每洞, 50條=1束, 50속=1洞)에 7량 5전으로 정하였다 한다. 이 고장에서는 곽전(藿田, 미역 따는 곳)을 기준으로 세를 받아서 1庫에 약 13량 50전이 되었다.

납세조에 고기잡이 어선명이 몇 가지 등장하는데, 이를 이해하자면 당시 경상도 동해안의 어업양상을 개관해야 한다. 경상도 어업에는 어장·어조·방렴의 3가지 명칭이 있는데, 해곡수십리지간(海曲數十里之間)에 절어(筍魚)가 모이고 어선이 모이는 것을 ‘어장(漁場)’이라 하고, 해어(海魚)가 왕래하는 데는 일정한 어로(魚路)가 있는데, 고기잡이가 어로를 따라 어선을 정박시키고 각자 일정한 장소에서 그물을 치고 고기가 들기를 기다리는 것을 ‘어조(漁條)’라 하고, 대로 짠 밧을 지주로서 고정시키고 어로를 가로 자르는 것을 ‘방렴(防簾)’이라 한다 하였다.

그리고 어장은 바다에는 대구·청어어장, 강에는 강어(江魚) 휘리장(揮羅場)이 있고, 어조는 바다에만 있는데 역시 대구·청어어조와 잡어어조가 있고, 방렴은 바다에 있는 것을 립(簾), 강에 있는 것을 전(箭)이라고 하는데, 바다에는 청어·대구림 및 잡어림이 있고, 강에는 강어전(江魚箭)이 있다고 하였다. 어장은 특정한 한 종류의 어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다에서 대구·청어 및 문어를 잡는 곳, 강에서 휘리망을 사용하는 곳을 가리킨 것이다. 세망선(細網船)이 조업하는 곳을 어장에 소속시키고 있다. 휘리망은 지인망(地引網)이고 세망은 청어자망(刺網)이다.

경상도의 어조는 정치망(定置網)의 일종인 어장이었다. 경상도에서는 대구와 청어를 주로 어장과 방렴으로서 어획하였다.

방렴은 어전과 유사한 건림식어구(建簾式漁具)였으며 방렴어업은 경상도지방에서 가장 성하였다. 경상도의 어구에는 이 이외에도 양중거처조(洋中去處條)와 양중거휘리(洋中擧揮羅)가 있다. 양중거처조는 청어·대구어기(漁期)의 어장이나 어조에 들어가지 않고 오로지 대양(大洋) 중에서 착어(捉魚)하는 것인데, 양중에서 자망 따위로서 조업한 것이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양중거휘리는 양중에서 사용되는 거휘리망으로서 이는 일제강점기까지만 하더라도 동해안 일대에서 청어 어획용으로 많이 사용되었던 일종의 여망류(旅網類)이다.

영일현에서는 어장휘리선은 1척에 15량을, 세망선은 1척에 5량을, 양중거휘리선은 1척에 10량을, 거처선(양중거처조인 것으로 보임)은 1척에 4량을, 어선은 1척에 2량씩의 세전을 각각 징수했던 것이다.

또한 앞서 인용된 바와 같이 삼선 88척에 181량 5전을, 광선 22척에 37량을, 행상선 6척에 25량의 세전을 받았던 것이다. 이들 배는 선척의 파수(把數:길이)에 의하여 등급을 나누어 수세하였다고 한다.

이 고장을 에워싼 동해안 지역은 어장(어선)세와 광전세(藪田, 미역 따는 곳)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1890년도(고종 27)의 과세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과세현황

| 지방별 | 세종별 | 어 장 세 | 광 전 세 |
|-------|-----|-------|---------|
| 흥 해 군 | | 526兩 | 121량 5분 |
| 영 일 현 | | 260량 | 146량 2錢 |
| 장 기 현 | | 324량 | 787량 3분 |
| 청 하 현 | | 64량 | 150량 |

한편 영일현의 토산물은 대체로 조선전기와 비슷한데, 사염(沙鹽)이 새로운 토산물로 등장한 것이 특이하다(1896~1899년 읍지). 1890년대에 포항 염전의 제품이 질과 량에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청어는 조선전기부터 후기에 이르기까지 흥해·영일·장기·청하 등 동해안 전역에 많이 잡혔던 것으로 유명하다. 《선조실록》(36년, 1603)에는 “경상도·전라도·함경도에 청어가 많이 산출되는데, 어선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무수히 잡혔다”고 하였다.

《자산어보(茲山魚譜)》(1814)와 《오주연문장전산고》(1835~1849) 등 여러 자료를 미루어 보면, 청어자원은 단기적으로는 2·3년, 장기적으로는 수십 년에 걸친 소장성쇠(消長盛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서해안에서는 19세기 말경부터 청어가 자취를 감추기 시작하였다”(《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철종 5년 10월 11일)고 한 것으로 보아 한말에는 청어의 산지가 동해 쪽으로 옮겨졌음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청어의 생산량이 때와 곳에 따라 변천하는 것은 역시 해류의 변동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산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해안에 몰려온 청어 무리들이 갑작스런 난류의 북상으로 갈 길이 막히자 난류에서는 살 수 없는 한류성 어족인 청어의 주류부대가 이동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청어자원은 그 변동이 심하기는 하였으나 조선시대 전반을 통해 볼 때 가장 중요한 어종의 하나로 동해안을 중심으로 전 해역에서 잡히고 있었던 것이다.

3) 향토 수산식품, 과메기

과메기는 영일만 포함지역에서 생산되어온 유일의 전통적이며 상징적인 향토식품이다. 조상 대대로 수백 년간 명맥을 이어온 우량 수산식품 과메기의 본래 이름은 ‘청어 과메기(청어관목, 靑魚貫目)’다.

과메(매)기는 본래 관목청어(貫目靑魚)로 표기되던 것이 관목(貫目)으로 줄여 표기하게 되었으며, 관목의 발음이 관메기에서 과메기 또는 과미기로 변하게 된 것이다.

‘관목청어’는 영일만 근해에서 잡히는 대표적 어종인 청어를 말려 만든 이 고장 특유의 천연가공 수산식품으로 이고장의 진공품(進貢品)으로 선정되면서 이름이 알려졌다. 청어과메기는 청어를 얼말려서 만든 것이다. 말린 청어 또는 건청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것이나 만드는 과정에서 특별히 붙여진 이름으로 이해된다.

전거(典據)에 나타난 청어과메기의 역사적 유래와 특성을 살펴보면, 이 고장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지역에 청어가 예로부터 오랫동안 잡혀왔으나 조선시대 때 진공품으로 상납된 토산식품은 영일과 장기 및 인근 경주지역에서 생산된 ‘관목청어’ 뿐인 것으로 나타난다.

《동국여지승람》(1481)과 1832년~1871년의 《邑誌》 <영일현> 주진조(注津條)에 “전하는 말에 의하면, 매년 겨울이면 청어가 반드시 맨 먼저 여기서(注津, 지금의 연일대교 부근 형산강 하류지역, 《교남지(嶠南誌)》 <영일군> 山川條) 잡힌다고 하는데, 먼저 나라에 진헌한 다음에야 모든 읍에서 이를 잡았다. 잡히는 것의 많고 적음으로 그해의 풍흉을 짐작했다.(俗傳每歲冬 靑魚必先產于此 進獻然後 諸邑始捕之 以產之多少 占來歲豐歉)”고 했다.

이 기록은 영일만 앞바다에 청어가 많이 잡혀 형산강 하류에까지 올라왔음을 지적해 주는 중요한 사료로서 청어과메기가 이고장의 대표적 수산식품으로서 역사적 유래와 전통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준다. 동해안의 청어잡이가 이 고장의 청어잡이로 시작되었다는 사화(史話)는 이 고장과 청어 사이에 이루어진 특별한 역사적 사연을 말해주는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영일만 바다는 어족의 회유지로서 해조류가 풍부하여 청어의 산란지로 적합하였음을 일러주고 있다.

청어는 일찍부터 우리나라 삼면의 바다에서 잡혀온 중요한 어종으로서 주목을 받아왔기 때문에 남겨진 기록이 적지 않다.

《선조실록》(36년, 1603)에는 “경상도·전라도·함경도에 청어가 많이 산출되는데, 어선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무수히 잡혔다”고 하였다.

《도문대작》(屠門大嚼, 1611)의 청어에 관한 설명을 보면, “북도에서 나는 것은 외피가 검고 뱃속이 붉으며, 전라도에서 잡히는 것은 경상도의 것보다 작고, 경주 근해

에서는 2월에야 잡히고 맛이 극히 좋다. 예전에는 천한 물고기더니 고려 말년에는 쌀 한 되에 마흔 마리만 줌으로 《목은집(牧隱集)》에서 이새이 한탄하기를 ‘세상이 어지럽고 흉년이 들어 백물(百物)이 조잔(凋殘)함으로 청어마저 드물다’고 하였다.”

《지봉유설》(芝峰類說, 1614)에는 “청어가 해마다 봄에는 서해에서 많이 잡혔으나 선조 3년(1570) 이후 없어졌다”하였다.

《성호사설》(星湖僿說, 1763년경)에서는 청어에 관한 설명을 “지금 생산되는 청어는 옛날에도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해마다 가을철이 되면 함경도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형태가 아주 크게 생겼다. 추운 겨울이 되면 경상도에서 생산되고, 봄이 되면 차츰 전라도와 충청도로 옮겨간다. 봄과 여름 사이에는 황해도에서 생산되는데, 차츰 서쪽으로 옮겨감에 따라 점점 잘아져서 천해지기 때문에 사람마다 먹지 않는 이가 없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성호사설》시대의 청어는 서해의 청어이다.

이 서해 청어를 가리켜 서율지방에서는 ‘비웃’이라고 불렀다. 《명물기략(名物紀略)》(1870년경)에 의하면, “청어는 값싸고 맛이 있어 서울의 가난한 선비들이 잘 먹는 고기”라고 지적하고 비유어(肥儒語)로 표기하였다. 이렇듯 선비들을 살찌게 하는 물고기이니 ‘비웃’이 된 것이다.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는 “명나라 말기(17세기 중엽)에 요동지방에서 흥연히 청어가 산출되어 신어(新魚)라 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00여 년 전에 심히 성했다가 중간에 끊어져 드물어졌고, 정조의 무오·기미(戊午·己未)년간(1798~1799)에 다시 나타나서 약간 천해졌다”고 하였다.

따라서 청어 어장이 한 두 곳에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시대에 따라 변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수산지》(朝鮮水産誌, 1911)에 “한말 청어의 산지는 황해도 각지에서 약 30년 이래 청어가 잡히지 않고 동해 쪽으로 옮겨왔으며, 1934년에는 동해에서 1년에 5만 톤이나 잡혀 청어알만 하여도 영일만 연안에 산더미처럼 쌓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수백 년 이래 영일만 동해안의 최대 청어풍어기는 일제강점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청어의 산지와 생산량이 때와 곳에 따라 변하는 것은 산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해안에 몰려온 청어 무리들이 갑작스런 난류의 복상으로 갈 길이 막히자 난류에서는 살 수 없는 한류성 어족인 청어의 주류부대가 해류의 변동에 따라 이동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1940년대까지만 해도 많이 잡히던 동해안의 청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3대 어종(함경도의 명태, 연평도의 조기, 영일만의 청어)으로 그 성가는 높았다. 그러나 근래에 희귀해져서, 오늘날 시장에 나오는 대부분이 북태평양 원양어선이 잡아오는 청어로서 맛이 훨씬 떨어진다.

청어과메기는 음력 동짓달 추운 겨울에 잡힌 청어를 배를 따지도 않고 소금도 치지 않고 그냥 온 마리들을 배가 위로 오도록 엮어 그늘진 곳에서 겨울 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말려 만드는 것인데, 곧 냉훈법(冷燻法)으로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해서 얼말린 동결건조(冬結乾燥)식품이다.

이 같은 방법은 경상도 동해안 지방에서 전해오는 청어 말리는 방법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농가의 부엌은 밤에 차고 밥 짓는 동안은 열과 연기로 따뜻해진다. 아궁이에 송엽을 땔 때 부엌 안은 연기로 자욱하게 되고 자연 통풍의 필요가 생긴다. 채광을 겸한 그 통기구가 추녀 바로 아래에다 뚫은 살창이다. 그곳이 바로 청어의 건조장, 비웃 몇 두름을 겨우내 그 살창에 걸어두면 동결건조 되고 송엽의 향연으로 훈제되어 이른 봄에는 뽀뽀한 관목이 되는 것이다. 조상의 미각과 삶의 지혜가 한층 돋보인다.

《음식디미방》(1670년경)에 “말린 고기를 오래 두려면 연기를 씌어 말리면 고기에 벌레가 안 난다”라 하고, 《오주연문장전산고》에도 “청어는 연기에 그을려 부패를 방지하는데, 이를 연관목(煙貫目)이라” 한 것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규합총서》(閩閩叢書, 1815년경)에 “비웃 말린 것을 세상에서 흔히들 관목이라 하니 잘 못 부름이요, 정작 관목은 비웃을 들어 비추어 보아 두 눈이 서로 통하여 말갈게 마주 비치는 것을 말려 쓰는 그 맛이 기이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소천소지》(笑天笑地)에 “동해안 지방의 한 선비가 겨울에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가기 위해 해안가를 걸어가다가 민가는 보이지 않고 배는 고파오고 있었는데, 해변 가를 낀 언덕 위의 나무에 고기의 눈이 나뭇가지에 끼인 채로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찢어 먹었는데 너무나 맛이 좋았다. 과거를 보고 내려온 그 선비는 집에서 겨울마다 생선 중 청어나 꽂치를 그 방법대로 말려 먹었다”는 기록은 ‘관목(貫目)’의 명칭과 맛에 대한 사연을 밝혀주는 것으로 이채롭다.

다른 지방에서도 청어가 많이 잡혔으나 유독 포항과 경주지방의 청어가 관목으로 진상품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연유일까. 앞서 《성호사설》에서 시사한 바와 같이 청어의 맛이 그 질이나 기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 같다. 이 때문에 경상도 동해안 특히 영일만 연안에서 잡히는 겨울청어가 최상품의 것이 된 것이다. 이러한 청어는 다른 생선과는 달리 특이한 불포화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어서 성인병의 예방과 치료에 특효가 있는 우량 수산식품으로 오늘날 판명되고 있다.

일제강점기 때만 하더라도 잘된 과메기를 가마니나 마다리로 싸서 부악재(농촌에서 짚 때서 생긴 물기 없는 재)로 채우는 ‘재우리’(거름을 위해 재를 모아둔 우리) 속에 넣고 그 위에 짚을 덮어 초여름까지 갈무리해서 먹었다고 한다. 재우리에는 부악재로 인해 벌레와 곰팡이가 쓸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메기를 먹는 방법은 오늘날의 술안주와는 달리 굽거나 찌지거나 찌개 또는 국으로 끓여 먹는 등 다양하였으며, 특히 봄에 햇썩이 날 때 국을 잘 끓여 먹었다고 한다.(일제강점기시 영일어업조합 직원 고 정태영(鄭泰永) 응의 구술, 구술 당시 79세)

지금까지 불리어지고 있는 과메(매)기 또는 과미기라는 명칭은 1986년의 《포항시사》집필 시 “싱싱한 청어의 맑게 비치는 두 눈을 꺾어 말렸다는 관목청어(貫目靑魚)에서 유래된 것으로 관목 → 관메기 → 과메기·과미기로 변천해 온 것”으로 밝힌 바 있다. ‘목’이 ‘매기’ 또는 ‘미기’로 된 것은 ‘목’의 사투리 발음이 ‘매기·미기’이기 때문이다.

포항(개·개울 ‘浦’, 목 ‘項’) 지명이 갯목(사투리로 갯메기 또는 갯미기)에서 유래된 것이나 같은 맥락이다. 이와 함께 포항 입구의 형산(兄山)과 제산(弟山) 사이 지역의 명칭인 ‘양산(兩山)목’이 사투리로 ‘양산매기’ 또는 ‘양산미기’로 불리어지고 있는 사실, 그리고 ‘목아지(모가지)’를 ‘매가지’ 또는 ‘미가지’로 부르고 있는 사실이 이를 잘 반증해주고 있다. 메기가 미기로 같이 혼용되는 것은 이 고장의 ‘에·애’ 발음이 ‘이’ 발음으로 다시 변음 되어 혼용되기 때문이다.(해보다=히보다, 제수씨=지수씨, 재 넘어=지 넘어 등)

광복 후 근래에 이르러서는 청어가 잘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 대용으로 콩치를 얼 말려 과메기콩치를 만들어 먹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 대용식품이 지난날의 청어 과메기 못지않는 맛을 내며 인기 있는 식품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닌 이 고장 특유의 역사적 사연의 산물로서 그 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콩치도 청어와 같이 불포화지방산과 핵산을 많이 함유하여 성인병 예방과 노화방지에 유익한 건강식품으로 꼽히고 있으며, 콩치는 서리가 내려야 제 맛이 난다는 말이 있듯이 역시 겨울의 콩치로 만든 콩치과메기는 청어과메기 이후 이 고장의 토산식품으로 손색이 없게 되었다.

3. 국가 진휼창, 포항창진의 설립과 해운의 발달

영일만 포항지역은 영조 7년(1731) 조정에서 함경북도의 기민 구제를 위한 전국적인 진휼(賑恤) 제민창(濟民倉)인 포항창진을 설립함에 따라 조선후기 해운의 요충지로 크게 변모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포항 역사 이래 가장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 19세기 중엽에 현재 포항시 중심부의 5개 섬마을이 개척되고, 포항포구와 형산포구가 조선후기 상품유통과 전국 상권의 중심적 중계지로 성장함으로써 20세기에 이르러 신흥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오늘날 포항이 21세기 동북아의 물류중심 허브항으로 발돋움코자하는 가운데, 정부에서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주민을 위해 2002년 5월부터 2006년 3월까지 9차례 북한지원 비료를 선적, 북송할 때 특히 2006년 3월 18일에는 북한 국적의 화물선 구룡호(5,043톤)가 5,000톤의 포항지역 비료업체의 비료를 선적하여 남포항으로 출발한 바 있다. 이같이 대북 양식과 비료를 지원하며 남북 해운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도 포항이 예로부터 우리나라 해운의 중심지로서 조선후기 포항창진 설치로 당시 함경도 백성의 기근을 해결했던 역사적 사실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지하게 된다.

1) 포항창진(浦項倉鎭)의 설립

(1) 설립 배경

임진왜란(壬辰倭亂)·병자호란(丙子胡亂) 양난 이후 백성의 진휼정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게 증대됨에 따라 조정은 각 지역별로 농작의 풍흉의 차이와 수송문제를 고려하는 전향적인 곡물저치(穀物儲置)와 곡물이전(穀物移轉)의 진자(賑資)정책을 논의 실행했다. 영조 대에 이르러 대개 영남에서는 호남·강원·함경도로 곡물을 실어 날랐고, 강원도에서는 영남·함경·경기도로, 관서(關西, 평안도)에서는 경기·호남·충청도로, 해서(海西, 황해도)는 충청·경기·호남으로 이전하였다.

조선후기 전국에서 기근구제 대상지역으로 가장 주목되는 지역이 함경도 북관이었다. 함경도는 대부분이 산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곳은 기후가 한랭하고 강수량도 적어 일부 해안지역과 하천 유역에서만 발농사가 발달하였다. 함경도에서 마천령산맥의 남쪽을 남관(南關, 함경남도), 북쪽을 북관(北關, 함경북도)이라 칭하며, 특히 북관지역은 산형지세가 험준하여 교통이 불편하였으며, 토지가 척박하고, 농토가 부족하여 농업이 부진하였다.

함경도는 경제적 상황이 더욱 악화된 병자호란 이후에는 강원도뿐만 아니라 평안도·황해도 경계지역 읍의 곡물을 옮겨오기도 했다. 북관에서 해로의 수송거리가 가까운 곳이 강원도이나 강원도는 원래 저치곡(儲置穀, 저축해 둔 곡식)이 적어 타 지역으로 진제곡(賑濟穀)을 이전해 줄 여력이 없었다.

그러므로 함경도 기근(饑饉·饑荒)에 구제곡물을 이전해 올 수 있는 곳은 해로로 이어지고 조선의 대표적인 곡물생산 지역으로 이전곡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상좌도(慶尙左道, 경상도 동부지역) 뿐이었다.

특히 오늘날의 포항(흥해·연일·청하·장기 등 4현)과 영해·영덕지역은 속중 때부터 세곡을 주창(州倉)에 회록(會錄, 곡물을 본창고에 두지 못할 경우 다른 창고에

보관하는 일)시켜 두었다가 함경도에 흉년이 들면 북도민 구제를 위해 곡물을 이전하던 곳이다.

경상도 곡물을 강원도에 옮긴 후 다시 함경도로 운반하지 않고 경상도에서 직접 함경도로 수송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17세기 말부터 함경도의 진휼곡으로 경상도곡을 이전하는 일이 일반화되어 갔다.

이같은 조선후기의 진휼정책은 제주의 3읍을 구제하는 나리포창(羅里舖倉) 설치를 시작으로 이후 함경도의 기민 구제의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현실화하기 위해 두 번째로 영조 8년(1732) 경상도에 포항창(浦項倉)을 개설하여 곡식을 북관으로 옮기는 일이 거론되었다. 영조 13년(1737)에는 함경도 덕원(德源)의 원산포(元山浦)에 교제창과 북관에도 교제창을 설치하여, 포항창과 원산창 사이의 곡물이전을 근간으로 한 함경도의 진자공급책과 더불어 경상도 지역의 진휼방안이 수립되었다.

영조 4년(1728) 40여 척 침몰과 세곡 4만 7천여 석의 손실과 함께 영조 7년(1731) 90여척이 침몰한 시(場市)·강(江) 사선(私船)의 돌발사고로 영조는 사선임운(私船賃運)의 병폐를 시정하고 세곡 손실을 방지하고자 관선(官船) 조운제(漕運制)의 복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그 중요한 일환으로 포항창진을 설치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진자 공급책은 점차 확대되어 영남·호남·충청도 전 지역에 한꺼번에 흉년이 들면 관서와 호남, 해서와 호서, 북관과 영남이 짝을 이루도록 한 남북간 교상공제(交相共濟)를 위한 각 도의 교제창(交濟倉)이 설치되었다. 특히 삼남제민창(三南濟民倉)은 교상공제를 위해 경상도곡을 주로 이전해가던 함경도에서 곡창지대인 삼남의 기근을 구제함으로써 교제창의 효능성이 입증됨으로써 취해진 조처였다.

경상도에 포항창이 설립되고, 함경도에 교제창이 설치되는 영조 대에 전국 각지의 곡물이전을 목적으로 한 비축곡의 저장이 제도화됨으로써 곡물 이전을 통한 기근 구제방식이 체계화되기에 이르렀다.

(2) 경상도관찰사 조현명의 부임과 포항창진의 설립

포항창진은 영조 6년(1730) 경상도관찰사로 부임한 조현명(趙顯命, 1690~1752)의 영조 7년(辛亥, 1731)의 주청으로 설립되었다.

당시 조현명과 포항창 설립에 영향을 미친 사람은 진휼당상(賑恤堂上) 재직시 제주도 구제를 목적으로 한 나리포창의 설치를 주도한 민진원(閔鎭遠)이었다. 조현명은 경상도 감사로 부임하기 전 민진원으로부터 북도로의 곡물 이전으로 영남민이 겪는 민폐의 실상과 교제창 설치의 필요성, 그 효과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조현명 역시 진휼당상을 역임하면서 진자(賑資) 비축의 필요성을 더욱 인식하게 되고, 영조 6년(1730) 경상도 감사로 부임한 후 민진원으로부터 교제창 건립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한 주장에 힘입어,

자신의 재임 중 교제창의 설치를 실현하기로 마음먹고, 이듬해 주청하였다.

이에 1731년 정부는 흉작으로 농사가 결판날 때(凶荒時) 지역 간의 교제를 원활히 하고, 영남민에게 민폐를 주지 않으면서, 특히 북관 구제를 목적으로 한 정부의 비축곡 확보와 교제창 설치 사업의 일환으로 포항창진을 설립키로 하였다.

마침내 이 사업은 합당한 여건을 갖춘 조운(漕運)과 해운의 요충지인 영일(영일)현의 바닷가에 전국 굴지의 대규모 제민창을 건설하면서 실현되었다. 포항창진은 영일현 북면 주잠촌(駐暫村, 현 학잠동) 북쪽에 산을 등진 해안가에 3만석 곡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100 칸 크기로 지어졌다. 당시 조현명은 경주부윤 김시형(金始炯)과 상의하여 이곳을 창사 기지로 정하고 영조 8년(1732) 6월 3일에 착공하여 90일간 공사 끝에 1732년(영조 8) 9월에 창사를 완성하였다.

포항창진의 설립연도가 사료에서 1731년과 1732년으로 나타남에 따라 다른 글에서 자주 1732년으로 인용하고 있는데, 필자는 《여지도서》와 《경상도읍지》의 《영일현읍지》의 영조 7년(辛亥, 1731) 설립의 기록을 따르고자 했다.

(3) 규모와 특성

1832년의《경상도읍지》의 《영일현읍지》 진보조(鎭堡條) 포항진(浦項鎭)의 기록에 조선후기 영조 7년(1731) 영일현 북 20리 지점에 경상도관찰사 조현명의 주청으로 포항창진을 창설하여, 경주·흥해·영일·청하·장기 등 읍의 세곡을 거두어 비축해두었다가 기근이 들었을 때 북관에 배로 운반하여 구제하였다. 포항은 비록 연해지역이나 경주지역과 포항지역을 통틀어서 1·2위를 다투는 곡창지대인 흥해와 장기·영일·청하 등지의 기름진 농토가 넓게 분포된 데다가 바로 접경의 큰 농토지역인 안강과 신광을 포함한 경주의 평야지대를 끼고 있어서 최적의 조건을 갖춘 지역이다.

포항은 비록 연해지역이나 흥해와 장기 등 기름진 농토가 넓게 분포된 데다가 바로 접경에 주위에서 가장 큰 농토지역인 안강과 신광을 포함한 경주의 평야지대를 끼고 있다. 특히 경주가 상류인 형산강이 포항의 항만으로 흘러 조운·해운은 물론 현지 곡물 조달의 수월성 등으로 곡식의 기준 보관량 3만석을 저장할 수 있는 100칸의 대창을 설치하고, 속읍의 소창을 포함한 최대 보관 능력 5만석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된 것은 당연한 조치이다. 당시 포항창진의 실무 공무원과 조선(漕船) 척수 등 규모는 다음과 같다.

별장(別將) 1명, 군관(軍官) 7인, 리(吏) 3인, 지인(知印) 3인, 사령(使令) 3명, 창속(倉屬) 31명, 隨率(수솔) 3명을 두고, 조선(漕船) 14척, 조전(漕錢) 3,042량(兩) 7전(錢)을 두어 경주·흥해·영일·청하·장기 등의 적(糶)을 거두어 북관에 조선(漕船)으로 운반하였다.

포항창진은 여타의 읍창과는 달리 특별한 성격의 의미를 띠고 있다. 첫째, 함경북도 기민을 구제하는 국가의 중요한 대표적 제민창으로서 51명의 직속 공무원이 배치된 전국 굴지의 대창(大倉)이었던 점, 둘째 포항창의 책임자 별장(別將)은 중앙정부의 비변사에서 임명하고 관리하는 군문(軍門)에 오래 종사한 종9품(당시 이 정도의 무과의 경력은 문과에서는 상당한 품계에 해당함)으로 휘하에 군관 7명을 두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포항창진의 명칭은 조선시대 읍지 가운데 합리적이며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 받고 있는 《여지도서(輿地圖書)》의 《영일현읍지(迎日縣邑誌)》와 《경상도읍지(慶尙道邑誌)》의 《영일현읍지》에 기록됨으로써 포항창(浦項倉)이 일반적인 세곡을 조적하는 창고가 아닌 국가의 중요한 대표적인 관창임을 밝혀주고 있다.

포항창진의 관리 책임자인 별장은 종 9품에 지나지 않는 품계가 낮고 관품이 미미하나 군문에 오래 근무한 전문가가 추천되고 왕이 낙점하는 중요한 직책이었다. 포항창진은 고려말의 통양포수군만호진(通洋浦水軍萬戶鎭)이나 조선시대의 영일진(迎日鎭)과 같은 전문적 군사 기관은 아니나 포항창 설치의 목적에 부합되는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군사적 운영방법을 차용하고, 군사기지의 책임자인 만호(萬戶, 僉使, 종4품)보다 낮은 직책이나 별장(무관, 종 9품)을 두어 군사적인 보조 역할의 중요성이 오랫동안 유지된데에서 그 명칭의 특성을 이해하게 된다.

(4) 위치

창터의 여건은 첫째 수해나 산사태 등 재해를 당하지 않는 지대가 높은 평평한 지역이어야 하며, 둘째 강이나 바닷가에서 곡물을 운반해서 저장하는데 편리할 만큼 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역이어야 하며, 셋째 창고 이름이 포항창으로 명명된 것으로 보아 영일현 북면지역의 포항리 내의 지역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포항창은 위의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지역에 세워진 것이다. 본장 ‘제1절 행정조직’에 소개된 《여지도서》(1765)의 영일현 지도에는 포항창(진)이 대흥산을 등지고 영일현에서 흥해로 가는 간선도로 건너 동편 형산강 북하구의 한 지류인 칠성강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경상도읍지》(1832)의 영일현 지도에서도 포항창(진) 역시 형산강의 북 하구 쪽 섬 지역을 감싸며 동빈 내항으로 흘러들어가는 칠성강 북쪽 강안(江岸)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도를 통한 위치 추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료가 있다. 포항창의 이설 문제를 거론할 때 제시된 “포항창은 물가에서 거의 100여 보(一步는 1.8尺으로 약 180m, 필자주)의 거리에 있다”(《정조실록》2년 9월 5일)는 것이다.

자연히 이러한 여건을 충족시키는 후보지는 형산강의 북하구가 되는 칠성강의 북쪽

지역 즉 오늘날의 대흥동 등의 일부 지역으로 국한된다. 이 문제에서 자칫 간과하기 쉬운 중요한 점은 일제강점기의 형산강 북하구의 제방축조공사였다. 제방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포항창진 시절의 칠성강 폭은 현재보다 더 넓었던 관계로 그 연안은 현재보다 내륙 쪽으로 더 들어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포항창지(浦項倉址)를 밝혀주는 귀중한 자료인 조현명(趙顯命)의 《귀록집(歸鹿集)》>>《포항창기(浦項倉記)》에 “포항창은 영일현 북면 주잠촌(駐暫村) 북쪽에 산을 등진 해안가에 3만석 곡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일백간의 크기로 지어졌다”는 기록이 지금까지의 연구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주잠촌은 오늘날의 학잠동을 말하며, 북쪽 산이라면 대흥산과 수도산(水道山, 葛山) 등을 말하나 가까운 대흥산을 지칭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대흥산을 등진 대흥동의 갯목 부근지역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포항창(진)터는 대흥산을 등진 오늘날의 포항역 앞 남북도로(예로부터 1960년 초까지 흥해와 영일 지역을 잇는 주 간선도로) 건너 동편에 형성되었던 대흥동의 갯목(사투리로 갯메기 또는 갯미기, 바다물과 강물이 만나는 중요지점으로 ‘포항’이란 지명이 탄생된 곳) 인근지역(당시 칠성강 뱃머리에서 180m 쯤 떨어진 지역)으로 판명된다.

오늘날 ‘롯데시네마(포항MBC관, 구포항시네마)’ 지역은 당시 배를 정선하던 갯목(浦項) 지역, 즉 포항역에서 동쪽으로 약 200m지점의 작은 5거리 중심지에 설치되었던 구 역전교(驛前橋, 1927년 목조로 설치되었다가 1958년 철근콘크리트로 길이 12m, 폭 7.5m로 개축한 뒤 약 25년 후 복개함) 지점에서 현재 약 150m 정도의 곳으로, 비록 당시의 갯목 넓이의 변화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정조 때의 100보 거리와 상통할 수 있다고 보아 근접한 위치 규명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포항창진 터를 규명하는 고고학적 방법이나 사회학적 방법 등이 병행됨으로써 그 실체가 밝혀질 날이 올 것으로 본다.

(5) 운영 사례

포항창진은 경주부와 영일현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 일대의 환곡의 조적을 맡아 보 관하며, 주로 산지가 많은 함경도지방의 기민을 구제하고, 때로는 흥년의 전라도나 강원도 등 여타지방의 백성진휼의 운송을 담당하는 전국적인 제민창이었다.

포항창 각곡(各穀)은 설창 후 원곡의 1/5을 해창속읍(海倉屬邑)인 경주부·청하현·흥해군·장기현 등 4개관에 분급하고, 2/5은 해창의 별장·창졸의 급료에 사용토록 하였다.(《곡총편고(穀摠便攷)》3, 경상도조)

포항창진 역할의 중요성은 첫째, 포항항이 전라도나 함경도를 연결하는 중간 지점이라는 사실과 둘째, 전라도 곡식 이외에도 우리나라 굴지의 곡창지역인 경상도 곡식

을 가까이서 모아 놓았다가 흉년 시의 함경도는 물론 강원도나 전라도 지방을 구휼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단은 영·정조 때 포항창을 둘러싼 다음과 같은 대표적 사례를 분석 종합해 보면 가능해 진다.

- ① 영조 13년(1737) 11월 함경도 육진(六鎭)의 재황(災荒)이 타도에 비할 수 없어서 겨울이 되기 전에 다 죽게 되었음으로 영남의 포항창곡(浦項倉穀) 2만석(貳萬石)을 북관(北關)으로 수송해야 마땅하나 포항창의 근읍(近邑) 역시 많은 재난을 당해 그 인근 지방민을 구제해야 하는 관계로 2만석을 다 준비할 수 없어서 1만 5천석으로 줄여서 수송하고, 모자라는 양은 강원도 곡식 6천석을 급히 수송하였다.(《영조실록》13년 11월)
- ② 영조 38년(1762) 12월 함경도 곡식을 호남에 보낼 일이 생겼을 때 포항미 5만석을 호남에 선박으로 운반한 후 포항창의 없어진 곡식을 함경도 곡식으로 충당하도록 하였다.(《영조실록》38년 12월)
- ③ 정조 즉위년(1776) 10월 “함경도에 흉년이 들어 굶어 죽게 되었는데, 육진이 더욱 심하다. 지난 1737, 1741, 1755년의 흉년이 들었을 때는 조정에서 급히 독운차사(督運差使)를 파견하여 조속히 영남 포항창곡을 발송하여 그 위기를 극복하였는데, 금년의 황급한 상황은 당시의 3년과 비할 바가 아니니 조정에서 조속히 변통하지 않으면 육진 백성이 참상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니 조처해 달라”는 상소에 따라 장차 왕이 백성과 민(邑)의 폐를 끼칠 것을 걱정하여 경상도도사(慶尙道都事)를 시켜 운송을 독려하는 임무를 맡겼다.(《정조실록》즉위년 10월)

위의 기록은 물론 다른 해의 기록에도 나타나지만, 첫째 포항창의 저장 기준곡 3만석은 당시로서는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늘 비치되어 있지 않았고, 둘째 포항창의 곡식을 비운 경우에는 이를 채우려고 노력했고, 셋째 조정과 지방수령들이 백성의 재난 구제에 신속히 대처하였다는 사실을 인식 할 수 있었다. 정조는 진곡의 선운하는 모습을 그림을 그려서 보도록 하는 조처를 취하기까지 하여 포항창의 역할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정조실록》8년 3월)

2) 포항창진의 별장(別將, 鎭將) 혁파

포항창진은 영조 39년(1763) 경상도 감사 김상철(金尙喆)에 의해 포항별장의 혁파가 건의된 이후 정조 2년(1778)에 “당초에는 완벽하지 않음이 없었으나 세월이 오래 되어 폐단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로부터 포항창진의 여러 폐단 가운데 특히 지리적 환경에 의한 전항의 6)의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정조 2년 무술(戊戌) 9월에 포항창진 이설 여부와 조직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창사를 흥해로 옮기고 흥해군수를 도차원(都差員)으로 정하고, 거리가 먼 장기에 따로

해창을 설립하고, 풍년의 때를 맞추어 창사를 흥해로 이전하는 방안이 다음과 같이 제의되었다.

경상도 전 관찰사 이성원이 장계하기를 “포항창의 터전이 이미 침식될 걱정이 있고 속읍과의 거리도 고르지 못하여, 오가는 폐단이 있습니다. 이제 창사를 흥해에 옮기게 되면 속읍 가운데 흥해·청하·연일은 매우 편리하고 가깝습니다. 세 고을의 곡물을 이전대로 본창에서 조적하고, 장기 한 고을은 상당히 거리가 머니 경주 형창(兄倉)의 예에 의거하여 따로 해창(海倉)을 설립하여 조적한다면 진실로 양쪽을 모두 편리하게 하는 방도가 될 것입니다…(중략)”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러한 논의가 표면화되기 시작된 것은 정조 3년(1779)이었다. 이에 대한 기록은 《실록》과 《비변사등록》이 아닌 1832년의 《경상도읍지》의 《장기현읍지》에서 발견된다. 당시 장기현감 오태언(吳泰彦)이 己亥년(1779)에 포항창의 원거리 폐단을 들어 장기에 따로 해창 건립을 건의함으로써 구체화되었다. 그는 포항창은 장기현에서 60리나 되는 포항리에 처음 세웠던 것이나 매번 하나의 큰 재를 넘고 큰 강을 건너게 되어 조적 때마다 얹어지고 빠지는 폐단이 많았던 고로 정조 3년에 이 폐단을 말하여 營(營)에 보고하고 영에서는 이를 해당 조(曹)에 보고하여 장기현의 북쪽 13리 포이포(包伊浦, 현 모포)에 해창(海倉)을 세우게 되었다. 결국 포항창진 소속의 연일·흥해·장기·청하·경주 5개 고을에서의 지형과 원거리 문제로 야기되는 왕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경주와 장기 두 고을은 창사를 본읍의 경계에 옮겨 설치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각에 의해 포항창진의 별장이 혁파된 후 연일에서 40리나 떨어져 있고, 힘준한 고개(흥해와 청하 사이에 있는 별래재, 필자주)를 넘어야 하는 폐단이 있는 청하도 본현의 포구에 창고를 설치하여 봄가을로 조적을 하자는 논의가 나왔다. 따라서 장기현의 포이포에 해창을 설치하면서부터 포항창진의 폐지문제가 현실화되기에 이르렀다.

정조 7년(1783) 포항창진이 혁파되는 전후시기가 되는 10월 20일에 정조가 독운어사(督運御史) 김재인(金載人)에게 내린 다음과 같은 유시는 당시 백성의 굶주린 생활상과 포항창진 등 진흥창을 중심으로 한 해운이 야기하는 폐단과 그로 인한 백성들의 간난과 고초를 잘 지적해주고 있다.

“네가 곡식을 싣고 출발하여 영으로 돌아온 다음에는 모름지기 즉시 전수(轉輸)하는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서 올려 보내라. 내가 장차 벽에 붙여 놓고 아침저녁으로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섭(利涉)하게 되기를 빌고, 한편으로는 내가 백성들과 함께 고락을 같이 하는 뜻을 두려는 것이다. 아! 대궐 안의 앉은 자리가 비록 깊고 바다의 연안이 비록 멀기는 하지마는, 쓸개 되는 한 가지 한 가지 생각이 어찌 몸소 임하여 눈으로 보는 것과 다르게 되겠는가? 만일에 네가 이를 깊이 유념한다면 거의 나를 저버리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르는 것이다.” 하였다

위의 정조의 유시는 지금까지 고찰된 포항창진 운영을 비롯한 해운의 폐단과 그에 따른 백성들의 고통을 정확히 꿰뚫어 간파한 것으로 지극히 백성을 사랑하는 정조의 면모를 읽을 수 있다.

포항창진이 언제 어떤 구체적인 논의로 폐지되었는지는 《실록》·《비변사등록》·《읍지》 등의 원 사료에서는 찾아 볼 수가 없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1987년 《포항시사》를 편찬할 때 ‘포항창 완의(浦項倉 完議)’라는 귀중한 자료(소장자, 경북 영천군 고경면 삼기동 金龍坤 씨)를 입수함으로써 포항창진이 폐지된 사실과 시기 및 포항창의 축소된 규모와 역할을 알 수 있게 되었다. ‘포항창 완의’의 원문과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포항창 완의(浦項倉 完議)

포항창의 진장(鎭將)을 혁파하고 영(營)의 감색(監色:監官과 色吏)을 두는 것은 조적을 담당하는 신하를 피로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오로지 포항 백성들을 어렵게 만드는 정책이라 하겠다. 그것을 시행하는 조례는 이미 감영의 절목에 등재되어 있으므로 지금 에 와서 다시 논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한다면 포항창은 이미 영문에 속해 있으므로 김해의 산창(蒜倉)과 칠곡의 남창(南倉) 과 조금도 다를 바 없으므로 그 임무를 담당하려는 자 부임하기를 원치 않을 것이다. 지난 가을에 포항 백성들은 포항창이 영문(營門) 소속으로 바뀌게 되자 진정서를 보내왔으며 포항창에 보관하고 있는 환곡 1,400여 석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하니 감색으로서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며, 보내고 난 뒤 청소 및 뒤처리와 오가는 수고비는 무엇으로 변상을 받아야 할지 이것은 참으로 병 주고 약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포항 백성들 가운데 지각이 있는 사람은 서로 참고가 비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환곡이 감수되는 것이 일거리가 줄어 이익은 이익이나 감색은 곧 포창의 책임자이므로 차마 넘보기만 하고 살기 어려운 백성들을 구호하지 못하니 안타깝기만 하다. 이에 여러 사람과 의논해서 어세를 받아들이는 것 외에 다른 항목의 잡세는 백성들과 반분하기로 하고 그 나머지는 절목(節目)을 하나로 만들어 물에 잠긴 것은 후추(厚秋)와 같이 하고 다른 곡물은 단일화하여 해마다 실수(實數)가 있는 데로 하고 조족(糶權)에 힘을 기울려 대여하는 조항은 영문에서 작성한 절목에 의하여 실제 적합하고 편리하도록 한다. 이에 감색과 포항 백성 모두가 수의하여 오래도록 문서를 남기기 위해 완의를 작성한다. 지난해 일 하던 사람을 포창의 일꾼으로 삼아 서로 믿고 일하고자 하니 오래도록 변치 말지어다. (원문생략)

포항창 완의는 포항백성과 감색이 포항창진의 진장(별장)이 혁파된 후 포항창의 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 오랫동안 서로 믿고 변치 않고 따를 것을 합의한 문서다.

이 ‘포항창 완의’는 포항창진의 국가 진흥창으로서의 역할과 운영실태 및 그 폐지과정과 연대를 규명하여 조선후기 포항 개척·발전의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밝혀주는 사료로서 그 가치가 크다.

포항창진 폐지의 과정을 요약하면, 영조 39년(1763)에 별장의 혁파가 건의되고 → 정조 2년(1778) 원거리 폐단에 의한 구체적 거론으로 창사의 흥해 이전이 제시되고 → 정조 3년(1779) 원거리 폐단의 해소를 위해 장기 포이포에 해창이 건립되고 → 정조 7년(1783) 가을 포항창진의 책임자인 별장이 혁파되었다. 같은 해 10월 20일 독운어사 김재인에게 포항창곡의 전수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 보고토록 지시된 이후 이듬해 정조 8년(1784) 3월 김재인의 장자(障子)가 보고되면서 포항창진 폐지에 따른 후속적 개선의 방안이 모색된 것이다.

별장이 혁파된 시기가 정조가 김재인에게 포항창곡의 전수상황을 그림으로 그려 올리라는 지시를 내린 정조 7년(1783) 10월 20일 이전인지 이후 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포항창 완의에 의해 밝혀진 정조 7년(1783) 가을이 확실하다 하겠다.

포항창진 폐지 후 포항창 시대의 영일현은 1832년경에는 포항창이, 1871년경에는 포항제민창이, 흥해군은 1832년경에는 포창(浦倉)이, 1871년경에는 포창이, 청하현은 1832년에 포항창이, 장기현은 1779년에서 1871년경까지 해창(포항창진 역할을 옮긴 곳)이 운영되고 있었다. 흥해군에서 포창이라고 표기한 것은 포항창을 말하고 있다.

3) 영일현 북면의 인구증중, 섬마을 개척, 해운의 발달

앞의 조선후기 행정개편의 인구변화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포항창진이 설립된 이후 영일현 북면 포항동 주변으로 입향한 많은 유·이민들은 그들의 거주지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토착민들과 화합을 이루며 섬마을을 개척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피땀 어린 노력으로 1800년대에 이르러 비로소 섬마을을 개척하여 정착하였으니 그 첫 마을이 행정구역상의 섬안마을(島內洞)이다.

이후 수십 년 동안 도내동과 사람이 살지 않는 인근 섬 지역을 개척하고 농지와 염전을 개간하여 집단 거주지를 조성한 결과 19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포항진지도》에 나타난 5개의 섬마을이 형성되었다. 결국 다섯 섬이 개척되어 마을을 이룩하고 마을 명으로까지 불리어지게 되었다.

다섯의 섬마을도 1906년 분도동(分島洞)이 확장되어 대도동(大島洞)으로 개명된 후 1914년에 하도동을 편입 통합한 한 것 외에는 모두 그대로 사용되고, 일제강점기에 이르러 향도(向島, 광복 이후 松島로 개명)가 추가로 개척되어 새로운 마을명으로 신설되었다. 지난날에 5개의 섬마을은 명칭과 위치만 달라졌을 뿐 오늘날에도 같은 수의 5개 섬마을이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포항창진의 설치에 의한 영일만권의 시대적 사회적 변화는 이 지역의 장기 형성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 19세기 전국적인 부조장을 비롯해서 포항장과 여천장이 형성되었으며, 특히 부조장은 포항창진 시기부터 함경도에서 동해와 남해를 거쳐 서해에 이르기까지 곡물과 수산물 등 해륙지역 특산물의 중계물화교역지로서 이름을 날리며 미래 포항해운 발달의 터전을 닦아나갔다.

4. '포항' 지명 탄생

포항지역은 근세까지만 해도 영일현 북면에 속했던 작은 마을에 지나지 않다가 1731년 전국적인 제민창 포항창진이 설립되어 많은 인구 유입과 다섯 섬마을을 개척으로 동해안 상권의 중심지역으로 성장하였다.

1896년 전국적인 행정구역 개편 때에 경북의 관문으로 떠오른 후 일제강점기에 그 역할이 크게 증대되어 수산업과 해운 중심지로 경북의 관문도시로 발전하게 되었다. 1914년 포항면, 1931년 포항읍, 1949년 포항시로 승격되면서 관할구역이 확대되었다. 1950년 6.25전쟁을 겪으면서 해병부대가 주둔하는 국방도시로서 시대적 과제를 담당했던 포항은 1968년 한국 근대화의 선봉이 된 포스코가 유치 설립되면서부터 임해공업도시로서 나아가 세계적인 철강도시로 도약하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전통과 경험을 토대로 1995년 도농(포항시와 영일군)통합의 포항시 출범 이후 21세기 동북아의 물류중심항구로서 첨단과학비즈니스, 해양문화관광도시를 지향하게 되었다.

오늘날 포항은 대통령 배출 도시로서 꿈과 희망의 선진 일류도시 글로벌 포항 건설을 위한 영일만 르네상스의 닻을 올리고 있다.

이제 포항시민은 포항의 자연친화적인 정다운 이름과 유래를 자라나는 청소년과 포항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바르게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한글로만 아닌 한자와 영어로도 잘 쓸 수 있어야 한다. 시민들이 '포항'을 한자로 쓸 때 안타깝게도 '浦項'이 아닌 '浦港'이라고 잘못 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설혹 바르게 쓴 경우에도 '浦'자나 '項'자의 뜻을 잘 모른다. 이는 적지 않은 시민들이 지명의 뜻을 모르고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포항지역은 예로부터 삼호(三湖) 오도(五島)의 고장으로 불리어졌다. 이는 포항이 동해 영일만과 형산강 하구의 천혜적 자연환경에 의해 생성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18세기경까지 오늘날의 포항 시내 마을인 상도동·대도동·해도동·죽도동 지역과 19세기경까지 덕산동·대신동·동빈동 지역 등에는 전혀 마을이 형성되지 않았으며,

다만 서편 산기슭의 효자동·대잠동·득량동·용흥동과 대흥동 등의 마을만이 형성되어 있었을 뿐이었다.

18세기에 들어오면서 전국적인 농촌사회의 변화와 상공업의 발달로 포항 시내지역에 외지인의 이주로 새로운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하여 19세기 초경에 첫 섬마을 도내리(島內里)가 형성되었다. 19세기 중엽에는 도내리 대신에 여러 섬마을로 분산 개척된 상도(上島)리·분도(分島)리·죽도(竹島)리·하도(下島)리·해도(海島)리 등이 생겨났다.

산기슭이 아닌 시내지역 가운데 섬마을에 앞서 개척된 마을은 대흥리였다. 17C 말엽의 대흥리(후의 포항리)는 적어도 100여 호의 마을을 형성하여 18세기에 크게 번창할 포항리의 모체로서 성장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포항의 지명이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된 것은 영조 7년(1731) 포항창진(浦項倉鎭)을 설치하면서 창진이 설치된 마을 이름을 기존의 영일현 북면의 대흥리(大興里)를 포항리(浦項里)로 개칭하고, 창진의 이름을 포항창진(浦項倉鎭)으로 명명하면서 비롯되었다. 1693년 영일현감 발행의 ‘영일현 북면 대흥리 13통 9호 김성중(金聲重)의 호적부’는 이러한 사실을 잘 반영해주고 있다. 대흥동은 1731년 이후 사라졌다가 1945년 광복 후 포항동을 대흥동으로 회복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浦項’이란 향호는 포항의 대흥산(大興山)을 배경으로 형성된 형산강의 하류이자 지류로서 선박의 접안이 가능한 칠성강(七星江)의 중요지점을 나타내는 우리말 지명인 갯메기(갯미기, 표준말은 갯목)의 한자화(개울·개·물가 ‘浦’자와 목 ‘項’자)로 이루어졌다. 갯목은 구 역전교(驛前橋, 1980년대 초에 복개함)지역이며, 포항창진은 오늘날 롯데시네마(MBC포항관)지역이다.

예로부터 형산강의 북 하구의 중심지류 연변인 포항리가 조운과 물화교역의 요충지로서 주목을 받아 오다가 포항창진(흥년시 함경북도지방의 기민을 구제하고, 때로는 여타 지방의 백성진흥의 운송을 담당하는 조선의 대표적 제민창)이 설치되면서부터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다. 이들에 의해 첫 섬마을 도내리와 이후의 5도의 섬마을이 개척되어, 바야흐로 포항은 동해안 물화교역의 중심항구로서 잠재적 역할을 발휘하게 됨으로써 포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따라서 포항 지명은 우리 고장의 특유한 자연환경(바닷물과 강물이 만나는 중요 지점, 갯목)과 역사 환경(포항창진 설치)에 의해서 유래되었으며, 이로부터 포항의 지명은 중앙에서부터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다.

한편 ‘浦項’이란 지명은 우리나라의 가장 북쪽 지역인 함경북도 청진의 포항동과 종성(鍾城)의 포항봉수를 비롯하여 온성·경흥·명천 등지에도 나타나며, 이와 함께 포항창진의 곡물이 이전(移轉)되는 함경남북도 여러 지역에 포항창의 명칭이 남아 있다.

조선시대 같은 시기에 형성된 포항이란 마을 이름들 중에 우리 고장 포항만이 희망

찬 미래도시를 지향하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며, 그동안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고 전통과 미래가 함께하는 높은 이상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 수많은 포항인 선조들의 개척과 화합, 그리고 불굴의 의지와 희생적인 노력의 산물인 것이다.

비록 거창하고 큰 뜻을 함유한 지명은 아니지만, 포항의 잠재력은 그 어느 국내외 도시보다 크며, 영일만 일월정기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하다. 향토 내음이 물씬한 아름다운 자연산(自然産)지명, 포항(갯목, 갯매기, 갯미기)을 포항시민 모두가 바르게 알고 정답게 불러야 할 것이다.

5. 장시형성과 상업발전

1) 조선후기 장시

(1) 상업발달의 배경

경상도 내륙 지역에서는 조선후기 상업적 농업이 괄목할 만한 발전을 보였다. 이들 지역에서 생산된 쌀과 면포는 일부가 지역 내 시장에서 유통되고, 그 나머지는 낙동강 수로와 동해안 해로를 통해 함경도로 이출(移出)되거나 육로를 통해 강원도나 충청도로 이출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육로수송은 조령이나 죽령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므로 면포나 마포 등 섬유제품이 주류를 이루었고, 그 이출량에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제한이 있었다.

따라서 주된 역외상품시장은 함경도를 위시한 동해안 지역이었다. 그러나 동해안 해로는 “바람이 높고 물결이 급하여” 물화를 “한선(韓船)에 탑재하여 수출하는 것이 누누이 풍파의 위험을 만나 대개 도중에서 복몰(覆沒)하여 도달하는 자가 겨우 10중 3, 4에 불과하였다.” 그것은 당연히 경상도 지역 상업적 농업의 발전을 제약하였으나, 17세기 후반이후 해운 기술상의 장애가 극복되면서 점차 해소되어 갔다.

경상도 내륙지방과는 멀리 떨어진 동해안 지역은 바다와 인접하여 예로부터 어염생산이 주 생업이었고, 상품유통 역시 이 지역 특산물을 매개하는 장시를 중심으로 상업적 농산물의 발달을 가져왔으며, 그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거래물품이 곡물이었고, 다음은 면포(綿布), 면화(棉花), 마포(麻布), 명유(明紬) 등의 직물류로 농산물의 상품화가 가속화되었다.

다음 표를 보면 경상도 동해안(포항) 대부분 지역에서 미(米), 두(豆), 맥(麥) 등의 곡류와 면포, 면화, 마포 등의 직물류, 그 외에 어염, 연초 등의 생활필수품과 가축거래가 우리 고장의 특성에 따라 거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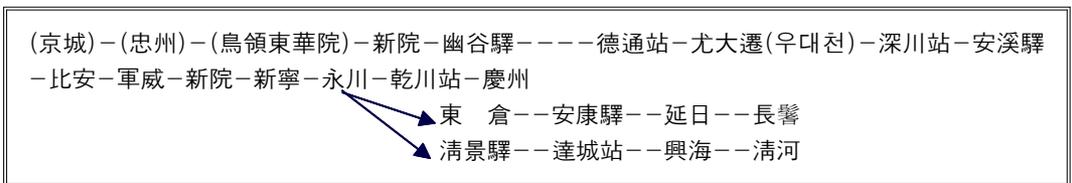
경상도 동해안 지역 주요 장시의 상품유통

| 군현 | 장시명 | 米 | 豆 | 麥 | 粳 | 綿布 | 綿花 | 麻布 | 明紬 | 鎡器 | 防風 | 木通 | 磁器 | 麻黃 | 煙草 | 魚塩 | 果物 | 牛犢 | 席子 | 竹箭 |
|----|-----|---|---|---|---|----|----|----|----|----|----|----|----|----|----|----|----|----|----|----|
| 청하 | 읍내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흥해 | 읍내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일 | 읍내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기 | 읍내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상도 동해안을 접하고 있는 영일만권은 한난 양 조류가 교차하는 해역으로서 수산동식물의 서식 및 내유(來遊)에 천혜의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 일찍부터 수산자원이 풍부하고 종류가 다양한 곳이었다. 당시 대표적인 어량으로는 흥해군의 두모적포(斗毛赤浦, 포항시 두호동 앞바다)와 포이진(包伊津, 현 북쪽), 영일현의 임곡포, 장기현의 양포와 송길포(松吉浦), 청하현의 개포(介浦)가 꼽히고 있으며 주로 대구(大口)와 청어(靑魚)를 어장과 방렴(方廉)으로 어획하였다.

조선후기 이 지역 상업의 발달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육상 교통로인 도로와 역의 관할에 대한 조명이 필요하다. 어차피 장시란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고, 그 연계도 교통로를 떠나서 별도로 존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즉 장시가 교통로 상에 설치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1770)<여지도>에 의하여 이 고장의 도로가 포함 연결되는 ‘서울 - 유곡역 - 동래·부산간 간선도로 및 지선도로’를 보면 아래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영일만권의 도로는 동해안 행정 중심지인 경주와 영속 군현의 각 읍치를 잇는 지선, 즉 중소도로로서 고대부터 형성되어 조선후기에 와서 국가차원의 행정 군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 교통수단으로 발전하였으며, 아울러 각 고장의 사회 경제발전에 큰 몫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조선후기에 와서 형성된 영일만권의 중심적 교통로를 표시하면

- ① 경주읍내-사방-안강읍내-달성-냉수-신광읍내-만석-옛재-명안-서정-청하읍내-송라-지경-영덕읍내

- ② 안강-유강-주진(注津)-중명동아랫부조-연일읍내-대송-청림-도구-상정-병포-구룡포
- ③ 유강-자명-학전-대련-이인-성곡-흥해읍내-별래재-까치고개-청하읍내
- ④ 유강-효자-포항용흥·대흥·덕수-나루곶-우현소티재-달전-흥해읍내
- ⑤ 연일읍내-대송-오천-정천-대곡-마현-장기읍내-양포
- ⑥ 감포-양포-영암-모포-하정-병포-구룡포-석병-대보-구만-대동배-발산-흥곶-마산-약전-청림-대송-죽도-상원-덕산-학산-두호-여남-죽천-칠포-오도-이가-월포-화진-지경
- ⑦ 오천-용덕-용산-갈평-진전-대왕암-지림사
- ⑧ 달성-기계읍내-인비-한티재-죽장읍내
- ⑨ 인비-용기-오덕-성법-상옥·하옥-영덕달산
- ⑩ 상옥-통진령-청송도평
- ⑪ 기계봉계-이리재-수성-임고-영천읍내
- ⑫ 신광읍내-법광곡-탑골-기북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가운데 ⑥의 해안도로는 일찍부터 지역별로 연결되었다가 조선후기에 이르러 점차 영일만 동해안을 연결하는 해안도로를 형성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동해안 영일권의 역 상황은 조선전기와 변함없이 청하의 송라역을 위시하여 영일의 대송역, 흥해의 망창역, 장기의 봉산역, 기계의 인비역, 신광의 육역으로서 《흥지도서(興地圖書)》의 기록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이 조선전기에서 후기에 이르기까지 영일만권 도로의 중요지점으로 참여의 기능과 역할을 해온 데가 6개 곳이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역이 송라역이다. 송라역은 영일만권 6역 가운데 유일하게 역승(驛丞)과 찰방(察訪, 현감겸직)이 다스린 도역이었다.

조선전기에 송라도는 경상도의 육도(장수도, 사근도, 소촌도, 황산도, 안기도)의 하나로 인근 8읍(영해, 영덕, 청하, 흥해, 영일, 장기, 경주, 울산)의 14개 역을 총괄하였다.

그 후 1462년 8월 규모가 축소되었으며, 1530년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나타난 역제를 보면 7개 역으로 줄어들었으나, 1535년 역승제가 찰방제로 바뀌어지게 되고, 19세기 후반 《송라도역지》의 <비판조(碑版條)>를 보면 17~18세기 초에도 찰방도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처럼 송라찰방도의 중요성과 함께 그 실세가 자못 컸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으며 영일만권 행정단위로서 역면이 있는 고장은 영일현과 청하현 두 곳인데, 그 가운데 청하현의 역면 규모가 더 컸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송라찰방도는 조선시대 청하현을 상징하는 중요한 역사적 실체로서 큰 의미를 지닐 뿐 아니라 영일만권과 인근 지역의 교통중심지로서 장시가 설치되어 찰방도

주변의 상업활동과 기능은 이 고장의 지리적 이점을 십분 구현한 것으로 이 지역의 발전적 미래를 조명하였다는 큰 뜻이 있다 하겠다.

영일만권의 역과 파발

| 지역명 | 역명 | 역간 거리 | 역리 및 노비수 | 대가 | 중마 | 복마 |
|-----|-----|--|---------------------------------|----|----|----|
| 흥 해 | 망창역 | 남 : 대송역 40리 북 : 송라역 20리 서 : 육(六)역 30리 | | | | |
| 영 일 | 대송역 | 동 : 봉산역 30리 서 : 안강역 30리 남 : 경주부조역 60리 북 : 망창역 30리 | 역리 : 31인 노 : 32구 비 : 30구 | 1필 | 2필 | 8필 |
| 장 기 | 봉산역 | 북 : 대소역 40리 남 : 朝역 60리 | 역리 : 2인 노 : 298구 비 : 155구 | | 3필 | 5필 |
| 청 하 | 송라역 | 남 : 망창역 22리 북 : 영덕남역 40리 서 : 육역 15리 | 역리 : 172명 노 : 58명 비 : 43명 | 1필 | 3필 | 8필 |
| 기 계 | 인비역 | 서북 : 청송 文居驛60리 | 역리 : 30인 역노 : 22명 비 : 7구 | | 2필 | 5필 |
| 신 광 | 육 역 | 북:송라역20리 | 역리 : 110인 역노 : 6명 비 : 8구 | | 2필 | 3필 |

※ 복마 : 짐 실는 말

(2) 이 고장의 조운

육로에 의한 상품유통에 비해 훨씬 규모가 큰 해상을 통한 상품유통에 있어서의 주역은 경강상인을 비롯한 사선인(私船人)이었는데, 동해안의 유통은 서해안·남해안과 달리 지역의 지토선(地土船)이 주로 이용되어 북어, 청어와 같은 해산물의 운송이나 진흙미의 운송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동해안의 상품유통을 담당한 선박은 외방의 지토선이였다. 이 시기 이루어진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의 진전에 의해 지토선의 용도는 지방주민의 생업과 직접 관계되고 있어 고깃배, 소금배, 장삿배가 중심이었고, 세곡과 소작료의 운송이 시대적 요청으로 제기되면서 임운선(賃運船)으로 전문화되기도 하였다.

三南邑別 地土船의 船隻數와 船稅額

| 도별 | 읍별 | 船隻數 | 船稅額 |
|-----|-----|-------|---------|
| 전 라 | 부 안 | 142 | 1,215.0 |
| | 강 진 | 125 | 1,141.3 |
| | 흥 양 | 518 | 1,438.0 |
| 충 청 | 서 산 | 167 | 1,000.0 |
| | 비 인 | 146 | 849.7 |
| 경 상 | 고 성 | 648 | 2,587.8 |
| | 거 제 | 1,428 | 2,841.7 |
| | 웅 천 | 153 | 1,582.7 |
| | 김 해 | | 1,044.9 |
| | 동 래 | 104 | 1,303.9 |
| | 장 기 | 277 | 2,585.8 |
| | 영 일 | 109 | 1,073.9 |
| | 청 하 | 140 | 374.3 |
| | 흥 해 | | 326.5 |
| | 영 덕 | | 1,494.3 |
| | 영 해 | | 762.7 |

당시 삼남 읍별 지토선의 선척수와 선세액을 보면 앞의 표와 같이 경상도 동해안 지역의 지토선 수가 장기 277, 영일 109, 청하 140척 등으로 약 500여 척에 이르며 전라도 부안 142, 강진 125, 흥양 518, 경상도 남해 지방의 고성 648, 거제 1,428, 웅천 153 등과 비교해 볼 때 적지 않은 수입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지역의 선세액은 충청·전라지역보다 훨씬 많았던 것으로 보아 확실히 지토선에 의한 어업·염업·선운업의 성장이 괄목할 만하다고 하겠다.

다음 표에 나타난 17C 이후 이 지역에서 거래되는 포구 간 상품유통의 내용을 보면 세곡운송, 선박구매, 쌀, 보리, 콩, 어채(魚採), 건어물, 목면, 우피(牛皮), 광(薑), 어염 등의 거래와 상업 활동이 꾸준히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첫째, 포항지역 4개 고을의 포구를 중심으로 함경도의 명천·북청·덕원·안변, 강원도의 고성·간성·삼척·울진·평해, 경상도의 영덕·청하·흥해·영일·장기·경주·울산·기장·부산·통영·거제·김해·양산·밀양·창원·하동, 전라도의 순천·낙안·장흥·강진에 이르는 전국의 연해 포구와 상품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둘째, 포항지역 각 포구에서 세곡운송을 비롯한 북관 이전곡 운송, 소금의 구입과

판매, 미곡의 구입과 판매, 어물 건어물의 구입과 판매, 목면구입, 선박구매, 북어 구입, 청어포획과 구입 등 다양한 상업 활동이 전개되고 있었으며, 매매 교환된 상품은 주로 미곡과 소금과 수산물(명태·청어 등)이었다. 주로 선상(船商)들은 동해안에서는 경상도의 미곡으로 강원도, 함경도의 수산물을 교역하였고, 호남지역의 미곡으로 영남 남해안과 동해안의 어물·소금 등과 교환하였다.

경상도 동해안 포구간 상품유통 상황표

| 번호 | 연도 | 유통 경로 | 유통 내용 |
|----|------|----------------|------------------------------|
| 1 | 1652 | 통영-장기-울산-통영 | 어물구입, 진어 구입(장기) |
| 2 | 1676 | 거제 동해포-통영-영일 | 租石, 청어구입(영일) |
| 3 | 1691 | 연일-청하-연일 | 선박구매 |
| 4 | 1694 | 부산포-영해-강원도 | 魚油和 잡어구입 |
| 5 | 1699 | 장흥-경주형산강-장기-장흥 | 正租 71석, 청어 매입(경주) |
| 6 | 1699 | 장흥수문포-장기-장흥 | 正租 96석, 청어구입(장기) |
| 7 | 1701 | 장흥-흥해-장기-장흥 | 正租 60석, 청어구입(흥해) |
| 8 | 1701 | 창원-흥해-창원 | 正租 50석-청어구입(흥해) |
| 9 | 1712 | 순천-장기-순천 | 魚採 |
| 10 | 1714 | 김해-간성-장기 | 皮牟 22석, 어족이 絶踪(간성)-장기에서 魚物구입 |
| 11 | 1717 | 강진-장기-연일-강진 | 正租 150석, 軍木5필-진청어(연일) |
| 12 | 1717 | 낙안-연일-장기-낙안 | 正租 200석, 청어구입(연일) |
| 13 | 1717 | 장흥-장기포이포-장흥 | 正租 150석, 청어구입(장기) |
| 14 | 1717 | 장흥-장기 | 正租 100석, 돈200냥-청어구입(장기) |
| 15 | 1719 | 낙안장자도-장기-장자도 | 米200석, 돈50냥, 청어 25동 매입(장기) |
| 16 | 1726 | 장흥-영일 | 白米 200석, 정조 20석-청어구입(영일) |
| 17 | 1726 | 양산 蛇島-흥해-양산 | 청어포획, 돈 300냥 판매 |
| 18 | 1726 | 삼척-은진강경-장기-삼척 | 미곡상 |
| 19 | 1728 | 연일 佐須浦-利城-연일 | 어물선상(목 1동 24필-명태 60동 구입) |
| 20 | 1742 | 밀양 삼랑포-장기 | 소금선상의 선박을 북관 이전곡 운송 |
| 21 | 1743 | 고성-연일 | 銅錢, 건어물, 미곡구입(연일) |
| 22 | 1753 | 창원-연일-함흥 | 상업 |
| 23 | 1762 | 장흥-장기 | 魚物판매(장기) |
| 24 | 1763 | 고성-영일 | 목면구입(영일) |
| 25 | 1771 | 창원-장기-창원 | 청어구입 |
| 26 | 1774 | 안변-연일 | 상업 |

| 번호 | 연도 | 유통 경로 | 유통 내용 |
|----|------|-------------------------|--|
| 27 | 1775 | 장흥-장기 | 乾魚 구입 |
| 28 | 1778 | 간성-연일-간성 | 미곡구입 |
| 29 | 1780 | 창원-평해-장기 | 상업 |
| 30 | 1785 | 경상도-장기 | 어물구입 |
| 31 | 1785 | 간성-강릉-연일-간성 | 미곡구입 |
| 32 | 1788 | 하동-평해-장기 | 어물구입 |
| 33 | 1789 | 삼척-연일-울진 | 미곡구입(미곡상) |
| 34 | 1789 | 덕원-연일-장기-울산 | 곡물운송업(賃漕) |
| 35 | 1789 | 동래-울산-포항-함경도 | 포항창곡 운송 |
| 36 | 1789 | 울진-장기-울산 | 화물운송업(賃事) |
| 37 | 1790 | 안변-평해-영일 | 곡물운송(무곡상) |
| 38 | 1795 | 덕원-장기-영일 | 어물구입(장기), 어물판매(영일) |
| 39 | 1799 | 기장-영일-기장 | 魚鹽판매(영일) |
| 40 | 1801 | 울산-장기-영덕 | 소금판매 |
| 41 | 1811 | 고성-장기 | 상업 |
| 42 | 1815 | 장흥-청하-장흥 | 乾魚 구매 |
| 43 | 1816 | 이원-명천-창원-영일-울산 | 건어물판매 |
| 44 | 1820 | 영덕-울산-영덕-장기 | 소금구입(울산), 판매(장기) |
| 45 | 1837 | 울산-장기 | 소금판매 |
| 46 | 1837 | 연일-부산-울산-연일 | 상업 |
| 47 | 1840 | 경주-장기 | 어물판매 |
| 48 | 1840 | 삼화-영일-삼화 | 미곡상(菽:콩구입, 영일) |
| 49 | 1886 | 강릉-영일포항-마산-강릉 | 500냥-청어25동 매입(포항)-마산발매 |
| 50 | 1886 | 영덕 중남면-북청신포 강릉-영일-포항 | 어물선상 : 물주 1,300냥 출자 북청에서 1,200냥으로 북어 30駄 구입 |

위 표의 1886년의 사례는 경상도 영덕현의 선인(船人)이 물주 김인구의 돈 1,300냥을 싣고 함경도 북청의 신포에서 북어 30태(駟)를 1,200냥을 주고 매입한 다음 경상도 영일, 포항 등지에서 판매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또 다른 사례 하나를 들면, 개성인 김중재는 개성부 출신 격군(格軍)9명과 전라도 강진 출신 격군 3명과 함께 개성인 물주 김진철의 돈 2,200냥을 가지고 선주 김철봉의 배를 타고 1752년 2월 13일 예성강을 출발하여 2월 20일 충청도 은진에 가서 쌀 540석을 구매 한 뒤에, 다시 5월 5일 경상도 영일 포항에서 가지고 간 쌀을 명태어

50동과 교환한 뒤에 食主人 朴守璣의 집에 맡겨두고, 포항에서 미역을 팔아서 남긴 돈 1,500냥과 소소한 잡어를 구매하여 실은 뒤 10월 초 1일 출발하여 본토로 돌아오다가 10월 초 5일 장기 앞바다에서 표류하였다.

위 두 사례에 의해 18세기 중기 무렵에는 전국적인 시장권이 형성되고, 한 번의 선상의 항행 활동범위가 영남 동해안은 물론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를 망라하고 있다.

또한 포항지역의 상품유통 측면에서 주목되는 것은 앞의 사례에서는 함경도에서 매입한 북어를 포항에서 판매한 사실과 뒤의 사례에서는 충청도에서 구매한 쌀을 포항에 가지고 와서 명태어와 교환한 사실이다.

그리고 특히 영일과 장기지역의 청어(과메기)구입이 자주 이루어지고 있음이 눈에 띈다. 이는 함경도의 명태 매매처럼 영일만 포항의 청어를 비롯한 어물매매도 어장이나 집산지 사이에 가격차가 심하여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각지의 어상(魚商)과 화물운송에 종사하는 자들이 큰 수익을 얻기 위해 주산지와 거래를 모색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사항은 조선후기 포항창진의 설패에 관한 것이다. 포항창진의 설치기록은 영조 8년(1732) 경상도 감사 조현명(趙顯命)의 주청에 따라 정부에서 북관(北關, 함경도지방)의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 합당한 여건을 갖춘 조운(漕運)의 요충지인 포항리에 창(倉)과 진(鎭)의 역할을 함께 하는 큰 규모의 포항창진을 창건했다.

조선시대의 창이나 창진의 설패는 육운의 폐단이나 해운의 사고발생과 각 시대의 제도 변화에 따라 이따금씩 행해졌는데, 포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더욱이 포이포(包伊浦, 장기)에 창을 옮긴 후부터 남부지방의 양곡을 해로로 북관(北關)에 운송하기는 항로가 너무 멀고, 가끔 해운도중에 폭풍우를 만나 선박이 조난을 당해 인명과 양곡의 손실이 컸던 관계로 운송항로를 단축하여 함경도 도민을 구휼코자 포항창진을 설치한 것이다.

포항창진은 조선 초기의 통양포 만호진이나 영일진과는 성격이 다른 군사적 역할보다는 백성진흥의 경제적 역할에 더 비중을 두는 관창이다. 비록 포항창진의 책임자(종9품)가 만호진의 책임자(종4품)보다 지위가 낮으나 포항창진의 역할은 대단한 것이었다.

포항창진은 경주부와 영일현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 일대의 환곡의 조적(糶糶)을 맡아 보관하며, 주로 산지가 많은 함경도지방의 기민을 구제하고, 때로는 흉년의 전라도와 강원도 등 여러 지방의 백성진흥의 운송을 담당하는 전국적인 굴지의 관창이었다. 1731년 포항창진의 건의, 이듬해 설치로 반농 반어의 한미한 포항마을이 크게 모습을 탈바꿈하여 새로운 성장의 계기를 하게 된 것이다. 포항창 관곡은 평소 곡식 기준 보관량이 2만석, 최대 보관능력이 5만석이나 되고, 조선(漕船)이 14척이나 되어 그 역할의 중요성과 함께 그 규모의 거창함이 가히 전국적이었다.

포항창이 이러한 역할과 규모를 지닐 수 있었던 것은 첫째, 포항항이 전라도나 함경도를 연결하는 중간 기착점이라는 사실과 둘째, 전라도 곡식 이외에도 우리나라 굴지의 곡창지역인 경상도 곡식을 가까이서 모아 놓았다가 흉년 시의 함경도는 물론 강원도나 전라도 지방을 구휼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조선후기에는 대일 공무역이 재개됨에 따라 결제수단으로 공목(公木)이나 공작미(公作米)가 경상도 동부지역의 17읍에 하납미(동래로 납부한다 하여 하납미(下納米)라 하였음)로 책정되어 징수되었는데, 하납읍은 동래·기장·경주·대구·인동·칠곡·울산·성주·선산·초계·교령·영해·영덕·청하·흥해·연일(영일) 장기 등이었으나, 숙종 4년(1678) 《영남대동사목》에 의하면 36읍으로, 그 후 사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40읍 정도로 늘어나 경상도 71개 군현 중 절반 이상이 하납미 납부의 부담을 지고 있었다. 따라서 하납읍 농민들은 종전에 비해 납세부담이 늘어나게 되었으며, 하납미 책정에서 대마번에 지급하는 과정에 다양한 형태의 逋欠이 전개되어 공목 대신 쌀을 징수하는 공목작미법(公木作米法)은 하납읍 농민들에게는 과중한 부담이 되기도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경북 동해안(포항)지역은 함경도를 위시한 전라도 지역의 구휼을 담당하였고, 세곡 운송과 군량미 운송, 그리고 대일무역 결제수단의 하납지역으로서 하납미의 부산진(釜倉)으로의 운송 등 수 만석의 곡식이 유통된 중심지로서 기능하게 되었으며, 조운을 통한 운송량은 계속 증대하여 영일만권의 포항창진을 중심으로 많은 인파와 다량의 곡식을 유입시켜 이를 바탕으로 18세기 농촌사회의 변화와 상업발달의 시대적 기운을 타고 인근지역의 생활중심지를 이루었을 뿐 아니라 전국적인 상품유통의 중심지로 주목받기에 이른 것이다.

이로써 보면 포항창진 설립(1731)이 이루어진 후 얼마 되지 않아 포항장과 부조장 등은 동해안 지역 상권의 중심부로서 함경도와 상품을 교역하는 거점 포시(浦市)로 크게 형성 발전되어 전국 각지의 특산 상품을 구매 판매하는 집산지 또는 중개지 역할을 하고 있었음이 밝혀진 것이다.

2) 각 고장의 장시

상품유통이 이루어지는 장시는 왜란 이후 17세기부터 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18세기 중반에 오면 전국에 1,000여 개의 장(場)이 서게 되었다. 이후 장시(場市)의 수적 증가보다 신설·폐지·통합·이설·개시일 변경·시장권 형성 등의 질적인 발달을 보이면서 5일장으로 정착되어갔다.

전국의 정기시장수를 도별 분포로 보면 경상도 지방이 가장 많다. 이는 인구, 농업 생산력, 교통망 등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다음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장시는 18세기 말 19세기 초 사이에 신설, 폐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폐지되는 장시 수가 신설되는 장시 수보다 많은 경상도의 경우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상품유통의 증가에 따라 교통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장시의 통합 내지는 폐지로 인한 장시의 질적인 변화로 보인다.

1770년대-1830년대 각 도별 장시 변동수

| 시기 도별 | 1770년대 (東國文獻備考) | 1770-1830년대 | | 1830년대 (林園經濟志) |
|----------|--------------------|-------------|-----|-------------------|
| | | 신설 | 폐지 | |
| 경 기 | 101 | 44 | 47 | 93 |
| 충 청 | 157 | 39 | 44 | 158 |
| 전 라 | 216 | 58 | 86 | 188 |
| 경 상 | 276 | 45 | 53 | 268 |
| 황 해 | 82 | 71 | 44 | 109 |
| 평 안 | 134 | 42 | 52 | 143 |
| 강 원 | 68 | 11 | 26 | 51 |
| 함 경 | 28 | 23 | 9 | 42 |
| 계 | 1,062 | 333 | 361 | 1,052 |

포항지역 각 고을의 장시는 《여지도서(輿地圖書)》(1757-1765)가 흥해군의 읍내장과 여천장을 처음으로 등재한 것을 비롯하여, 《東國文獻備考》(1770), 《경주부읍지(慶州府邑誌)》(1832)등의 모든 읍지에서 거의 기록되고 있다. 따라서 영일만권지역의 장시는 《여지도서》출판시기 이전에 등장하였음을 인지하게 되며, 전국의 장시형성과 포항의 지역적 역할로 보아 18세기 중반 이전부터 개시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 영일만권(현재의 포항권)각 고을에 형성된 장시는 다음 표와 같다.

영일현의 읍내장이 생지동과 대잠동에 둘로 나타나는 것은 영일현의 읍치가 1806~1871년 사이와 1886년 이후에는 생지동에 있었고, 1871~1886년 사이에는 대잠동에 있었기 때문이며, 포시장(부조장)의 개시일이 《임원경제지》와 《경상도읍지》에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1789~1791년의 《경주부읍지》장시조에 연화장(連貨場, 5, 10일)이 영일현에 분설되어 영일 연화장(포시장)이 10·20·30일로 나누어 개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장기현의 대박곡장은 1770년의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에 처음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흥해군의 신장은 1890년대 후반에 신설된 것으로 보인다.

영일만권 장시

| 내용 군·현·면 | 명 칭 | 위 치 | 개 시 일 | 주요거래물품 1827년의(林園經濟志) | 비 고 |
|-------------|----------------------------------|------------------------------|-----------------------------|---|---|
| 흥 해 군 | 邑內場 | 東 部 里 | 2일, 7일 | 쌀, 콩, 밀보리, 대구, 도미, 낙지, 방어, 광어, 청어, 생전복, 해삼, 미역, 김, 소금, 건시, 잣, 낫그릇, 자기, 농기, 방석, 방풍, 연초, 소, 송아지 | |
| | 余川場 | 군 20리 東上面 | 4일, 9일 | | |
| | 新 場 | 郡西 1리 | | | 1890년 후반 신설 |
| 영 일 현 | 읍내장 (生旨場) | | 3일, 8일 | 쌀, 콩, 밀보리, 면화, 면포, 마포, 생선, 소금, 소, 송아지 | 1871~1886년 사이의 읍내장은 大峯洞에 移置 |
| | 浦項場 | 현 20리 | 1일, 6일 | | |
| | 浦市場 (아랫부조장) *蓮化場 (웃부조장) | 현 10리 西面 경주부 40리 강동면 | 10일, 20일, 30일 《1832년 읍지》 | | 《林園經濟志》에는 5일, 10일로 되어 있음. 이는 2분되기 전의 連貨場을 가리킴 (필자주) |
| | 連花場 | 현30리 夫山面 | 2일, 7일 | | |
| 장 기 현 | 읍내장 (下城北場) | 현동 2리 縣內면 | 1일, 6일 | 쌀, 콩, 밀보리, 면포, 마포, 대구, 광어, 청어, 말린전복, 미역, 홍합, 해삼, 소, 송아지 | |
| | 大朴谷場 | 북면 | 4일, 9일 | | 1770년의 《東國文獻備考》 |
| 청 하 현 | 邑內場 | 東門外 | 1일, 11일, 21일 | 쌀, 콩, 밀보리, 면포, 면화, 계추리, 명주, 대구, 청어, 광어, 낙지, 상어, 흥어, 해삼, 미역, 김, 생전복, 방어고기, 소금, 대추, 밤, 竹物, 소, 송아지 | |
| | 城內場 | 읍성내 | 6일, 16일, 26일 | | |
| | 송라장 | 驛面 外三洞里앞 관문에서 북으로 5리거리 | 3일, 13일, 23일 | | |
| | 館前場 | 역면 館洞里 관문에서 북으로 3리거리 | 8일, 18일, 28일 | | 청하현에서 제일늦게 생김 (1832년《읍지》) |
| 기 계 면 | 기계장 (縣內場) | | 3일, 8일 | | |
| | 仁庇場 | | 1일, 6일 | | 후에 기계장에 합침 (《경주읍지》1933) |
| 신 광 면 | 土城場 | | 1일, 6일 | | |
| | 立石場 | | 4일, 9일 | | 후에 없어짐 (《경주읍지》1933) |
| 죽 장 면 | 죽장장 (현내장) | | 3일, 8일 | | |

그리고 청하현의 장시는 처음에는 읍내장과 송라장으로 형성되어 있었으나 오래지 않아 읍성 내의 성내장(城內場)과 역면 관동리에 관전장이 신설되어 19세기 전후가 되면 읍내장은 기존의 읍내장인 동문외장(1, 11일)과 성내장(6, 16일)으로 분설되었고, 송라장도 기존의 송라장(3, 13일)과 관전장(8, 18일)으로 분설되었다.

청하 읍내장과 분설된 두 장에 대해서는 《동국문헌비고》에서는 읍내장이 5일, 《임원경제지》에서는 읍내장과 동문외장이 각각 6일과 1일로, 《대동지지》에서는 읍내장이 5일과 10일로, 《경상도읍지》에서는 읍내장(동문 외)과 성내장이 각각 1일과 6일로, 《영남읍지》(1871)에서는 읍내장이 1일과 6일로, 《경상북도 청하현읍지》(1896~1899)에는 읍내장이 1일과 6일로 개시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동국문헌비고와 대동지지에서만 달리 5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착오로 보인다. 2분장이었던 읍내장과 성내장이 구한 말경 합설(合設)된 후 지금까지도 동문 밖의 읍내장이 1일과 6일 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함지역에서는 부조장이 경주부의 연화장(蓮花場, 웃부조장, 上扶助場)과 영일현의 아랫부조장(下扶助場)이 5일과 10일로 분설된 것을 비롯하여 청하현의 읍내장과 송라장이 각각 2분장으로 분설 운영된 것이다. 당시 전국의 2분장은 흔하지 않은 것으로 모두 8기에 불과하였다. 그만큼 청하장·송라장·부조장들의 상품유통 규모가 컸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위의 표를 보면 장시는 하루에 왕복할 수 있는 거리로서 대개 20~30리 내외로 개설되어 있다. 판매자나 소비자가 대부분 직접 생산자인 까닭에 하루 안에 교역을 마치고 귀가할 수 있는 범위 내에 5일마다 장을 개시하고 있어, 각 고장은 서로 거리와 개시 일에 있어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며 몇 개의 상권, 즉 장시권을 형성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러한 장시는 물물교환을 하는 상품유통의 날과 장소일 뿐만 아니라 서로 만나야 할 사람들, 만나 정담을 나누고 한잔의 술을 주고받는 사교의 장이며, 회동의 날이기도 하였다.

이 고장의 장시권은 ①영일·흥해권, ②영일·장기권, ③기계·신광·안강·죽장권, ④흥해·청하권으로 묶을 수 있다. ①의 장시권은 포함장(1일·6일), 흥해 읍내장(2·7), 영일 읍내장(3·8), 흥해 여천장(4·9), 부조장(연화장 : 2분되어 5, 10일 개시)이며, ②의 장시권은 장기 읍내장(1·6), 영일 부산면의 연화장(2·7), 영일 읍내장(3·8), 장기 북면의 대박곡장(4·9), 부조장(5·10), ③의 장시권은 신광 토성장(1·6), 입석장(4·9), 기계인비장(1·6), 흥해 읍내장(2·7), 기계 현내장(3·8), 죽장장(3·8), 안강장(4·9), 부조장(5·10), ④의 장시권은 청하 읍내장(1·6), 흥해 읍내장(2·7), 청하 송라장(3·8), 흥해 여천장(4·9), 청송 천변창(5·10)으로 모든 장시권은 한달 30일 가운데 장이 서지 않는 날이 없었다.

이 가운데 포항지역의 중심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①영일·흥해권과 ②흥해·청하권이다. 이 두 상권은 포항지역의 특별한 지리·역사적 배경에 의해 성장되었다. 영일만 상권 중 특히 이들 상권의 성장은 18세기 상업발달의 시대적 배경과 함께 포항창진 설립에 의한 영일만 포구의 발달과 또한 경상도 동해안 송라찰방도(松羅察訪道)체제의 육상교통의 융성에 의한 시너지효과에 큰 힘을 입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오랫동안 동해안권 역제의 중심지였던 송라가 19세기에 이르러 동해안 육운교통의 중심지로서 성장하여 수운교통의 중심인 부조장이 아랫부조장과 윗부조장으로 2분설된 것처럼 송라장도 기존의 송라장과 관전장으로 2분설되기에 이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송라찰방도는 영일만을 중심으로 하는 동해안 도로교통의 도역(道驛)으로서 서민생활의 필수적인 물화의 집산과 상업 활동의 기능을 19세기 이후 크게 촉진시켰다고 본다. 육운의 거리나 해운의 조건으로 보아 오늘날의 포항시 지역이 되고 있는 이들 장시들이 이 고장 상권의 중심지가 된 것은 당연한 추세였다. 그 직접적인 원인을 고찰해 보면, 첫째 동해안 영일만의 인근지역에서 오늘날의 포항시지역만이 형산강의 하류지역에 위치한 점과, 둘째 당시 포항리에 전국 규모의 포항창진(浦項倉鎭)이 설치된 점에 있다. 즉 형산강의 하구가 넓고 깊어 해운수송이 가능했고, 북관(함경도)의 기민을 구제하기 위해 경북 동부지역의 환곡과 전라도의 양곡을 포항창에 운송 보관하였다가 수만 석의 양곡을 함경도로 운송하는 큰 역할을 수행하여 전라도와 함경도를 잇는 상거래의 중계·중개지가 된 데 있다 하겠다.

포항장(1·6), 여천장(4·9), 부조장(아랫부조장, 10·20·30)은 영남굴지의 포항창과 관계를 지니고 있는, 영일만권 중에서도 물산이 풍부하고 교역도 활발하고 교통도 편리한, 특히 해상교역의 중심지역 장시로서 이 고장의 상업발달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조선후기의 장시발달에는 출신지나 인근 지역에만 한정되지 않고 전국의 중요한 교역도를 따라 활동하는 행상의 역할이 컸으며, 전국의 중요지역에는 행상 가운데 육상인 보부상(裸負商)을 상대로 하는 도고(都賈)인 객주(客主)나 여각(旅閣)이 발달하게 되었다. 객주(客主)나 여각(旅閣)은 도고뿐만 아니라 창고업·위탁판매업·운송업·숙박업·거간(居間)을 비롯해서 대부·어음발행·예금 등의 은행업도 겸하여 지방 상업에서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

객주나 여각의 기능은 구별하기 어려운 정도로 대동소이하나 구태여 구별한다면, 객주는 일체의 상품을 취급하지만 여각에서는 부피나 무게 있는 상품, 즉 염·어물·해조 등 주로 해산물을 취급한다는 점에서 상이하였으나 여각에서도 미곡을 취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말에 있어서는 객주나 여각이 모두 수산물을 취급하고 있다. 당시 수산물 생산과 운송의 중심지역인 포항에서도 객주와 여각의 전국적인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니, “650량으로 포항에서 청어를 구매하여 마산포에서 판매하고,

물주가 1,300량을 선주에게 주어 북어를 북청부(北靑府) 신포(新浦)에서 30대(駄)를 매 득케 하여 영일·포항 등에서 발매하였다”(《金等狀啓》光緒 12년 丙戌 2월초 5일, 奎 18,125)는 1886년의 기록은 19세기 후반의 이 고장 장시의 상업유통규모와 실태를 잘 파악토록 해주고 있다.

영일만권의 장시는 각 지역의 조건과 토산품에 따라 조금씩 다른 특성을 띠고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1832년의 《경상도읍지》에 수록된 각 고장의 토산품을 보면 다음과 같다.

- 흥해군 : 전복, 대구어, 청어, 홍합, 방어, 상어, 고등어, 김, 해삼, 송어, 흥어, 미역, 牛毛, 도미어, 죽전, 防風
- 영일현 : 蜂蜜(꿀), 竹箭(대살), 海獺(바다수달), 松蕈(송이버섯), 방어, 연어, 광어, 대구어, 홍합, 은어, 청어, 상어, 황어, 전어, 송어, 흥어, 고등어, 海衣(김), 藿(곽, 미역), 礪石(숫돌), 방풍, 소라
- 장기현 : 磊碌(회록색의 도료), 광어, 해삼, 상어, 대구어, 방어, 청어, 전복, 홍합, 미역, 김, 바다수달, 송이버섯, 방풍
- 청하현 : 방어, 전복, 대구어, 청어, 홍합, 김, 미역, 광어, 꿀, 문어, 三申魚, 고등어, 도미, 상어, 흥어, 해삼, 麻黃, 黃柏, 木通, 蔓荊子, 槐實

토산품의 주류가 해산물로 되어 있어 각 장시에 거래된 물품도 이에 준하였으나 《임원경제지》에 수록된 바와 같이 그 밖에도 쌀, 콩, 밀보리, 면포, 면화, 마포, 연초 등의 생활필수품도 각 고장의 특성에 따라 거래되고 있었다.

한편 당시 영일만권 장시에서 거래된 상품의 고시 가격을 알고 상품들 간의 가격차이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 현 흥해읍 권무정 뜰에 있는 ‘군수권공의이청무역혁파비(郡守權公顯吏廳貿易革罷碑)’의 비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청무역첨가수(吏廳貿易添加數) : 관청에서 고시한 무역품목과 가격

壯紙 60束 錢 42兩, 厚紙 120속 전 18량, 水荏 3石 3斗 22량 4箋, 黃蜜 12근 錢 4兩 8箋, 芝草 5斗 6升 6兩 7箋 2分, 木花(春) 40근 4량 3전, (夏) 20근 2량 3전, 4분, (秋) 60근 2량 6전, (冬) 80근 3량 5전, 外紬 3疋 3尺 4寸 16량 6전 8분, 內紬 3필 13척 4촌 15량 2분, 眞荏 4석 12두 52량 8전, 生淸 12두 48량, 乾柿 24貼 9량 6전, 銀口魚 2級 3箋, 花紋四重席 2件 7량 5전, 莞草席 14立 9량 1전, 합계 301량 6전 6분

工房에서 告示하니 市價에 의하여 매매할 것

崇禎紀元後 4甲辰(헌종 10년, 1844년) 孟冬

堅石時 戶長 鄭 台 鉉

吏房 崔 仁 考

免吏 李 景 海

崔 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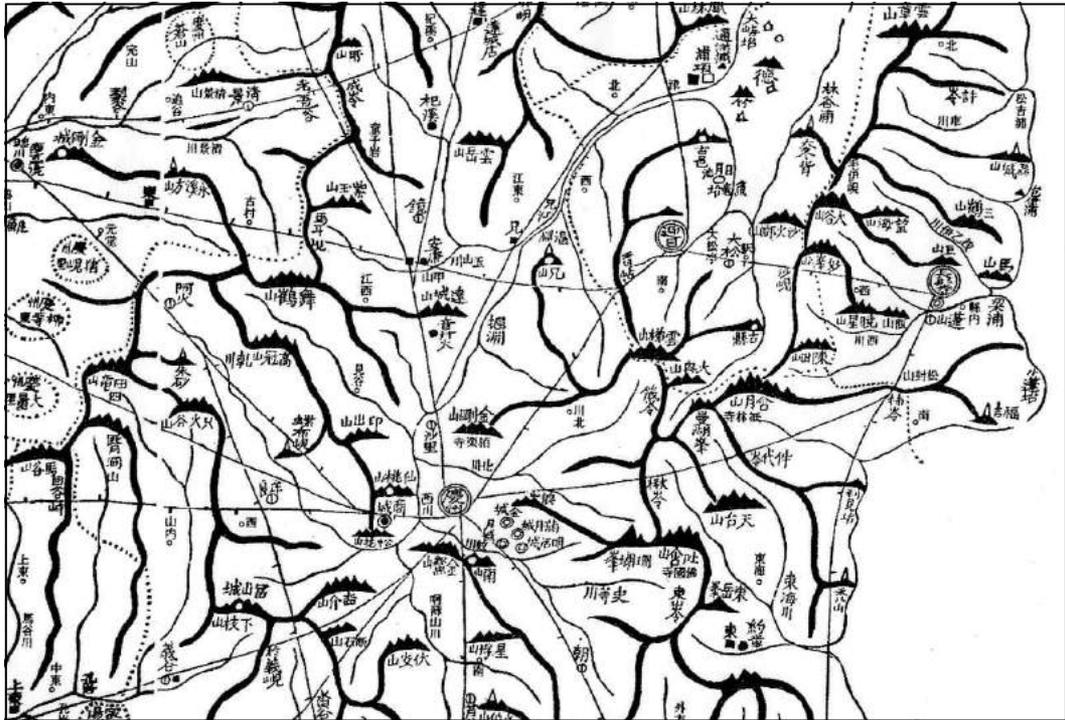
3) 부조장(扶助場)

포항창진이 1731년에 영일현 북면 포항리에 설치되면서부터 이 지역은 전국적인 관심 지역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그 당시가 때마침 상업 활동이 양성적으로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한 시기였기 때문에, 곧 국가 공무 이외에도 남쪽과 북쪽지방의 농산물과 수산물 및 소금을 집산하는 중계·중개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시(巨市)가 되었다. 전라도 방면의 토산물인 양곡과 북관의 토산물인 명태와 북어 등의 해산물을 각각 수용하는 함경도나 전라도에 직접 수송거래 한다는 것은 당시의 선박 수준이나 상거래의 이치로 보아서 무모하고도 불가능한 일이었다. 설사 직접 수송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필수적인 항해용품의 공급과 안전운항을 위해 기착지로서의 포항을 경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로써 대포구인 포항항은 전라도의 양곡, 함경도의 해산물 및 강원도의 토산물 등을 집산하는 상거래의 중요한 요지가 되었다.

《경주부읍지》(1789~1791년)의 장시조에 “연화장은 혹은 부조장이라고도 칭하며 관문에서 40리 거리에 위치하고 10일마다 5일마다 5일과 10일에 개시하는 장인데 영일에도 분설하였다(或稱 扶助 距官門40里 每旬5日 延日分設)”고 한 것으로 보아 경주부지역의 형산강 하류변에 연화장(일명, 부조장)이 먼저 개시되었다가 곧 교통조건이 더 나은 영일현지역의 형산강 하류 포구에 부조장을 분설하여 부조장이 2분된 것이다.

부조는 원래 푸주·푸조·푸지·부지 등으로 불리어지다가 한자어로 부조(扶助)로 고정된 것 같다. 그리고 조선 후기 대부분의 기록에서 연화장(부조장)을 ‘連貨場’으로 표기하는데 비해, 연대가 다소 앞선 동강서원(東江書院)의 《攷往錄》(1707, 숙종33년)에서는 “兄江上 蓮花市 蓮花峰 弟山下”라 하여 ‘蓮花場’으로 표기하였다. 후자의 ‘蓮花’는 불교의 상징적인 꽃을 나타내는 단어이고, 전자의 ‘連貨’는 연이은 물화를 뜻하는 단어이다. 어느 쪽이 옳은 것인지 현재로서는 확인 할 수 없는 관계로 여기에서는 부조장(扶助場) 또는 한글로 연화장으로 표기하고자 한다.

이후 원래의 연화장은 윗부조장, 분설된 부조장은 아랫부조장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장날도 윗부조장은 5일·15일·25일, 아랫부조장은 10일·20일·30일로 나누어지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역할을 포함장이나 여천장도 수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대체로 부조장이 주도해 나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윗부조에는 강동면 각리 소속의 형산창(兄山倉)을 설치하여 현물세를 징수 보관함으로써 부조시장의 농·해산물 거래촉진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영일현의 부조장은 경주부에 속했던 강동면 국당리 소재의 윗부조시장, 즉 연화장과 구별이 되어야 한다. 연화장은 선박 접안이 불편하여 규모가 큰 장시의 수준을 넘지 못하였고, 영일현 서면 중명동 소재의 선박 접안이 용이한 아랫부조장이 바로 전국 규모의 이름난 부조시장의 모체가 된 것이다.



● 대동여지전도(경주, 흥해, 영일, 장기)

《경상도읍지》(1832년)의 포시장(浦口의 장시를 말함)은 영일에 분설된 부조장시와 같은 것으로서 바로 영일현의 아랫부조장이다.

1864년에 작성된 김정호의 《대동지지(大東地志)》에는 포시장(浦市場)이 ‘포시장(鋪市場)’으로 표기되어 있다. 포(鋪)는 ‘전방’의 뜻이기 때문에 아랫부조시장은 아무 시설 없는 넓은 공지에 하루 동안 거래하다가 당일로 흩어지는 장이 아닌 오늘날의 점포 형식과 같은 일정한 시설물을 갖추어 놓고 그 시설물을 이용해서 상거래를 한 시장이었다.

당시 부조장은 “경주의 상부조장시(上扶助場市)와 연일의 하부조장시(下扶助場市)의 세금을 징수하여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으로 수납할 것”으로 보아 영일현의 관장 하에 있었다. 조선왕조 말엽의 자료로 추정되는 《영남첩보(嶺南牒報)》를 통해 부조장의 운영에 대한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각읍을 경유함. 본읍 부조장(扶助場)의 상하 교역하는 길을 숙선궁(淑善宮)에서 재력을 내어 닦은 후 전세(廩稅)를 거두는 일에 근근히 조사 보고로 인하여 지시를 보낸 바 있거니와, 길을 닦는 것은 실로 편리하고 합당하고, 중론도 이미 따라 동일한 즉, 세금을 거두어 비용을 갚는 것은 그냥 둘 수 없는 바가 있으므로

절목(節目)을 만들어 이에 공문을 발송하므로, 각전의 세금거두는 절차를 소위 성어배(成語輩) 중 근간(勤幹)한 자를 택하여, 궁감(宮監)과 같이 입회하여 절목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되, 사적 인연으로 과다하게 거두는 폐단이 없도록 한다. 만약 싸우거나 방해하는 단서가 있으면 이름을 적어 보고하여 특별히 엄히 처벌하는 기반으로 삼도록 하며, 교역하는 길 도중에 혹 무너지는 것이 있으면 궁감으로 하여금 신칙하여 기일에 맞추어 보수하여 이 교역하는 백성으로 하여금 왕래하는데 편리하도록 하여 실효가 있기를 기약하도록 할 것. 경주 영일 성급하는 일. 이번에 숙선궁감(淑善宮監) 이극선의 첩장을 보니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경주·영일 상하 부조장은 뒤로는 산이요 앞에는 강이 있어서, 길이 좁고 위험하며, 장마비가 오는 여름철이나 얼음이 어는 겨울철에는 장에 가는 인마가 대부분 막혀서 마침내 상거래가 이로 인해 막히게 되는 것은 실로 마땅히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때문에 숙선궁에서 특별히 돈을 내어 시종 길을 닦아 준공하고, 수세차 궁패(宮牌)를 지참하고 해당 고을에 도착하여, 즉시 실시하는 뜻을 삼아 명령한 바 있습니다. 각전의 성어배가 중간에서 농간하는 것이 있으므로, 편리한지 불편한지를 조사하여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지금 보고를 보니, 온 시장의 논의가 모두 장삿길을 닦아서 왕래에 지장이 없기를 원하므로, 세금을 징수하여 경비로 갖는 것이 실로 뜻에 합당하므로 다시는 의논이 나누어져 일이 막히는 단서는 없을 것이므로 이에 절목을 만들어 발급하였습니다. 소위 장패(거간군)성어배가 세금 징수로서 상인을 침탈하고 규정액 이상으로 토색하는 폐단은 엄히 혁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듣건데, 고기(생선), 소금, 미역, 소, 면포, 마포의 여섯 전포의 수세는 1바리당 2전 5푼 징수하는 것을 이미 본읍에서 작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니, 그 가운데 1전 2푼은 숙선궁에 수납하고, 1전 3푼은 저들의 생계비로 사용케 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등 절차는 궁감과 입회하여 착실히 거행하여 마음대로 수탈하는 폐단이 없도록 하며, 이 외에 읍의 경비로 수세하여 보완한 것이 이로 인해 어그러져서는 안 되므로 관례에 따라 시행하되 과다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매년 수세 때에 진(鎭)의 하예배(下隸輩)가 몽둥이 들고 소란을 피우는 폐단을 엄하게 금단하여 떼 지어 다니는 폐단을 엄단할 것.

- 一. 절목에 따라 영구히 준행할 것.
- 一. 성어배(成語輩) 중에서 근간자를 뽑아 각전의 도검칙으로 임명하여 궁감과 입회하여 절목에 따라 수세하여 수납하되 중간에서 폐단을 일으키고 간악함을 용납하는 폐단은 철저히 조사하여 특별히 금단토록 할 것.
- 一. 장삿길이 무너진 곳은 궁감으로 하여금 살펴서 그때그때 보수하여 왕래하는 상려(商旅)로 하여금 자빠지고 다니기 힘든 탄식이 없도록 하여 실효를 거두기를 기약할 것.”

영남첩보의 내용을 보건데, “숙선궁에서 재력을 내어 상부조장과 하부조장을 연결하는 도로를 닦았다. 그리고 어(魚)·염(塩)·곽(藿)·우(牛)·면(綿)·포전(布塵)의 여섯 전포의 수세는 매태(每駄)당 이전오분(二錢五分)을 거두어, 일전이분은 숙선궁에 납부하고, 일전삼분은 각전성어배(各廳成語輩)의 수입으로 삼도록 하였다. 특히 성어배의 중간 수탈을 막기 위해, 성어배 가운데 근간한 자를 뽑아, 각전의 도검칙(都檢飭)으로

임명하여 속선공의 공감과 함께 절목에 따라 수세 수납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통해 속선공과 같은 공방이 자체 경비로 상, 하부조장을 연결하는 도로를 개수한 것은 이 두 장사에서 거두는 장시세의 이권이 그만큼 컸음을 보여주며, 또 장쾌(駟儉) 성어 배의 중간 수탈이 많았다는 것도 부조장의 발달을 방증하는 구체적인 사례라 하겠다.

부조시장은 형산강의 수로 또는 인근 육로를 통해 경북의 내륙지방인 안동·대구·삼주·영천·경주 등지의 농산물과 포항을 비롯한 동해안의 해산물을 교역하는 큰 장시로 성장하였으며, 1909년 9월 탁지부 사세국 조사에 기초하여 만든 조선총독부의 ‘주요시장 일람표’에 보면, 경상북도 주요시장으로 10개 가운데 부조시장이 포함되어 나타나 있으며, 예로부터 경북의 3대 시장(대구, 김천, 부조)이라고 불리듯이 해륙 운수가 불편하던 시대에는 각 장시의 중계시로서 근처 7, 8군의 상권을 모을 정도로 번창하였다.

고로(古老)들의 전하는 말에 의하면 당시 건어물과 양곡 등을 매매 교역하기 위해 운집(雲集)한 함경도·전라도·강원도 방면의 상선들이 형산포구의 좌우 양안(兩岸)에 정선(停船)한 광경은 일대 장관을 이루었다고 한다. 또한 당시의 교통수단은 육지에는 마필, 바다에는 범선(돛단배)이었는데 말 한 필에 한 사람의 마부가 따라 수십 필 때로는 백 여필씩 일렬 종대로 행진하는 상대(商隊)의 행렬 역시 장관이었다고 한다. 과연 동해안의 원산, 남해안의 마산, 서해안의 강경시장에 필적할 만한 부조시장의 웅성한 형세를 접하는 느낌이다.

이러한 웅성한 부조시장의 형세는 최근에 알려진 귀중한 금석문에 의해서도 그 윤곽을 짐작할 수 있다. 형산 건너편 제산(弟山)에서 발견된 보존상태가 양호한 비석은 1864년 당시의 부조시장 관계의 유사(有司)와 도감(都監)을 비롯하여 8개의 임방(任房:길드조직과 유사)에서 좌상대(左商隊)의 도접장(都接長)인 김이형(金以亨)의 공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이었다. 즉 ‘좌상대도접장김이형유공비’이다. 좌상대는 좌단(左團)이라고도 하는 부상(負商)을, 우상대는 우단(右團)이라고도 하는 보상(祿商)을 말한다.

1883년 해상공국(惠商工局, 軍國衙門의 관할)을 설치하여 전국적 조직의 보부청(1866년 설치)을 통합한 후, 1885년 상리국(商



● 좌상대도접장김이형유공비

理局)으로 개칭하면서 좌·우단이라 했다가, 1899년(광무3) 이를 상무사(商務社)에 이속시켜 좌사(左社)와 우사(右社)로 개칭하였다. 따라서 김이형은 부상의 여러 접장의 대표자로서 보부상을 지휘할 책임을 지니고 있는 임원이었다. 이같은 부조시장이 일시 폐시되는 수난을 당하여 이 고장의 상업 활동이 일시 주춤한 적이 있었다. 그 일은 1871년 봄 영일현 치소를 생지동에서 대잠동으로 옮긴 후 부조장을 폐시하고, 그 대신 浦시장(鋪市場을 말함)을 신읍(新邑) 남문 밖에 옮겨 설치한데서 비롯되었다. 이때 읍내장이었던 생지장(3·8일) 역시 폐시되고 새 읍내장인 대잠장(3·8일)이 신설되었다. 포시장(鋪市場)을 포시장(浦市場)으로 표시한 것은 종전 부조시장이 좌고(坐賈)의 시설물을 갖춘데 비해 새로 설치한 대잠장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자연히 부조시장의 전과 같은 융성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새로 설치된 포시장마저 제구실을 하지 못하여 이 고장의 상업 활동은 위축되기 시작하였다. 그 때만 하더라도 전근대적인 관료체제의 악습이 남아 있어서 조정이나 지방관아의 영(令)은 하나의 법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폐시 후 상인들의 고충은 당분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조시장이 폐쇄된 후로는 포구라는 같은 성격을 지닌 포항장이 상대적으로 번창해간 것으로 보인다. 근래까지 옛 부조시장터였던 증명 1동 형산강변의 도로 옆에 1m 남짓한 높이의 두 비가 서 있었다. 하나는 ‘현감조공동훈복시선정비(縣監趙公東勳復市善政碑)’이고, 또 하나는 ‘현감남공순원선정비(縣監南公順元善政碑)’이다. 이 두 비 역시 앞의 비와 함께 부조시장의 성쇠를 일러주는 귀중한 금석문 유물이 아닐 수 없다.



● 현감조공동훈복시선정비



● 현감남공순원선정비

동네 어귀에서 서쪽 강변을 바라보며, 옛날의 화려했던 시절을 회상하며 외로이 서 있었던 한 쌍의 비석이 남은 세월동안 그 자취를 지키며 변해가는 역사의 흐름을 지켜보고자 하는 백발의 노부부를 연상케 하였다. 지금은 강변의 시설물 공사로 인해 중명동 마을회관 앞으로 옮겨 놓았다.

전자의 비는 1878(고종15) 2월에 영일현감 조동훈(趙東勳)이 부조시장을 복시한데 대한 선정을 기리기 위해 동대표 孫鍾佑·金胄甲·金度曄이 세운 것인데, 10여 년 전에 비해 이수(嶠首, 비석 머릿돌)가 없어서 보존관리가 요구되며, 후자는 1887년(고종24) 9월에 현감 남순원(南順元)의 선정을 기리기 위해 행상접장(行商接長) 문계영(文桂永), 장감(場監) 마성득(馬成得), 부상접장(負商接長) 구학조(具鶴祚)가 세운 것이다.

위의 세 비 이외에 또 한 쌍의 비가 있어 당시 부조시장의 형세를 말해주고 있다. 그동안 앞의 세비처럼 너무 방치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비의 내용과 그 뜻하는 바가 전혀 소개된 일이 없어 일개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저 서 있는 돌에 불과 하였다. 이러한 비들은 이 고장의 역사를 생생히 증언해주는 귀중한 문화재로서 그 보호와 관리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이 두 비는 학잠동에서 효자동으로 가는 옛 도로 우편 철길 옆 공터에 나란히 서 있으나 비 자체가 크게 훼손되고 마모되어 있다.

북쪽의 작은 비는 ‘현감원공우상청덕선정비(縣監元公禹常淸德善政碑)’로서 1871년 7월에 동해두민(東海頭民) 이화식(李華植), 김성득(金成得), 임응호(林應浩)가 현감 원우상의 선정을 기리기 위해 세운 것이다. 원우상은 영일현치소가 대잡에 옮길 때의 현감으로 부조시장과의 관련뿐만 아니라 영일향교의 대잡 이설 등 고장의 학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남쪽의 큰 비는 ‘관찰사이윤상국자승영세불망비(觀察使尹相國慈承永世不忘碑)’로서 북청·함흥·강릉·통천 등의 거상을 비롯하여 포창감관(浦倉監官) 및 도감(都監) 출신자들이 1881년 북관(北關, 함경도)과 강원도 상인의 애로(거래상품 저장소 부족, 상거래 질서의 혼란, 도적과 잡배의 횡포)를 해소하여 이 고장의 상거래 질서를 바로 잡고, 부조시장을 비롯하여 이 고장 시장의 융성을 회복토록 하는데 크게 기여한 당시 경상도 관찰사 윤자승의 뜻을 기리기 위해 세운 것이다. 이 비는 이 고장 상업발달사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 유물이다. 이로써 읍치가 옮겨진 시기(생지동에서 1871년에 대잡동으로 옮겼다가, 1886년 다시 생지동으로 옮김)와 부조장의 폐시(1871)와 복시(1878)시기가 상호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부조장이 폐시된 후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보다도 시장으로 인해 여러 형태로 수입을 올렸던 상인과 중명동을 비롯한 구 영일현 읍치소의 거주민이었다. 이 같은 주민과 부조시장과 관련된 사람들의 곤란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부조시장의 번영에 공이 컸던 두 현감(원우상, 조동훈)과 한 관찰사의 선정을 기념하기 위해 비를 건립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 현감원공우상청덕선정비



● 관찰사윤상국자승영세불망비

이들 송덕비들을 통해 부조시장이 폐쇄된 지 7년 만에 복설하게 되고, 당시의 행상 접장, 부상접장, 장감관 등의 명칭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행상은 속칭 도봇장수로서 물건을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니며 파는 장사 또는 장수를 말하며, 부상은 등짐장수를 말한다. 5일마다 개시하는 장시를 따라 규칙적으로 행상하는 붓짐장수(褌商)와 등짐장수(負商)를 보부상이라 한다. 시장과 도시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킨 것은 보부상이었다. 접장은 이러한 조합조직의 하나인 위계단위의 장(長) 명칭이다. 그리고 장감관은 관청에서 파견되어 장판으로 다니면서 물건 값의 높고 낮음을 살피는 등 장판의 질서를 유지케 하는 공무원이다. 이렇게 복시된 부조시장은 옛 모습을 점차 회복하여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물론 영일현세를 신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더욱이 1886년 영일현청을 대잠에서 구읍이었던 생지동에 옮겨 이후로는 그 역할의 비중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19세기에는 장시와 상업의 발달에 따라 포시(浦市, 浦口)에서는 상세가 독립적인 수세항목으로 설정되어 조정이나 지방관아의 중요한 세수원(稅收源)으로 등장되었다. 당시 포구에서의 수세는 어염세 즉 생산처에 대한 수세와 선박에 부과되고 있는 ‘유선지세(有船之稅)’인 선세(船稅), ‘가박지세(可泊之稅)’인 지세(地稅), ‘가행지세(可行之稅)’인 상세(商稅)로 구분된다. 지세는 팔로통행(八路通行)의 법규로서 선박의 크기에 따라 대·중·소선 등의 형태로 구분되거나, 2범선·1범선 등의 형태로 구분되면서 포구에

드나들 때마다 수세되었고, 상세는 일단 선박의 규모에 관계없이 그 선박이 싣고 있는 물자의 다소에 따라 부과되었다. 포시주인(객주·여각)에 의해 수봉(收捧)되는 구문(口錢, 소개비)이 바로 상세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궁방(宮房)이나 아문(衙門)에서 포구(浦口)를 복속시키면 대부분 그 포구에 수세감관이나 도장(導掌)을 두고 수세하였다. 즉 궁방이나 아문은 포시주인이 수봉한 구문 중의 일부를 수봉하였던 것이다.

당시 부조장은 영일현의 관장 하에 있었다. 19세기 중반의 세도정치와 구한말의 민씨 정권 하에서 매관매직이 성행할 때 영일현감 자리가 노른자위로 공정가가 높았으나 부임 1년에 매관한 대금을 충당할 수 있었다는 전언은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 부조시장의 융성한 규모를 알려주는 일화가 되고 있다.

조선후기 상업발달과 지방장시의 번창으로 점차 민족자본을 형성하여 근대화의 과정을 밟던 중 불행하게도 외세의 진출을 자주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급기야 일제침략의 마수에 걸려 한국경제는 파행적인 걸음을 걷게 되었다.

일제가 러일전쟁 준비를 위해 1902년에 착공한 경부선이 1905년(광무 9) 5월에 개통되고, 요소마다 군사도로·신작로가 개설되고, 또한 각 연안의 어로권이 탈취되고, 기차·자동차·기선 등으로 육로와 해로가 그들에 의해 거의 독점되면서 한국의 전통적 상업행위는 크게 위축되어 갔다.

6. 수공업

17·18세기에 들어서면서 수공업분야도 현저한 발전상을 나타내었다. 수공업계 역시 대동법 실시 이후 공인들의 상업활동으로 생산의욕이 크게 자극됨으로써 활기를 띄기 시작하였다.

당시 농촌의 수공업도 아직 가내수공업의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지만, 일부의 부농가에서는 도시 상업자본가처럼 선대제적(先貸制)으로 농촌직부(織婦)들을 지배하여 상품을 생산하고, 농촌장시에서는 직물류 이외에도 철(鐵)·목(木)·자기류(磁器類) 등의 가공상품의 거래량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적인 발전을 보고 있었다.

앞서 소개한 장시들의 주거래 상품 가운데 흥해군의 낫그릇·자기·농기·방석, 영일현의 면화·면포·마포, 장기현의 면포·마포, 청하현의 면포·면화·계추리·죽물 등은 각 고장 수공업의 생산품으로 보인다.

그리고 토산품에 보였던 흥해군의 죽전(竹箭), 영일현의 죽전·여석(礪石), 장기현의 뇌록(磊碌) 등도 죽물·화살·숫돌계통·도료의 원료로서 일익을 담당하였다.

이 가운데 1765년과 1832년의 《영일현읍지》토산품조에 “礪石, 出雲梯山其品佳”

나 “礪石，出雲梯山，塹谷穿巖晝夜掘採有五十坑，掘深山頽軍人五十名壓死，至今風雨時，有鬼哭冤聲”이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상당한 규모로 상당한 양의 여석이 채굴되어 이 방면의 큰 원료 공급처로서 각광을 받았으며, 이는 조선후기 대외무역의 촉진에 따른 광업발전에 힘입은 결과로 보인다.

한편 기계·신광·죽장지역은 경주부의 임내인 관계로 이에 관한 자료가 불명하나 현지의 유물·유적과 고로들의 전언에 의해 어느 정도 그 실상의 고찰이 가능하다.

1) 성법이의 쇠붙이 제품

우선 조선후기 기계면(縣이 面으로 개칭된 경우)의 3坊지역인 성법지역(옛 省法伊부곡, 부곡에 관한 것은 조선전기와 후기의 지방행정체제의 변화 참조바람)은 예로부터 오랫동안 경주부의 임내이며, 부곡으로서 이에 관계되는 유물·유적의 흔적이 발견되고 있다.

근래까지도 기북면 고통곡(古通里) 논 한가운데 ‘通政大夫 朴公之 墓’의 표석명(標石銘)에 ‘성법고통곡(省法古通谷, 崇禎後丙戌, 1646년)’이 있는 것으로 보아 1669년 《동경잡기》의 기계면 3방이 고통곡에서 대사동(大寺洞)까지의 지역이라는 자료는 성법이 현재의 기북면 전체에 해당하는 지역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된다.

성법마을에는 조선말엽 1900년대 초까지도 웅기·도기·유기·종이·바디·술·대장간 등의 경공업과 가내수공업이 성행하였다 한다.

또 쇠를 부려 농기구를 만들었다 하며, 임진왜란때 경주 판관 박의장(朴毅長)이 오덕리(吾德里)에 머물렀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그렇다면 박의장이 비격진천뢰(飛擊震天雷, 李長孫의 발명품으로 경주성 수복에 사용하여 큰 성과를 본 신무기)와 화차 등의 무기를 바로 여기 쇠점에서 만들었을 가능성은 없는지 특히 무들이란 곳에 야철장이 있고, 뒷산 깊은 골짜기에서 숯을 굽고 철광석을 제련했다는 제조장터는 이제 알아 볼 수 없게 되었으나, 산등성이·들판·넷가 등지에서 가마(爐)에서 용해된 쇠물을 따르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구멍뚫린 돌’(직경 50cm, 높이 27cm, 구멍의 넓은 입구지름 17.7cm, 깊이 26.7cm, 바닥의 좁은 구어의 지름이 5.5cm)이나 철광석을 용해시킬 때 남는 ‘쇠똥’ 파편들과 가마술을 주조할 때 사용한 것이 분명한 토기로 된 주형(鑄型)의 파편들이 다수 수습되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전문적인 규명이 있어야겠지만, 이러한 유물과 이에 대한 고로(古老)들의 전언은 당시의 사실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하겠다.

또한 무들(무돌)이란 글자가 이곳에서 무기를 제조하고 군사를 훈련시키지 않았나 추정케 하고 있으며, 원광석은 오덕리 중심에서 1km정도 떨어진 절터에서 발견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무들마을 주민이며 구멍 뚫린 돌(슬러그)을 발견한 김혁두씨의 말에 의하면 60~7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선친이 이곳에서 주조한 가마솥을 고개 넘어 신광면으로 실어다 주고 대가를 받았다고 하였다.

이로써 보면 60~70년 전의 성법은 가마솥이나 일용 쇠붙이제품을 제조할 정도였지만, 그 이전시대 때에는 쇠를 원료로 하는 무기나 농기구 등을 다량으로 주조하여 관이나 일반의 수요에 충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2) 뇌성산의 뇌록(磊綠, 磊碌)

장기현의 뇌록은 조선시대에 그 효용가치가 컸던 전국적인 특산품이었다. 뇌록은 조선초기부터 《세종실록지리지》(1432)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각각 장기현 북쪽 12리 천을이산(淺乙伊山)과 북쪽 19리의 뇌성산(磊城山)에서 나는 토산품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오래전부터 이름이 나 있었던 것이다.

이 뇌록은 건물에 칠하는 단청의 기본 안료이며, 생산지는 장기의 뇌성산 자락이다. 영암리에서 모포리로 넘어가는 높은 고개(망재)에서 모포리쪽으로 바라다보면 모포리(칠전) 뒷산인 뇌성산(봉수대가 있었던 곳)에서 학계리쪽의 산중턱에 움푹 패인 산허리가 그 산지이다.

뇌록은 이 마을 주민들은 ‘뇌록’ 또는 ‘매새’라 한다. 뇌록의 빛깔은 회록색(灰綠色)으로 어린 쪽이 올라올 때의 빛깔보다 조금 진한 색을 띠고 있다. 즉 청색과 황색을 섞은 색이다.

이 뇌록지(址, 터)에 대해 전해오는 얘기는 채굴하고 파인 굴의 깊이가 수직갱으로 매우 깊어서 명주실꾸리(북속에 넣는 실꾸러미) 서너개를 풀어 넣어도 닿지 않았다고 하니 그 깊이가 매우 깊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뇌록을 채굴하던 곳을 ‘매새구디이(구덩이)’ 또는 ‘싣구디이’라고 하는데, 싣구디이의 유래는 이곳에서 채굴하던 인부들이 사고로 많이 매몰되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주민들이 가보았더니 그곳에서 ‘초배기(대로 만든 옛 도시락통)’가 50여 개 발견되었으며, 그로부터 그곳을 싣명이 죽은 구덩이라 하여 싣구디이라고 불리어졌다 한다.

이 곳 주민들이 정기적으로 채굴에 종사하였다는 예기는 전하는 것이 없고, 진공품으로 나라에 진상할 때나 단청이 필요할 때에 경상도 감영의 명으로 때때로 채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805년(순조 5년) 인정전영건도감의궤(仁政殿建營都監儀軌, 창덕궁 인정전을 짓는 공사기록)의 “갑자(甲子) 2월 경상감영에 보내는 공문에 뇌록 20두(斗)를 장기현에서 조달할 것을 명령했다”는 자료와 1830년(순조 30년) 서궐건영도감의궤(西闕建營都監儀軌, 경희궁의 내전을 짓는 공사기록)의 “경인(庚寅) 3월 경상감영에 뇌록 500두를

장기현에 조달할 것을 명령했다”는 자료는 이러한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

광복 후 이 뇌록지에 소먹이러 가서 뇌록을 주워 물에 녹여 주먹만 하게 만들어 놓으면 상인들이 구입해 갔다고 한다.

지난 1996년 1월 전문가가 2일간 과거 뇌록 채취장소로 전해지는 뇌성산의 유적을 답사하여 제출한 ‘뇌성산의 단청안료 유적지 조사의견서’에 의하면 현지에서 유적을 확인하고, 100그램의 뇌록 조각을 수습한 후 수습된 뇌록 조각을 가루로 만들어 전통 장인들이 하던 방식을 본받아 아교를 가미하여 칠을 해본 결과 조상들이 고건축에 사용했던 가칠(단청칠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녹색의 바탕칠)과 거의 흡사한 색채를 낼 수 있었다 한다.

뇌성산 뇌록의 관련 문헌과 현지조사와 채색실험을 종합해 볼 때에 뇌성산은 과거 우리나라 단청칠의 기본이 되는 안료가 생산되던 유일한 장소임을 알게 된다.

3) 죽장의 솔·숯·붓·한지와 장기의 한지

죽장지방 역시 경주부의 임내로서 성법과 유사한 생활양태를 지녀 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죽장이 솔·숯·붓·한지의 제조처로 근래까지 이름이 나 있었기 때문이다.

(1) 가시내솔

죽장솔 이름은 ‘가시내솔’으로, ‘가시내’란 오늘날의 죽장면 가사리(佳士里) 마을을 말한다. 이 마을에는 양질의 솔(가마)이 생산되어 예로부터 이름이 높았다.

질 좋은 가시내 솔을 처음 만들기 시작한 사람들은 능성(綾城) 구씨(具氏)들이었으나. 한때 월성 손씨(孫氏)가 이어 받았고, 나중에는 경주 배씨(裴氏)가 만들어 내다가 지금은 없어졌다.

만드는 방법은 먼저 찰흙으로 內外 짝, 솔뚜껍형을 각각 뜨는데 이것을 이 지방 사투리로 ‘떡딩이’라고 했다. 이 떡딩이라고 하는 형(型)이 굳어지면 산에서 자생하는 노송의 표피 ‘솔뜸’을 구어 가루를 만들어서 형의 안팎에 문지르고 일정한 공간을 두고서 내외 짝을 맞추어 요동이 없도록 ‘빳딩’이라고 불리는 흙을 발랐다. 이것을 한꺼번에 15개에서 20개가량 줄지어 모로 세우고 각하나 하나에 아궁이를 내고 장작을 넣어 한꺼번에 불을 피워 24시간이 지나면 그대로 이 형들이 불덩이가 된다.

이렇게 불덩이가 된 솔의 형을 엮어 놓고 배꼽부분에 미리 내놓은 구멍으로 도가니에서 쇳물을 가져다 부어넣는다. 이것은 단숨에 해야 한다. 이렇게 15개에서 20개까지 하루저녁 동안에 쇳물을 부어 넣었다가 충분히 식은 후에 형을 들어내면 깨끗한 솔이 만들어 진다.

떡딩이를 불에 달구어 쇠물을 넣어 만든 술을 ‘익부리’라고 하며 떡딩이를 불에 달구지 않고 그대로 쇠물을 넣어 만든 술을 ‘생부리’라고 하는데 가시내술이라면 생부리는 아예 없었다. 술은 크기에 따라 서말찌(3斗入), 두말찌, 한말찌반짜리가 있는데 가시내술은 탈나는 법이 없고 밥맛도 좋아 모든 사람들이 탐냈다. 값도 비싸서 술 한쟁기가 소 한 마리·논 두마지기 값과 맞먹었다 한다.

한 달 동안 비지땀을 흘리며 술 한가마 만들어내도록 일을 거들어 주면 품삯으로 1말찌반짜리 술 한쟁기를 주었다.

재료가 되는 쇠는 주로 전라도에서 가져왔고, 가사리가 명산지가 된 것은 기능이 뛰어 났고, 흠이 좋고, 장작이 좋은 것이 주된 원인이라 한다.

(2) 술안뽕

죽장뽕 이름은 ‘술안뽕’으로 ‘술안’은 죽장면 입암리의 입암서원이 있는 마을 이름으로 옛날 마을 앞에 큰 소나무가 꼭 차있어 술안(松內)으로 불리었다.

이 술안 마을 뒷편에 조그만 오막살이집에 관향이 오천인 鄭柄煥(1887~1960년초)이 있었는데, 누구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았는지 불명이나 필장(筆匠)으로서 비상한 재주를 갖추고 있어 ‘술안뽕’ 이라면 명성이 높았고 선비들이 무척 애중(愛重)했다.

만드는 방법은 황모(黃毛, 족제비 꼬리털)나 장액(獐腋, 노루 겨드랑이털) 등의 좋은 털을 골라 정성을 다해서 끝을 고루고 적당한 양을 묶음으로 묶고, 뿌리 부분을 아교 칠로 털이 빠지지 않게 하여, 시누대 20cm 정도 되는 대롱에 넣음으로써 붓이 만들어진다. 생활이 어려웠으나 돈을 탐내면 명성이 떨어진다고 절대 붓을 마구 만드는 법이 없었다고 한다. 사후에 외동아들 鄭大和와 자부 청안(淸安) 이씨(李氏)가 함께 부업을 이어받아 만들었으나 품질이 떨어졌고, 광복 후 수요도 급격히 줄어들어 지금은 아무도 만들지 않고 술안뽕의 명성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서운해 하고 있다.

(3) 죽장숯()

숯은 참나무숯이 상품이고 소나무숯이 하품인데, 참나무숯 중에서도 표면이 흰 소위 백탄(白炭)이 가장 상품이다. 숯을 제조하려면 먼저 참나무가 많은 산 밑에 나무를 모으기에 가장 알맞는 장소에 숯굴을 만들어야 한다.

굴의 크기는 나무꾼들이 두팔을 벌려 너발돌이, 다섯발돌이, 여섯발돌이라고 해서 굴의 둘레를 발로 재는데, 너발돌이는 1포에 6관 200을 넣어서 12포의 숯이 생산되고, 다섯발돌이의 크기에서는 17포, 여섯발돌이여야 1회에 20포 이상 생산이 가능하다.

숯굴 만드는 방법은 먼저 땅을 고르고 알맞은 크기의 둘레를 정해 3.5척(尺)에서 4척 높이의 담을 쌓고 나무를 거꾸로 가운데가 높도록 촘촘히 세운다. 그 위에다 찰흙

을 8촌(寸) 정도로 덮고 매로 마구 친다. 충분히 매질을 한 후 굴의 중앙부 꼭대기에 ‘종굴’ 3개를 낸다. 3·4일 흠을 말린 후 굴의 아궁이에서 불을 땀다.

화기가 굴속의 나무에 고루 퍼지고 나무에 불이 붙어 타는 정도는 종굴에 오르는 연기 빛깔로 알 수가 있다. 검은 빛깔에서 흰 빛깔로 변할 때 찰흙으로 아궁이를 밀폐한다. 밀폐라고는 하지만 아궁이 하부에 ‘설래구멍’이라고 해서 공기가 통하도록 작은 구멍을 내 놓고 굴의 제일 끝부분에도 ‘자치미’ 라는 조그마한 구멍을 만든다. 아궁이의 밀폐가 끝나면 종굴도 돌로 덮어 버린다. 이렇게 되면 설래구멍에서 공기가 통해 자치미에서 아지랑이 같은 연기가 날 뿐이다.

백탄을 만들려면 자치미를 그대로 두고, 흑탄을 만들려면 자치미마저 막아야 한다.

이렇게 2~3일 지낸 후 종굴을 먼저 열어 화기를 방출시키고 아궁이를 열어 길다란 자루의 갈구리로 별걸게 타있는 나무불덩이를 꺼내서 흠으로 덮었다가 불이 꺼진 후 끌어내면 표면이 하얀 단단한 숯덩이가 나오고 굴은 그대로 굳어져 많은 숯을 생산할 수 있는 숯굴이 된다.

죽장에서 우차로 숯을 싣고 영천 80리를 하천을 따라 밤새워 가면 한 번 운반에 쌀 1가마니가 생겼다고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옛날부터 ‘숯이 물기를 빨아 먹는다’는 흡수성을 잘 이용하였다. 집을 지을 때 지반이 낮아 습기가 많은 땅에다가는 숯을 묻었으며, 곡식을 쟁이는 광(창고)바닥에도 숯을 묻었으며, 산에 묘를 쓸 때도 관 주변에다 많은 숯을 묻어 물기가 들지 못하게도 하였다.

(4) 죽장과 장기의 한지()

죽장한지는 옛날 북방교역이 활발할 때 중요품목으로 또는 관아의 소모품과 선비의 문방사우(文房四友)의 하나로 명성이 높았다 한다.

고려 때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날로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고려 때에는 닥나무의 재배를 장려하였으며, 조선시대에 와서는 닥나무의 재배를 제도화하여 지방 관아에서는 닥나무 밭을 소유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1415년(태종15)에 조지소(造紙所)라는 관아까지 설치하여 한지의 생산을 장려하였다. 조지소는 후에 조시서(署)라 개칭하였으며(1882년까지), 조선말에는 지소청(紙所廳)이라 하여 비장(裨將)이 한지 제조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였다.

죽장에는 종이 공장인 소위 ‘지통(紙桶)’이 많았다. 입암리의 솔안지통, 매현리의 중마을지통, 일광리의 지들지통, 지동리(芝洞里)의 지통 등이 있었는데, 지동리(芝洞里)의 지통만이 1990년경까지 남아서 한지를 생산하다가 이후 수요의 감소로 이곳마저 생산을 중단하고 말았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조지방법은 닥나무(楮)를 적당한 길이로 절단하여 솥(닥가마)에 삶아 껍질을 벗긴다. 이 껍질을 ‘저(楮)’라 말하며, 하루 밤낮동안 개울물에 담갔다가 외피를 훑어내는데, 이것을 ‘곡(穀)’이라 하며 이 곡을 다시 물에 불리고 약 7시간가량 잿물(灰火)에 끓인 후 맑은 물에 씻어내고 건조 표백한 다음, 절구 또는 닥방망이를 이용해서 곱게 빻아 펄프(Pulp)가 된 저를 닥풀(黃蜀葵의 뿌리)과 섞어 물이 들은 기틀(漉漚)에 넣고 휘저어 섞어서(攪拌) 골고루 풀리게 한 다음 대발(竹簾)로 물채질을 하여 지액(紙液)에서 종이를 떠내는 것이다. 이것을 수녹지(手漉紙)라 한다. 대발에 얹혀 깔린 습지(濕紙)는 한장 한장 벗겨내어 완전히 건조하는 것이다.

조선조에는 《경국대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한지 제조처는 각 고장마다 1개처 이상 설치되어 있었으나 광복 후 영일만 권에서는 거의 사라지고 죽장과 장기에서만 그 명맥을 유지해오다가 근래에 와서는 장기에서만 제조되고 있을 뿐이다. 장기의 한지는 현 장기면 방산 2리 괴정(槐亭)마을의 장두천(張斗千)씨에 의해 제조되고 있다.

한지의 원료인 닥나무의 주산지는 방산리·산서리·마현리·수성리·참지리 등이며 생닥 구입방법은 한지와 물물교환을 하거나 현금으로 하는데, 보통 한지 1동을 생산하려면 생닥 구입비는 7~8만원(1990년 기준) 정도가 된다고 한다. 한지의 생산 시기는 옛날에는 인력도 많고 해서 농사철도 가리지 않았으나 점차 주로 농한기인 1~3월 사이가 되었으며, 생산규모는 195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수요를 충족하느라 300동(1동=10축, 1축=10권) 정도로 많이 생산하였으나 점차 수요가 줄어 지금은 겨우 1990년대부터는 20동 정도 생산해 왔다. 그리하여 길이 2자 8치~3자, 폭 1자 8치의 한지 1동은 30만원으로 1년에 약 6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1990년도 기준).

장기에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괴동과 평동 두 군데에 지통이 있었으나,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는 괴동의 장두천씨에 의해서만 생산되었으며, 그 생산량도 수요와 판로가 줄어들어 1999년부터는 정기적인 생산을 중단하고 주문생산만 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한지 중 주문지나 특수용지는 100% 닥이 원료이지만 일반지는 펄프와 잡지를 혼합하여 만들며,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고급지도 60~70% 정도가 닥으로 되어 있을 뿐이라 한다.

괴정마을의 한지제조과정도 앞에서 소개된 것과 거의 같다. 옛날과 오늘날의 제조방법이 달라진 것은 ①옛날에는 ‘종이풀’을 사용하였으나 오늘날에는 ‘팜’이란 화학약품을 사용하며, ②옛날에는 닥방망이로 분쇄하였으나 오늘날에는 분쇄기를 사용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 그리고 예로부터 발로 떠서 물을 제거하고 건조기에 건조하는 것을 ‘비복한다’ 라고 하였으며, 20장을 1권으로, 10권을 1축으로 묶은 것을 ‘작축한다’ 라고 하였다 한다.

과거에는 있었으나 근래 없어진 한지 제조처로는 장두천씨의 말에 의하면, 장기면 방산리 평동, 오천읍 진전동, 신광면 기일동, 죽장 지동리 등이라 하였다.

필자는 이번 기회에 조선후기 한지제조로 백성들이 고초를 당하는 경우와 이 고장의 사찰(청하 보경사)에서도 한지가 제조되었다는 사실을 밝혀주는 자료를 발견하여 당시의 사회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게 되었다. 즉 흥해에서 임란 때 창의했던 선무랑(宣務郎) 군자감(軍資監) 정삼외(1547~1615)가 차남 극후를 비롯한 가솔들에게 보낸 서찰을 통해 그러한 사정을 밝힐 수 있었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원문생략)

- ①……이곳 또한 전과 다름없으나 다만 요역(徭役)이 날로 심하여 부지할 수 없을 것 같으니 가히 고민이다. 종이 제조하는 일은 아직도 보경사 중을 만나지 못하여 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가 없다. 다만 이 절의 중들이 방백(方伯, 관찰사)의 종이를 제조할 수 있을는지 걱정이 된다. 만약 수습하는 좋은 중을 만나게 되면 간절히 부탁할 계획이다.
- ②……종이는 값을 보경사로 보냈는데 금명간 제조해 올 것이라 한다.
- ③……증광시(增廣試)가 또 멀지 않았다고 하는데 각지(各紙, 科試에 쓰는 용지)를 구하기 어려우니 닥나무를 서당으로 보내어 중으로 하여금 제조케 하려하니 이 뜻을 중에게 말하고 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위의 자료는 고려 때부터 사찰의 재가승(在家僧)을 시켜 지역(紙役)을 맡게 하여 고정지(靛精紙)·황마지(黃麻紙)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종이를 만들게 했던 제도가 조선 시대에서도 계승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으로, 아울러 제지의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있음과 지역의 고통이 심했던 상황을 밝혀 주고 있다.

4) 자기와 도기

조선후기에 들어오면서 자기와 도기는 민가의 생활 필수품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18세기이후 이 고장에서도 도자기 제작이 보편화되는 현상에 따라 도기와, 자기를 생산하여, 장시를 통하여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생활을 해나가는 장인층들이 거주하는 점소들이 생겨났다.

이러한 점들은 각 고을마다 있었는데, 현재까지 조사되거나 알려진 장소로는 자기가마터(백자)로는 대송면 산여리의 이사구집과 새사구집, 대송면의 장동 1리의 사정골, 대송면의 덕동, 기북면의 성법리 등이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나온 자기의 기술 수준은 그리 높지 않은 민간요가 대부분 이었다.

그리고 기와가마터로는 대송면 장동 1리의 사정골 가마터를 들 수 있으며, 옹기가마터로는 청하면 명안 2리, 신광면의 호리동, 및 기계면 내단 1리가 있었으며, 이 가운데 명안 2리와 내단 1리의 두 곳에서는 1987년까지 옹기공장을 운영하였다.

5) 포항의 점(店)마을

조선후기 사회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특히 경제면에서 변화의 모습이 두드러졌다. 그 움직임은 궁극적으로 근대 경제로 넘어가는 준비 과정이었다. 서민은 점차 경제적 변화를 체험적으로 의식하고, 이에 대응하여 삶의 자세를 바꾸어 갔다. 농민은 생산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기구와 시비법을 개량하는 등 새로운 영농 방법을 추구하였고, 상품 작물을 재배하여 소득을 늘리려 하였다. 상인도 적극적으로 상업 활동을 하여 대자본을 가진 상인들이 출현하였다. 수공업 생산도 활발해져 민간에서 생산 활동을 주도하여 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본 축적이 이루어지고, 지방의 상업업 활동이 활기를 띠었으며, 상업 도시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우리 고장에서는 수공업 제품과 광업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점(店)들이 형성되어 활발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다음에 설명하는 포항의 점마을에 관한 내용은 2003년 동대해문화연구소에서 1년간 이루어진 ‘포항의 점마을 유적 조사’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다.

(1) 민영 수공업 점

조선후기에는 상품 화폐 경제가 진전되면서 시장 판매를 위한 수공업 제품의 생산이 활발해졌다. 이 시기는 도시의 인구가 급증하여 제품의 수요가 크게 늘어났고, 대동법의 실시로 관수품의 수요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민간 수공업자들은 장인세만 부담하면 비교적 자유롭게 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있었으며, 그들의 제품은 품질과 가격 면에서 관영 수공업장에서 만든 제품에 비하여 경쟁력도 높았다. 민간 수공업자의 작업장을 흔히 점(店)으로 불렀으며, 철기를 제작하는 곳은 철점, 사기 수공업체는 사기점이라 하였다.

민간 수공업자는 대체로 작업장과 자본의 규모가 소규모여서 원료의 구입과 제품의 판매에서 상업 자본의 지배를 받았다. 대부분 공인이나 상인에게 주문을 받는 데에 그치지 않고, 자금과 원료를 미리 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선대제가 성행하였다. 그러나 18세기 후반에 이르면서 수공업자 가운데서도 독자적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직접 판매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포항의 농촌 수공업은 지금까지 자급자족을 위한 부업의 형태였으나, 점차 소득을 올리기 위하여 상품으로 제작하는 경우가 늘었고, 더 나아가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농가도 나타났다. 이 지역 농촌에서는 주로 옷감과 그릇 종류가 생산되었다. 그러나 생산지의 생산 환경과 특성을 살려 종이, 떡, 숯, 술, 놋그릇 등도 생산하여 품질이 좋아 유명해진 곳도 있었다.

지역별로 확인된 점마을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죽장면에서는 솔, 사기그릇, 질그릇, 숯, 종이, 붓 등이 생산되었다. 가사리에서는 가마솔 생산으로 유명하여 여기서 생산된 솔을 가시내 솔이라고 불렀으며, 서울에까지 판매되었다고 한다. 상사리 평지동 동쪽 산골짜기에는 사기그릇을 구웠던 사기점이며, 침곡리 침곡 동쪽에 있었던 점말은 옹기점, 숯마을에는 백탄 생산으로 유명하였다. 그리고 죽장면에서는 종이의 생산이 많아 종이 공장인 지통이 여러 마을에 있었다. 입암리의 솔안, 매현리 중마을, 일광리의 지들, 지통리의 지통이 그 곳이다.

기계면 내단리 밖 시산 동북쪽에는 점마을이 있었다. 가안리 가천 북쪽에 구점태로 불리는 곳에는 옹기점이, 지가리 소금실 서북쪽에는 사기점이 있었다.

기북면은 죽장부곡과 성법이 부곡이 있었던 곳으로, 오덕리 무들에는 야철장이 있었고, 뒷 골짜기에는 숯을 굽고 철광석을 제조하는 철점이 있었다. 오덕리는 철기구를 제작하였으며, 왜란전에는 비격진천뢰를 제작 하였다고 한다. 성법리 골뱅이골에는 솔을 만들었던 곳이다. 합덕리 탐정 서북쪽에 있는 점마는 옹기점, 현내리 창마을 서북쪽에는 지통이 있었다.

청하면 명안리에서 가장 큰 마을은 점마을 인데, 질 그릇점으로 옹기와 질 그릇 생산으로 이름이 나 있었다. 명안리의 생산활동은 오랫동안 이루어져 근대에도 계속되었다. 신광면 흥곡리 남서 골짜기에 옹기를 굽던 점마을 있었다.

흥해읍 용곡리 가메골에도 사기점이 있었다. 청하면 청계리 서쪽 골짜기 사구장태는 사기점이 있었다. 이인리 떡골 위의 골짜기 정골에는 그릇점이 있었다. 초곡리 어봉골 다음에 있는 정골에는 그릇점이 있었다.

대송면 산여리에는 사기점이 두 곳에 있었는데, 이사기점(이사구지미)은 산여리에서 으뜸이 되는 마을 이었으며, 새사기점(새사구지미)은 이사구지미 남서쪽에 새로 생긴 사기점이었다.

특히 산여리 사기점은 근대에 이르기까지 제품 생산이 이루어졌으며, 작업장의 규모도 크다. 기북면 오덕리 덕동 동쪽에 있는 사기장골은 사기점이다. 장동리 동점(통점) 마을은 늦 그릇을 만들었던 유기점 이었으며, 사정동 옆 마을은 늦쇠를 만들었던 통점이었다.

오천읍 갈평리 서쪽 골짜기에는 사기점이 있었으며, 문덕리 대흥사 동쪽 골짜기에도 사기점이 있었다. 세계리 오천시장 남쪽 언덕에는 사기점과 질그릇점이 있었다.

동해면 금광리 남쪽에 있었던 통점이라고 불리는 마을은 철점이었는데, 대장간이 있어 철물을 제작하였다고 한다.

구룡포읍 구평리 도구정 남쪽에 있는 가마골에는 옹기점이 있었으며, 후동리 북쪽의 주철 장터는 이 부근이 목장으로 있을 때 병기를 만들었던 곳이라 하였다.

장기면에는 정천리에 동점(통점)이 있었으며, 방산리의 괴정마을과 평동 두 곳에 지통이 있어 오랜기간 종이 생산을 하였다.

근대 태동기에 형성되었던 포항의 민영 수공업 점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절대적인 원료를 쉽게 공급 받을 수 있는 곳, 판매가 쉬운 수요가 있는 곳, 제품의 운반이 편한 통로가 있는 곳 즉 생산, 운송, 판매의 3요소를 갖추고 있는 곳에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2) 민영 광산

광산은 본래 정부가 독점하여 필요한 광물을 채굴하였다. 정부는 17세기 중엽부터 민간인에게 광산 채굴을 허용하고 세금을 받는 정책(設店收稅)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민간에 의한 광업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청과의 무역으로 은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은광의 개발이 활기를 띠었다. 그리하여 17세기말에는 거의 790개소의 은광이 개발 되었고, 18세기 말에는 상업 자본이 채굴과 제련이 쉬운 사금채굴에 몰리면서 금광의 개발도 활발해졌다. 광산의 개발은 이득이 많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하였으나, 몰래 채굴하는 경우(잠채)도 많았다.

조선후기 광산 경영은 경영 전문가인 덕대가 대게 상인 물주에게 자본을 조달받아 채굴 업자와 채굴 노동자, 제련 노동자 등을 고용하여 광물을 채굴하고 제련하는 것이 일반적 이었다. 이 작업 과정은 분업에 토대를 둔 협업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였고, 사람들이 몰려와 점 마을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이 마을 들은 채굴하는 생산품에 따라 동점(통점), 철점, 은점 등으로 불리었다. 조선후기에는 이러한 광산이 민영화되고 있었지만, 특수한 품목을 생산하였던 곳은 관청에서 경영하여 공납을 받았다.

① 철점

기북면 오덕리 무들에는 야철장이 있었고, 뒷 골짜기에는 숯을 굽고 철광석을 제조하는 철점이 있었다. 현 포항시 이동(梨里)의 태골 북서쪽의 무소에는 무쇠(水鐵)점이 있었다. 청하면 명안리 점마 북쪽에 있는 무장골에는 무쇠(野鐵)가 났다. 장기면 금오리 금곡은 쇠를 생산 하든 곳이다.

② 동점(통점)

오천읍 향사리 통점골은 구리를 채굴 하였던 마을 이었으며, 대송면의 통점도 마찬가지 이다. 특히 포항 지역에서 통점이라 불리는 곳은, 철광과 구리광, 철물제작소, 대장간, 낫 그릇점들이 같은 이름으로 남아 있어 구분하여 확인하는 일에 어려움이 많았다.

③ 은점

대승면 대각리에서 산여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은정재라고 하는데 근처 골짜기에 은점이 있었던 곳이었다.

④ 퇴륙

장기면 모포리 뒷산은 뇌성산이다. 이산의 남쪽 산록에는, 특수 안료인 퇴륙을 채굴하였다.(퇴륙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책 앞의 글을 참조)

참고문헌

- 《신증동국여지승람》, 《조선왕조실록》, 《비변사등록》, 《승정원일기》, 《여지도서》, 《증보문헌비고》, 《만기요람》, 《續大典》, 《영남첩보》, 《읍지》, 《擇里志》, 《大東地志》.
- 1693년 영일현감 발행의 「영일현 북면 대흥리 13동 9호 金聲重의 호적부」
- 조현명, 《귀록집》권18, <포항창기>, 《海東地圖》(1750년경), 《호구총수》(1789).
- 《포항진지도》(1872년), 東江書院, 《攷往錄》, 1709, 《茲山魚譜》, 1814, <각종 소지 및 호구단지>
- 《韓國水産史》수산청 1968, 최흥기, 《한국호적제도사연구》, 서울대출판부, 1975
- 李盛雨, 《韓國料理文化史》, 교문사, 1985
- 고동환, <18·19세기 외방포구의 상품유통발달>《한국사론》 13집, 서울대, 1985
- 배용일, <포항창·포항장진·포항진고>《포대학보》제154호, 포대학보사, 1987
- 손 혁, <蓮花場市(부조장)연구>《향토문화》제2호, 경주문화원, 1994
- 서울대학교 규장각 《조선시대지방지도》, 1995
- 정형지, <조선후기 포항창의 설치와 운영>《오산전문대학 산업기술연구소보》제3집, 1997
- 김형수, <조선후기 경상도 동해안지역의 상품유통>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배용일, <조선후기 진흥창, 포항창진의 설패고>《백산학보》제70호, 백산학회, 2004

제4절 근대 태동기의 우리 고장 사회

1. 성씨(姓氏) 이동과 인구변동

조선시대 중기의 왜·호란은 막대한 인명·재산피해와 함께 큰 사회적 변화를 초래하였다. 농토의 황폐화와 주기적으로 닥친 유행병과 흉년은 17~18세기를 거치는 동안 농민의 유리현상의 요인이 되고, 유동하는 인구집단의 내왕은 상업인구 증대의 동인이 되어 농촌사회의 변화와 상업의 발달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삼남지방에 두드러지게 나타나, 영일만권의 각 고장에도 성씨이동과 인구의 변동이 크게 일어나게 되었다.

| 연대 고을명 | 1530년 | 1765년 | 1895~1899년 |
|-----------|---|---|--|
| 흥 해 | 본군 : 裴·崔·李·張· 鄭(장기), 李(德安), 朱(熊神) | 본군 : 裴·崔, 琴(봉화), 李(여주), 陳(경주), 黃(懷德), 鄭(영일), 張(인동), 柳(瑞山), 李(울산), 安(廣州), 蔡(인천), 李(淸安), 李(영천), 金(선산), 楊(청주), 李(경주), 吳(고창) ※본군의 李·張이 누락된 것 같음 (필자주) | 裴·崔·李·張(모두본군), 琴(봉화), 李(여주), 陳(경주), 黃(회덕), 鄭(연일), 張(인동), 柳(서산), 李(울산), 安(광주), 蔡(인천), 李(영천), 金(선산), 李(청안), 楊(청주), 李(경주), 吳(고창), 朴(밀양), 辛(영월), 金(김해) |
| 영 일 | 본현 : 鄭·成·朱, 朱·金·崔 모두 來姓 | 본현 : 鄭·성·주, 주·김· 최(並來), 新增의 성씨로 李·權·兪·陳·丁·申· 白·張·沈·蔡(병래) | 좌와 같음 |
| 장 기 | 본현 : 鄭·吳·安·任·申· 李·崔·裴·金 (모두 내성) | 鄭·오·안·임·신·이· 최·배·김(병래) 신증의 성씨로 皇甫·徐 | 오·鄭·안·서·김·이· 최·배·황보·박·윤· 許·林·孫(居留) |
| 청 하 | 본현 : 李·金·明, 朱(웅신), (續), 吉(南界) | 좌와 같음 | 본현 이·김·안·최·郭 鄭·白 |

※ 족장과 성법은 조선전기와 같음

조선전기 각 고장의 성씨《新增東國輿地勝覽》와 조선후기 각 고장의 성씨이동을 도표로 비교해 보면 위와 같다.

조선전기에 비해 조선후기에 들어오면서 많은 수의 성씨가 각 고을에 전입하게 되는데, 흥해는 7성에서 23성으로, 영일은 6성에서 16성으로, 장기는 9성에서 14성으로, 청하는 6성에서 7성으로 늘어났다. 새로 늘어난 성은 모두 내성(來姓)으로 자의(字義)대로 타지방에서 입래(入來) 또는 내접(來接)한 성이다. 내성은 경래성(京來姓)이나 투화성(投化姓)을 제외하면 대부분 군현 토성(土姓)에서 입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성은 각 고장의 각 마을에서 동족부락 즉 집성촌을 이루고 있었던 대표적 성들이며, 이밖에도 군소성(群小姓)이 각처에서 소규모로 흩어져 살았던 것이다.

임진왜란 이후 많은 성의 이동은 각성의 파보(派譜), 서원, 사(祠), 재(齋), 서당 및 동제(洞祭)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영일만권의 각 고장의 각성 파보를 보면 임진왜란 때 입향한 성이 다수 나타나며, 이후 17~18세기 농촌사회 변화와 상업의 발달 등으로 근대사회를 지향하는 맹아기에 인구의 변동이 많았음이 각 마을 동제의 위패에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某姓氏 터전(주), 某姓氏 골목神位”라고 한 사실에서 잘 입증되고 있다.

조선후기 사회적 변화에 따른 각 고장의 성씨 이동은 영일만권 인구변동과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이며, 한편으로 그러한 인구변동은 당시의 사회상을 이해하는 한 척도가 되기도 한다. 조선후기 각 고장의 인구변동을 시대별로 나타내면 아래 표와 같다.

아래 표의 각 고장의 호수는 조선전기와는 달리 편성호(조선전기편 참조)의 수가 아닌 자연호의 수이다. 여기에서 보면, 첫째 1759년에서 1871년 사이 112년간 호구나 구수(口數)가 일정한 성장률을 가지고 늘어나지 못했고, 둘째 1호의 평균 구수가 흥해는 약 3.6구, 영일은 4.5, 장기는 3.8, 청하는 3.8, 기계는 2.9, 신광은 3.3, 죽장은 2.6이며, 셋째 1789년의 장기, 1871년의 흥해·장기를 제외하고는 어느 경우에도 여자가 남자수보다 많으며, 차이가 큰 경우에는 여자수가 남자수의 140%가 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첫째의 인구 정체현상은 17·18세기의 자연피해·토기소유관계문란·부세(賦稅)의 과중·신분제도의 동요·이농(離農, 流民)·향리와 토호의 누호(漏戶)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한 것이다. 둘째는 당시 60세 이상 고령자나 아동 연령층이 거의 조사되지 못한 점(특히 5세 미만은 거의 기재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과 첫째의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남자에 비해 여자의 수가 훨씬 적은 아동연령층(전통적인 남아선호 사상에 의해 여아보다 남아의 사망률이 낮기 때문)의 누락이 심한 점, 장년 및 노년층에서의 사망률이 남자가 높은 점 그리고 노동연령층인 남자의 유망에 크게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각 고장의 인구변동

| 연도 고을명 | 1759 | 1789 | 1831 | 1871 |
|-----------|---|--|---|---|
| 흥 해 | 3,555호 남 6,070구 여 6,918구 계 12,988구 | 3,520 남 5,669 여 7,321 계 12,900 | 3,555 남 6,070 여 6,918 계 12,988 | 3,390 남 5,857 여 5,500 계 11,357 |
| 영 일 | 3,916 남 7,998 여 9,313 계 17,312 | 4,015 남 8,226 여 10,318 계 18,544 | 3,989 남 8,989 여 9,569 계 18,558 | 좌와 동 |
| 장 기 | 1,890 남 3,084 여 3,589 계 6,673 | 2,174 남 4,270 여 3,868 계 8,138 | 2,239 남 4,194 여 4,337 계 8,531 | 2,292 남 5,161 여 4,399 계 9,560 |
| 청 하 | 1,552 남 2,552 여 3,499 계 6,051 | 1,665 남 3,120 여 3,199 계 6,139 | 1,712 남 3,179 여 3,494 계 6,673 | 1,745 남 3,422 여 3,485 계 6,907 |
| 기 계 | | 1,225 남 1,516 여 2,003 계 3,519 | | |
| 신 광 | | 628 남 775 여 1,299 계 2,074 | | |
| 죽 장 | | 803 남 858 여 1,250 계 2,108 | | |

※ 기계·신광·죽장의 호구는 1789의 기록뿐이며, 1871년 영일의 호구는 1831년에 조사된 것을 그대로 전제하고 있음.
위의 자료는 1759년은 < >, 1789년은 <戶口總數>, 1831년은 <1832년의 읍지>, 1871년은 <1871년의 읍지>
에서 발췌한 것임.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을 종합하면 당시 각 고장의 인구는 기재된 수치보다는 늘어난다고 하겠다. 누구(漏口)를 호적 가호수(家戶數)의 18%로, 누구를 호적인구수의 27%로 각각 추정하여 산출할 수 있다는 한 연구는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리고 조선전기에 비해 특이한 현상은 영일현이 흥해군의 인구를 크게 앞지르게 된 사실이다. 이는 전기에 흥해군세에 뒤져있던 영일현세가 17~18세기의 사회변동에 의해 특히 농촌사회의 변화와 상공업의 발전과 영일현 북면에 국가적 규모의 포항창(浦項倉)이 설치되는데 힘입어 흥해군세를 크게 능가하게 되는데 연유한다.

(〈포항창진 실패〉참조)

2. 호적과 상속(分財)

1) 호적

호구의 성적(成籍)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당에서는 3년마다 호적을 개수하여 縣·州 호부(戶部)에 각각 1부씩 보관하였고, 신라의 장적(帳籍)도 3년마다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와 조선시대에 있어서도 3년마다 성적되었다.

조선의 초기에는 고려말기의 호적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세종대에 오면 조선의 제도로 정착되기 시작하여 《경국대전》에 이르러서는 조선의 호적제도가 완비되어 1890년대까지 계속되었다.

호구대장(장적)을 3년마다 개수하기 위하여 각호에서 호구상황을 적어 한 차례 제출하는 것이 ‘호구단자(戶口單子, 戶籍單子)’이다. 호주가 호구단자 2부를 작성하여 올리면 이임(里任)·면임(面任)의 검사를 거쳐 주군(州郡)에 보내지고, 주군에서는 구대장(舊臺帳) 또는 관계서류를 대조하여 착오여부를 확인한 후 일부는 단자를 제출한 호주에 환부하여 각 가정에 보관케 하고, 일부는 장적을 개수하는데 자료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도에 의해 민가에서 호구단자가 보존될 수 있었다.

이처럼 호구단자는 어디까지나 장적을 개수하기 위하여 올리는 보고용의 문서이지만, 그 단자가 관에 의하여 구장적과 대조, 확인되어 제출자에게 환부되면 준호구(準戶口)의 효력도 함께 받게 된다. 즉 이 준 호구는 백성들 소송시의 첨부자료로서, 또는 노비소유(推刷)의 자료로서, 혹은 가문(身分)유지의 자료로서, 관으로부터 원적(原籍:帳籍)에 준해서 등급을 받게 되는 것이다.

《경국대전》의 규식(規式)을 완전히 그대로 따르게 된 것은 임진왜란 이후부터이나 지역에 따라서는 간혹 준호구와 호구단자가 뒤섞인 형식도 보이고 있다. 호구단자도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으며, 연호를 쓰지 않고 간지(干支)를 사용하는 것과 호주와 호주 아내의 4祖 및 가족상황을 준호구에서와 같이 연서(連書)하지 않고 각각 별행(別行)으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필자가 그동안 입수한 호적단자와 준호구로는 1693년 5월 영일현 북면 대흥리 13통 9호 유학 김성중(金聲重, 1640~1715, 김해 김씨 삼현파(三賢派)의 입향조)의 호적단자, 1702년 10월 영천군 북면 제4求理內 제2立岩村(현 죽장면 소재) 제1호 유학(幼學) 권좌(權左, 1650~1711, 안동권씨 목야파 입향조 권극립(權克立)의 5세손)의 준호구, 1705년 5월 영일현 남면 관동리 이명식(冠洞里 李明弼, 1679~?, 합천 이씨 전서공파(典書公派) 입향조 이후로(李後老)의 손자임, 그리고 이후로는 임진왜란 때 (선무원종(宣武原從) 2등 공신이며, 1604년 경상좌도 수군절도사인 이응표(李應彪)의 손자임),

1753년 2월 30일 영천군 북면 제4구리 내 제3입암촌 제6통 제1호 유학 권득중(權得重, 상기의 권육의 자)의 호구단자, 1786년 1월 경주부 신광현 토성리(현 신광면 소재) 제11통 3호 유학 김인호(金仁浩, 1735~1777, 경주 김씨 두암공파(兜菴公派) 입항조 김남귀(金南貴)의 13세손)의 호적단자, 1828년 청하현 서면 외침계리 제5통 제3호 유학 이동응(李東應, 청안 이씨 청계입항조 이이상(李以相)의 6세손)의 호적단자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가운데 권육의 준호구(자료 소장자 : 권육의 11세손 권태현(權泰鉉) 씨, 현 포항시 기계농협조합장)와 김인호의 호적단자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權陸의 準戶口

康熙四十二年十月 日 永川郡

考壬午成籍戶口帳內北面第四求理內第二立岩村第一號, 幼學權陸年五十三庚寅本安東, 父學生尙敏, 祖折衷將軍行龍驤衛副護軍蔚, 曾祖增嘉善大夫工曹參判克立, 外祖折衷將軍僉知中樞府事徐道立本大丘, 妻鄭氏年四十八乙未籍迎日, 父學生時永, 祖承議郎好義, 曾祖折衷將軍行龍驤軍兼內禁衛將守藩, 外祖通德郎金應泰本豐德率子得亨年二十七丙辰, 婦陳氏年二十九甲寅籍神光, 次子得元年十六丁卯, 從弟秀年二十三庚申, 仰役奴婢秩, 奴今男年三十癸丑父私奴芮澤母私婢軟今, 婢先今年四十癸卯母松, 婢萬春父松, 奴奉象, 婢士任年二十一壬戌父私奴金伊母私婢五女, 加現婢明五年二十二辛酉父良人業上母班婢梅雲, 各居秩奴金?年五十三庚寅母班婢丁分父私奴彥龍同奴良妻, 一所生奴今伊年二十癸亥, 二所生奴中今年十六丁卯良女今居同里婢末叱春年七十四己巳母班婢卜化父私奴皮長同婢一所生奴今伊年五十癸巳, 三所生婢亂春四十六丁酉, 四所生婢亂梅年四十四己亥, 六所生婢松女年三十六丁未, 八所生奴莫?年二十八乙卯等父私奴率立居昌原北面新村, 逃亡秩婢莫女年三十三庚戌母班婢末叱春父私奴率立庚辰逃亡婢億介, 四所生婢子春年三十辛亥父私奴玆金乙卯, 逃亡婢今春年六十壬午母班婢丁分父私奴彥龍同婢, 一所生婢銀春三十五戊申父私奴銀生戊午逃亡婢?眞, 三所生婢三五年四十八乙未父私奴自今辛亥, 逃亡婢月春, 二所生婢勝眞年五十九甲父私奴玆金奴愛生庚辰故戶口相準

行郡守 手決

※ 본문에 ‘吉拔無改印’과 ‘官印’(5곳)으로 날인 되어 있다.

앞의 준호구의 기본 내용은 발급연월일 (연호가 들어감) 군·현명, 주소, 호주의 벼슬명과 성명(증조까지 같은 式) 그리고 출생년과 본관, 호주의 부·조·증조, 호주의 외조의 벼슬명·성명·본관, 아내성·출생년·친정 본관(여자는 이하에도 같은 식), 처부(妻父)·처조·처증조·처외조, 슬자(率子) 이름과 생년(그 이하는 같은 식), 그 아내·차자(次子)·종제(從弟), 다음으로 양역노비(仰役奴婢, 率居入役奴婢)의 이름·생년·부모이름(이하에도 같은 식), 가현노비(加現奴婢, 새로 입적한 노비), 도망노비(위의 것 다음에 도망간 해가 추가 기재됨)로 되어 있다. 끝에 ‘길협무개인’이란 인장을 찍

은 것은 ‘정정(訂正)’ 사항이 없음을 표시한 것이다.

그리고 노비의 부모 중에 양인부(良人父)와 양녀모(良女母)가 나타나고 있음이 주목 되는데, 이러한 예는 어느 지방에나 있는 사실로서, 신랑역천(身良役賤)의 경우나 노비가 양인보다 실제 권세가 더한 경우로 이해 할 수 있다.

金仁浩의 戶籍單刺(子)

丙午正月 日, 慶州府北神光縣土城里, 戶籍單刺, 第十一統三戶, 幼學金仁浩年五十二乙卯本慶州, 父學生夏一, 祖學生聲遠, 曾祖學生淑, 外祖學生崔繼賢本慶州, 妻鄭氏年五十六辛亥籍迎日, 父學生 蒙弼, 祖學生繼敏, 曾祖學生重堅, 外祖學生黃厚重本平海, 婢尚春二所生奴尚元, 三所生奴尚奉等三口時居青松墨房里, 奴順日一所生婢初良年六十癸卯, 同婢一所生婢節郎上色孫生戶去.

府尹 手決 尊位金·風憲金·別尊位柳, 手決, 吉挾無改印
(호구단자 중간 하단에 위치, 필자주)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의 호구단자 역시 연호를 쓰지 않고 간지(干支)를 사용하였으며, 호주와 호주처의 4조와 가족 및 노비상황을 준호구 처럼 연서하지 않고 각각 별행으로 썼으며, 특히 노비상황은 하단에 낮추어 기재하였다.

그리고 김인호에게는 자녀가 없어, 후의 호구단자를 보면 金雲鶴을 양자들인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로써 보면 조선왕조는 호적의 정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으나, 그것은 단지 국내의 인구를 알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도 역(役)의 해당자를 파악 조사하고, 양천(良賤)의 분간(신분서열의 판별)과 본가·외가·처가의 뿌리를 밝히는데 큰 의미를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사회의 가족제도와 신분제도의 특성을 이해하는 길잡이가 된다.

2) 상속(分財)

1600년대 조선시대 사회사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는 분재기(分財記, 재산상속 분배기록)가 근래 발견되어 소개된 바가 있다.

흥해군 동부동(현 망총동) 출신 정사물(鄭四勿, 흥해 입향조이며 흥해향교 訓導 鄭世弘의 증손이며, 임진왜란 때 영일과 인근지역에서 우병장으로 활약한 군자감 주부로서 호조참판의 증직을 받은 鄭三畏의 장남)이 자녀(庶子 포함)에게 줄 전답과 노비 등 재산을 분배한 기록이다. (자료소장자는 鄭柄祚씨, 정사물의 13대 증손, 포항시 양학동 12-1번지 거주)

이 분재기는 정사물(1574~1650)의 말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오랫동안 보관 중에 앞부분 상단이 찢겨 없어지게 되어 봉사조(奉祀條)의 내용을 알 수 없는 것이 흠이다. 그러나 정인현씨(鄭仁鉉, 鄭克後의 16대손, 경주군 안강읍 하곡리 거주)에 의해 정사물의 동생 정극후(1577~1658, 호, 雙峰, 봉림대군의 사부 역임)와 그 부인 이씨가 작성한 1659년의 다른 분재기 1통이 아주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어, 정사물 분재기의 미흡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다.

규모가 더 크고 내용이 더 확실한 후자의 분재기를 소개하여 당시의 사회상을 이해코자 한다. 이 분재기는 과모(寡母) 李氏가 나이 근 90에 남편 정극후의 3년상을 치루는 일이 걱정이 되어 3년상 첫 해에 남편 생존시 마련한 노비·전답 등의 구처초기(區處草記: 나누어 분배한 초기)와 미진한 부분은 남편의 유지를 바탕으로 成文<정극후 부부의 분재기>하여 가훈을 지켜 후세에 오래 전하도록 당부하며 자녀에게 분배한 것이다.

封祀條로 奴 4口, 婢 4구, 田 2石 畓 2석 2斗(田畓 畓 4석 2斗落), 장남 (?호)에게 노 8구, 비 9구, 전 5석 11두 답 4석 5두(합 10석 1두락), 차남 (?)에게 노 5구, 비 8구, 전 4석 답4석 4두(합 8석 4두락)를, 말남 (?)에게는 노 5구, 비 5구, 전 3석 11두 답 3석 11두(합 7석 7두), 장녀(사위 徐強禮)에게는 노 3구, 비 5구, 전답 3석 5두락(전 1석 5두, 답 2석)를 차녀(사위 孫旻)에게 노 2구, 비 7구, 전답 2석 14두락(전 1석 5두, 답1석 13두), 말녀(사위 任勤)에게는 노 2구, 비 7구, 전답 3석 5두락(전 1석 5두, 답 2석), 孽男(庶子) 庄에게 노 1구, 비 1비, 전답 2석 7두락,(전 1석 7두, 답 1석), 庶-女에겐 노 1구, 전답 10두락(전 5두, 답 5두), 2녀에게는 노 1구, 전답 10두 (전 5두, 답 5두), 자녀에게는 노 1구, 전답 10두락(전 5두, 답 5두)을 분급하였다.

분재기 끝은 通善郎行 大君師傅鄭克後妻 李氏 (押印), 筆孫女婿忠義衛 孫汝龍 手決로 마무리 하였다.

이 분재기의 형식은 출생순위형으로 嫡子女 庶子女 순서이고, 남·녀의 순이며, 女息은 婿名만 기록하였고, 妾子를 孽子로 표시하였다.

재산내용은 노비와 전답으로 되어 있으며, 총재산 노 32구, 비 46구, 전 21석 5두, 답 22석을 봉사조에 이어 총 10자녀에게 분급하였다.

분배비율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자녀 | 봉사 | 장남 | 차남 | 말남 | 장녀 | 차녀 | 말자 | 서자 | 서1녀 | 2녀 | 3녀 |
|------|-------|------|------|------|-----|------|------|-----|-----|-----|-----|
| 노비비율 | 약9.7% | 21.7 | 12.8 | 12.8 | 9.7 | 11.5 | 11.5 | 2.6 | 1.3 | 1.3 | 1.3 |
| 전답비율 | 약9.3% | 22.7 | 18.6 | 16.8 | 7.5 | 6.6 | 7.5 | 5.6 | 1.5 | 1.5 | 1.5 |

위 표를 통해 보면 적자녀와 서자녀의 분배 차이는 노비에서는 약 8:1 전답에서 약 4:1~5:1이며, 자식의 경우는 출생순위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차를 두었고, 여식의 경우는 거의 차가 없이 동일 비율로 분배되고, 장남을 제외하고는 자식과 여식에게 재산분배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이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선시대의 사회 통념은 장남이 봉사(封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의 분재기의 봉사분과 장남분을 합하면 전체의 약 30%를 상회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부조(父祖가 생활하던 가옥은 장자에게 전하여 자녀 간에는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감안하면 장자의 상속분은 절대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같은 분재기의 내용은 조선중기 양반관료사회의 유교사상에 입각한 가족제도와 신분제도의 골격을 이루는 자녀중심·봉사중시·남녀차별·적자차별·노비의 사유재산관념 등 당시의 사회적 통념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참고문헌

- 鄭四勿(1600년대)의 상속분재기, 《신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호구총수》, 《각종읍지》, 《승정원일기》, <소장된 각종 소지 및 호구단자>.
 金森一, <1600년대 재산상속 분배기록 考>《포항상의》149호, 1988.
 권득중(1753)·김인호(1735~1777)·이동응·권육의 호구단자.

제5절 근대 태동기의 문화

1. 학 문

근대 태동기의 문화는 의리명분론이 절대적으로 강조되어온 주자 중심의 성리학이 설득력을 상실하면서 시작된다.

윤희가 유교경전에 대한 독자적 해석에 나섰고, 박세당은 양명학과 노장사상의 영향으로 주자학을 비판하다가 사문난적으로 몰려 처형당하기도 하였다. 지역에서는 석곡(石谷) 이규준(李圭駿)과 노주(蘆洲) 김영의(金永毅)란 학자가 있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석곡 이규준의 학문

석곡 이규준(1855~1923) 선생은 1855년(철종 6년) 11월 10일 경북 영일군 부산면(현, 동해면) 임곡리에서 탄생하셨다. 본관은 경주, 자는 숙현(叔賢)이다. 후에 석동(石洞)에 이거(移居)하여 ‘石谷’이라 스스로 호를 지었다. 1923년 10월 10일에 69세로 사망하였다. 묘는 포항시 남구 장기면 죽정리 화주산에 있다.

선생은 집이 가난하여 학습을 연마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그러나 성장함에 따라 뜻을 세우고 독학(獨學)으로 성리학을 연구하니 그 경지가 심오하게 되어 경사(經史)로부터 제자백가에 이르기까지 무불통달(無不通達) 하였고, 주역과 의학을 연구하여, 근세에 보기 드문 대유(大儒)로 이름을 떨치면서 그 문도(門徒)가 수천에 달하였다.

선생의 학문과 사상은 비문(碑文)에 “나는 마음은 黃帝와 老子에 遊하고 行은 孔子를 守하고자 한다.”라는 구절에 나타난 것처럼 일찍이 정주학(程朱學)과 송유(宋儒)들의 육경주소(六經注疏)에 의혹을 품게 되어 30세에 6경 즉, 모시(毛詩), 상서(尙書), 주역(周易), 춘추(春秋), 주례(周禮), 의례(儀禮) 의 26책, 경수 3편(經髓三篇) 즉, 대학(大學), 중용(中庸), 예운(禮運)을 합한 1책, 전례(典禮) 1책, 논어(論語) 3책, 효경(孝經) 1책, 당송고시(唐宋古詩) 1책, 후천자(後千字) 1책 등을 산정(刪定)하였다.

석곡의 경서주소(經書注疏)는 송나라 유학자들의 주설(注設)에만 의존하지 않고 주로 한당고유(漢唐古儒)들의 설에 의하여 다시 고쳐 정리한 것인데, 이는 송나라 주자학의 주소(注疏)를 무비판적으로 신봉하지 않고 도리어 한당유설(漢唐儒說)로 돌아가 고자 하는 복고적 사상이다.

이러한 사상은 단순한 복고가 아니고 옛 것을 찾아서 새것을 마련한다는 혁신적 사상발전의 원리에서 나온 것이다.

선생의 이런 사상은 주자학을 신봉하는 영남유림으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고, 사문난적(斯文亂賊)으로 몰리어 제자도 양성하기 힘들었다.

석곡이 성리학과 의학 등에 위대한 업적을 남겼지만 오늘날까지도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또 천문학에도 두각을 나타낸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면서 선생의 학문적 깊이를 가늠할 수가 없다.

석곡은 성품이 정의롭고 강직하였고 재물에 관심이 적었다. 가난하게 일생을 보내면서도 시세에 편승하지 않는 곧은 기상을 가졌다. 유학자들의 병폐라 할 수 있는 권위적인 허례와 허세를 배척했다. 이런 모습이 그를 조선말의 실학자이자 한의학자로 평가받게끔 했다.

석곡의 저서 중 서양 역법을 논한 포상기문(浦上奇聞) 1책, 당과의 시비를 논한 석곡심서(石谷心書) 1책, 수학을 논한 구장요결(九章要訣) 1책, 그 외 신교술세문(神敎術世文) 1책, 석곡산고(石谷散稿) 2책 등도 전해지고 있다.

석곡의 성리학에 대한 깊은 조예는 의학이론과 임상치료 연구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선생은 번잡하고 혼란스럽고 이치도 없이 뒤섞여 있던 의학이론을 자연과 생명의 이치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후학들에게 생명과 자연의 참모습을 파악하여 병을 바르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전수하였던 것이다.

일찍이 육당 최남선이 석곡을 방문하여 학문을 논할 때, 석곡이 ‘황제내경의 내용 중에 황제의 도가 아닌 것이 있다’고 말했다 한다. 이런 석곡의 깨끗한 정신이 그가 내경을 추리고 합하여 펴낸 《황제소문절요(黃帝素問節要)》(일명 素問大要)에 잘 나타나 있다. 황제내경은 총 81권으로 된 의서였는데, 이는 황제의 말이라 하여 어느 누구도 빼거나 더 할 수 없는 불문율로 여겨지던 것이었다.

그러나 석곡은 황제의 말이 아니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하여 총 18권의 책으로 요약해서 황제소문절요(黃帝素問節要) 2 책을 펴낸 것이다. 이는 선생의 학문의 경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도 할 수 있다.

선생은 또 동의보감을 참고하여 의감중마(醫鑑重磨)란 책을 편찬했는데(3책으로 된 것인데 현존 한다), 여기서 선생은 항상 양기(陽氣)의 부족 때문에 병이 생김을 역설하고 부양론(扶陽論)을 제창해서 원의 주진형(朱震亨)이 항상 음기(陰氣)가 부족하여 병이 된다고 주장한 학설과 대조를 이루며 의학사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다.

선생이 지은 기혈론(氣血論)에서는 병리를 하나로 꿰뚫었고, 신유양장변(腎有兩藏辨)에서는 신에 화가 없는 것을 논했고, 맥해(脈解)에서는 기존 6맥진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5맥의 정당성을 밝히는 등 한의학 발전에 큰 이바지를 하였다.

또 본초(本草)(상·중·하)를 저술하고, 약성가(藥性歌)를 정리하여 약물의 성질과 기운을 분명히 나타냈다.

석곡은 의학방면으로도 많은 제자를 양성하였는데 서병오(石齋), 이문근, 김용석, 배을제, 조규철, 서성호, 이원세(無爲堂) 등이 명성 높은 제자들이다. 선생의 세 아들도 의업을 이어 받았으나 모두 타계했다.

석곡은 자비심이 많아 집 옆에다 움막을 짓고 나병환자를 여러 명 치료해 주었다. 또 자신이 직접 약을 먹고 시험한 연후에 확실한 약을 환자에게 투여하였다고 하니 선생의 지행일치가 얼마나 철저했었는지 알 수 있다.

오늘날 포항시 남구 동해면 ‘약전(藥田)’이라는 지명은 석곡선생이 의학연구를 하면서 필요한 약재를 재배하였던 곳에서 연유된 것이라고 한다.

석곡은 의감중마 말미에 다음과 같은 7언 절구로 생명과 의학의 요체를 말하고 의학자의 바른 마음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醫囊無底誰能括 須把陰陽細玩索
專泥古方如膠瑟 妄恃私胸奈 格
大易機緘交坎離 內經權要在從逆
能知標本斯無失 病我自明方我出

“의학의 세계는 바닥이 없을 정도로 넓고 깊는데, 이 모두를 누가 다 총괄하고 연구할 수 있겠는가? 모름지기 음양을 파악하여 자세하고 익숙해지도록 찾는 것이 꼭 필요하다. 전적으로 옛사람의 처방에 얽매어 치료하는 것은 비과 줄을 아교로 붙여놓고 뜯는 것처럼 단조로워 치료가 안 되고, 함부로 제 생각만 옳다고 믿는 것은 道에 역행하는 것이다. 주역의 이치는 水火기운의 활동이고, 내경의 요체는 음양이다. 능히 본질과 현상을 분명히 알면 어긋남이 없으니, 병에 대해 내 스스로 환하게 안다면 처방은 그 속에서 나온다.”

석곡의 의학사상은 무위당(無爲堂) 이원세 선생에게 이어졌고, 그 후예들이 지금까지도 ‘소문학회’라는 의학단체를 만들어 학맥을 이어가고 있다.

석곡의 생가에는 선생이 직접 제작한 인체모형도와 한의학과 유학이론을 새긴 판목 등 선생이 남긴 소중한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다. (경상북도문화재자료 제548호)

한편, 포항시민의 숙원이었던 ‘석곡도서관’이 2009년 3월 27일 개관식을 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석곡도서관이라는 명칭은 지역정신문화의 뿌리를 찾고자 이곳 출신의 석곡 이규준 선생의 호를 따서 지은 것이다.

2) 노주 김영의의 철학

노주(蘆洲) 김영의(金永毅)은 구한말 유학자로서, 자는 극노(克魯), 호는 노주(蘆洲)이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10년을 산방에서 공부하여 천문, 수학, 시서(詩書), 지리, 역학 등에 통달하고 고향인 장기에서 후학을 양성하다가 대처로 이주하였다. 그의 천부경(天符經) 주해(註解)는 단군교의 공식 주석본으로 수록될 정도로 유명하다.

조선유교회 창립회원으로 명교부장과 문학사라는 원직(原職)을 겸하고 또한 조선유교회가 주최하는 녹동서원 명교강습회의 강사로서 주역과 유교철학을 담당했다.

유교지식인 양성기관으로 1930년 설립된 명륜학원의 강사로 수년간 활동하였다. 또한 《훈민정음 직해》를 만들어 한글보급에도 힘썼고, 《삼일신고》까지 주해하였다. 그의 문집인 《노주선생문집》 속에 훈민정음 언해본이 원래의 필사본 상태로 영인되어 있어 학자들이 연구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삼일신고》 해석은 노주기념사업회에서 발행한 《노주선생문집》에 수록되어 있다.

2. 교육 - 서원

16세기 사림들이 여러 차례 사화를 당해 죽고 쫓겨나면서도 궁극적으로 사림정권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향촌사회에서 세력을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여러 조직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중 서원은 지방 선비들이 성장하는 중요한 기반이었다.

원래 유학은 교육을 중요시하는 까닭에 고려 말 이후로 성리학이 확산되면서 유학자들은 개인재산을 털어 지방에 서재(書齋)로 불리는 학교를 세우고 자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16세기에 들어와 사화가 빈발하면서 정치에 뜻을 잃은 선비들은 아동교육에 박차를 가해 학교의 조직과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여기에 선배 유학자들을 기리고 제사하는 사당(祠堂)기능을 통합하여 서원(書院)이라는 새로운 교학 기구를 창설했다.

최초의 서원은 1542년(중종 37)에 사림의 한 사람으로서 경상도 풍기군수로 내려간 주세붕(周世鵬)이 고려 말 유학자인 안향(安珦)의 고향인 경상도 순흥면 백운동에 회현사(晦軒祠)라는 사당을 세우고, 다시 그 옆에 백운동서원이라는 학교를 세운데서 비롯되었다.

이 서원은 그 후 명종 5년(1550) 풍기군수로 새로 부임한 이황이 임금에게 주청하여 소수서원(紹修書院)이라는 편액을 하사받고 토지와 노비, 서적 등을 아울러 받았다. 이렇게 국가로부터 편액을 하사받고 각종 지원을 받는 서원을 사액서원(賜額書院)이라고 하는데, 이런 서원에는 면세와 면역의 특권까지 부여했다.

국가의 서원장려정책에 힘입어 서원은 갈수록 늘어나서 명종 때에 17개였던 서원이 선조 때에는 사액서원만도 100개를 넘어서게 되었으며, 지역적으로는 경상도가 가장 많았다.

조선후기에는 서원이 더욱 늘어나서 18세기에는 7백여 개소에 이르고, 고종 초에는 1천여 개소를 헤아리게 되었으며, 그 중의 약 3분의 1이 사액서원이었다.

서원은 처음에는 관학인 향교와 경합관계에 있었으나, 차츰 향교보다 수도 많아지고 권위도 높아졌다.

서원의 증설은 유학발전을 촉진시키고, 향촌문화를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했지만, 서원마다 모시는 선현(先賢)들이 따로 있어서 자연히 학파와 봉당을 결속시키는 구심점이 되기도 했다. 또 경제적으로 면세와 면역의 특권을 이용하여 부를 축적하고, 국가경제를 위축시키는 역기능도 갈수록 커졌다. 그래서 조선후기에는 서원을 통제하는 것이 국가정책의 주요과제로 떠오르기도 했다. 조선시대 영일만권의 대표적인 서원은 아래와 같다.

1) 오천서원(烏川書院)

오천서원은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동리 591의 3에 있다. 이 서원은 1588년(선조 21)에 청림(靑林, 현 오천읍 구정리)에 창건되었다가 이곳으로 이건 된 것이다.

창건경위는 “현감 이광악(李光岳)이 부임하던 날 밤에 한 노인이 현몽하여 말하기를 동쪽 10리쯤 되는 마을이 내가 살던 집인데, 없어진 지가 오래되어 의지할 곳이 없으니 다시 장만해 주기를 바란다.” 하므로 사림들과 상의하여 정몽주의 옛 집터 자리에 서원을 짓고 이름을 ‘오천서원’이라 하였다고 한다.

이 서원에는 이 지방출신인 형양공(滎陽公) 정습명(鄭襲明)과 포은 정몽주를 봉안하였으나 임진왜란의 병화에 소실되었다. 다행히 포은의 위패는 운제산 만장암(萬丈岩, 일명 文忠岩)으로 옮겨 보존하다가 임란 후 옛터(현, 오천읍 구정리 124-2번지)에 서원을 중건하고 다시 봉안하였다.

1613년(광해군 5)에 ‘오천서원’으로 사액이 되었으나 서원 터가 홍수에 자주 피해를 보았으므로 1629년(인조 7)에 현 위치인 오천읍 원동리 590번지 일원으로 옮겨 짓고 형양공 정습명을 합향하였다.

숙종년간(1674~1719)에 문정공(文貞公) 설곡(雪谷) 정사도(鄭思道)를 별묘(別廟)에 봉향하였고, 영조년간(1724~1776)에 문청공(文淸公) 송강(松江) 정철(鄭澈)을 별묘에 추향하였다.

1868년(고종 5년) 국령에 의해 훼손되어 수십 년간 철향(撤享)되었다가 1905년 사림의 힘으로 초가 몇 칸을 지어 ‘오천단소(烏川壇所)’라 이름하며 매년 추향을 봉행했

다. 1916년 고자(庫子)의 실화로 서원이 전소 되면서 보관하고 있던 귀중한 서적과 문서들이 불타 없어졌다.

1917년 7개 문중을 추안(追案)시키고 그 헌성금(獻誠金)으로 현재의 오천서원을 신축하였다. 서원 안에는 충정묘(忠正廟 3칸1동), 신문(神門 3칸1동), 강당(講堂4칸1동), 오천재(烏川齋 4칸1동), 동재(東齋 3칸1동), 외대문(外大門1칸1동), 고자실(庫子室 3칸1동)이 있다.

한편, 옛 서원 터(구정동 124-21번지)에는 1655년(현종 6), 1699년(숙종 25), 1831년(순조 31), 1954년(건국 7), 1987년(건국 40)에 유허비나 비각을 중건 또는 개수하였다는 기록은 있으나 현재는 3개의 비석과 1개의 비각만 전한다.

2) 곡강서원

곡강서원(曲江書院)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서원리((현재 남송 3리)에 있었다. 1607년(선조 40)에 임진왜란 때 창의한 흥해 선비 정삼외(鄭三畏, 1547~1615)가 문원공(文元公)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을 배향하기 위해 창건하였다. 1708년(숙종 34)에 문간공(文簡公) 조경(趙綱)을 추향하였다.

1868년(고종 5)에 훼손된 후 복원되지 못하고 지금은 그 터만 남아있다. 곡강마을 어구에 있는 곡강 최씨 시조묘를 지나 300m쯤 오른쪽 산기슭에 영모제가 있는데 그 자리가 바로 서원이 있던 자리이다.

3) 입암서원

입암서원(立岩書院)은 포항시 북구 죽장면 입암리(현, 죽장면 입암리 산 21)에 있다. 1657년(효종 8)에 임진왜란 때 이곳으로 피난 와서 학문을 연구하며 살다가 생을 마감한 문강공(文康公)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 1554~1637)을 봉안하고 지방 유림인 동봉(東峯) 권극립(權克立, 1558~1611), 우헌(愚軒) 정사상(鄭四象, 1563~1623), 윤암(綸庵) 손우남(孫宇男, 1564~1623), 수암(守庵) 정사진(鄭四震, 1567~1616)을 배향하기 위해 후손과 지방의 사림들이 합심하여 창건하였다.

1868년(고종 5) 대원군 때 서원이 철폐되고, 1907년(순종 원년) 산남의진과 왜군의 격전 때 왜군의 방화로 묘우도 소실되었으나 1913년에 강당(서원)이 복원되고 1972년에는 묘우(廟宇)도 새로 만들어져서 1986년 경상북도지방문화재 기념물 제70호로 지정되었다. 경내에는 3칸의 묘우, 3칸의 강당과 부속건물인 일제당·만활당(萬活堂) 등이 있다. 여기서는 매년 2월 하정(下丁, 세 번째 丁日)에 향사를 지내고 있다.

만활당(萬活堂)은 정면 3칸, 측면 단칸의 박공기와 지붕구조인데, 계류가 굽이쳐 흐

르는 언덕 위에 서향으로 배치되었다. 임진왜란 때 이곳으로 피난 온 장현광이 기거 하던 건물이다.

일재당(日稙堂)은 학문을 강론하던 곳인데, 평면 구성에 있어 보간 2칸 중 후열 3칸은 절벽에 의지하여 높은 자연석 축대를 쌓고 그 위에 건물을 지었다. 어간(御間)이 마루이고 양측에 온돌방을 각 1칸씩 배치를 하였는데, 마루 뒷벽에 출입문을 세우고 루(樓)로 된 마루를 꾸며서 계자 난간을 돌렸다. 이 건물은 전체적으로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기와지붕 구조로 조선 선조 33년(1600)에 건축되었다.

1629년 노계(蘆溪) 박인로(朴仁老)가 이 건물에서 ‘입암가 29수’와 ‘입암별곡’을 남기기도 하였다.

서원 내에는 장현광이 심었다는 향나무(경상북도 기념물 제71호)와 은행나무가 각각 한그루씩 있다.

4) 학산서원

학산서원(鶴山書院)은 포항시 북구 송라면 학산리(현 중산1리)에 있었다. 1692년(숙종 18) 남해 현령을 지낸 김석경(金錫慶, 鰲岩大師의 兄)이 퇴임 후 귀향하여 지방 사림들과 함께 문원공 회재 이언적을 봉향하기 위해 창건하였다.

1868년(고종 5)에 훼손 되어 그 위패를 서원 앞뜰에 매판(埋板) 하였다는데, 지금까지도 부락민들은 그 토총(土塚)을 ‘위패묘’라 부르고 있다.

1990년경 영일군사(迎日郡史)를 편찬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할 때 《학산서원총안록》(鶴山書院摠案錄)이 발견되어 이 고장 서원의 ‘교원추절목(校院追節目)’과 전답, 노비, 제기 등 서원 소유재산을 밝힐 수 있게 되었다.

5) 죽림서원

죽림서원(竹林書院)은 포항시 남구 장기면 읍내리에 있었다. 1707년(숙종 33) 시공 되어 이듬해인 1708년에 완공되었다. 처음에는 우암 송시열의 영정을 봉안하면서 죽림사우(竹林祠宇)라 했다가 꾸준히 서원 승격을 추진한 끝에 1833(순조 33) 이규정(李奎禎) 현감 시절 죽림서원으로 승격되었다.

이 서원 안에 우암선생의 영정(影幀)과 문집, 퇴우당(退憂堂) 김수흥의 문집 등이 소장되어 있었다고 한다. 송시열의 장기 유배생활 실상에 대해 적어놓은 《적거실기》(謫居實記)에 의하면, 죽림서원 창건에 가담했거나 우암의 문하에서 수학했던 사람은 오도전(吳道全), 오도종(吳道鍾), 황보헌(皇甫憲), 이동철(李東哲), 오시좌(吳時佐), 김연(金連), 서유원(徐惟遠), 오도징(吳道徵) 등이라고 한다. 이들 장기 향림들과 대구의 구

용징(具龍徵)·전극화(全克和) 등이 주축이 되어 서원이 건립되었는데, 이들이 장기에 서 노론 인맥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한다.

서원은 1868년(고종 5)에 훼손 되고 복원하지 않았다. 장기면 읍내리에 있는 그 터에는 주춧돌만 덩그러니 남아있다. 현재도 이 서원이 있던 마을을 ‘서원마을’이라고 한다.

6) 금산서원

금산서원(琴山書院)은 포항시 남구 장기면 금곡리에 있다. 1707년(숙종 33)에 지방 유림들이 뜻을 모아 허진수(許進壽)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였다.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1868년(고종 5)에 훼손(毀撤)되었다가 1909년에 지방 유림들에 의하여 중건되었다.

현존하는 경내의 건물로는 사우·강당·동재·내삼문·외삼문·고사 등이 있다. 사우인 3칸 규모의 경모사(景慕祠)에는 허진수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4칸 규모의 수덕헌(修德軒)은 강당으로 중앙의 마루와 양측면의 협실로 되어 있는데, 마루는 원내의 여러 행사와 유림의 회합 및 학문 강론 장소로 사용되며, 협실은 헌관과 재석(齋席) 및 별유사의 방으로 사용되고 있다. 제원들의 숙소인 동재는 3칸 규모의 건물이다. 4칸 규모의 고사는 서원을 지키는 고자(庫子)의 거처로 사용하고 있다. 이 서원에서는 매년 9월 하정일(下丁日)에 향사를 지내고 있으며, 소장하고 있는 유물로는 허진수의 시문집 한 권이 소장되어 있다.

7) 덕림서원

덕림서원(德林書院)은 포항시 남구 장기면 임중리 485번지에 있다. 1740년(영조 16)에 후손들과 사림들이 뜻을 모아 정헌공 오방우(吳邦佑)의 유덕을 추모하기 위해서 재궁(齋宮)을 건립하고, 처음에는 영모재(永慕齋)라 하였다가 1805년 (순조 5)에 중수하여 경덕사(景德祠)라 개칭 하였다.

1894년(고종 31)에 덕림재(德林齋)로 개칭하였고 해방 후에 덕림서원(德林書院)으로 승격되었다. 현존하는 경내의 건물로는 사우·강당·동재·서재 내삼문·외삼문·주소·전사청 등이 있다. 3칸 규모의 사우에는 오방우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강당은 원내의 여러 행사와 유림의 회합 및 학문 강론 장소로 사용되며, 중앙의 마루와 양측면의 협실로 되어 있다.

유생들의 기숙사인 동재와 서재는 각 3칸 규모의 건물이다. 2칸 규모의 전사청은 향사 때 제물(祭物)을 마련하여 두는 장소이고, 6칸 규모의 주소(廚所)는 서원을 지키

는 고자(庫子)의 거처로 사용하고 있다. 이 서원에서는 매년 봄·가을에 향사를 지내고 있다.

8) 서산서원

서산서원(西山書院)은 포항시 남구 장기면 산서리에 있다. 1760년(영조 36)에 지방 유림이 뜻을 모아 고려 때 예의판서(禮儀判書)를 지내다가 절개를 지킨 김충한(金沖漢)의 학문과 충절을 추모하기 위하여 창건되었다.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1868년(고종 5)에 훼철되었다가 1907년 복원할 때 김응장(金應章)을 추가로 배향하였다. 현존하는 경내의 건물로는 사우·강당·동재·서재·내삼문·외삼문·주소 등이 있다. 사우인 3칸 규모의 입의사(立義祠)에는 김충한과 김응장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6칸 규모의 송인당(崇仁堂)은 원내의 여러 행사와 유림의 회합 및 학문 강론 장소로 사용되는 강당이며, 중앙의 마루와 양측면의 협실로 되어 있다.

9) 광남서원

광남서원(廣南書院)은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성동 3리 237번지에 있다. 1791년(정조 15)에 지방 유림과 후손들의 공의로 지봉(芝峰) 황보 인(皇甫仁, 1387~1453)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고, 그 장자인 참판공(參判公) 황보석(皇甫錫)과 그 차자인 직장공(直長公) 황보흠(皇甫欽)을 배향하기 위하여 창건되었다.

처음에는 세덕사(世德祠)라 칭했다가 1831년(순조 31)에 광남서원으로 승격되었다.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1868년(고종 5)에 훼철(毀撤)되었다가 1900(광무 4)에 후손들이 그 유허에 건물을 재건하였고, 1941년에 지방 사림이 묘우를 복원한 후 1942년부터 복향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존하는 경내의 건물로는 사우·강당·동재서재·내삼문·외삼문·주소(廚所) 등이 있다. 서원의 배치는 전면에 강학(講學) 공간인 강당(講堂) 있고, 후면에 제향(祭享) 공간인 사우(祠宇)가 배치되어 있는 전학후묘(前學後廟)의 구조로 되어 있다. 사우인 3칸 규모의 세덕사(世德祠)는 황보 인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8칸 규모의 송의당(崇義堂)은 강당으로 중앙의 마루와 양측면의 협실로 되어 있는데, 마루는 원내의 여러 행사와 유림의 회합 및 학문 강론 장소로 사용되며, 협실의 왼쪽 방은 헌관실로 사용되고, 오른쪽 방은 재석(齋席) 및 별유사의 방으로 사용되고 있다.

제원들의 숙소인 동재와 기숙사인 서재는 각 3칸 규모의 건물이다. 6칸 규모의 주소(廚所)는 서원을 지키는 고자(庫子)의 거처로 사용하고 있다. 뒤뜰에는 충비(忠婢)

단양(丹良)의 비와 비각이 있다. 이 서원에서는 매년 음력 3월 중정일(中丁日)에 향사를 지내고 있다. 소장하고 있는 유물로는 황보 인의 책판과 문집 외에 서적 30여 권이 소장되어 있다.

10) 학삼서원

학삼서원(鶴三書院)은 포항시 남구 장기면 학곡리에 있다. 1791년(정조 15)에 고려 충신 이귀춘(李貴春)과 임란 때 의병을 일으켜 공을 세운 죽계(竹溪) 이대임(李大任)을 배향하기 위해 창건되었다. 처음에는 학삼향현사(鶴三鄉賢祠)라 칭했다가 후에 서원으로 승격하여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었다. 현존하는 경내의 건물로는 강당, 사우, 동재(東齋:학습재), 서재(西齋, 교육재), 내삼문, 외삼문, 주소(廚所) 등이 있다. 3칸 규모의 사우(祠宇)인 경충묘(景忠廟)에는 이귀춘과 이대임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원내의 여러 행사와 유림의 회합 및 학문 강론 장소로 사용되는 강당은 중앙의 마루와 양측면의 협실로 되어 있다. 주소(廚所)는 서원을 지키는 고자(庫子)의 거처로 사용하는 곳이다.

이 서원에서는 매년 음력 3월 상정일(上丁日)에 향사를 지내고 있다. 소장하고 있는 유물로는 백범 김구의 친필 현판이 2개 있고, 이대임의 《죽계실기》목판과 문집 등 30여 권의 문헌이 소장되어 있었으나 목판은 수년 전에 도난당하였다.

11) 중앙서원

중앙서원(中陽書院)은 포항시 남구 동해면 중산리 182의 4번지에 있다. 1794년(정조 18) 지역유림들이 뜻을 모아 세종조에 이조판서를 지낸 남은(南隱) 서섭(徐涉), 예빈사(禮賓寺) 참봉을 지낸 서시복(徐時福)과 동해면 중산리 달성 서씨 입향조인 서종(徐淙)을 배향하기 위해 창건하였다. 처음에는 ‘중앙재(中陽齋)’였으나 후에 중앙서원으로 승격하였다. 경내에는 사당, 강당, 외삼문 등이 남아 있으며 해마다 3월 하정일(下丁日)에 제사를 지낸다.

12) 삼명서원

삼명서원(三明書院)은 포항시 남구 장기면 마현리 58번지에 있다. 1854년(철종 5년) 지방 유림의 공의로 임장왜란 때 경주부를 중심으로 많은 전과(戰果)를 올린 이눌(李訥)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한 이래로 선현 제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여 왔다. 이 서원에서는 매년 봄과 가을에 향사를 지내며, 제품(祭品)은 4번(頭)

4두(豆)이다. 재산으로는 전답 1,800여평 등이 있다.

현존하는 경내의 건물로는 사당인 상의묘(尙義廟)와 강당인 현교당(賢敎堂) 그리고 서재가 있다. 상의묘에는 이눌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으며, 현교당은 중앙의 마루와 양쪽 협실로 되어 있는데, 원내의 여러 행사와 유림의 회합 및 학문 강론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서재는 유생들이 기거하면서 공부하는 장소이다.

13) 안산서원

안산서원(安山書院)은 포항시 남구 장기면 방산리에 있다. 이 서원은 부사 홍문관교리(府使 弘文館校理) 김숙(金淑)과 통덕랑(通德郎) 김한창(金漢昌)을 배향하는 서원인데 창건연대는 알 수 없다. 1939년에 중수하였고 경내에는 사당인 경덕사(景德祠) 강당 등의 건물이 남아 있다.

3. 사(祠)와 각(閣)

《영일읍지》(1929)를 비롯한 각종 기록에 의하면 흥해군에 국사사당(國師祠堂, 흥해 천곡사 어귀, 국사 裴千熙 배향), 학림사(鶴林祠, 1855년 학천동에 창건, 農叟 최천익 배향), 영일현에 덕림사(德林祠, 1794년 포항동의 죽림산 아래에 창건, 우암 송시열 배향), 청하현에 서계상덕사(西溪尙德祠, 1777년 泉嶺 아래에 창건, 揚武原從 2등공신 尹百胄 배향), 죽림사우(竹林祠宇, 1797년 서계리 창건, 양무원종 2등공신 尹鑣 배향), 기계에 태암사(泰岩祠, 冠岩洞 太華山 아래 창건, 貞肅公 松谷 鄭淵 배향), 성강사(星岡祠, 성계리 창건, 濟興君 海藏 高彦伯 배향), 덕연세덕사(德淵世德祠, 1779년 덕동 紫金山 아래에 창건, 李蕃과 그의 아들 龔齋 李彦适 배향), 신광에 모현사(慕賢祠:모현동 창건, 侍講院 輔德 李從元 배향), 죽장에 감곡사우(甘谷祠宇, 죽남면 감곡 창건, 文淸公 秋江 南孝溫 배향) 등 임진왜란 때 순절(殉節)한 사람이나 지방에 공덕을 남긴 분들을 제향하는 사우와 재실이 여러 곳에 건립되었다.

한편, 장기현 양포리에 장인풍(張仁豊) 정효각, 임종리에 김사민(金士敏) 정효각, 산서리에 최학진(崔鶴振), 김시상(金時相) 정효각이 각각 있다.

또 정천리에 김윤찬(金潤贊) 효자각, 금곡리에 효자 허기(許琦)와 그의 부인 곡강 최씨, 그의 며느리 월성 최씨 등 세 사람의 효행을 기리는 삼효각(三孝閣)이 있다. 이 중에서 김시상의 효행은 효자비에 전하는 비문 몇 자에 그치지 않고, ‘효행전(孝行傳)’이라는 서사적 구조를 갖춘 문헌설화가 전하기에 주목할 만하다.

그 외에도 흥해 남성리의 배두녀(裴斗女) 정려각, 포항 환호동의 박수존(朴守存) 정

효각(旌孝閣), 영일 효자동의 전희(田禧) 효자비, 포항 지곡동의 배태봉(裴泰鳳) 3대 정충각(旌忠閣), 구룡포 구평리의 하영식(河永湜) 선효각(善孝閣), 오천 세계동의 김귀연(金貴連) 효열각(孝烈閣) 등이 있다. (전체의 명단은 현대편 ‘문화와 유적’편을 참조하기 바람)

4. 조선후기 문학

조선후기의 문학이란 임진왜란(1592) 이후부터 갑오경장(1894)에 이르는 약 300년간의 문학으로 그 주요 특징으로 근대 문학의 핵심인 산문성과 서민의식의 성장을 들 수 있다.

주자학의 완고한 학풍과 당쟁의 병폐, 그리고 임진왜란, 정유재란, 병자호란으로 이어지는 전란으로 사대부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조선 왕조는 커다란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계속된 정치적 혼란, 경제적 피폐와 서민 의식의 성장, 실사구시의 학풍과 서학의 도래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근대화의 싹이 텄다.

이러한 흐름은 작품 속에 그대로 투영되어 제재와 주제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런 바탕 위에서 민중의 문학이 왕성하게 대두되어 표현은 사실적으로, 내용은 생활에 가까운 것이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문학은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가 시작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지역과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이 노계(蘆溪) 박인로(朴仁老),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퇴당(退堂) 유명천(柳命天), 유하(柳下) 홍세태(洪世泰),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강해(江海) 장심학(張心學) 등의 작품이 전한다.

1) 노계 박인로의 입암 29곡과 작자 미상의 입암별곡

‘입암(立巖) 29곡’은 노계(蘆溪) 박인로(朴仁老, 1561~1642)의 작품으로 포항시 북구 죽장면 입암리의 절경을 노래한 연시조이다. 이 시조는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 1554~1637)이 입암리에 있었을 때인 1608년~1637년 박인로가 그를 따라 노닐면서 지은 것으로 대체로 1629년경 지어진 것으로 본다.

노계의 시조는 실상 ‘立巖’ 등으로 제목이 붙어 있지만 하고 처음부터 28경을 낱말이 노래한다는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지금 전해오는 29수 가운데 ‘입암’과 관련된 것은 10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연시조에 등장하는 경물은 28경 가운데 19종이고, 28경 이외에 ‘精舍’ 1수가 더해져서 29곡이 된 것이다.

뒤에 살필 ‘입암 28경’ 중에서 노계시조에 제외된 것은 아홉 곳으로, 이들은 바깥으로부터 招隱洞, 洗耳潭, 惹煙林, 鏡心臺, 踏苔橋, 象斗石, 勿冪井, 尙嚴臺, 含輝嶺이다. (원문은 1999년 발행 《포항시사》 302쪽 부터 305쪽까지를 참고하기 바람)

입암 28경을 노래한 ‘입암별곡’은 장광현의 <立巖記>를 토대로 하여 이를 가사로 만든 것이다.

근래까지는 박인로의 작품으로 알아왔으나 최근 작자미상이라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제작연대도 박인로의 존세 시가 아닌 입암이 세워진 1657년(효종 8년) 이후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입암기’에 의하면 입암 28경은 여헌이 47세 되던 1600년(선조 33), 영양사우(永陽四友)라 일컫는 동봉(東峯) 권극립(權克立), 우헌(愚軒) 정사상(鄭四象)·윤암(綸庵) 정사진(鄭四震) 형제, 수암(守庵) 손우남(孫宇男) 등 4인의 청에 의해 여헌이 입암을 처음 심방하고 돌아간 지 3년 뒤에 다시 와서 그때 구경하지 못했던 곳을 두루 다니면서 입암의 승경(勝景)을 완상(玩賞)한 뒤에 그들과 더불어 이곳을 영원한 유상(遊賞)의 땅으로 남기고, 계산(溪山)의 아름다움을 길이길이 나타내기 위해 명명한 것이라고 하였다.(원문은 1999년 발행 《포항시사》 306쪽을 참고하기 바람)

2) 우암 송시열이 장기에서 남긴 음영(吟詠)과 저술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은 1675년(숙종 원년) 6월 10일 경상도 장기에 유배되었다. 그 해 1월에 제2차 예송(禮訟)으로 함경도 덕원에 유배되었다가 다시 감압관(監押官) 심양필(沈良弼)과 같이 덕원을 출발하여 강원도 양양, 울진 평해의 월송포를 거쳐 장기로 와서 위리안치 된 것이다. 우암은 1679년 4월 10일 거제도도로 이배되어 장기를 떠났다.

우암은 장기성 동문밖에 있는 마산리(馬山里) 선비 오도전(吳道全)의 집에 위리안치(圍籬安置) 되어 만 4년간을 머물면서 장기를 유향(儒鄉)의 고장으로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유향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시각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지만, 조선조의 유가적 정통문화권에 장기를 얼마간 편입시켰다는 것은 숨길 수가 없다. 우암이 장기에 있을 동안 중앙의 우암 인맥들이 무수히 방문했다. 그 현저한 예로서 1676년 2월 3일에 명재(明齋) 윤증(尹拯, 1629~1714)의 내알(來謁)을 들 수 있다.

이들의 방문은 장기사람들에게 학문을 숭상하고 선비를 존경하며 충정과 예의를 중시하는 문화풍토를 조성시켰다.

장기 유배생활 동안 우암은 300수 내외의 음영(吟詠)을 통하여 다양한 심회를 시로 형상했다.

念昔挾書初 소시적 글 처음 배울 때
 聖賢以爲期 성현되고자 기약했는데
 及此荒耄日 나이 칠십에 이른 지금에야
 悔失少壯時 젊은 때 기회 놓친 것을 후회하네
 伏茲待刑地 엎드려 형벌 기다리는 처지이나
 純愚猶自持 순박하고 우둔한 마음 변하지 않았다
 渾然固難望 감히 혼연한 경지는 바랄 수 없지만
 壁立慕曾思 의연하게 曾子와 子思를 흠양하노라.

위의 시는 우암이 장기에 유배온 다음해인 1676년 2월에 윤증이 장기 배소에 찾아왔을 때에 창작된 시이다.

海曲陰陰晝不明 해변의 음산한 기후 낮에도 어둡고
 深林魑魅自縱橫 울창한 숲 속에 도깨비만 쏘다닌다.
 庭前幸有千枝樹 뜰 앞에 다행히 우거진 나무가 있어
 臥聽黃鸝一兩聲 누워서 꾀꼬리 소리 한가히 듣고 있네.

共守荆園久不歸 우리 함께 지켜 오랫동안 돌아가지 않으니
 如伊誠孝古來稀 너 같은 효성은 예로부터 없었다.
 憐渠婦子空凝佇 처자식 부질없이 가련하게 기다리겠고
 日暮山村不掩扉 해지는 산촌에는 사립문 닫지 않네.

위 두 편의 칠언절구는 1676년 5월에 장기에서 창작된 작품이다.

一千里外名蠻土 천리 밖 야만의 땅이라 불리우지만
 四五年來號太平 사오 년간 여기서 평화롭게 지냈다고
 歌管啁轟明月夜 짓대 소리 요란한 달 밝은 밤에
 舊臣還咏永貞行 옛 신하는 오히려 永貞行을 읊는다.

風吹木葉根猶靜 나뭇잎 바람에 날려도 뿌리는 조용하고
 霜折蘭枝意自香 서리에 난초 꺾여도 뜻은 스스로 향기롭다
 多謝晦翁提我耳 나를 이끌어준 주부자에게 감사하고
 須知康節刮人眶 사람의 눈 밝혀 준 소강절도 알아야 한다
 箇中密切工夫在 이 중에 엄밀하고 간절한 공부가 있으니
 鄉聖當年戒助忘 맹자 당년에 助와 忘을 경계한다.

위에 인용한 두 번째 시는 1677년 우암 75세 때 8월 어느 날에 창작된 시이고, 첫 번째 시는 ‘사오년래호태평’이라 했으니 귀양 온 지 4~5년쯤 되는 해에 지어졌던 만큼, 장기를 떠날 무렵의 작품이다.

장기 유배기간 동안 우암은《주자대전차의》와 《정서분류》라는 학술서를 지었고, 1675년 6월에 곡운(谷雲) 김수증(金壽增, 1624~1701)과 더불어 학맥과 인맥 등을 논술한 ‘취성도(聚星圖)’를 그림을 첨부시켜 제작했다.

‘취성도’는 학맥과 인맥을 별자리와 관련지어 말세를 경계하는 내용을 다룬 것으로 주자와 남헌(南軒) 장식(張栻, 1133~1180)·면재(勉齋) 황간(黃幹, 1152~1221) 등이 관여한 것인데, 우암은 오랫동안 곡운과 서신 왕래를 해오다가 ‘취성도’를 완성했다. 같은 해 9월에 윤증에게 서신을 보냈고, 또한 ‘문충공포은정선생신도비문(文忠公圃隱鄭先生神道碑文)’을 찬술했다.

1976년 우암 70세 7월에 초려(草廬) 이유태(李惟泰, 1607~1684)에게 보내는 서간문 등을 장기에서 지었다.

3) 퇴당 유명천의 오천고사 10절

퇴당(退堂) 유명천(柳命天, 1633~1755)은 1695년 남인의 실각으로 강진에서 이배되어 경상도 영일현에 안치되었다.

이후 1699년 2월까지 6년간 영일에서 부인(韓山 李氏)과 함께 생활했다. 여기서 퇴당은 많은 시작품을 창작했고, 부인 이씨는 《苦行錄(고행록)》이라는 유배생활의 실상을 적은 가사작품을 남겼다.

그 중 퇴당이 지은 ‘烏川故事十絶(오천고사십절)’은 영일현의 역사와 관련된 것으로 지역사 연구에 도움을 주는 작품이다.

즉, ‘倚雲亭·烏川書院·日月池·吾魚寺·大松亭·大嶼臺·礪石窟·鋪子市·注津·竹島’의 내력과 풍광을 읊은 것인데, 작품성이 뛰어나다. 이들 유적과 지명들은 대부분 지금도 남아있으므로 이 시들을 통하여 17세기 말엽의 영일현 관내 30여리 안팎의 상황을 접할 수 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또 ‘영일고사’라고 하지 않고 ‘오천고사’라고 한 것은 당시에도 ‘오천’이라는 지명이 더 익숙하게 불렸음을 의미한다.

퇴당의 영일 적거생활 중 창작한 시는 《退堂先生詩集》(卷之四), 〈烏川錄〉에 수록되어 있다.

● 倚雲亭

寅賓堂廢倚雲墟 인빈당과 의운정 모두 폐허되어
 公館荒涼草樹疎 황량한 공관에 잡초만 무성하네
 賴有畢翁遺記在 다행히 점필재 기문이 남아있어서
 陳蹤指點百年餘 백여년전 옛 자취 더듬어 유추한다

● 烏川書院

迴瀾砥柱補天忠 소용돌이 속 돌기둥처럼 왕을 보좌한 사람은
 五百王家獨圃翁 오백 년 고려조에 오직 포은 뿐이었네
 宇宙綱常都係我 온누리 지켜야 할 도리 나에게 달려있는데
 好山何意覓春風 아름다운 산에서 무슨 뜻으로 춘풍을 찾겠나

● 日月池

孤蹤遠落直東陲 외로운 자취 동쪽 변방에 떨어졌는데
 舊址欣依日月池 하늘에 제사하던 옛 터 일월지에 남았구나
 想得迎烏靈尚在 연오랑 세오녀의 영혼 아직도 살아있는데
 餘輝倘向覆盆垂 석양의 남은 빛 엮어진 항아리에 드리운 듯

● 吾魚寺

宮牆塔劫半傾欹 궁장과 탑 오랜 세월에 반쯤 기울었는데
 創設吾魚也是誰 오어사를 창건한 사람 그 누구였던가
 八十老僧牢落在 팔십 지난 노승이 쓸쓸하게 지키고 있지만
 至今傳說曉師時 지금까지 원효대사 시절 일 전해지고 있네

● 大松亭

蒼蒼松蓋薄陰成 푸르고 울창한 소나무 숲 그늘 너머로
 白沙汀掌樣平 하이얀 백사장 손바닥처럼 펼쳐졌네
 畫角一聲鷗鷺散 한바탕 풍악소리에 갈매기 노자새 흩어지니
 儉閑時見使君行 여가 내어 방문한 사또 행차 본다네

● 大嶼臺

洋中一柱聳崔嵬 바다 가운데 큰 바위기둥 우뚝 솟아나
 潮打波春儼作臺 조수치고 파도가 깎아 엄연한 대가 되었네
 眼底沒人深沒頂 눈 아래에 魚人 물속으로 잠수한 후
 須臾採得鰻魚來 잠깐사이 전복과 고기를 잡아 오는구나

● 礪石窟

第一荊州厥貢礪 남방에서 제일가는 공물이었던 솥돌
 金聲玉德奇文細 아름다운 악기 되어 문체도 미묘하네
 九重豈燭小民咨 어찌하면 궁궐에 백성들의 탄식 아릴 수 있나
 鑿窟千尋丁踵斃 천길 깊이 굴을 파다 장정들 잇따라 죽었네

● 鋪子市

魚蝦雜選漲腥塵 물고기 새우 등 어물 뒤섞여 비린내 등천하고
 賈舶商車湊四隣 상선과 장사꾼 수레 사방에서 몰려드네
 忽見市傍珠錯落 문득 시장 주변 진주조개 나뒹구는 걸 보니
 夜來應有過鮫人 밤사이 응당 수많은 어부들이 다녀갔음을 알겠네

● 注津

滄溟一派滙爲淵 푸른 바다 물결모여 영일만이 되었는데
 十月青魚箇裏徧 시월에 청어떼 돌아와 바다에 가득하네
 若也丑寅風勢順 만약 동북풍 기세가 순조롭다면
 薦新冬至定無愆 동지천신 진상에 차질이 없을 것이다

● 竹島

山海扶輿秀氣清 산과 바다기운 어우러진 빼어난 정기가
 江南竹箭稟全精 강남땅 대화살에 정미로운 기운 부여했네
 島中幾歲勤封植 이 섬에 몇 년이나 부지런히 대나무 심었나
 包裹千章上兩營 천 개씩 화살대 싸서 두 군영에 바친다

한편, 퇴당을 좇아 유배지 영일에 온 부인 한산 이씨는 이곳에서 유배생활의 실상을 묘사한 국문가사 《苦行錄》을 남겼다.

유배생활을 묘사한 얼마 안 되는 여류 가사작품에서 《고행록》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한산 이씨의 《고행록》은 1719년에 저작된 필기류 규방가사이다. 퇴당은 ‘烏川錄’을, 부인 한산이씨는 《고행록》을 저술하여 17세기 말 영일현의 풍광과 그 고장 백성들의 생활상에 관한 정보를 후인들에게 알려줬다.

4) 유하 홍세대의 포항 관련 문학

유하(柳下) 홍세대(洪世泰, 1653~1725)는 조선후기의 문인이다. 중인이라는 신분상의 제약을 많이 받았지만 뛰어난 재주로 인해 김창협(金昌協)·김창흡(金昌翕)·이규명(李奎明)등 사대부들과 절친하게 지냈으며, 임준원(林俊元)·최승태(崔承太)·유홍(庾纘弘)·김충렬(金忠烈)·김부현(金富賢)·최대립(崔大立) 등 중인들과도 시회를 함께 하며 교류하였다. 1675년(숙종 1) 을묘 식년시에 역과(譯科)에 응시, 한학관(漢學官)으로 뽑혀 이문학관(吏文學官)에 제수되었다. 숙종~경종 때에는 장기 목장성을 관할하는 감목관(山監官)을 지낸 분으로 포항(특히 장기, 구룡포)과 관련된 많은 시(詩)를 남겼다.

아래 시들은 그의 문집 《柳下集》에 실린 것을 발췌하여 정리한 《장기고을 장기 사람 이야기》의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아래의 시들 외에도 《柳下集》에는 “목관에서 명월암 가는 도중(自牧館往明月庵途中)”, “가난한 어촌(海村)”, “삼정 어부의 집(三丁漁舍)”, “말 사당 굿(馬堂歌)”, “당 고개에 올라 목장지형을 보다” 등의 시들이 있으나 지면 관계상 실지 않았다.

● 長髻途中(장기로 가는 길에)

與海相終始 바다와 더불어 시종을 같이 하니
 茲行不可窮 이대로 간다면 끝이 없으리라
 眼橫千里外 눈으로 천리 밖을 훑어보는데
 身在九秋中 몸은 가을 속에 있구나
 落日多來鴈 지는 해에 돌아오는 기러기 많고
 微霜半染楓 작은 서리가 단풍을 반이나 물들였네
 詩成輒蕭瑟 시가 완성되자 문득 쓸쓸해지지만
 未必恨西風 꼭 가을바람을 한스러워 할 것은 없겠지.

● 長髻牧館(장기 목관에서)

竟夜風濤洶 밤새도록 부는 바람에 파도가 세차서
 高樓臥似船 높은 누각에 누워 있자니 배를 탄 듯하네
 衆星都在水 뭇 별들 모두 물 속에 있는데
 孤月獨當天 달은 홀로 하늘에 떠 있구나
 地卽龍駒島 땅은 곧 용구도라
 吾今羽化仙 나는 이제 신선이 되려 하네
 不知從此去 모르겠네 여기에서 가야 할 곳을
 空外接何邊 하늘 밖 어느 변방에 닿을는지

● 長鬢場事畢。卽發還。途中作

(장기의 장(場)에서 일이 끝나 돌아오다가 도중에 지었다.)

戒得師尼父 삼가 공자를 스승으로 얻어서
 傾困遂大開 가진 것 다 쏟아 부어 마침내 크게 열었네
 吾心方一快 내 마음은 바야흐로 즐겁지만
 民命實堪哀 백성의 목숨 실로 슬픔을 견딜 수 있으랴
 海闊煩襟濯 바다는 탁 트여 답답한 마음 씻어주고
 天長浩氣來 하늘은 길어 드넓은 기상을 보내오네.
 西風拂高盖 서풍이 높은 수레를 스치니
 又送蔚山廻 또 울산을 보내고 돌아온다.

● 與長鬢倅成叙九夜話

(장기의 수령인 성서구와 밤에 이야기하다)

萬木齊垂地 온갖 나무 나란히 땅에 드리우고
 孤城夜氣昏 외로운 성에 밤기운 어둡구나
 每當留客飲 매번 객을 만류하여 술을 마시니
 多見主人恩 은혜로운 주인의 마음 깊이 알 수 있네
 濟世經綸策 세상을 구제코자 경륜의 계책 내놓고
 傷時慷慨言 시대를 아파하며 강개하게 말을 하네
 相看嗟已老 서로 보면서 탄식하네, 이미 늙어서
 不復志騰騫 날아오르는 뜻 다시는 지닐 수 없음을.

5) 장기에서의 다산문학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선생은 1801년 정월 19일에 터진<책룡사건>, 즉 ‘신유박해’라고도 이름 붙여진 천주교 박해사건으로 장기로 유배되었다.

1801년 3월 9일 장기에 도착한 다산은 마현리 ‘구석(龜石)골’ 늙은 장교(莊校) ‘성선봉(成善封)’ 집에서 기거를 하였다.

다산은 그해 10월 20일까지 7개월 10일(220일) 동안 장기에 머물렀다. 그 기간에 다산은 결코 유배지의 한을 좌절과 절망으로 삭이거나 실패로 끝내지는 아니했다.

인간으로는 가장 불행한 역경을 불굴의 투지와 학문연구, 시작에 전념하여 ‘기성잡시 27수’, ‘장기농가 10장’, ‘古詩 27수’ 등 60제(題) 130여 수에 달하는 주옥같은 시

를 창작했던 것이다. 효종이 죽은 해의 효종의 복상문제로 일어난 서인과 남인의 예론(禮論) 시비를 가린 기해방예변(己亥邦禮辯), 한자 발달사에 관한 저술인 삼창고훈, 한자 자전류인 이아술(爾雅述) 6권, 불쌍한 농어민의 질병치료에 도움을 주는 촌병혹치(村病惑治) 등의 저술도 이곳에서 남겼다.

시와 저서 이외에 장기에서 고향의 아들에게 보낸 3통의 편지가 더 전해진다. 그의 저작 중 가장 빼어난 작품의 하나로 알려진 <기성잡시(鬢城雜詩)> 27수에는 장기에 도착하자마자 그의 눈에 비친 모습들이 그림 그리듯이 선명하게 묘사되어 있다. (원문은 1999년 발행 《포항시사》307쪽 참고)

다산은 처음에는 이처럼 장기의 풍물들을 시로 묘사하다가 차츰 그들의 삶 속에 있는 풍속과 애환을 그리는 데로 나아갔다. 그 속에서 민간의 가난함을 발견하고 가난의 원인이 당시 사회 체제의 구조적인 모순에 기인함을 밝히려 애썼다.

장기에서 이러한 상황을 직접 본 다산은 이곳 사람들의 애환과 관리들의 부패상을 우화적이고 은유적인 시로 표현함으로써 현실적 설득력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대표적인 시가 ‘장기농가(長鬢農歌) 10장(章)’이다.

장기 체류 중 다산은 또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이를 수오재기(守吾齋記)라는 글로 남겼다. 나아가서 자신의 내면에 일어난 회오와 억울함을 여러 시에 드러내기도 하고 정조와 함께 한 지난날들에 대한 끊을 수 없는 그리움에 잠겨 있기도 했다.

그는 장기에서 시와 저술활동만 한 게 아니었다.

실학자답게 어부들이 칙녕쿨을 쪼개 만든 그물로 고기를 놓쳐 버리는 것을 보고 무명과 명주실로 그물을 만들 것을 권고하고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소나무 삶은 물에 그물을 담갔다가 사용할 것을 가르치기도 했다. 다산과 관련하여 장기지역에 전해오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당시만 하여도 고기를 잡는 그물이 칙녕쿨을 쪼개어 그 가닥을 꼬아 만들었기 때문에 여간 비능률적이고 불편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예로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당연히 그물은 그렇겠거니 생각하고 열 마리 중에 두세 마리만 잡아도 놓쳐버린 더 많은 고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터였다. 다산은 어부들을 불러 무명실과 명주실로 그물을 만들 것을 권했고 또 부식방지를 위해서는 소나무 껍질을 삶은 물에 그물을 담갔다가 건조 시킬 것을 가르쳤다. 또 농민들에게는 논밭에 거름을 주는 방법, 조기 모심기의 까닭, 전답 관리방법 등의 농경법을 세세히 알려주니 온 마을에 다산의 명망이 드높았다.

한 사람, 두 사람 다산의 말을 따라 어부들이 새로 그물을 만들어 고기를 잡아보니, 과연 고기가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히는지라. 이 소문은 일시에 퍼져 그 해 장기현의 무명실과 명주실 값이 3~4배 꺾충 뛰었다 한다. 두말할 것도 없이 어

민들이 다투어 그물을 짜려 하니까 미처 원사의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한 까닭이다.

이에 가뜩이나 다산을 미워하고 시기하던 현감은 옳다 꾸나! 하며 나라에 소를 올려 ‘유교의 교리를 어지럽히고 그릇된 언행으로 세상을 어지럽히던 정약용은 이곳에 유배되어 칩거 중에 무명실과 명주실로 그물을 만들어 고기를 잡으라고 어민들을 선동하여 너도나도 그물을 만드니, 원사의 값이 엄청나게 치솟았을 뿐만 아니라 옷을 지어입기에도 부족할 지경입니다. 이것은 실로 사사로이 그물을 만들 것을 가르쳐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게 한 정약용의 죄이오니 이점 헤아려 다른 곳으로 유배지를 옮겨주실 것을 청하옵니다’고 함으로써 더는 실로 그물을 짜지 못하게 조치하였다고 한다.”

다른 한편의 이야기는, “무명실로 그물을 짠다는 소문이 관가에까지 알려지자 현감이라는 자가 턱없는 소리라 하면서 목살시켰다 한다. 이유인즉 백성들이 입을 옷감을 짤 무명도 없는데 어떻게 무명실로 어망을 자겠느냐고 호통을 쳤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오랜 뒤에 일본어민들이 내왕하게 되자 왜인들의 어선에서 사용하던 그물이 무명실로 된 것이어서 그곳 사람들이 모두 다산의 지혜에 탄복하였다 한다.”

이와 같은 일화는 농어민을 계몽시켜 민생을 안정시키려는 선구적인 다산의 노력이 전근대적인 중세사상에 젖어있는 무지한 관리들에게 수용되지 못하고 배척된 예라 하겠다.

1801년 10월 20일 ‘황사영백서사건’으로 갑자기 들이닥친 금부도사에 의해 체포되어 다산은 한양으로 압송되었다. 그해(신유년) 봄 옥사에 붙잡히지 않고 제천의 ‘배론’ 땅굴에 숨어있던 황사영이 그해 9월 29일 체포되면서 이른바 동옥(冬獄)이라는 옥사가 다시 일어나고, 이제는 죽이고야 말겠다고 말했던 벽파들의 역센 주장 때문에 다산은 다시 국청에서 국문을 받는 고초를 겪어야만 했다. 그러한 과정에서 ‘기해방례변’, ‘이아술’ 등의 저서까지 분실되고 말았으니 당시의 급박한 상황을 짐작할 만도 하다.

그러나 다산 형제를 죽이려던 벽파의 뜻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다시 투옥됐다가 강진으로 유배가 결정되면서 장기와의 인연은 끝이 났지만, 그가 장기에서 남긴 130수나 되는 시는 여전히 장기의 정신적 ‘유적’으로 남아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한 향기를 품어내고 있다.

6) 장심학의 사시풍경가(四時風景歌)

장심학(張心學, 1804~1865)의 자(字)는 재중(在中), 호(號)는 강해(江海), 본관(本貫)은 인동(仁同)인데, 영일 흥해에서 거주하였다.

선생은 일찍이 과거에 몇 번 응했으나 不利하였으며, 1850년 향인(鄉人)들이 감사(監使)에게 천(薦)하되 “충효세가 문학통유(忠孝世家 文學通儒)”라 할 정도였다.

홍부원군(洪府院君) 재룡(在龍)이 영천현감(永川縣監)으로 와서 선생을 만나 기뻐하며 내직(內職)으로 들어갈 때 홍공(洪公)의 요청에 의해 동행 상경하니 성내(城內)의 향대부(鄕大夫)들이 모두 상종(相從)하기를 원하여 판서 홍응중(洪應鍾), 판서 이교익(李喬翼), 보국 이풍익(李風翼), 판서 임금수(林肯洙), 참의 이만용(李晩容) 등 거경(巨卿)과 산정수사(山亭水榭)에서 여러 번 수창(酬唱)하였다. 홍재철(洪在喆), 김학성(金學性) 등은 교우가 되자 하며 그 자질(子姪)의 교육을 맡겼다. 수학한 중에서 홍종현(洪鍾軒), 김규홍(金奎弘) 같은 문사와 거경(巨卿)이 있다. 49세에 무과에 급제하고, 오위장(五衛將), 총융장(摠戎將), 동부승지(同副承旨)를 거쳐 1862년 통천부사(通天府使)에 제수되었다. 그는 포항 지역의 사계절 풍경을 적은 가사문학 사시풍경가(四時風景歌)를 지어 내전에 주상(奏上)하였는데 왕이 명(命)하여 악부(樂府)에 올리고 악사에게 명하여 노래토록 하였다. 1863년에 삼정책(三政策)을 제진(製進)하니 왕이 가상히 여겨 특히 삼휘운책(三彙韻冊)을 하사하였다.

그가 지은 <사시풍경가>는 이 지역에서 전하는 유일한 양반 가사로 춘하추동 4계절의 풍경과 세시풍속을 노래하였다.(원문은 지면상 생략함).

7) 전래 가사 및 민요

(1) 가사

조선조 시가문학의 주류를 이룬 시조와 쌍벽이 된 가사는 성종대에 나타난 특수한 성격의 시가다. 형태(장르)로는 4·4조(調) 내지는 3·4조의 운문이고, 내용상으로는 서정적인 면과 서사적인 면의 산문성을 지니고 있다.

발생은 고려 장형가(長型歌)인 경기체가(景幾體歌)에서 발전한 것으로 보이며, 그 특징은 분장(分章)과 후렴이 없는 장형시가이나 종구(終句)는 시조의 종장 음수율인 3·5·4·3을 취하고 있다.

내용면에서는 초기의 작품은 주로 사대부들의 사상 감정 즉, 연군지정(戀君之情)과 풍류한정(風流閑情)을 노래하였고, 임진란을 겪고 난 이후의 후기 작품은 평민계층으로 넘어와 서민들의 생활 잡거나 부녀자들의 규방(閨房)의 애환을 그린 것이 많다. 특히 영남지방의 부녀자들이 지어 향음한 규방가사는 조선조 후기에 성행하였다.

영일권에 전하여 내려오는 가사는 대체로 후기작품에 해당되며, 특히 기록문학보다는 구전되어 왔다. 작가도 확실히 밝혀지지 않으며, 계층적으로는 서민 내지는 부녀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현재 전래되는 작품으로는 시골여자·관해록·어마님 생각하는 소리라·형제원별곡·사시풍경가·춘양가·화전가(花煎歌)·효성계녀사·우미인가 등이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작가는 주로 부녀자계층인데, 서민들의 연정 및 신세를 한탄하는 내용을 진솔하게 표현하였다. 시대적으로는 거의 갑오경장 이후에 지어진 것 같다.

작품별로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시골여자

춘삼월 호시절에 시집살이의 설움과 남편의 무관심을 한탄하였다. 인간 본성에서 우러나는 욕구를 숨김없이 표현한 대표적인 규방가사로 규방의 한을 솔직하게 표현한 작품이다. 동해안 지역에서 노래처럼 불린 것으로 추정된다.

② 관해록

곱게 자라 명문거족에 시집간 후 좋은 날에 바닷가에 뱃놀이 가서 즐거웠던 것을 풍경묘사와 함께 노래하였다. 특이한 것은 한탄조의 규방가사의 내용을 벗어나 규방을 나와 바닷가에서 경치 좋은 풍경을 감상하면서 여자도 당당히 삶을 향유 하면서 살 권리가 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이다. 월송정·망향정 등의 지명으로 보아 영덕지방의 노래라 할 수 있으나 동해안 일원에 널리 분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어마님 생각하는 소리라

삼 남매를 두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는 애절한 내용이다. 형태상으로는 음수율이 잘 지켜지지 않은 산문형이다. 영일군 기계면 현내동의 이필경 여인(시가는 오덕동)의 집안에 전해오는 가사이다.

④ 형제원별곡

일제의 수탈·압제에 시달리며 형제간 이별의 한을 노래한 것으로 정묘년 5월에 썼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800년대의 작품이다. 이는 신광면과 기계면에 전래 되는 규방가사이다.

⑤ 춘양가

일찍 시집온 춘양이가 남편을 여의고 고부간에 서로 신세를 한탄한 전형적인 규방가사로 동해안에 전래 되고 있다.

⑥ 화전가

화전은 여인네들의 야유회로 출입이 제한된 당시 여인들의 유일한 외출 방법으로 화전을 마치고 적은 것이다.

그 내용은 대체로 여자의 출생과 출가 후의 도리, 세시풍속, 화전놀이 계획, 화전을 먹는 광경, 유교이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을 기약하면서 돌아오는 장면 등의 순으로 쓰여 있다.

⑦ 효성계년사

시집가는 딸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딸이 경계하고 지켜야 할 사항 등을 가사체로 적어준 것이다. 내용은 우애·경장·봉제사·접빈객·수신제가·언어·남녀유별 등으로 되어 있다. 본 가사는 포항 해도동에서 발굴되었다.

⑧ 우미인가

초나라 항우의 애인 우미인의 출생, 아름다움, 절개를 예찬하여 이를 여인들이 본받도록 하는 교훈가사로 동해안 지역에 전해 오고 있다.

(2) 민요

한 민족 안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여 온 백성이 즐겨 부르는 노래가 민요이다. 이는 민족공통의 서민적인 희망·종교·연애 및 생활감정 등이 그 민족이 좋아하는 리듬으로 짧은 형식 안에 소박한 말로 표현되어 있다.

작자는 모르는 대신 여러 사람의 입으로 구전되어 개작되고 세련되어 그 민족의 혼이 살아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영일지역의 민요는 대개 생활환경이 농경과 어업이므로 농부가와 어부가가 주류를 이룬다. (현재 전하는 민요는 현대편 민속조 참고)

5. 조선의 범종

1) 서운암 종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보경사 서운암에 있는 조선시대 동종(보물 제 11-1호 1구)이다.

보경사 서운암 동종은 조선 현종·숙종 때 승려 사인비구(思印比丘) (현종~숙종 연간)가 만든 종이다. 사인비구는 17~18세기 뛰어난 장인으로 전통적인 신라종의 제조 기법에 독창성을 합친 종을 만들었다 사인 비구가 만든 범종은 8구가 남아 있는데 일괄하여 보물 제11호로 지정되어 있다. 각기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인다.

보물 제11-1호인 서운암 동종은 포항시 북구 송라면 종산리 보경사 서운암에 있으며 조선 현종 8년(1667년)에 제작 되었다.

이 범종은 높이 543mm, 지름 450mm, 두께는 45mm이다. 용뉴는 둥근 고리 모양이며 입상대에는 40개의 연꽃입을 세워 만든 띠이다. 각 앞마다 인물상을 안치 하였다.

상대는 인화 보상화문을 정교하게 돌을새김을 하였으며 하대는 간략한 형태의 당초문을 장식하였다. 상대에는 네모난 모양의 유곽을 4곳에 설치하였으며 유곽띠의 문양은 당초문이다. 곱이 상대에 붙어 있지 않고 아래로 조금 내려와 독립되어 있다.

곽 내부에는 8엽 연화문 꽃받침을 5개 배치하고 그 위에 각각 얇은 돌을 꼭지를 두었다. 유곽과 유곽 사이에는 2중원의 돌을새김을 2개씩 배치하고 범어로 된 “8자 대명 왕진언”을 양주로 안치 하였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인인비구가 주성한 종 가운데 조성연대가 가장 앞선 것으로, 비록 종의 규모는 작지만 사인비구의 초기 종 연구에 사료적인 가치가 있다.

이 종의 원사는 반룡사이다.

6. 글씨·그림

1) ‘진경산수’의 고향 청하

청하는 ‘진경산수’라는 우리 고유의 그림양식이 완성된 진경산수의 고향이다. 진경산수란 조선시대에 중국의 화풍에서 벗어나 우리 산천의 멋과 아름다움을 직접 사생하여, 현실을 통한 주자학적 자연관과 풍류를 표현한 한국적 산수화풍이다. 이러한 진경산수를 창시한 분이 바로 겸재 정선이다.

겸재는 청하현감 재임시절인 1733년 우리 지역의 경승지인 내연산에 올라 ‘내연산삼용추’를 그렸다. 굵고 힘찬 적묵법과 강한 흑백의 대비, 과장과 생략, 그 중에서도 겸재 특유의 도끼로 찍은 듯한 강렬한 필법이 ‘내연산삼용추’에서 처음으로 나타난다. 이런 의미에서 청하는 우리나라 회화사의 자랑거리인 겸재의 진경산수화풍이 만개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듬해인 1734년 겨울 겸재는 청하에서 그의 생애 최고의 역작인 ‘금강전도’를 그린다. ‘내연산삼용추’에서 처음 나타난 진경산수화풍의 장점들이 ‘금강전도’에서 한껏 펼쳐진다. 청하에서 그린 ‘금강전도’는 이제까지 그의 금강산 그림과는 아주 달랐다. 36세때의 ‘신묘년 풍악도첩’은 반(半) 지도식 성격으로 필력이 어리고, 50대에 그린 고려대 박물관 소장 ‘금강전도’는 필치는 원숙하지만 구도에서는 박진감이 덜하다. 그런데 청하의 ‘금강전도’에서는 금강산의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변형과 과장, 필법

의 강약, 광선의 대비와 부감법(俯瞰法, bird's-eye-view)을 맘껏 구사하여 보는 이의 눈과 가슴을 압도하는 드라마틱한 장면을 연출한다. 이전의 금강산 그림들이 대상의 충실한 묘사에 있었다면 청하의 ‘금강전도’에 이르러서는 사실(寫實)에서 사의(寫意)로 대전환을 이룬다.

일세의 명작을 청하에서 남긴 겸재는, 현감의 임기를 오래 채우지 못하고 불과 2년 만에 노모 밀양 박씨의 임종으로 벼슬을 버리고 이곳을 떠나게 되었다. 필력이 한창 무르익은 겸재였지만, 3년 상을 치르는 동안 그림을 자제한 듯 이 시기의 작품은 보이지 않는다. 청하 현감시절 겸재의 작품활동은 매우 의욕적으로 왕성했다.

‘내연산 폭포도’와 영남 일대의 58곳의 명승고적을 담은 교남명승첩(嶠南名勝帖)을 비롯하여 ‘내연산삼용추’, ‘청하성읍도’, ‘금강전도’와 같은 불후의 명작들을 남겼다. 지금도 내연골에는 갑인년 가을 정선이 다녀갔다는 ‘갑인추정선(甲寅秋鄭愼)’이라는 탐승기념 각자와 그 당시 겸재가 그린 소나무로 추정되는 겸재송이 남아 있다.

2) 숙종대왕친필각판(동산문화재등록 제3382호)

내연산 보경사에 숙종의 친필이 있는데 각판으로 조각하였다. 관광객이 요청하면 볼 수 있다. 어느 시대 어느 해에 친필(親筆)을 조각하였는지 기록도 없고 전설도 없다. 고려 때의 숙종인지 조선 때의 숙종인지 승려에게 물어도 승려도 모른다. 숙종의 친필이라고 승려는 자못 자신 있게 말한다. 고려 숙종은 제15대 왕으로 1096년에 즉위하여 1105년까지 10년간 재위한 왕이고, 조선 숙종은 1675년에 즉위하여 1720년까지 46년간 재위한 왕이다. 기록 중에 조선 숙종 조와 고려 숙종 조에 청하현 보경사에 행차한 기록이 없다.

| | |
|-------|-----------------|
| 春眠不覺曉 | 봄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는데 |
| 處處聞啼鳥 | 곳곳에 새 소리가 들려오네 |
| 夜來風雨聲 | 밤에 바람 불고 비가 내리니 |
| 花落只多少 | 다만 꽃이 얼마나 떨어졌나 |

후세의 보경사 승려들이 하루 밤을 묵은 왕의 덕을 추모하기 위하여 필적을 조각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참고문헌

이상보, 《개고박노계연구》, 일지사, 1962.

송재소역주, 《江海集》, 《다산시선》, 창작과 비평사, 1981.

金英培·姜景勳 外, 《韓山李氏苦行錄의 語文學的 研究》, 태학사, 1999.

이민홍, <우암(尤菴)의 장기(長鬢) 유배생활(流配生活) 실상(實相)과 저작활동(著作活動)>《한국한문학연구》 제27집, 2001.

이상준, 《장기고을 장기사람 이야기》, 영진기획사, 2006.

이민홍, 《한문화의 원류》, 제이엔시, 2008.